

##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연수현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19-08

#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연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연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오유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효선 (서울예술대학 교수)

유지연 (국립창원대학 교수)









## 서 문

---

최근 정책 과정에 대한 신뢰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증거기반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결정자들은 각종 통계데이터, 연구, 평가 결과 등을 활용한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정책에서 문화지표는 정책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삶을 풍부하게 확장시켜주는 국가의 문화적 수준까지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문화지표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편입니다. 표준화된 종합적 지표체계보다는 분야·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문화적 환경과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문화지표는 매우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문화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국가들이 개발·활용하고 있는 문화지표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비교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국제 사회·환경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문화지표를 발굴하고, 문화지표의 국제비교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대 관

---







정책연구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1. 머리말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지표 국제비교 가능 지표가 한정적이며,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와의 비교할 수 있는 문화관련 국제비교지표는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예술관람률, 일평균여가시간비율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문화 수준의 향상 및 문화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활용되고 있는 국제 문화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국가들이 설계하고 활용하고 있는 문화지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
-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문화지표 개발과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과 주요국가의 문화지표를 비교하고자 함
- 문화지표의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문화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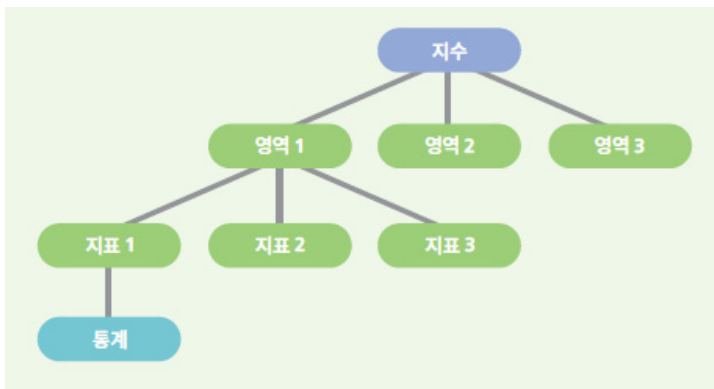
- (대상범위) 문화관련 예산, 지출, 종사자/인력, 산업 및 시장, 교육, 인프라 등으로 UNESCO의 통계연구소, OECD의 통계국에서 조사하거나 수집하여 공표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함
- (공간범위) 미주(미국, 캐나다), 아시아(일본, 중국, 한국), 유럽(네덜란드, 프랑스), 국제기구(UNESCO, EU)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시간범위) 통계데이터 중 가장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자료에 한하여 단년도 분석을 우선으로 하며, 추이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다년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함
- (내용범위) 국제적 문화지표의 개념과 활용, 국가별 문화지표분석, 한국과 주요국의 문화지표비교, 제언 등으로 구성함



## 2. 국제 문화지표 개념과 활용

### 가. 지표의 개념과 활용

- (지표와 지표체계) 지표(indicator)는 측정 대상(주로 사회경제적 현상)의 상태나 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자 측정도구를 의미하며, 측정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고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여러 가지의 지표들로 하나의 구성 체계 또는 그 체계를 나타내는 표를 지표 체계(indicator system)라고 함
- (지수) 지수(index)는 기준 시점을 정하고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종합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복수의 지표들을 요약하고 서열을 매겨, 개별 지표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측정 대상의 일반적인 차원을 대표하고자 할 때 사용함



[지수 구성 체계]

- (문화지표) 문화지표는 측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개념의 광의성과 문화의 수준, 변화,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견해가 존재하나,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 삶의 전반에서 문화를 정의하기보다 심미적 활동과 체험에 국한하여 문화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표를 이해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 나. 국제 문화지표체계의 발전

- (1986 UNESCO FCS) UNESCO는 국가별 혹은 국제적으로 문화통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FCS를 개발하였고, 1986년에 처음으로 발표함
  - 11개로 문화 활동 범주(0. 문화유산, 1. 인쇄물과 문학, 2. 음악, 3. 공연예술, 4. 시각예술, 5. 영화와 사진, 6. 라디오와 텔레비전, 7. 사회문화적 활동 등, 8. 스포츠와 게임들, 9. 자연과 환경, 10,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를 정의하였음
  - 창작/생산, 전파/보급, 수용/소비, 보존/등록, 참여 등 5개의 기능으로 구분함
- (2009 UNESCO FCS) UNESCO는 IT산업의 발전, 글로벌화, 문화의 산업화 등으로 문화의 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FCS 개정판을 2009년에 발표함
  - 국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영역을 재구성하면서, 문화부문의 통계지표가 국가계정체계(SNA)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기준 안에서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등을 정립함
  - 6개로 문화 활동 범주(‘문화/자연유산’, ‘공연 및 기념행사’, ‘시각 예술 및 공예’, ‘서적 및 인쇄물’, ‘시청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를 정의하였음
  - 창작 → 생산 → 보급 → 전시/수용/전달 → 소비/참여의 문화 순환 모델로 수정

## 다. 국제 문화위성계정의 개발

- OECD를 주축으로 문화위성계정 개발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UNESCO의 FCS와 유럽의 LEG-Culture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화 부문 국제 비교 체계를 만들고자 시도함



- 문화위성계정의 체계 구축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문화정책과 산업의 주요이슈 파악에 필요한 통계적인 추적시스템을 개발함
  -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정의에 대한 표준화 및 통일이 필요함
  - 문화자료와 정부통계와의 조정 및 상호관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문화영역 내의 각 부문 간에 대한 인식과 상호교류에 대한 관찰 및 자료의 수집과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 심각한 문화관련 자료 간의 불일치 지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UIS의 문화위성계정은 기본적으로 2009 UNESCO FCS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세우고, 비교 가능한 통계 구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문화 부문의 지표를 개발하고 분석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음

## 라. 국제기구 문화지표

- (OECD 문화지표) 문화에 관한 OECD 지표는 삶의 질 지표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에 대한 가계 및 정부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OECD 국민계정통계, 교육통계 등에서 문화관련 지표를 추출하여 한국과 주요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함
  - 중앙 정부 지출, 일반 정부(전체 정부) 지출, 문화예술관련 전공자 현황, 여가시간 등을 분석함
- (UNESCO 문화지표) UNESCO UIS는 교육/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문화/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등 다양한 테마로 국제 비교 가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고용(전체 종사자 현황, 종사자 교육수준, 여성종사자 현황),



영화산업(영화제작에 사용되는 주요언어와 제작편수, 극장매출수익, 전체 상영관 수), 국제 문화상품 교역(문화상품, 국제수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마. 국제 문화지표 활용과 응용

- (UNESCO CDIS) UNESCO의 문화발전지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화가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고자 개발하였음
  -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가 겪고 있는 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을 도와주는가를 실증하고,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문화의 위상을 재확인시킴으로써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자 함
  -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부(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부함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음
  - 7개 차원과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UNESCO의 CDIS 지표 구성〉

차원	지표	차원	지표
경제	1) GDP 대비 문화 활동	사회적 참여	1) 외부 문화 활동 참여
	2) 문화 분야 고용		2) 정체성 개발을 위한 문화 활동 참여
	3) 문화에 대한 가계 지출		3) 타문화에 대한 관용
교육	1) 포용적 교육		4) 상호간 신뢰
	2) 다중언어 교육		5)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유
	3) 예술 교육	성평등	1) 성 평등에 관한 객관적 결과
	4) 문화 분야의 전문적 훈련		2) 성 평등에 관한 인식
거버넌스	1) 문화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커뮤니케이션	1) 표현의 자유
	2) 문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		2) 인터넷 접속과 사용
	3) 문화 인프라 분포		3) 공영 방송의 픽션 콘텐츠 다양성
	4) 문화 거버넌스에 시민사회 참여	문화유산	1) 문화유산의 지속성



- (EU IFCD) 유럽연합의 문화민주주의지표는 문화와 민주주의를 두 축으로 하여 상호간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지표체계임
  - 최근 문화정책 영역이 시민 참여와 바텀업방식으로 변화하고,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 문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개발됨
  - 개발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와 민주주의를 각 4개 차원으로 나누어 요소와 하위지표를 구성함
    - ① 정책입안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제공
    - ② 정책입안자가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각국의 위상 확인,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
    - ③ 유럽의회 발간 각종 보고서 및 국제기구 이니셔티브 등에 활용

#### 〈EU의 IFCD 지표 구성〉

문화		민주주의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시민	1. 문화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술적 표현과 창작</li> <li>2) 해외 문화에의 관심</li> <li>3) 공평한 참여</li> <li>4) 온라인 창의성</li> <li>5) 온라인 문화 참여</li> <li>6) 수동적 문화 참여</li> <li>7) 예술분야 학생</li> </ul>	시민	1. 정치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도화된 참여</li> <li>2) 비제도화된 참여</li> </ul>
정책	1. 문화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 기금의 입법화</li> <li>2) 문화에 대한 직접 기금조달</li> </ul> 2. 문화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다양성의 지원과 증진</li> </ul> 3.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술교육</li> <li>2) 이종문화간의 교육</li> </ul>	정책	1. 정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적 역량</li> <li>2) 중앙은행의 독립성</li> <li>3)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li> <li>4) 정치적 독립성</li> </ul> 2. 정치적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치적 경쟁력</li> <li>2) 정당 재정</li> <li>3) 논쟁과 경쟁에 대한 원칙</li> </ul>



문화		민주주의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3. 안전장치/견제/균형 1)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 2) 위헌 법률 심사권 4. 투명성 1) 부패 부재 2) 정보 개방성
경제	1. 문화산업 1) 문화산업 결과물 2) 무형 자산 3) 문화산업 규모 2. 문화 인프라 1) 문화 인프라 규모	법규	1. 법 앞의 평등 1) 사법권의 공정성 2) 사법권의 독립 2. 사법 체계 수준 1)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2) 사법 효율성과 전문성
자유와 평등	1. 문화적 접근성과 대표성 1) 문화적 장소와 이벤트에 대한 접근성 2) 평등에 대한 공적 기준	자유와 평등	1. 개인의 자유 1)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 2) 결사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2. 개인의 자유 1) 자유 행동 2) 안전과 신체적 온전함 3. 정치적 대변 1) 참여의 평등성

### 3. 국가별 문화지표 분석

- 미주(캐나다, 미국), 아시아(일본, 중국), 유럽(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구분하여 총 6개국의 주요 문화지표를 분석하였음
  -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UNESCO의 문화위성계정 체계 구축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으며, 문화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의 경우 정책성과를 위한 문화지표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으며, 개별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지표를 통합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국가별 문화지표 종합〉

구 분	문화지표체계	주요 특징	특이 지표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주도</li> <li>- FCS/CSA를 수용하여, CFCS/CCSA 개발 적용</li> <li>-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시경제 지표 및 계정을 적용 활용</li> <li>- 문화위성계정, 스포츠위성계정 함께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GDP, 문화산업GDP</li> <li>- 인터랙티브미디어 관련 지표 포함</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A, ATFA등 문화예술기관 주도</li> <li>- ACPSA 개발 및 활용 (경제분석부와 협업)</li> <li>- 문화예술지수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 디지털미디어도 추가 지표개발에 포함</li> <li>- TSA(관광위성계정)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기관 연말흑자율/예술사업의 자산수익률</li> <li>- 기업후원 중 문화예술 분야 점유율</li> <li>- SAT시험응시 관련 지표 (4년간 예술교육을 받은 SAT시험응시자 평균 점수 등)</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지표체계, 지수 없음</li> <li>- 정책계획에 따른 종합 문화지표 제안 구성 중 (범부처 통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와 전략에 따른 지표 구성에 중복이 많음</li> <li>- UNESCO CSA도입 논의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참가율의 세분화 지표(어린이,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등)</li> <li>- 극장, 콘서트홀의 다언어화 대응률</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통합</li> <li>- 최초로 문화발전지표 발표</li> <li>- 통합적 문화지표체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성과지표로서 활용</li> <li>- 지역간 격차 완화, 대외 교류에 중점</li> <li>-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등의 지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출국 공연인, 문화교류인 수</li> <li>- 대외 공연, 문화교류 횟수</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 기관이 개발관리</li> <li>- 문화예술지수 개발</li> <li>- 장단기 지수 변화 추적 관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음</li> <li>- 문화예술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향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자원봉사자 수</li> <li>- 악기, 뮤지컬 등 연습시간</li> <li>- 등록, 보호되는 도시 마을 수</li> <li>- KunstKoop 계약 전체금액</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의 통계과 주도</li> <li>- 문화관련 지표 집대성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영역(문화유산, 박물관, 건축물) 중심</li> <li>- 문화지표에서 신기술과 뉴미디어와의 접점을 고민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계 직업별 여성의 비중</li> <li>-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온라인 문화상품 소비</li> </ul>



- 네덜란드의 경우 문화지수(Culture Index)를 활용하여 중장기적 추이와 지역별 비교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문화 관련 지표를 집대성하는 노력과 함께 여성관련 지표가 두드러짐

#### 4. 한국의 주요 문화지표와 국가 간 비교

- (한국의 주요 문화지표 선정)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통계지표에서 국내의 주요 문화지표를 분류하여 중첩성 분석을 통해 최종 한국 주요 문화지표를 확정함
  - 국내 주요 통계지표는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e-나라지표 중 문화관련 지표를 활용하였음
  - 한국 주요 문화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중첩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장 포괄적인 지표범위 유지를 위해 총 40개로 주요 문화지표를 선정하였음
- (한국과 외국의 주요 문화지표 비교) 한국 주요 문화지표를 5개의 비교국가 지표의 영역 구성 및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모형을 적용하여 2차 비교를 실시하였음
  - 정부의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과 가계 혹은 개인이 지출하고 있는 문화소비, 문화관련 시설 수, 참여율 등은 공통적으로 지표에 포함되어 있었음
  - 국가별로 특이 지표를 찾아내어 한국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함
  - 공통적으로 산출지표와 문화 활동을 통해 청중 또는 관객들과 지식과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권리를 교환하는 경험을 하는 '전시/전달' 지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모형 분석 결과〉

	투입·활동	산출	결과	전체	투입·활동	산출	결과	전체
	일본				중국			
창작	0.05	0.02	0.00	0.07	0.19	0.05	0.00	0.23
생산	0.09	0.26	0.02	0.37	0.47	0.09	0.00	0.56
보급	0.05	0.19	0.00	0.23	0.21	0.07	0.00	0.28
전시/전달	0.15	0.56	0.16	0.87	0.51	0.30	0.00	0.81
소비/참여	0.08	0.40	0.07	0.54	0.05	0.40	0.00	0.44
전체	0.41	1.42	0.26		1.42	0.91	0.00	
	네덜란드				프랑스			
창작	0.15	0.28	0.01	0.44	0.11	0.22	0.02	0.36
생산	0.16	0.32	0.00	0.48	0.19	0.26	0.02	0.47
보급	0.17	0.38	0.00	0.55	0.11	0.22	0.02	0.36
전시/전달	0.27	0.59	0.00	0.86	0.33	0.52	0.07	0.92
소비/참여	0.13	0.42	0.00	0.55	0.11	0.30	0.07	0.48
전체	0.88	1.99	0.01		0.85	1.52	0.21	
	미국				한국			
창작	0.14	0.21	0.01	0.36	0.10	0.03	0.00	0.13
생산	0.19	0.27	0.01	0.47	0.13	0.10	0.00	0.23
보급	0.15	0.25	0.01	0.41	0.05	0.15	0.00	0.20
전시/전달	0.19	0.56	0.05	0.79	0.25	0.33	0.00	0.58
소비/참여	0.19	0.46	0.01	0.65	0.08	0.45	0.08	0.60
전체	0.84	1.74	0.10		0.60	1.05	0.08	

## 5. 맺음말

### 가. 문화지표 분석 시사점

- (국제 비교를 위한 문화지표 구성과 한계) 국제 비교를 위한 문화지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 간 경쟁 우위를 결정하고 서열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 간 문화 분야에서의 역동성을 이끌고,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활용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

- (국가별 문화지표 특징 이해와 환경변화에의 대응) 전통적인 체계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지표적 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적 흐름을 지표로 포착하기 위한 다원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통합적 문화지표 프레임워크 작업 필요성) 문화 분야 다양성 관점에서의 종사자와 향유자 현황 및 자원봉사나 기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지표발굴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설계를 위하여 통합적 문화지표 프레임 워크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나. 한국의 문화지표 구성을 위한 제언

- (문화지표 분류체계 개편 및 조정) 국제적 문화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통계 생산 및 활용 방안 마련) 문화지표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표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 혹은 지표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함
- (문화위성계정 구축 및 대표지표 설계) 국민계정과 연계하면서 특정 주제인 ‘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위성계정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여러 채널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통계조사 및 지표 등을 표준화하는 지수화 과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새로운 정책영역별 문화지표 개발) 사회 변화에 따라 체계 구성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지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영역별 문화지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7

**제2장 국제 문화지표 개념과 활용**

제1절 지표 개념 및 체계 .....	11
1. 지표의 개념과 활용 .....	11
2. 국제 문화지표체계의 발전 .....	18
3. 국제 문화위성계정의 개발 .....	28
제2절 국제기구 문화지표 .....	33
1. OECD 문화지표 .....	33
2. UNESCO 문화지표 .....	41
제3절 국제 문화지표 활용과 응용 .....	53
1. UNESCO의 문화발전지표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이하 CDIS) .....	53
2. 유럽연합의 문화민주주의지표(Indicator Framework on Culture and Democracy, 이하 IFCD) .....	67

**제3장 국가별 문화지표 분석**

제1절 미 주 .....	87
1. 캐나다 .....	87
2. 미국 .....	96
제2절 아시아 .....	120
1. 일본 .....	120
2. 중국 .....	135



제3절 유 럽 .....	164
1. 네덜란드 .....	164
2. 프랑스 .....	184

## 제4장 한국의 주요 문화지표와 국가별 문화지표 비교

제1절 한국의 주요 문화지표 .....	209
1. 한국 주요 문화지표 선정 및 분류 .....	209
2. 한국 주요 문화지표 중첩성 분석 및 대표지표 선정 .....	215
제2절 한국과 외국의 주요 문화지표 비교 .....	219
1. 문화지표 영역 구성 및 내용 비교 .....	219
2.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모형 적용 비교 .....	223

## 제5장 맺음말

제1절 문화지표 분석 시사점 .....	231
1. 국제 비교를 위한 문화지표 구성과 한계 .....	231
2. 국가별 문화지표 특징 이해와 환경변화에의 대응 .....	234
3. 통합적 문화지표 프레임워크 작업 필요성 .....	237
제2절 한국의 문화지표 구성을 위한 제언 .....	238
1. 문화지표 분류체계 개편 및 조정 .....	238
2. 문화통계 생산 및 활용 방안 마련 .....	239
3. 문화위성계정 구축 및 활용 .....	240
4. 새로운 정책영역별 문화지표 검토 및 개발 .....	241

참고문헌 .....	242
------------	-----

ABSTRACT .....	249
----------------	-----

부 록 .....	253
-----------	-----



## 표 목차

〈표 2-1〉 한국 문화지표관련 연구 .....	15
〈표 2-2〉 문화 분야 국가승인통계 .....	15
〈표 2-3〉 문화 분야 법률의 ‘조사연구’ 규정 비교 .....	16
〈표 2-4〉 1986 UNESCO FCS .....	19
〈표 2-5〉 2009 UNESCO FCS 문화부문 통계지표를 위한 국제분류체계 .....	21
〈표 2-6〉 문화통계지표체계 간 문화 범주 비교 .....	27
〈표 2-7〉 CSA 문화 정의 .....	30
〈표 2-8〉 CSA 구축 진행 계획 .....	32
〈표 2-9〉 UNESCO UIS 통계 지표 활용 사례 .....	41
〈표 2-10〉 UNESCO UIS 문화관련 통계데이터 현황 .....	42
〈표 2-11〉 UNESCO의 CDIS 구성 .....	57
〈표 2-12〉 경제 차원 지표 내용 .....	58
〈표 2-13〉 교육 차원 지표 내용 .....	59
〈표 2-14〉 거버넌스 차원 지표 내용 .....	60
〈표 2-15〉 사회적 참여 차원 지표 내용 .....	61
〈표 2-16〉 성 평등 차원 지표 내용 .....	63
〈표 2-17〉 커뮤니케이션 차원 지표 내용 .....	63
〈표 2-18〉 문화유산 차원 지표 내용 .....	64
〈표 2-19〉 IFCD 구성 요소 .....	71
〈표 3-1〉 CCSA, CFCS 및 CSNA 개발 관계도 .....	88
〈표 3-2〉 상품 및 산업 관점에서 본 주요 분석 (Highlights from product & industry perspectives) .....	92
〈표 3-3〉 문화상품 및 산업적 측면에서 본 각 지표별 수치, 2010 .....	93
〈표 3-4〉 스포츠상품 및 산업적 측면에서 본 각 지표별 수치, 2010 .....	95
〈표 3-5〉 미국 문화지표 관련 현황 .....	96
〈표 3-6〉 미국 ACPSA 연구 방법론 .....	98
〈표 3-7〉 각 문화지표 연구 별 주요 분석 .....	101
〈표 3-8〉 국가문화예술지수 4개 지수에 대한 핵심 지표 및 지표별 수치 .....	103
〈표 3-9〉 경제규모 및 구조분석 측정의 기본 모델 .....	123



〈표 3-10〉 문화 GDP 산출 과정	124
〈표 3-11〉 문화 GDP 산출결과(2016년 기준)	124
〈표 3-12〉 전략1: 문화예술 창조·발전·계승과 문화예술교육 강화	127
〈표 3-13〉 전략2: 문화예술 효과적인 투자와 이노베이션 실현	128
〈표 3-14〉 전략3: 국제문화교류·협력 추진과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브랜딩 추진에 공헌	130
〈표 3-15〉 전략4: 다양한 가치관 형성과 포섭적인 환경 추진으로 사회적가치 양성	132
〈표 3-16〉 전략5: 다양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재 확보·육성	134
〈표 3-17〉 전략6: 지역 연계·협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형성	134
〈표 3-18〉 중국 문화발전지표체계	138
〈표 3-19〉 중국 31개 성급별 문화투입 통계 (2016년)	139
〈표 3-20〉 도시 및 지역 분포에 따른 전국 문화사업비 총량 현황	145
〈표 3-21〉 최근 중국문화단위 기구 수 발전변화 상황	149
〈표 3-22〉 전국 문화예술공연단체 기본상황 (2012~2016년)	150
〈표 3-23〉 2016년 전국문화시장 경영 단위 지역발전 주요지표	151
〈표 3-24〉 최근 전국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발행 상황	158
〈표 3-25〉 최근 전국 방송 텔레비전 종합 인구 점유 상황	161
〈표 3-26〉 최근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소비와 문화소비상황	163
〈표 3-27〉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4개 테마에 대한 핵심 지표 및 지수	168
〈표 3-28〉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4개 테마에 대한 핵심 지표의 장단기 변화 평가	169
〈표 3-29〉 문화 분야 창출 부가가치, 전체 경제 중 문화 영역 차지 비율 (2000~2017년)	187
〈표 3-30〉 문화부 예산, 2017~2019년	188
〈표 3-31〉 문화부 이외 정부 부처들의 문화 관련 예산, 2017~2019년	189
〈표 3-32〉 문화상품의 해외 교류, 2017년	191
〈표 3-33〉 문화계의 직종과 분야별 연소득, 2005~2012년	195
〈표 3-34〉 15세 이상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실천 추이, 1973~2008년	200
〈표 3-35〉 10대 국가 지정 기념물의 방문객 숫자, 2018년	204
〈표 3-36〉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온라인 문화 상품 소비, 2017~2018년	206



〈표 4-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중 문화지표 .....	210
〈표 4-2〉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문화지표 .....	211
〈표 4-3〉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중 문화지표 .....	212
〈표 4-4〉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중 문화지표 .....	213
〈표 4-5〉 ‘e-나라지표’ 중 문화지표 .....	215
〈표 4-6〉 문화주요지표 중첩성 분석 .....	216
〈표 4-7〉 국내 대표 문화지표 .....	218
〈표 4-8〉 지표 비교 분석 프레임 .....	219
〈표 4-9〉 문화지표 비교 분석 .....	220
〈표 4-10〉 문화지표 분류 프레임 .....	226
〈표 4-11〉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분석 .....	227
〈표 5-1〉 국가별 문화지표 종합 .....	235



## 그림 목차

[그림 2-1] 지수 구성 체계 .....	12
[그림 2-2] 2009 UNESCO FCS .....	22
[그림 2-3] UNESCO FCS 기능 정의 변화 .....	23
[그림 2-4] 2009 UNESCO FCS 문화 범주 .....	25
[그림 2-5] 문화와 창조산업의 동심원 모델 .....	26
[그림 2-6] OECD국가 중앙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율 비교, 2016년 .....	35
[그림 2-7] OECD국가 일반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율 비교, 2016년 .....	36
[그림 2-8] OECD국가 일반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증감률 (2012년 vs 2017년) .....	37
[그림 2-9] OECD국가 GDP대비 일반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비율 (2017년) .....	38
[그림 2-10]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규모 비교(한국 vs OECD평균), 2016년 .....	39
[그림 2-11] 문화예술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 졸업생 수, 2016년 or 최신자료 ..	40
[그림 2-12] OECD 주요국의 일평균 여가시간 비율, 2017년 .....	40
[그림 2-13] 인구 100만 명당 문화 분야 종사자, 2015-2017년 중 최신자료 ..	43
[그림 2-14] OECD국가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 2017년 or 최신자료 .....	44
[그림 2-15] 1인당 GDP와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 상관관계, 2015년 or 최신자료 .....	45
[그림 2-16] 1인당 GDP와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 상관관계, 2015년 or 최신자료 .....	46
[그림 2-17] 문화 분야 종사자 남녀 비율, 2015년 or 최신자료 .....	47
[그림 2-18] 국가별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언어, 2016~2017년 .....	48
[그림 2-19] 영화제작에 대한 직접 투자 유무에 따라 상위 25개 제작 국가에서 매년 제작되는 장편 영화 편수, 2015년 or 최신자료 .....	49
[그림 2-20] 국내 제작 영화 편수와 박스오피스 총 수입 중 국내 영화의 점유율, 2015년 or 최신자료 .....	50
[그림 2-21] OECD 주요국의 전체 상영관 수, 2017년 or 최신자료 .....	50



[그림 2-22] 글로벌 문화상품 수출 비중 .....	51
[그림 2-23] 한국 문화상품 수출 비중 .....	52
[그림 2-24] 국가별 문화상품의 무역수지, 2017년 .....	52
[그림 2-25] 예시: 에콰도르의 Culture for Development DNA .....	65
[그림 2-26] IFCD 구성 .....	69
[그림 2-27] 결과 예시: 노르웨이 국가 현황 .....	81
[그림 2-28] 결과 예시: 노르웨이의 요소 간 상관관계 .....	81
[그림 2-29] 결과 예시: 노르웨이의 기회 테이블 .....	82
[그림 3-1] CSNA와 CCSA 개발 관계도 .....	88
[그림 3-2] CFCS에서의 분야별 구분 .....	90
[그림 3-3] 문화상품 및 산업 부분 상위 그룹별 GDP .....	94
[그림 3-4] 문화상품 및 산업 부분 상위 그룹별 GDP .....	95
[그림 3-5] 문화예술분야의 동심원 모델 .....	98
[그림 3-6] 국립문화예술지수 2001-2013 종합지수 추이 .....	102
[그림 3-7] 국가문화예술지수 4개 지수 인덱스 (Arts Index Netherlands, 4 indicators) 2002-2013 .....	103
[그림 3-8] 국가문화예술지수 수용력 지수 2002-2013 .....	105
[그림 3-9] 국가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수 2002-2013 .....	108
[그림 3-10] 국가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수 2002-2013 .....	111
[그림 3-11] 국가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수 2002-2013 .....	115
[그림 3-12] 지방에 대한 중앙의 문화 항목 보조자금 현황(2012~2016) .....	143
[그림 3-13] 전국 문화 사업비 총량 및 증가 속도(2012~2016년) .....	144
[그림 3-14] 전국문화사업비 재정 총지출 비중(2006~2016년) .....	145
[그림 3-15] 도시와 농촌 전국 문화사업비 분포 상황 .....	146
[그림 3-16] 구역별 전국 문화사업비분포 비중 상황 .....	146
[그림 3-17] 전국 인당 평균 문화사업비 투입 및 증가변동 상황 (2012~2016년) .....	147
[그림 3-18] 전국 문화단위 기구 수와 종사자 수(2012~2016년) .....	148
[그림 3-19] 중국 문화 관련 산업 증가치(2012~2016년) .....	152
[그림 3-20] 최근 중국 문화관련 산업 GDP 차지 비중 .....	153
[그림 3-21] 전국 규모 이상 문화관련 산업 2015년 대비 영업 수입 상황 (2016년) .....	154



[그림 3-22] 전국 공공도서관 인당 자원 상황(2012~2016년) .....	155
[그림 3-23] 전국 만 명당 평균 대중문화시설 건축 면적(2012~2016년) .....	156
[그림 3-24] 전국 예술 공연 단체의 농촌방문 공연 수와 비중(2012~2016년) .....	157
[그림 3-25] 공공도서관 1인당 도서관입비(2005~2016년) .....	158
[그림 3-26] 전국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및 도서대출 권수(2012~2016년) ...	160
[그림 3-27] 전국 문물기구 관람객 수(2012~2016년) .....	161
[그림 3-28] 교류 성질 구분 .....	162
[그림 3-29] 교류 활동 분류 .....	162
[그림 3-30] 활동범위 분류 .....	163
[그림 3-31]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전반 (Arts Index Netherlands, overall index number) 2005-2015 ...	167
[그림 3-32]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4개 테마 인덱스 (Arts Index Netherlands, index numbers of pillars) 2005-2015 ...	168
[그림 3-33]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수용력 지표 .....	171
[그림 3-34]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표 .....	175
[그림 3-35]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재정흐름 지표 .....	179
[그림 3-36]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경쟁력 지표 .....	182
[그림 3-37] 문화의 각 분야들의 문화적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 .....	187
[그림 3-38] 유럽 각국의 시장 부문에서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2016년 .....	190
[그림 3-39] 문화 상품의 수출·수입·무역수지 추이, 2007~2017년 .....	192
[그림 3-40] 문화계 고용에서 직업별·부문별로 차지하는 비중, 2016년 .....	194
[그림 3-41] 문화계 직업별 여성의 비중 추이, 1990~2017년 .....	197
[그림 3-42] 문화예술 전문 학위 취득자 중 3년 내 일자리를 얻은 비율, 2014년 .....	198
[그림 3-43] 15세 이상 유럽인들의 문화적 실천 비교, 2012년 .....	201
[그림 3-44] 여가시간의 활동별 만족도, 2010년 .....	202
[그림 3-45] 프랑스 박물관의 입장객 숫자 추이, 2007~2017년 .....	203
[그림 4-1] UNESCO 2009 FCS 문화순환모델 .....	224



정책연구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제1장

머리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문화관련 국제비교 지표는 매우 한정적이다. 국가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양성평등지수, 삶의 만족도, 국제브랜드지수, 소프트파워지수 등에서 문화 관련 지표를 일부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주요지표 중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와의 비교할 수 있는 문화관련 국제비교지표는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예술관람률, 일평균여가시간비율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문화지표 혹은 지수는 국가별 문화적 환경 혹은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매체, 보고서 등을 통하여 국가별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문화 수준의 향상 및 문화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활용되고 있는 국제 문화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국가들이 설계하고 활용하고 있는 문화지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은 문화지표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화 대표지표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지만, 표준화된 지표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고 분야별, 영역별로 분절적 지표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문화영역을 파악하고, 정책적 목표를 설계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지표의 국제적 비교성을 제고하고자 개발된 유네스코 문화지표체계의 발전 흐름과 각 국가의 문화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기구



혹은 개별 국가의 문화지표의 특성 분석을 통해 국제적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최소한의 공통 지표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표준화된 종합 문화지표체계를 수립하는 기초연구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문화지표 개발과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과 주요국가의 문화지표를 비교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문화지표의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문화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국제비교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 분야에서 증거기반정책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지표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지표 개발 등이 후속과제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가. 대상범위

문화 관련 통계지표 국제 비교를 진행하기 위한 대상은 문화관련 예산, 지출, 종사자/인력, 산업 및 시장, 교육, 인프라 등이며, 관광과 스포츠 분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기존의 국제기구(EU, ILO, IMF, ISI, OECD, UNESCO, UNSD, UNWTO, WB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통계 및 자료를 대상으로 하나, UNESCO의 통계연구소(UIS), OECD의 통계국(OECD Stat)에서 조사하거나 수집하여 공표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 지표를 통한 국가 간 비교분석은 OECD국가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OECD국가는 통계 자료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야별 분석 대상국가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주요 문화지표 사례의 경우, 각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문화지표의 지표의 값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분석하나, 한국과의 비교분석에서는 지표체계 자체를 분석한다.

## 나. 공간범위

주요국 및 국제기구 문화지표 혹은 지수 비교 대상은 미주(미국, 캐나다), 아시아(일본, 중국), 유럽(네덜란드, 프랑스), 국제기구(UNESCO, EU) 등으로 한다. 각 국가 혹은 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문화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주요지표 중에서 문화 혹은 여가지표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 다. 시간범위

국제 문화지수 비교와 국가 간 문화지수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국제비교 가능 데이터 중 가장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자료에 한하였다.

단년도 분석을 우선으로 하며, 추이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다년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 라. 내용범위

먼저 UNESCO의 문화지표체계를 기반으로 국제적, 국가적인 문화통계체계가 확립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ESCO와 OECD의 통계데이터를 중심으로 문화지표를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문화적 환경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요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문화지표를 분석하여,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설정하고 분석하는 문화지표를 통하여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 최종 가치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마다 문화정책적 목표가 다르고 이에 대한 이행과 제들의 중요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지표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유성의 의미가 국가, 기관마다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타 국가들 간에 문화지표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탐색한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정책적으로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 영역과



이에 따른 신규 지표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 2. 연구 방법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심층면담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에서는 기존 국제 문화지수 혹은 지표를 비교를 시도한 선행 연구 및 국외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문화 관련 지수 등의 지표 구성 체계, 평가방법,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외에서 생산된 공신력 있는 조사 자료와 통계자료를 수집, 비교분석 대상 문화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OECD국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 통계지표의 양적 특성, 자료 확보 가능성, 측정의 기술적 특성, 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다.

세 번째는 사례연구를 통한 국가별, 국제기구별 문화지표 비교 분석이다. 각 사례별로 기존자료와 이차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국제기구별 문화 지표 혹은 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지수/통계지표의 설계배경, 주요 내용, 활용, 이슈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면담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주요 지수들 중에 문화관련 지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문화, 예술, 교육, 사회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제 비교 가능한 통계 지표들의 비교 분석에 대한 의견, 국제적 비교를 시도하고 있는 주요 지표 이외에 발굴가능한 국가별 공통 비교 문화지표에 대한 의견,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등과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탐색하였다.







## 제2장

# 국제 문화지표 개념과 활용







## 제1절

## 지표 개념 및 체계

## 1. 지표의 개념과 활용

## 가. 지표와 지표체계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위해 지표, 지표체계, 통계, 지수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표와 지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표(indicator 혹은 barometer, 指標)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말한다. 사회과학 용어로서 지표는 측정 대상(주로 사회경제적 현상)의 상태나 수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자 측정도구를 의미한다(Eurostat, 2014).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현상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관찰가능한 수치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표라는 일종의 측정도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상적인 사회경제적 현상/개념을 측정가능한 형태의 구체적인 수치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변준석 외, 2017).

지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하나로 합의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Eurostat, 2014), 일반적으로는 양적인 측정도구로서 통계지표 혹은 지표통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 지표들을 모아 구성된 하나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 지표체계이지만 때로는 지표, 지표체



계 두 개의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지표는 집단에 대해 집단의 현상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인 통계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지표라고도 사용한다.

또한 여러 데이터 혹은 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정량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지수(index)도 지표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활동이나 현상의 결과를 숫자 그대로 나타낸 것을 지표라고 한다면, 기준 시점을 정하고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종합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을 지수라고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사용이 필요하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복수의 지표들을 요약하고 서열을 매겨, 개별 지표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측정 대상의 일반적인 차원을 대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통계개발원, 2019). 아래는 지수와 지표 그리고 통계(데이터)의 구성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자료: 통계개발원(2019)

[그림 2-1] 지수 구성 체계

측정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고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여러 가지의 지표들로 하나의 구성 체계 또는 그 체계를 나타내는 표를 지표 체계(indicator system)라고 한다. 하나의 지표로는 전체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복잡적이고 다원적인 측면을 가진 대상을 측정하고자 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복잡한 방식으로 사회와 개인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다양한 구성 요소간의 연계 작용을 통하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순히 복수의 지표들을 모은 지표세트(sets of indicators or indicators sets)와는 다르게 지표 체계는 일정한 이론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삶과 현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지표들을 모아 하나의 체계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경제성장을 측정하거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통용되고 있다(UN, 2009). 개념적 접근법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따라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고, 정책적 접근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표를 구성하거나 주요 이슈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표는 대부분 결과 혹은 성과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접근법을 많이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대상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지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이론 체계를 프레임워크(framework)라고 하며, 지표체계의 구성 원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프레임워크는 지표 측정의 목적, 방향, 가치를 담은 일종의 이론적인 틀이라고 볼 때, 전반적 성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지표를 선택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이에 지표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면,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통계 데이터와 지표, 그리고 지표 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론적 프레임워크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 구축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통의 프레임워크 구축작업과 함께 국가별로 어떤 지표체계를 만들고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 나. 문화지표와 문화지표체계

문화지표는 측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개념의 광의성과 문화의 수준, 변화,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견해가 존재한다. 문화기본법(2013년 제정)에서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유네스코가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동생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를 광의의 의미로서 정의하면 문화지표를 이해하는 데 다른 영역의 다양한 지표들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한계를 가진다.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 삶의 전반에서 문화를 정의하기보다 심미적 활동과 체험에 국한하여 문화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표를 이해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문화지표는 양적인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계량적 표현의 한계 밖에 있는 것들을 제외한 일부만을 문화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문화현상과 수준을 측정하여 근거를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지표와 그 체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과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문화 분야 관련지표는 사회지표 혹은 통계자료집에서 일부 하위 범주로서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교육문화지표의 일부 항목으로 존재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UNESCO한국위원회는 UNESCO의 문화지표체계권고서안(1981)을 바탕으로 1983년에 아태지역 문화통계 및 지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문화지표체계 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5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에 ‘문화·여가부문’이 별도로 작성되고, 1986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후 문화지표체계 개선 연구(1995, 2003, 2005)와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표 2-1〉 한국 문화지표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연구기관
1986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5	문화지표체계 개선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3	문화지표체계 개선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5	문화지표체계개선 연구: 2005 문화지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986년 연구를 바탕으로 1988년에 실시한 두 가지 시범조사를 통하여 예술인통계, 문화향유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두 가지 시범조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실태조사’와 ‘문화향수실태조사’이며, 각각 1991년에 국가승인통계가 되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승인통계가 총 21종으로 구성되며, 그중 문화예술통계는 8종, 문화산업통계는 3종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작성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와 문화재정이 관리·작성하고 있는 문화재관리현황 등이 있다.

〈표 2-2〉 문화 분야 국가승인통계

구분	통계명칭	작성방법	승인일자(승인번호)
문화 예술	전국도서관통계조사	보고통계	2008-08-27 (113016)
	공연예술조사	조사통계	2007-10-12 (113015)
	국민여가활동조사	조사통계	2007-05-01 (113014)
	예술인실태조사	조사통계	1991-10-07 (11300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조사통계	1991-05-07 (113001)
	한국수어활용조사	조사통계	2017-11-13 (113022)
	근로자휴가조사	조사통계	2018-09-28 (113023)
	지역문화현황통계	보고통계	2019-01-30 (113024)
	국민독서실태조사	조사통계	2008-09-02 (113018)



구분	통계명칭	작성방법	승인일자(승인번호)
문화 산업	정기간행물등록현황	보고통계	2006-11-23 (113011)
	광고산업조사	조사통계	2005-08-18 (113009)
	콘텐츠산업조사	조사통계	2004-10-16 (113008)
기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공통계	2014-12-14 (434001)
	문화재관리현황 (문화재청)	보고통계	2006-08-17 (150002)

출처: 문화데이터홈페이지(<http://stat.mcst.go.kr/>)

〈표 2-3〉 문화 분야 법률의 ‘조사연구’ 규정 비교

법률명	조사연구	비고
문화기본법	○	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실태조사, 문화영향평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예술인실태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연법		(공연예술조사)
문학진흥법	○	실태조사
도서관법		(전국도서관통계조사)
작은도서관진흥법	○	실태조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실태조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	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독서문화진흥법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법	○	실태조사



법률명	조사연구	비고
지역문화진흥법	○	실태조사 (지역문화현황통계)
지방문화원진흥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복지법	○	실태조사
대한민국예술원법		
국어기본법	○	실태조사, 영향평가
한국수화언어법	○	실태조사 (한국수어활용조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콘텐츠산업진흥법	○	실태조사 (콘텐츠산업조사)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실태조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실태조사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실태조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정기간행물등록현황)
인쇄문화산업진흥법		
향교재산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정광렬(2018) 보완 및 재정리

문화전반의 지표체계 뿐만 아니라, 문화영향평가지표, 지역문화지표, 문화다양성지표, 인문지표, 여가지표, 국제문화교류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 개발로 확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표 문화 분야 법률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규정 중 ‘조사연구’에 해당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 분야의 법률 35개 중 19개가 ‘조사연구’ 규정을 중심으로 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정광렬, 2018).



## 2. 국제 문화지표체계의 발전

### 가. 1986 UNESCO 문화지표체계(1986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이하 ‘1986 UNESCO FCS’)

국제적으로는 UNESCO가 1960년대 진행한 통계의 표준화 사업에서부터 문화 지표의 체계 마련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 10월 27일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 활동의 공공재적 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on Public Financing of Cultural Activities)”에서 11개로 문화 활동 범주(0. 문화유산, 1. 인쇄물과 문학, 2. 음악, 3. 공연예술, 4. 시각예술, 5. 영화와 사진, 6. 라디오와 텔레비전, 7. 사회문화적 활동 등, 8. 스포츠와 게임들, 9. 자연과 환경, 10.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를 정의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UNESCO는 국가별 혹은 국제적으로 문화통계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FCS를 개발하였고, 1986년에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 이후, EC, OECD,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논의에 합류하면서 최근 까지도 전 세계의 국가들의 문화통계지표의 기본 틀로써 활용되고 있다.

1986년 UNESCO FCS는 1981년 12월 파리에서 최초의 워킹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1982년, 1984년, 1985년 4번의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1986년에 발표를 하였다. 워킹그룹을 지원하는 부문별 그룹에 프랑스를 비롯한 20여 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 따르면 문화영역을 10개 범주, 5개 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4〉 1986 UNESCO FCS

구분	카테고리	기능				
		창작/생산	전파/보급	수용/소비	보존/등록	참여
0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0.1 Historical monuments 0.2 Archeological heritage 0.3 Museological heritage 0.4 Archival heritage 0.5 Other forms of cultural heritage				
1	출판·문학 (Printed Matter & Literature)	1.1 Books and pamphlets 1.2 Newspapers and periodicals 1.3 Library services				
2	음악 (Music)	2.1 Live Music 2.2 Music theatre				
3	공연 (Performing Arts)	3.1 Drama theatre 3.2 Dance 3.3 Other Performing arts(circus, pantomime, etc. 2/3 Audio and audiovisual records				
4	미술·사진 (Visual Arts & Photography)	GROUP A. 4.1 Painting 4.2 Sculpture 4.3 Graphic arts 4.4 Art handicrafts 4.5 Other forms of visual arts GROUP B. 4.6 Photography 4.6.1 Creative-artistic photography 4.6.2 Other photography				
5	영화 (Cinema)	5.1 Cinema 5.2 Photography(Photography is assimilated with Visual Arts)				
6	방송 (Radio & Television)	6.1 Radio 6.2 Television 5/6 Video				
7	사회문화활동 (Socio-cultural Activities)	7.1 Associative life 7.2 Multipurpose socio-cultural facilities 7.3 Socio-cultural practices 7.3.1 Individual practices 7.3.2 Family life				



구분	카테고리	기능				
		창작/생산	전파/보급	수용/소비	보존/등록	참여
		7,3,3 Community life 7,4 Intercategory data				
8	스포츠·게임 (Sports & Games)	—				
9	환경·자연 (Environment & Nature)	9,1 Natural Environment 9,2 Urban environment(quality of life in the urban setting)				

자료: UNESCO(1986)

#### 나. 2009 UNESCO 문화지표체계(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이하 ‘2009 UNESCO FCS’)

1986년 발표 이후, IT산업의 발전, 글로벌화, 문화의 산업화 등으로 문화의 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FCS 개정판이 2009년에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문화 분야의 다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살펴보게 되었다. 이는 2007년 UNESCO가 내놓은 아태지역 FCS (Asia-Pacific FCS)에서는 “글로벌 지식경제”로 이동해가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개정판에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영역을 재구성하면서, 문화부문의 통계지표가 국가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기준 안에서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등을 정립하여 일관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2-5〉 2009 UNESCO FCS 문화부문 통계지표를 위한 국제분류체계

분류 유형	분류명
Economic Classifications Production: 경제적 분류: 생산품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4)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 (ISIC 4) - U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2 중앙생산물분류 2차 개정안 (CPC2) -UN
Trade 무역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2007) and Extended Balance of Payments (EBOPS 2010) 2007 국제통일상품분류 (HS 2007) 및 2010 서비스무역세분류(EBOPS 2010) -WTO
Employment 고용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 08)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08) -ILO
Social 사회적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for Time-Use (ICATUS) 국제생활시간활용조사용활동분류(ICATUS)- UN
?	Others to be added as required 필요 시 추가

자료: UNESCO UIS 전문가그룹 회의자료(2017.09)

2009년에 발간된 UNESCO FCS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문화의 공통된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 및 창조산업분야를 일련의 문화 범주로 세분화하고 있다. UNESCO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이 가진 특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의 집합이며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가구 형태, 가치체계, 전통, 신념까지 모두 아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문화의 무형적 속성을 담고 있는데, 신념과 가치는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요소이나 사회의 신념이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관습이나 행동양식은 측정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반을 두어, UNESCO는 “사회의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특정 행동양식과 관습을 밝히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UNESCO,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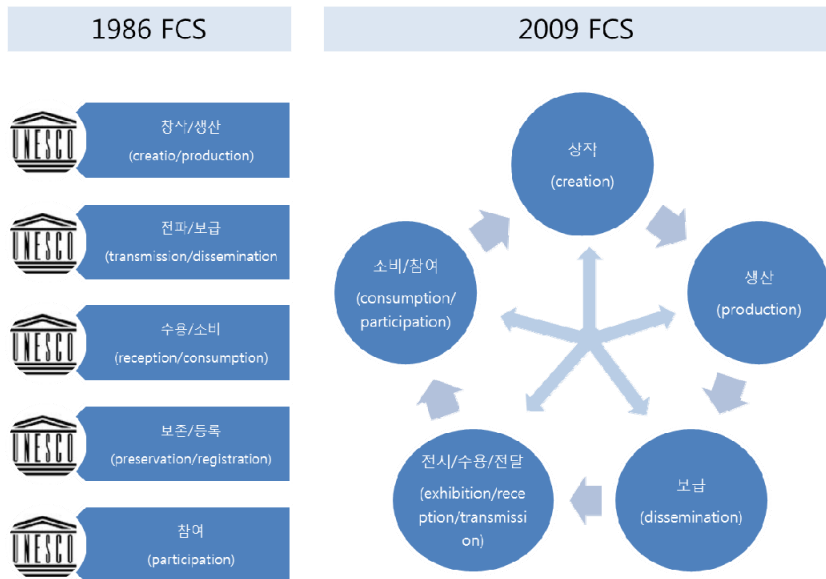
자료: UNESCO UIS 전문가그룹 회의자료(2017.09)

[그림 2-2] 2009 UNESCO FCS

또한 UNESCO는 문화 분야 고용관련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등, 기존의 국제분류체계에서 정한 여러 산업 분야 분류를 기초로 문화 범주를 정의하고 있다. 문화 범주 내에 사회 활동, 비공식적인 활동도 포함되며 범주 주제별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인 영화 제작과 영화 예매 등의 공식적 활동뿐만 아니라 집에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비공식적 활동도 영화 통계에 속한다고 보았다. 문화 범주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 참여와 같은 사회적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UNESCO, 2009).

1986년 UNESCO FCS에서 창작/생산(creation/production), 전파/보급(transmission/dissemination), 수용/소비(reception/consumption), 보존/등록(preservation/registration), 참여(participation) 등 5개의 기능으로 구분하였던 것에서 2009년 FCS는 창작(creation) → 생산(production) → 보급(dissemination) → 전시/수용/전달(exhibition/reception/transmission) → 소비/참여(consumption/participation)의 문화 순환 모델로 수정하였다.





[그림 2-3] UNESCO FCS 기능 정의 변화

- 1) 창작(creation): 복제가 불가능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 2) 생산(production): 문화라는 형태로 복제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예: 악기제조, 신문인쇄)
- 3) 보급(dissemination):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소비자나 전시자에게 전달되는 것 (예: 음반이나 컴퓨터게임, 영화필름의 도소매)
- 4) 전시/수용/전달(exhibition/reception/transmission): 문화 활동을 통해 청중 또는 관객들과 지식과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권리를 교환하는 경험을 하는 것
- 5) 소비/참여(consumption/participation): 관객과 참여자들이 문화적인 제품을 소비하거나 문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2009 UNESCO FCS에서는 6개의 문화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자연유산', '공연 및 기념행사', '시각예술 및 공예', '서적 및 인쇄물', '시청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 해당 문화 범주는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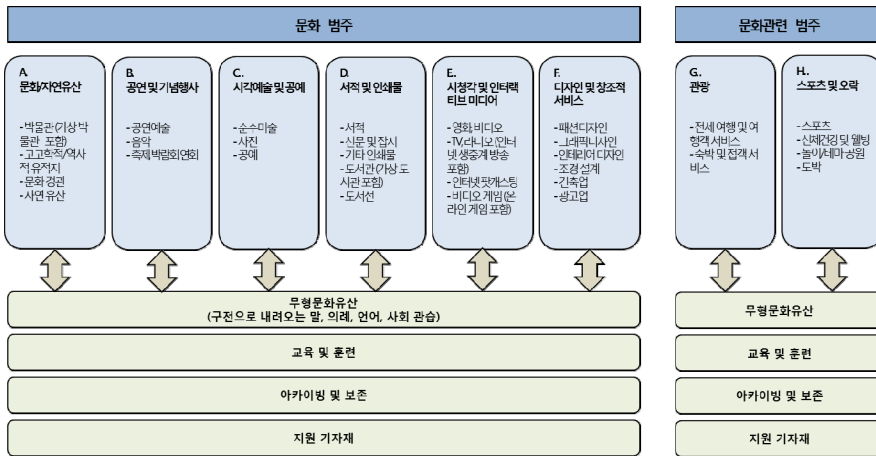


설명한 문화 순환 모델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며, 상호배타적이라고 설명하였다(UNESCO, 2009: 23).

예를 들면, 음악은 라이브 공연과 녹음 음악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공연 및 기념행사’, ‘시청각 미디어’ 양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2009 UNESCO FCS에서는 항목 분류 시, 항목의 형태가 아닌 주제별로 구분하므로, 음악은 ‘공연 및 기념행사’ 단일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UNESCO, 2009: 23-25). 이러한 분류법을 통해 여러 문화 활동을 각각 하나의 문화 범주에 매칭시켜 중복 분류를 피하고자 하였다.

문화를 분야별로 구분한 6개의 범주 외에, 모든 문화 분야를 가로지르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횡단 범주(Transversal Domai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도 따로 제시하고 있다. UNESCO는 이 7개의 범주를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최소 핵심 문화영역으로 권고하였다. 범주를 정의함에 따라 문화 및 창조산업 분야의 명확한 경계선을 마련함은 물론,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UNESCO, 2009: 23). 2009 UNESCO FCS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횡단 범주 외에도 문화 순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 및 훈련’, ‘아카이빙 및 보존’, ‘지원 기자금’ 세 부문을 위한 횡단 범주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화 분야와 구분 없이 나타나며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 범주로 제시되었다. UNESCO(2009) 보고서에서는 횡단 범주를 포함시키는 것이 문화의 완전한 그림을 파악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섯 개의 문화 분야별 범주, 네 개의 횡단 범주와 더불어 문화 관련 범주(Related Domains)도 제시되고 있는데, 문화, 오락, 여가 활동의 특성을 띠고 있는 일부 경제 및 사회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범주이며, ‘스포츠 및 오락’, ‘관광’이 이에 해당한다(UNESCO, 20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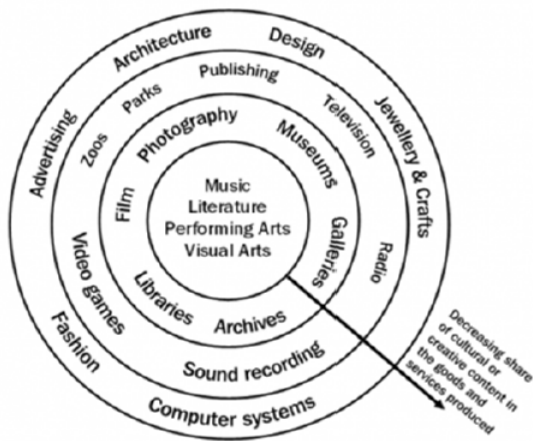
[그림 2-4] 2009 UNESCO FCS 문화 범주

FCS는 문화의 범주를 정의하고 각 범주는 어떤 활동을 포괄하는지 상세히 기술함에 따라 개별 문화 활동의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 문화 활동의 경계를 한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FCS가 정의한 문화 개념 및 세부 범주를 바탕으로 문화의 파급효과 측정 방식이 통일되었고,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과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다(Usero and Del Brio, 2011: 196).

#### 다. FCS 개발 및 적용 사례

2009 UNESCO FCS 발표 이후, “동심원” 모델이 창조 산업과 문화 산업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모델에서 “핵심 창조 예술”은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을 이르는데, 이는 예술적 창의와 혁신의 노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적 콘텐츠보다 상업적인 콘텐츠의 비율이 커지지만, 창조 산업이 “핵심 창조 예술”을 위한 재료, 기술, 아이디어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이다. 문화통계지표를 통해 창조적 예술가의 경제기여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창조 산업분야에 투입되는 항목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그림 2-5] 문화와 창조산업의 동심원 모델

2009 UNESCO FCS 개발 시, 통계 자료의 국제 비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이 처음 시도되었다. 하지만 개별 국가와 지역이 해당 체계를 표본으로 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새로이 개발된 이 체계는 유연한 적용을 목표로 하되, 통계 자료의 비교 용이성을 도모한다. UNESCO FCS는 전 세계 국가가 자국의 문화 통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주요 문화 범주를 취사선택함에 따라 자국만의 문화 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선택한 문화 범주에 해당하는 UNESCO FCS의 공통된 개념을 차용함에 따라 통계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UNESCO, 2009: 11)

유럽문화통계시스템 네트워크(European Statistical System Network on Culture: ESSnet-Culture, 2012) 체계는 기존의 유럽문화통계 리더십 그룹(Leadership European Group on Cultural Statistics: LEG-Culture, 1997)의 체계와 2009 UNESCO FCS를 비교 분석한 후에 탄생했다. ESSnet-



Culture 체계 개발 시, LEG-Culture 체계를 기초로 신기술 사항을 고려함에 따라 더 다양한 문화 산업분야(광고와 미술 공예)를 추가하고, UNESCO FCS 에서 제시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함시켰다.

〈표 2-6〉 문화통계지표체계 간 문화 범주 비교

LEG-Culture (1997)	ESSnet-Culture (2012)	2009 UNESCO FCS (2009)
역사적 유물 박물관 고고학적 유적지 아카이브 도서관 서적 및 인쇄물 뉴스 방송국 시각예술 (디자인 포함) 사진 건축 공연예술 영화 라디오 TV 영상물 음성녹음 멀티미디어	+	+
	광고 미술 공예 무형문화유산	
		자연 유산 일반적인 공예 소프트웨어 산업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일반적인 인쇄 지원 기자재 관광 스포츠 및 오락



그러나 ESSnet-Culture 체계에는 UNESCO FCS가 제시하는 문화/자연 유산(Cultural and Natural Heritage)범주의 세부 분류인 ‘자연유산’, 문화관련 범주(Related domains)인 ‘스포츠와 관광’, 횡단 범주(Transversal domains) 중 하나인 ‘지원 기자재’, 문화관련 또는 기호화된 콘텐츠를 일부 포함하는 상업적인 분야인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일반적인 인쇄’ 등은 빠져있다. 이는 ESSnet-Culture 체계 개발이 UNESCO FCS가 제시하는 범주의 일부를 채택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UNESCO FCS (2009)는 문화 순환(Culture Cycle) 모델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데, 해당 모델에서는 창작, 생산, 보급, 전시/수신/전달, 소비/참여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달리, ESSnet-Culture(2012)에서는 현재 통계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화의 여섯 가지 “기능”인 창조, 생산/출간, 보급/교환, 보존, 교육, 관리/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처음 나열된 세 가지 기능인 창조, 생산/출간, 보급/교환은 UNESCO FCS에서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나, UNESCO에서는 “교육 및 훈련”과 “아카이빙 및 보존”을 횡단 범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리 또는 규제 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3. 국제 문화위성계정의 개발

OECD는 2006년과 2007년까지 문화 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비교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계정생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진행은 문화 분야 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OECD 각 국가에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워크숍을 통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후 문화 관련 세부 영역에 대한 정의와 통계 생산 방법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5개 국가와 4개 도시의 표본에 대한 시범 비교조사를 진행하였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제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UNESCO의 FCS와 유럽의 LEG-Culture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화 부문 국제 비교 체계를 만들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세계지



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UNESCO의 통계연구소(Institute for Statistics, 이하 UIS) 등이 함께 협력하였다.

OEC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위성계정 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을 설명하였다.

- 1) 문화정책과 산업의 주요이슈 파악에 필요한 통계적인 추적시스템을 개발함
- 2)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정의에 대한 표준화 및 통일이 필요함
- 3) 문화자료와 정부통계와의 조정 및 상호관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4) 문화영역 내의 각 부문 간에 대한 인식과 상호교류에 대한 관찰 및 자료의 수집과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 5) 심각한 문화관련 자료 간의 불일치 지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후, 2009년 UNESCO FCS가 업데이트 되면서, 문화위성계정에 대한 논의는 UNESCO UIS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UIS에서 문화통계국(Culture Statistics)는 크게 4가지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문화통계의 개념적 틀과 표준화된 기준, 권고안,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문화통계조사 주관 및 진행, 국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분석자료를 산출하며, 회원국에게 문화통계 관련 교육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통계 활용을 장려하고 국가 간 문화지표를 비교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IS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위성계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위성계정 구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역: 문화 분야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함



- 2) 상품: 문화 활동 및 파생된 문화상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문화상품의 생산, 교환, 소비 매커니즘 및 활용도를 파악하고자 함
- 3) 지출: 문화 지출 목적과 유형, 기금 종류, 수혜자 별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함
- 4) 트렌드: 대외 무역 상 문화상품의 경제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함

UIS의 문화위성계정은 기본적으로 2009 UNESCO FC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9 UNESCO FCS는 문화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세우고, 비교 가능한 통계 구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문화 부문의 지표를 개발하고 분석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UIS는 문화 분야의 분류 및 지표 방법론을 포함한 국제 규범과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문화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계획, 정의 및 설계 등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화 분야에 접목시키고, 국제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통계의 개념, 정의 및 분류에 관한 표준에 대한 연구 및 방법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7〉 CSA 문화 정의

범주	하위 범주: 세부 분류
A.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문화/자연유산	Museums 박물관
	Archeological and historical sites 고고학적/역사적 유적지
	Cultural Landscapes 문화 경관
	Botanical gardens 식물원
	Zoological gardens 동물원
B. Performance and Celebration 공연 및 기념행사	Nature reserves 자연보호구역
	Performing arts (Theater, Opera, Dance, Puppetry) 공연예술 (연극, 오페라, 무용, 인형극)
	Music (Live music, Sound recording) 음악 (라이브 음악, 녹음 음악)
	Festivals, Fairs and Feasts 축제, 박람회, 연회



범주	하위 범주: 세부 분류
C. Visual Arts and Crafts 시각예술 및 공예	Fine Arts (Paintings Drawings sculpture) 순수미술 (회화, 소묘, 조각)
	Photography 사진
	Crafts 공예
D. Books and Press 서적 및 인쇄물	Books 서적
	Newspaper and Magazine 신문 및 잡지
	Other printed matter 기타 인쇄물
	Library 도서관
	Book fairs 도서전
E. Audio-visual and Interactive Media 시청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Film 영화
	Video 비디오
	Radio 라디오
	Television TV
F. Design and Creative Services 디자인 및 창조적 서비스	On line games 온라인 게임
	Fashion Design 패션디자인
	Graphic Design 그래픽디자인
	Interior Design 인테리어디자인
	Landscape design 조경설계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업
G. 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문화 교육 및 훈련	Advertising Services 광고업
	Cultural Education 문화교육
H. Cultural Management 문화 경영	General government 정부
	Private entities 민간 기업

2017년 국제통계분류체계 전문가 회의 내용에 따르면, 문화위성계정은 2009 UNESCO FCS의 일부를 수정하여 문화의 범주와 세부 분류를 재정의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의된 각 문화 범주 별로 다양한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을 구분하였다. 문화 분야 내에서 누가 생산할지, 어떠한 형태의 노동과 고정자



산을 활용할지 등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두어 생산되는 전형적인 상품을 고유 문화상품으로 정의하고, 일반적인 생산물이 아닌, 특정 분야 내에서 문화비 명목에 해당하는 대상을 연계 문화상품이라고 하였다.

〈표 2-8〉 CSA 구축 진행 계획

연도	주요 내용	비고
2015/6	자문연구 CSA 전문가 회의(2015.11.04.~06) 초기 작업	
2017	CSA 첫 번째 초안 관련 협의 기술자문단(TAG)의 설립 국제회의(2017.09.06.~08)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와 협력
2018	기술자문단(TAG) 및 UN산하 회의(2018.10.31.~11.02) 국민계정사무국(ISWGNA) 등의 CSA 검토	
2019	TAG 검토 CSA 초안 수정 2 차 CSA 초안 부분 제출 (2019.06.15) 글로벌 상담을 위한 2 차 CSA 문서 초안 제출 (2019.08.29) UNESCO 총회에서 발표 (2019.11.) 문화통계를 위한 국제권고안 초안 작성	
2020	분석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2020.01.)	예정
2021	CSA 구축 가이드 초안 작성	예정
2022	CSA구축 가이드 최종 문서 산출	예정



## 제2절

## 국제기구 문화지표

이번 절은 국제비교를 위한 문화지표체계를 구축한 UNESCO, 실질적인 국제 표준 문화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문화위성계정 구축 논의를 시작했던 OECD의 문화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를 위한 문화지표는 어디까지 개발되었고 활용되고 있는지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OECD 문화지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이나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비교, 상호 학습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선언(declaration), 권고(recommendation), 약정(arrangement)과 같은 비구속적 규범(soft law)과, 결정(decision),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과 같은 구속적 규범을 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살펴보면, OECD.Stat을 통해 OECD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의 노동, 보건, 환경, 교육, 과학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OECD Factbook을 통해 경제,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 개발, 건강, 산업, 정보 및 통신, 인구, 고용 및 노동, 무역 및 투자, 과세, 공공 지출 및 R &



D와 같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약 100여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표하지 않지만, OECD Indicators를 통해 영역별, 분야별 ‘한 눈에 보는’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sup>1)</sup>.

OECD는 정치적 의제에 대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의 경제적 기여, 사회 및 인구통계 개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에 관한 OECD 데이터는 삶의 질 지표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에 대한 가계 및 정부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 분야의 경우, 별도 문화영역으로 발간된 자료는 없고, 교육이나 국가재정 등의 자료에서 문화와 연관 지표들을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다. OECD 사무국 내에 별도로 경제국, 환경국, 교육·인적역량국과 같이 문화국이 존재하지 않고, 분야별 위원회에서도 문화관련 위원회는 관광위원회(TC)가 그나마 유관 위원회로 꼽힌다.

OECD 문화지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OECD 국민계정통계, 교육통계 등에서 문화관련 지표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 가. 문화재정

문화에 투자된 재정은 정부의 문화 분야 재정지출로 비교하고자 한다. OECD 국민계정통계(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국민계정 체계 하에서 국민경제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하 SNA)를 기반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가 회계기준 및 체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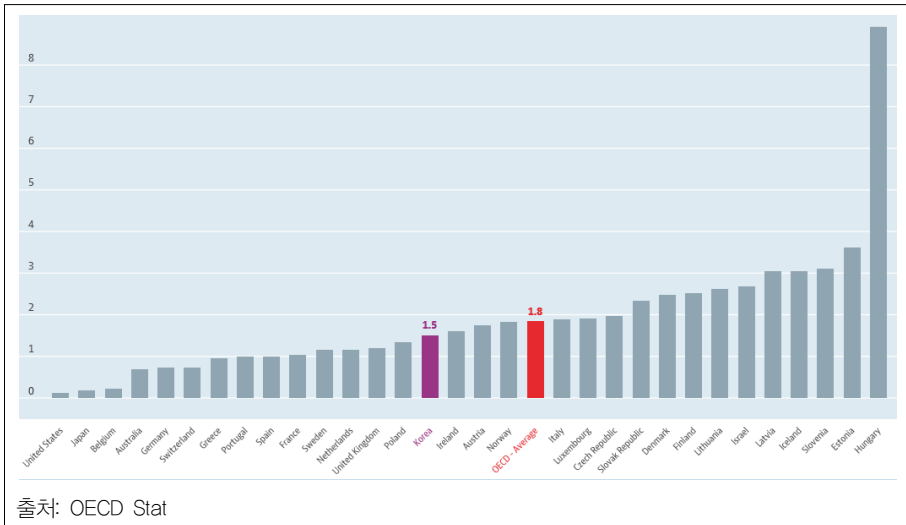
### 1) 중앙 정부 지출

중앙 정부 지출은 최종 중앙 정부 보고서에 보고된 중앙 정부 예산 지출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OECD 국가별 중앙 정부 지출 대비 여가·문화

1)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Society at a Glance, Government at a Glance, Health at a Glance, Education at a Glance, Environment at a Glance, Pensions at a Glance,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등 다양함



및 종교 부문 기능 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2-6] OECD국가 중앙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율 비교, 2016년(단위: %)

정부의 기능별 지출은 정부의 지원활동에 기초한 지출이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에 대한 국가회계분류(National Accounts'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이하 COFOG)를 따른다. COFOF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시설, 보건, 여가/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장 등 10가지 기능으로 구분한다.

2016년 기준 한국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에 중앙 정부의 지출 비율이 약 1.5%로, OECD 평균인 1.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능별 중앙 정부 지출 지표는 총 지출의 백분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핵심 정부 활동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책임이 정부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것에 기인한다. 이에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하여 문화 분야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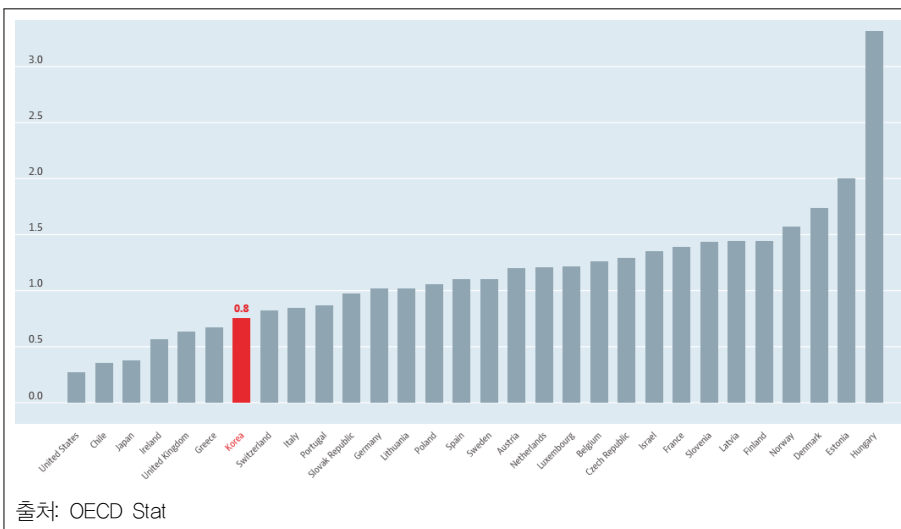


## 2) 일반 정부(전체 정부) 지출

다음은 일반 정부(전체 정부) 지출 대비 여가·문화 및 종교 분야 지출 비율을 알아보았다.

일반 정부 지출은 일반적으로 중앙, 주 및 지방 정부 및 사회 보장 기금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의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주며 반드시 소비된 자원의 차이는 아니다.

한국은 일반정부의 여가·문화 및 종교 분야 지출이 전체 정부 지출 대비 0.8%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기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부 전체 문화관련 지출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한국은 중앙 정부 지출 순위보다도 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앙 정부 지출 이외에 지방과 기금을 통한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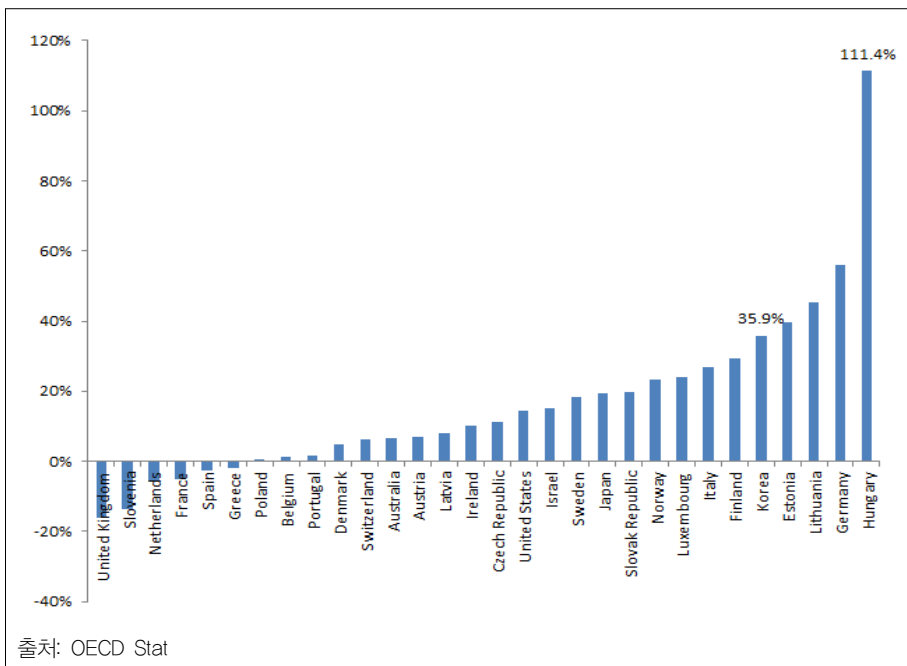


[그림 2-7] OECD국가 일반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율 비교, 2016년(단위: %)



일반정부의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하위권에 속하지만,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출 총액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전체 정부 예산 대비 여가·문화 및 종교 지출 비중은 두 개 연도에 가용자료가 있는 국가들 중 2/3 이상에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에 여러 OECD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다양한 부문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반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공적 수익이 높지만, 사적비용이 사적 수익보다 더 큰 상황에 필요한데, 문화 분야가 특히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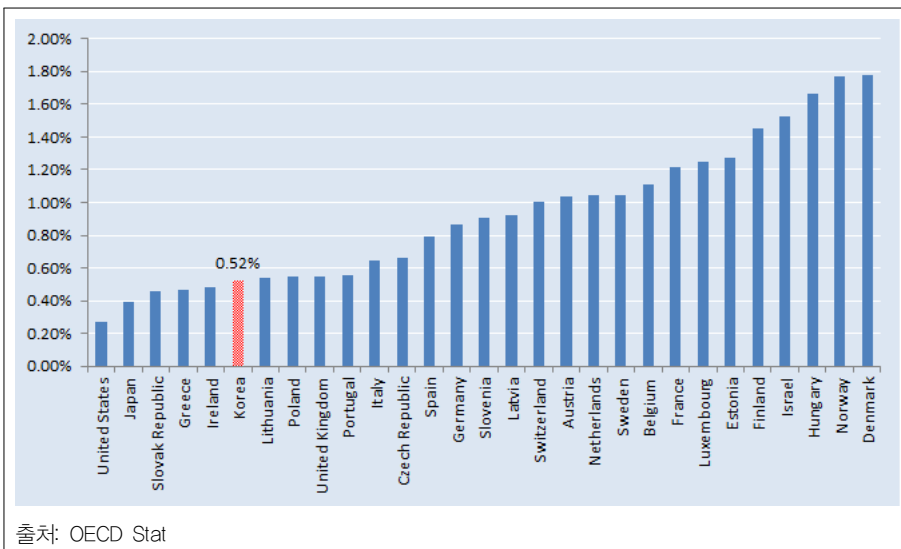
특히 헝가리를 비롯한 독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한국, 핀란드 등은 2012년 대비 30% 이상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한국은 2012년 대비 약 36%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OECD국가 일반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증감률(2012년 vs 2017년) (단위: %)



정부가 지출하는 문화관련 비용을 전체 정부 지출의 비율로 논의할 때, 정부 예산의 상대적 규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GDP 대비 모든 서비스(교육, 보건, 문화 등)에 대한 전체 정부 지출 비율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 정부지출 중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율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GDP 대비 정부의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율도 낮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전체 정부지출 대비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지출 비율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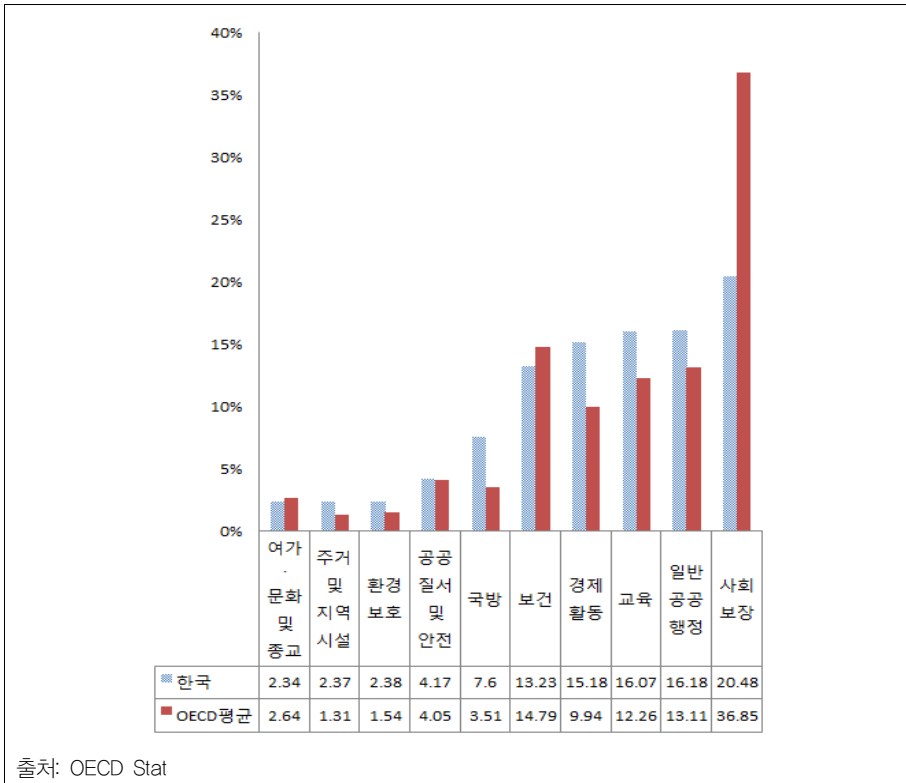


[그림 2-9] OECD국가 GDP대비 일반정부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 비율(2017년) (단위: %)

다음은 일반 정부의 기능별로 지출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10가지 기능별 지출 비율을 모두 합치면 일반 정부 지출 전체(100%)가 되며, 각 기능별 지출 구성 비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OECD 평균을 동시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일반 정부 전체 지출 중 여가·문화 및 종교 부문의 지출 비중이 2.34%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OECD 국가 평균인 2.64%에 못 미치는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10개 기능별



지출 중 한국은 사회보장, 보건, 여가·문화 및 종교 등 3개에서만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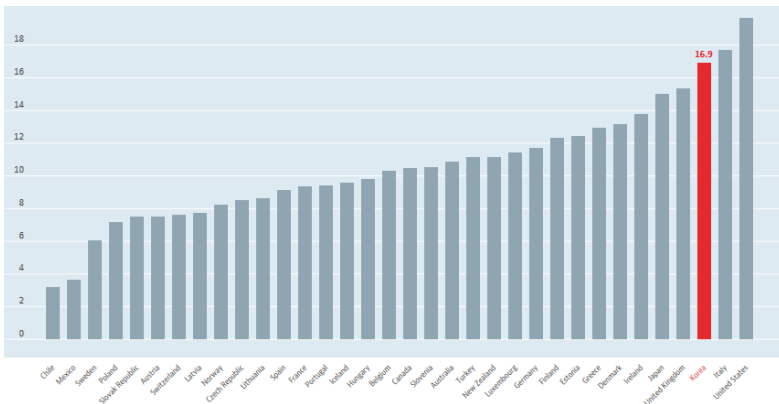


[그림 2-10]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규모 비교(한국 vs OECD평균), 2016년(단위: %)

## 나. 문화예술관련 전공자

문화예술관련 전공 졸업생 비율을 살펴보았다. 2016년 기준 전체 졸업생 중에서 문화예술관련 분야 졸업생의 비율로 한국은 16.9%를 차지하였다. OECD 34개 국가를 비교했을 때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영전공자는 15.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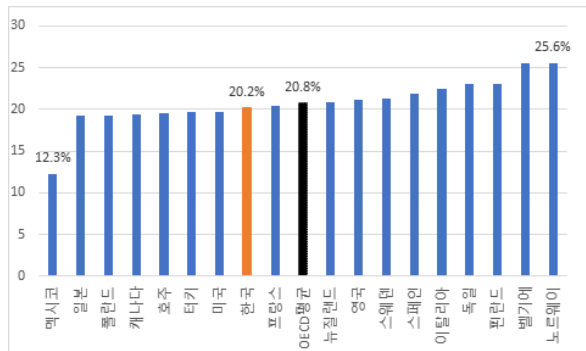


출처: OECD(2018a)

[그림 2-11] 문화예술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 졸업생 수, 2016년 or 최신자료(단위: %)

## 다.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즉 일평균 여가시간비율은 여가시간의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일평균 여가시간비율은 20.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 비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일평균 여가시간비율은 프랑스와 비슷하고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보다는 낮으며 일본, 폴란드보다는 높다.



출처: OECD(2018b)

[그림 2-12] OECD 주요국의 일평균 여가시간 비율, 2017년 (단위: %)



## 2. UNESCO 문화지표

UNESCO UIS는 교육(education & literacy),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문화(culture), 커뮤니케이션과 정보(communication & information) 등 다양한 테마로 국제 비교 가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통계청, 부처 및 기타 통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UIS가 생산한 지표는 인간개발보고서(UNDP), 세계개발보고서(WB), 유니세프(UNICEF) 등과 같은 UN의 주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표 2-9〉 UNESCO UIS 통계 지표 활용 사례

구분	내용	기관
국제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지표 활용	지속가능개발목표 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유엔 통계국(UNSD)
	세계교육불평등 데이터베이스 (World Inequality Database on Education)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유엔개발계획(UNDP)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Stats database)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 젠더 격차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 데이터베이스(UNData database)	유엔 통계국(UNSD)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유럽경영대학원(INSEAD)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젠더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세계경제포럼(WEF)
	ICT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 보고서 활용	유럽혁신지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글로벌교육모니터링 보고서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유네스코(UNESCO)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유엔개발계획(UNDP)
	지속가능개발목표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구분	내용	기관
	세계아동현황 보고서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유니세프(UNICEF)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세계은행 (World Bank)
	글로벌경쟁력 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글로벌젠더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유네스코 과학 보고서(UNESCO Science Report)	유네스코(UNESCO)

자료: UNESCO UIS 홈페이지에서 인용

UIS가 제공하는 데이터 중 문화관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2-10〉 UNESCO UIS 문화관련 통계데이터 현황

구분	내용	한국 포함 여부
Culture	문화고용 Cultural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ltural employment by occupation and industry (%)</li> <li>- Employment in cultural occupations (%)</li> <li>- Employment in cultural industries (%)</li> <li>- Cultural employment by occupation and industry (number)</li> <li>- Employment in cultural occupations (number)</li> <li>- Employment in cultural industries (number)</li> </ul>
	영화산업 Feature fil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ature film production</li> <li>- Distribution of feature films</li> <li>- Cinema infrastructure</li> <li>- Exhibition of feature films</li> </ul>
	국제 문화상품 무역 International trade in cultural g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trade of all goods</li> <li>- International trade of cultural goods</li> <li>-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indicators</li> </ul>

자료: UNESCO UIS Data 홈페이지

## 가. 문화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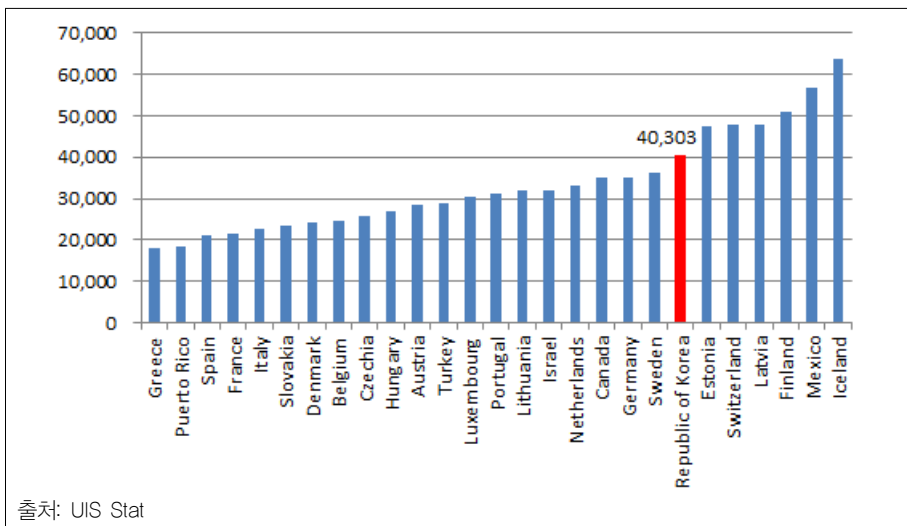
UNESCO 통계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문화 분야 고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8년 통계연구소의 문화고용조사에는 문화 관련 노동인구 규모와



근로조건 등 주요 문화 분야 고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증거에 기반한 문화정책 수립은 물론, 2030년까지 남녀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임금 증진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8(SDG 8)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에 사용된 195개의 지표는 국가경제에서 문화고용의 역할과 73개 국가 및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 1) 문화 분야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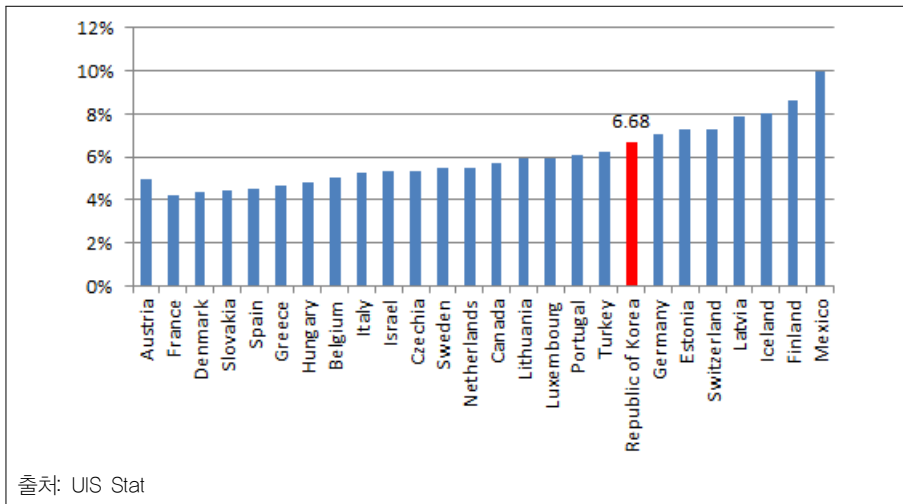
문화 분야 종사자는 문화 분야에서 혹은 문화적 또는 비문화적 직종을 가진 모든 사람과 비문화 분야에서 문화적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합을 가리킨다. 다음 그래프는 인구 100만 명당 문화 분야 종사자 수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약 4만 명의 문화 분야 종사자가 있으며,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핀란드, 라트비아, 스위스,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문화 분야 종사자 수가 비교적 높은 순위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그림 2-13] 인구 100만 명당 문화 분야 종사자, 2015-2017년 중 최신자료(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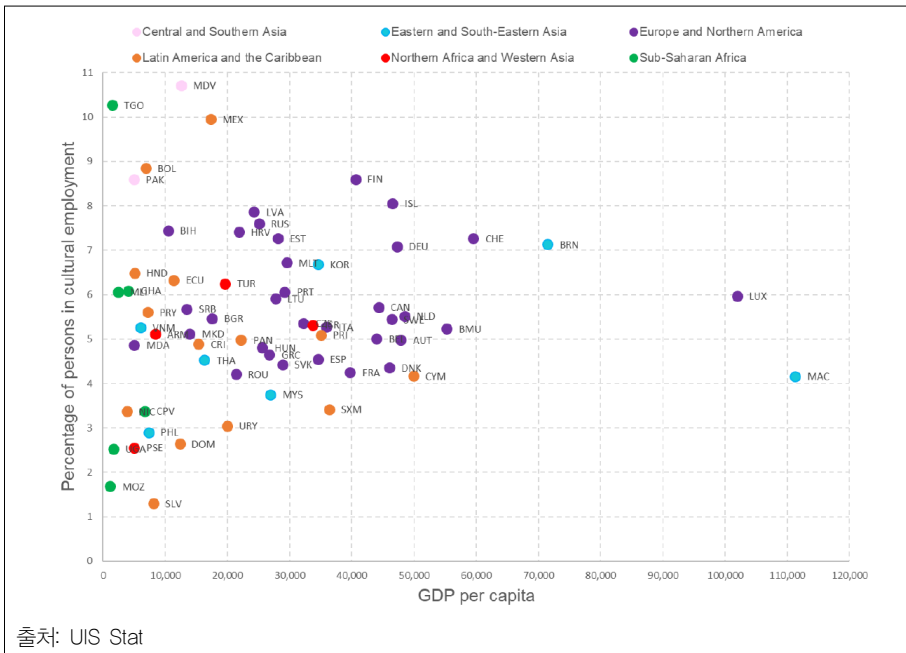
다음은 고용된 전체 종사자 수 대비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비율을 알아보았다. 문화기관 종사자 혹은 문화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 모두가 전체 종사자 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은 대략 6.7%를 차지하며, 멕시코가 10%로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2-14] OECD국가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 2017년 or 최신자료(단위: 명)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전체 종사자 대비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이 4%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가들은 전체 종사자 중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이 4~8% 수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의 범위는 넓어진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거의 10%에 가까운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을 나타내는가 하면,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캐나다, 프랑스 등 보다 더 높은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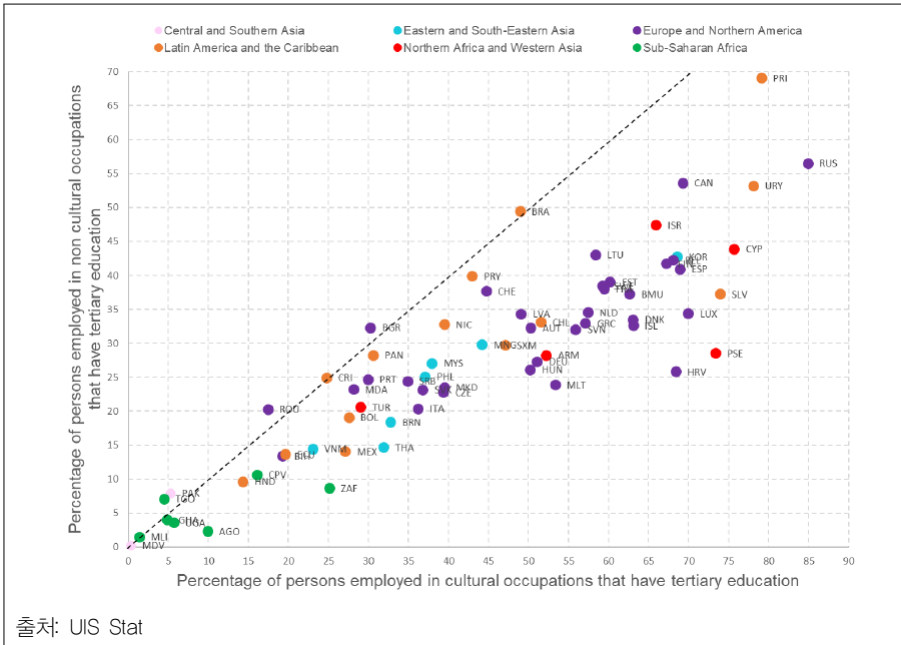


[그림 2-15] 1인당 GDP와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 상관관계, 2015년 or 최신자료(단위: %, dollar)

## 2) 문화 분야 종사자의 교육 수준

다음은 문화 분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 달성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문화 분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비문화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교육 달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문화 분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약 68%의 문화 분야 종사자가 전문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비문화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약 43%만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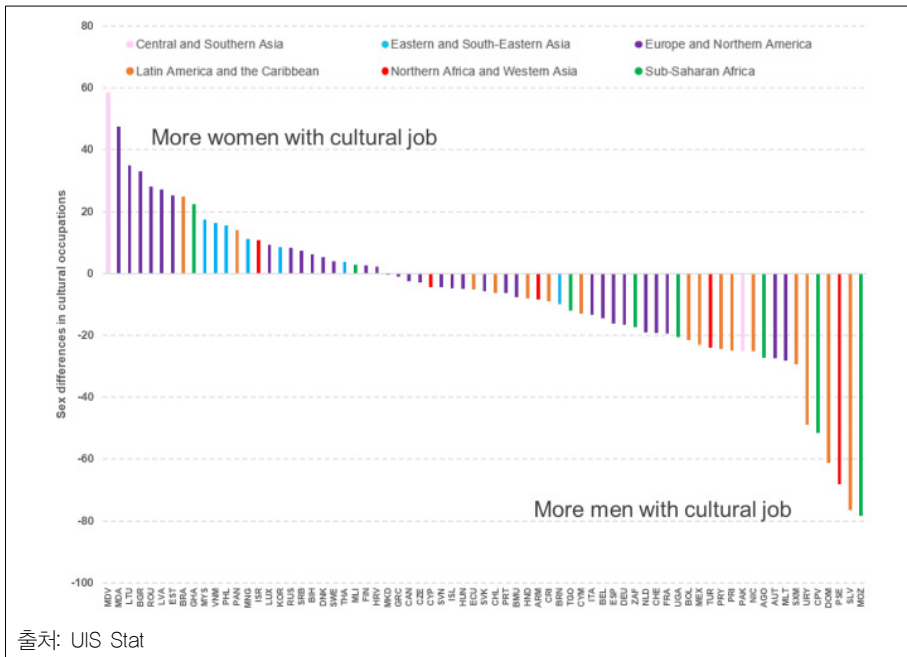
[그림 2-16] 1인당 GDP와 문화 분야 종사자 비율 상관관계, 2015년 or 최신자료(단위: %, dollar)

### 3) 문화 분야 여성 종사자 현황

다음은 문화 분야의 종사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가용자료는 전체국가의 58%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결과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래 그림은 국가별 문화 분야 여성 종사자와 남성 종사자의 분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문화관련 직업 종사자 중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분야 종사자의 단순 비율 외에 문화 분야 종사자가 합리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UIS에서는 소득에 관한 성별 자료를 수집하면서 주요 직종에 충분한 수입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써 둘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파트타임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성별에 대한 문화 분야 직종 소득이나, 근무환경 등 구체적인 지표는 빠져 있는 상태이다.





[그림 2-17] 문화 분야 종사자 남녀 비율, 2015년 or 최신자료(단위: %, do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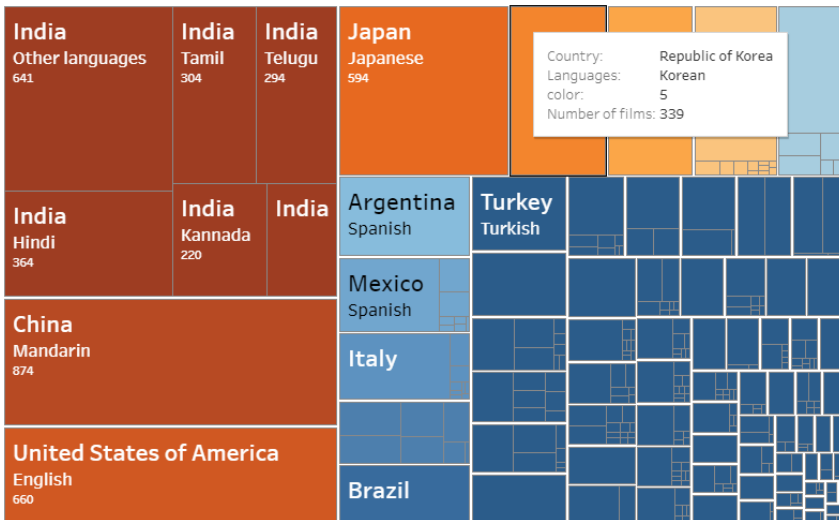
## 나. 영화산업

영화산업 관련자료는 121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UNESCO 통계 연구소(UIS)의 영화 조사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UIS 추정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제작된 영화의 수가 5,559에서 9,900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UIS의 영화산업 관련 데이터는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언어와 시장점유율, 공동제작 관련 국가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2005 문화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영화 산업의 다양성과 개발도상국의 영화산업 생산과 유통에의 균형을 위한 지표로서 활용된다.



### 1) 영화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언어와 제작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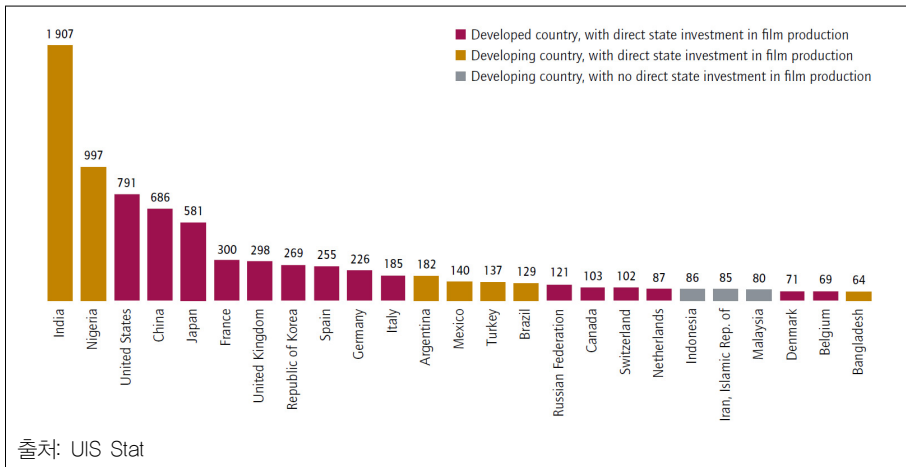
각 국가별 제작에 사용한 언어를 표시하도록 하여, 각 국가와 사용 언어를 함께 보여주는 그림을 제작하였다. 한국은 2016-2017년 2,00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한 인도와 중국(874편), 미국(660편), 일본(594편) 다음으로 5위(339편)를 차지했다



[그림 2-18] 국가별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언어, 2016~2017년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 3개국이 세계 상위 5위 안에 드는 장편영화 제작 국가이나, 상위 10위의 장편영화 제작국가는 대부분 국가가 영화 제작에 직접 투자하는 선진국이었다. 그중 한국은 8번째 순위를 차지하며, 2015년 기준 총 269편의 장편영화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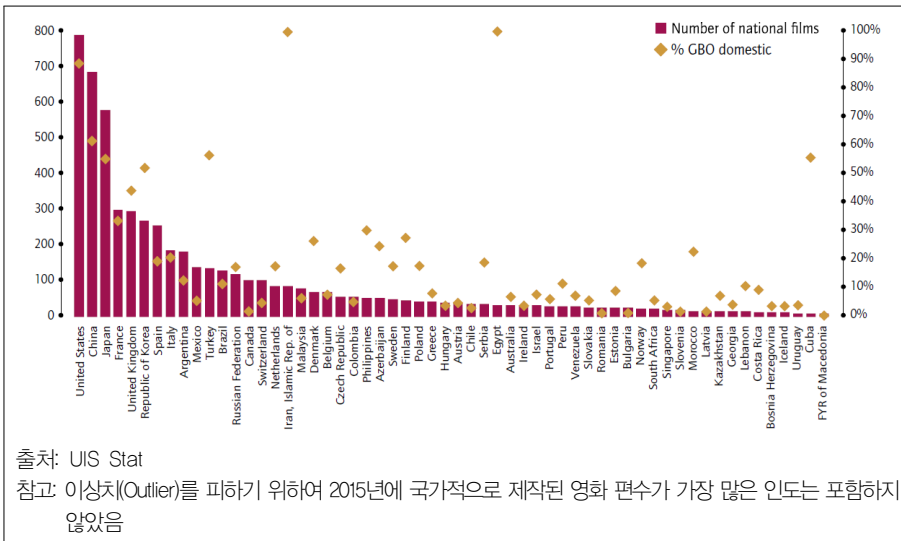


[그림 2-19] 영화제작에 대한 직접 투자 유무에 따라 상위 25개 제작 국가에서  
매년 제작되는 장편 영화 편수, 2015년 or 최신자료 (단위: 개)

## 2) 극장 매출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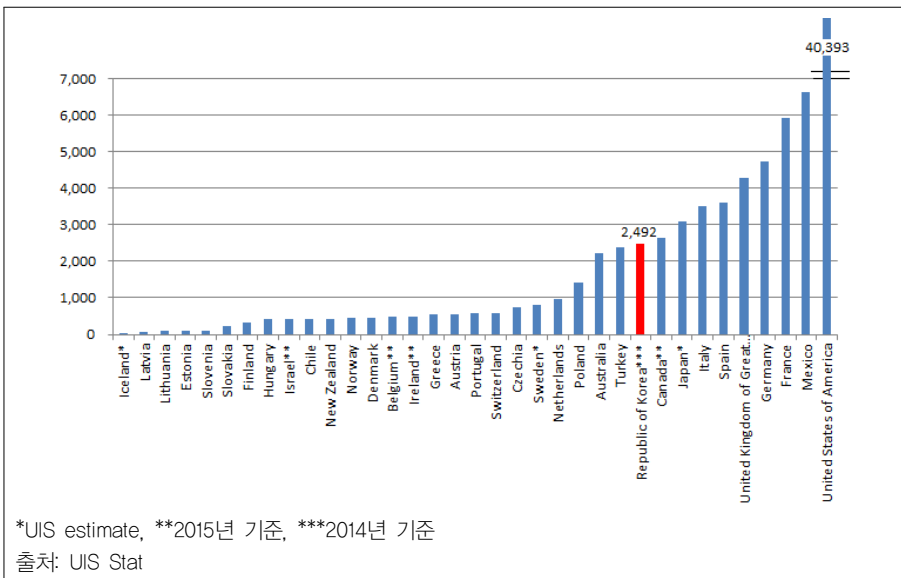
다음은 국내 제작 영화 편수와 박스오피스 총수입 중 국내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이집트, 쿠바 등과 같은 일부 국가의 박스오피스에서 국내 영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영화관에서 외국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규제 때문일 수 있다. 중국은 자국영화에 대한 쿼터제는 없지만, 반대로 1년 34편의 외국영화만을 개봉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로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를 들 수 있다.





[그림 2-20] 국내 제작 영화 편수와 박스오피스 총 수입 중 국내 영화의 점유율, 2015년 or 최신자료 (단위: 개, %)

### 3) 전체 상영관 수



[그림 2-21] OECD 주요국의 전체 상영관 수, 2017년 or 최신자료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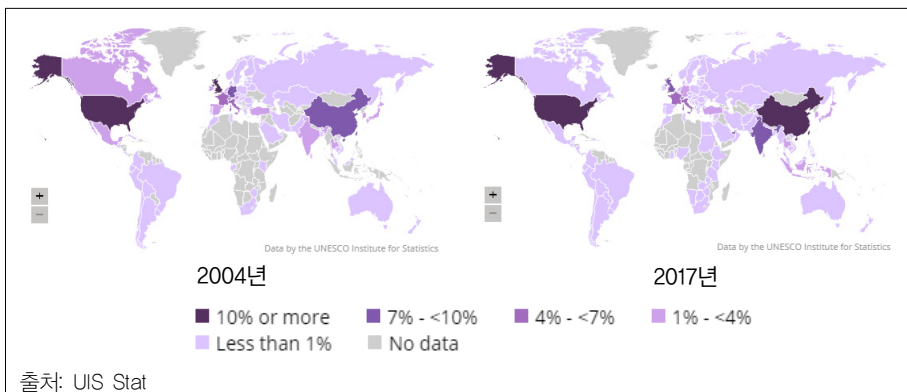


## 다. 국제 문화상품 교역

UIS는 문화상품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소비재, 삶의 상징과 방식(예시: 책, 잡지, 멀티미디어 제품, 소프트웨어, 녹음, 영화, 비디오, 시청각 프로그램, 공예 및 패션)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UIS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상품의 국제적인 흐름은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역량은 2배가 되었다고 발표하였다(UI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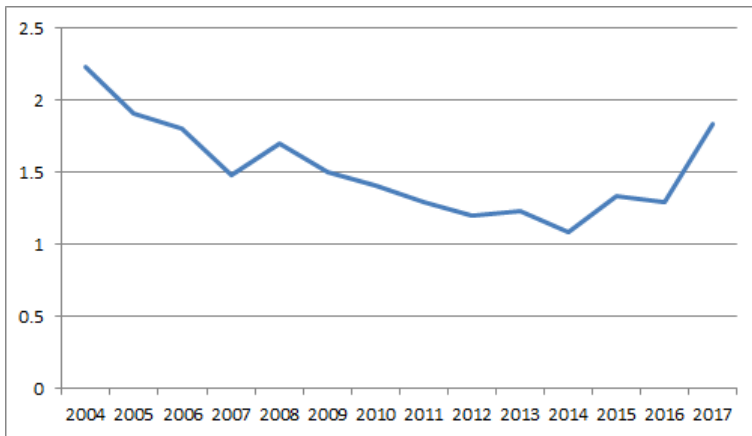
### 1) 문화상품

문화상품의 국제적 교역은 SDGs 목표 17.11(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세계 수출 비중을 두 배로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증가시킬 것)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전체적으로 세계 무역 거래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4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중국(9.68%→14.51%) 및 인도(3.48%→7.06%)가 교역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아지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22] 글로벌 문화상품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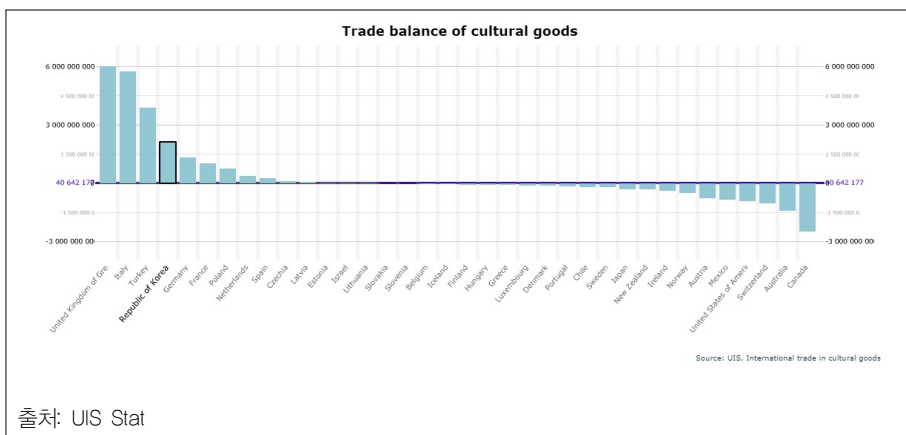




[그림 2-23] 한국 문화상품 수출 비중

## 2) 문화상품 무역수지

문화상품 무역수지는 문화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며, 문화상품의 순 거래라고도 볼 수 있다. 수치가 양수(+)일 경우, 국가는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은 2017년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영국, 이탈리아, 터키 다음으로 수출규모가 수입규모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 국가별 문화상품의 무역수지, 2017년 (단위: USD)



## 제3절

## 국제 문화지표 활용과 응용

## 1. UNESCO의 문화발전지표(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이하 CDIS)

## 가. CDIS 개요

UNESCO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문화발전지표(CDIS)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총 7개의 차원(dimension)과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대상은 저·중소득 국가이다. 지표의 목적은 국가 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에서 문화가 주요한 영역으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 1) 추진 배경

UN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종료 시점인 2015년 이후,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은 과연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고, 그중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데 있어 ‘문화’와 ‘발전’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최근 포용적 사회, 경제 개발, 불이익 축소, 평화 등에 대한 이슈가 중요시되면서 문화가 사회·경제 혁신의 주요 요인이라는 관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가 발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과 전략에서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의 ‘발전’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 개발 목적

CDIS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와 발전’ 간의 특정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인 및 공동체가 겪고 있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실증하고,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문화의 위상을 재확인시킴으로써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와 발전 간의 상호작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문화’ 아젠다 작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 자산을 지속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문화와 발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발전전략과 계획에 문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자 한다.

## 3) CDIS 지표체계: 문화와 발전 정의

- ① **문화의 정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수가 존재하는데, 이 CDIS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정의는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 번째 기능적 관점으로 통상 ‘문화적 분야’로 이해되는 인간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창의성과 관련한 활동 영역을 의미한다. 두 번째 관점은 인류학적 측면에서의 가치, 규범, 지식, 기술, 개인·집단의 신념 등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
- ② **발전의 정의:** ‘인간적 발전’이라는 광의의 개념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부(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부함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 4) 특징

CDIS 이전에도 발전과 연관시켜 문화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문화’와 ‘발전’이라는 두 복잡한 영역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



터와 정보는 한정적이고 파편적이었다. CDIS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가 불완전하여 결과가 모호하거나 측정이 어려운 특정 정책 영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 주제별로 묶은 지표를 제시하고, 지표 간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두으로써 단독 지표가 제공할 수 없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지표가 가지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용성**: 저·중소득 국가의 특징, 니즈와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게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툴을 제공한다.
- ②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5년에 걸친 조사·준비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국제 전문가, 주요 발전 관련 분야 공공 행정가(문화, 경제, 사회, 젠더, 커뮤니케이션 등), 연구 기관과 시민 사회단체 등도 참여하였다.
- ③ **유연성과 적응가능성**: 2차 자료 활용 및 대안 또는 추가 지표도 수용한다. 각 국가 환경과 데이터 존재 수준에 따라 유연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 ④ **분석 용이**: 문화와 발전 간의 횡단적 분석이 가능한 지표와 매트릭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Toolkit와 Culture for Development DNA)

## 나. CDIS 개발 및 활용

### 1) CDIS 개발 과정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 전문가로 구성된 UNESCO CDIS Team은 CDIS 방법론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적용하였고, 참여국들과 결과 공유 및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CDIS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① 2009-2010년: 파일럿 매뉴얼 작성

- CDIS 지표 개발을 위해 8건 보고서 발간
- 1차 국제 전문가 회의: 초기 40개 지표 도출



- 예비 매뉴얼 발간: 데이터 수집과 지표 설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② 2011-2013년: 1차 테스트 단계

- 6개국 워크숍 개최 및 결과 발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가나, 우루과이, 베트남)
- 각 국가 결과 점검을 위한 2차 전문가 회의 개최
- 일부 중복 지표 삭제

## ③ 2012-2014년: 2차 테스트 단계

- 새로운 지표 개발
- 추가 6개국 워크숍 개최 및 결과 발표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에콰도르, 나미비아, 스위스)<sup>2)</sup>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14년까지 총 11개국의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와 분석 보고서(Analytical Briefs Report)가 발간되었다.<sup>3)</sup> 이후 2018년까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코트디부아르, 조지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페루, 에스와티니,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등의 국가가 추가되었다.

## 2) CDIS 활용

다면적 차원에서 문화가 가진 역할과 기여가 실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전략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실례로 나미비아의 경우, CDIS 데이터가 ‘2014-2018년 유엔 개발 원조 프레임워크(United Nations Development Action Framework, UNDAF)’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에콰도르는 본 지표 결과를 활용하여 ‘2009-2013 국가발전계획’에 문화를 모니터링하는 의제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도 2014년 문화정책 수립에 본 지표를 활용한 바 있다.

2) 이집트와 페루는 테스트국에는 포함되었으나, 이 시기에 결과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음

3) 각 국가별로 조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5-9개월 소요되었으며, 각 국가가 제출한 데이터 테이블(Data Tables),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 분석 보고서(Analytical Briefs Report)를 UNESCO CDIS Team이 최종적으로 승인함



## 다. CDIS 분석

### 1) CDIS 지표

CDIS는 1996년 ‘UN/UNESCO 국제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보고서에 담긴 문화와 발전 간의 다면적 관계를 분석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한다. CDIS 분석틀은 아래와 같이 7개의 차원과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UNESCO의 CDIS의 지표 구성과 측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표이다.

〈표 2-11〉 UNESCO의 CDIS 구성

차원	측정 기준	지표
1. 경제	경제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문화의 기여	1) GDP 대비 문화 활동 2) 문화 분야 고용 3) 문화에 대한 가계 지출
2. 교육	가치, 다양성, 개방성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계급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우선순위	1) 포용적 교육 2) 다중언어 교육 3) 예술 교육 4) 문화 분야 전문 교육
3. 거버넌스	문화 분야를 구성하고 문화적 과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약	1) 문화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2) 문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 3) 문화 인프라 분포 4) 문화 거버넌스에 시민사회 참여
4. 사회적 참여	문화적 실천 가치, 태도가 행동, 포용, 협업과 개인 권한 부여를 지향하게 하는 방식	1) 외부 문화 활동 참여 2) 정체성 개발을 위한 문화 활동 참여 3) 타문화에 대한 관용 4) 상호간 신뢰 5)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유



차원	측정 기준	지표
5. 성 평등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참여를 위한 기회와 권리에 대한 남녀 간의 객관적·주관적 차이	1) 성 평등에 관한 객관적 결과
		2) 성 평등에 관한 인식
6.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과 향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건	1) 표현의 자유
		2) 인터넷 접속과 사용
		3) 공영 방송의 픽션 콘텐츠 다양성
7. 문화유산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반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준, 정책 강화를 위한 공약	1) 문화유산의 지속성

출처: <https://en.unesco.org/creativity/activities/cdis>

## 2) CDIS 지표 세부 내용

### ① 경제 차원(Economy Dimension)

경제 차원은 3가지 지표를 통해 경제 발전에 있어 문화의 기여를 측정한다. 세 가지 지표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SNA),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FC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standards and guidelines에 근거하고 있다.

〈표 2-12〉 경제 차원 지표 내용

1) GDP 대비 문화 활동 비중	
목적	국가 경제 영역 내 문화가 차지하는 기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GDP 대비 민간·공식 문화 활동이 기여하는 비중(%)
활용자료	ISIC(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2) 문화 분야 고용 비중	
목적	문화 분야 일자리 및 수입 창출, 복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고용주’로서의 문화 역할을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전체 고용자 중 문화 관련 취업자 비중(%)
활용자료	ISCO(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3) 문화에 대한 가계 지출 비중	



목적	가계 지출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 평가하기 위함
조사내용	최종 전체 가계 지출 대비 문화 활동,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
활용자료	COICOP(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 ② 교육 차원(Education Dimension)

교육 차원은 모든 개인이 지율성과 문화적 가치, 적성, 기술에 대한 학습 혜택을 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장려하고, 문화상호주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공공 문화 감상 증진의 가치화, 경쟁력 있는 창의계급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표 2-13〉 교육 차원 지표 내용

1) 포용적 교육	
목적	교육 영역에서 문화권이 이행되고 있는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상호 교류와 통합을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 사회 발전과 개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가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의 교육에 대한 소외와 결핍 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17세와 22세 사이 전체 인구에 대한 평균 학교 교육 기간
활용자료	통계청 또는 교육부 통계 활용 UNESCO의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Reaching the marginalized>
2) 다중언어 교육 비중	
목적	상호문화주의 증진 정도, 교육 시스템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화와 이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중등교육 내 다중언어 능력 육성을 위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중등교육 첫 2년간 총 언어교육 시간 중 다중언어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시간 비중(%)
활용자료	교육부 혹은 공공기관의 학교 커리큘럼 자료 UNESCO의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중 World Data on Education 보고서 내 해당 국가 자료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3) 예술교육 비중	
목적	청소년에게 얼마나 문화적 표현 능력과 창의적 재능을 장려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중등교육에서 예술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중등교육 첫 2년간 총 교육시간 중 예술교육 할당 비중(%)



활용자료	통계청 혹은 교육부의 통계 활용 UNESCO의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Reaching the marginalized>
<b>4) 문화 분야 전문교육</b>	
목적	공공 및 민간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제공하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5개 문화 영역(문화유산, 음악, 순수예술/비주얼/응용 예술, 예술경영, 영화/이미지) 내에서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고등전문교육을 위한 정부지원의 교육 기관 존재 유무를 측정
조사내용	문화 분야 기술교육, 직업교육, 훈련(TVET), 고등전문교육 시행 기관 수
활용자료	통계청 또는 교육부의 통계 활용 UNESCO의 Online Portal to Recogniz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③ 거버넌스 차원(Governance Dimension)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 설정, 정책, 제도적 틀을 만들고 이행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책임과 행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2-14〉 거버넌스 차원 지표 내용

<b>1) 문화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b>	
목적	문화, 문화권 문화 다양성에 관한 주요 국제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 비준되고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국가법과 규정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조사내용	문화, 문화적 권리,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여부에 대한 지수
활용자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UNESCO databases
<b>2) 문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b>	
목적	문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우선순위 전략을 이해하고, 문화정책 설정, 적용,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존재를 파악하며, 문화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분권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조사내용	문화, 문화적 권리,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발 여부에 대한 지수
활용자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UNESCO databases
<b>3) 문화 인프라 분포</b>	
<b>목적</b>	문화 참여를 증진하고 폭넓은 문화적 접근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인구 대비 특정 문화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분포를 측정하고자 함. 그 기준으로 박물관, 도서관 및 미디어 센터, 공연장을 설정
<b>조사내용</b>	각 지역 인구 대비 문화 인프라 분포 현황
<b>활용자료</b>	문화 인프라 등록 리스트 국가 문화정보 시스템 문화부 발간 디렉토리 및 온라인 디렉토리
<b>4) 문화 거버넌스에 시민사회 참여</b>	
<b>목적</b>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데 시민 사회(문화 분야 전문가와 소수집단) 참여에 대한 개방 기회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b>조사내용</b>	문화정책과 프로그램 설정 및 이행에서의 전문가와 소수집단 참여 지수
<b>활용자료</b>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UNESCO databases

#### ④ 사회적 참여 차원(Social Participation Dimension)

문화적 실행, 가치, 태도가 개인과 공동체의 소속감, 협력, 자율권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2-15〉 사회적 참여 차원 지표 내용

<b>1) 외부 문화 활동 참여</b>	
<b>목적</b>	문화 활동 참여 수준을 측정하여 사회적 분열이나 소외 정도를 파악하며, 인구통계별 문화 참여에 대한 패턴을 측정하고자 함
<b>조사내용</b>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외부 문화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중(%)
<b>활용자료</b>	문화 참여 조사, 여가 조사 등 통계조사 자료
<b>2) 정체성 개발을 위한 문화 활동 참여</b>	
<b>목적</b>	문화 활동 참여 수준을 측정하여 사회적 분열이나 소외 정도를 파악하며, 인구통계별 문화 참여에 대한 패턴을 측정하고자 함
<b>조사내용</b>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정체성 개발을 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중(%)
활용자료	문화 참여 조사, 여가 조사 등 통계조사 자료
<b>3) 타문화에 대한 관용</b>	
목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과 관용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 내 관용에 대한 질문
활용자료	WVS(World Values Survey 중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 표시: 다른 인종, 이민자/외국인노동자, 다른 종교인 부분) 국가 통계 혹은 지역 설문조사
<b>4) 상호 간 신뢰</b>	
목적	신뢰, 결속력과 협동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상호 간 신뢰에 대한 질문
활용자료	Rosenberg 질문을 포함한 국가 설문조사: '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간다 또는 사람과 만날 때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Rosenberg 질문을 포함한 지역 설문조사(Latino Barometer, Asian Barometer, Afro Barometer) WVS(World Values Survey) GPW(Gallup World Poll)
<b>5)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유</b>	
목적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즉,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삶을 선택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조사내용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성 정도(중간값 측정)
활용자료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성 질문이 포함된 국가 공식 설문조사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성 질문이 포함된 지역 설문조사(예: Latino Barometer) WVS(World Values Survey):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자율 정도를 1에서 10까지 척도로 표시하는 질문

### ⑤ 성 평등 차원(Gender Equality Dimension)

국가 발전과 인권 존중,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성 평등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표 2-16〉 성 평등 차원 지표 내용

1) 성 평등에 관한 객관적 결과	
목적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권리에 대해 남녀 간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정치, 교육, 노동에서의 남녀 차이 및 성 평등에 관한 입법 제도 지수
활용자료	정치 참여: Inter- Parliamentary Union의 Women in Parliaments Database 교육 참여: Barro and Lee data, 교육부 자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노동 참여: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의 Statistical Annex 4, Gender Inequality Index and related indicators 성 평등 관련 입법 제도: GID-DB(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2) 성 평등에 관한 인식	
목적	노동 참여, 정치적 참여와 교육 영역에서의 성 평등에 관해 사회 구성원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성 평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에 관한 질문 (주관적 결과)
활용자료	WVS(World Values Survey) 국가 공식 조사 (통계청 혹은 여성부) 지역 조사

## ⑥ 커뮤니케이션 차원(Communication Dimension)

아이디어, 정보,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접근을 증진하고, 공공 방송 시스템에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간의 긍정적 상호성의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표 2-17〉 커뮤니케이션 차원 지표 내용

1) 표현의 자유	
목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서 자유로운 미디어를 위한 환경 조성 유무를 평가하고자 함이며, 국가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출판, 방송,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자율성에 대한 지수
활용자료	Freedom House의 Freedom of the Press Index
2) 인터넷 접속과 사용	
목적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증진과 민주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비중을 측정하고자 함. 간접적으로는 ICT 접근에 관한 인프라, 법적 규제, 정책,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를 구축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국가 투자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조사내용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
활용자료	인터넷 사용 개인 비중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 가계 조사 The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ITU(ICT Data and Statistics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b>3) 공영 방송의 픽션 콘텐츠 다양성</b>	
목적	공영 TV 방송 시스템 내에 자국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
조사내용	연간 무료 공영 TV 픽션 프로그램 방송 시간 중 자국 TV 픽션 프로그램 방송 시간 비율
활용자료	정보통신부 국가 통계 자료 공공방송 서비스 자료 시청각 규제 기관 혹은 언론 위원회

### ⑦ 문화유산 차원(Heritage Dimension)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호,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인 틀을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공약과 실행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표 2-18〉 문화유산 차원 지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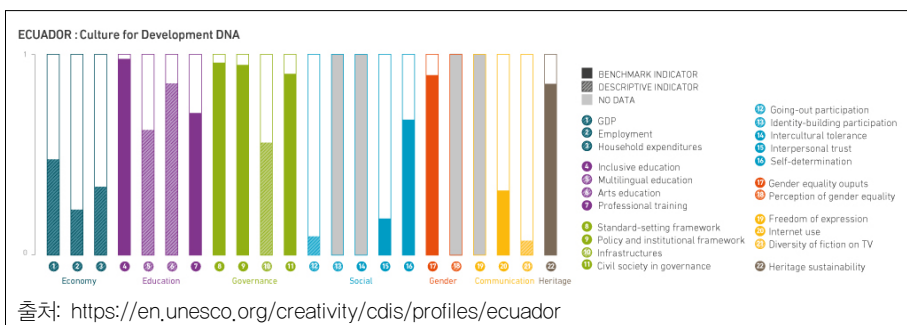
<b>1) 문화유산의 지속성</b>	
목적	문화유산의 지속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정책과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함. 자연재해로부터의 손상이나 불법적 행위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을 증진하며 재정적 기금을 제공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역 공동체 참여를 장려하는지도 파악하고자 함. 또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공감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내용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차원적 프레임워크 개발 여부 질문 (등록, 보호와 관리, 인식 제고와 지원에 대한 세 영역)
활용자료	UNESCO World Heritage 리스트 UNESCO World Heritage 예비 리스트 UNESCO의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UNESCO의 List World Heritage in Danger UNESCO의 List of Intangible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Lis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isters of underwater heritage



### 3) CDIS 결과물

각 국가별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되어 발간된다.

- ① 데이터 테이블(Data Tables): 개별 지표에 대한 엑셀파일로, 공통 포맷이 제공되어 자동적으로 결과가 계산되고 결과물이 시각화된다.
- ②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 조사 과정, 주요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방법론 등이 서술되어 있다. 각 지표에 대한 원(raw) 데이터 설명과 데이터 계산 방법,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점, 정책적 활용과 관련한 CDIS 자료 연계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 ③ 분석 보고서(Analytical Briefs Report): 조사 결과를 요약 및 해석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는 분석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문화와 관련된 국가 개발 전략 개요, 시행 중인 문화정책 개요, 그리고 CDIS의 7개 영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개요 등 정책에 대한 리뷰와 함께 정책 입안을 위해 조사 결과 활용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또한 각 국가별 22개 지표 결과를 막대로 시각화한 <Culture for development DNA>를 제공하여 국가별 또는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2-25] 예시: 에콰도르의 Culture for Development DNA



## 라. 이슈 및 시사점

UNESCO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화가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고자 문화발전지표(CDIS)를 개발하였다.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가 겪고 있는 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을 도와주는가를 실증하고,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문화의 위상을 재확인시킴으로서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부(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부함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이해되던 발전의 정의는 주로 빈곤 퇴치나 불평등 축소라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전 전략의 성공 여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웰빙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환경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문화는 사회에 내재되어 있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는 결국 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한 조력자인 것이다. 또한 문화는 건강, 교육,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포용과 환경 보호와 같은 다양한 영역과 조화를 이룰 시에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은 문화적 실천뿐만 아니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즉, 문화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CDIS는 인간의 활동 영역이자 가치와 규범으로서의 문화가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확장시키고, 웰빙을 증진하며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 어떻게 기회를 촉진하고 가능케 하며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지표는 저·중소득 국가에게 문화가 발전을 이루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실증하고, 문화와 발전 간의 선순환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긴 기간 동안 CDIS 구성 과정에 다양한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각국 결과를 순위로 나열하는 대신 시각화된 ‘Culture for development DNA’라는 형태로 보여줌으



로써 문화와 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효과적 이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포맷의 툴킷(Implementation Toolkit)을 제공함으로써 수집된 데이터의 통합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대안 또는 추가 자료 적용 등 유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문화 영역에 대한 통계 작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저 중소득 국가의 문화 통계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 2. 유럽연합의 문화민주주의지표(Indicator Framework on Culture and Democracy, 이하 IFCD)

### 가. IFCD 개요

#### 1) 추진 배경

최근 문화정책 영역은 시민 참여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 문화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였다. 사실 유럽 내에서 민주주의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이민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은 과연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문화가 가진 역할과 관계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실증하기 위한 입증 자료나 지표가 미흡하였기에, 2013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0회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of Culture’<sup>4)</sup>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문화와 민주주의 두 영역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 및 문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때부터 유럽 의회의 이니셔티브로 IFCD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4) 2013년 모스크바에서 “Governance of Culture - Promoting Access to Culture”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음.



이 지표를 통해 민주주의에서의 문화 영향력과 문화 기금의 경제적 효율성을 보여주며, 유럽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동향 모니터링과 문화 접근 및 참여를 파악함으로써, 유럽 회원국에게 정책 입안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지표 구축을 위해 독일 베를린의 ‘Hertie School of Governance’와 조사 기관이 협업하였고, EU와 유럽문화재단이 지원하였다.

## 2) 추진 목적

- ① 정책입안을 위한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② 정책입안자들에게 문화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각국의 위상을 확인시키고 다른 국가와 비교를 가능케 하고자 한다.
- ③ 유럽의회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 및 국제기구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 3) 지표체계: 문화와 민주주의 정의

IFCD는 문화와 민주주의를 두 축으로 하여 상호간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지표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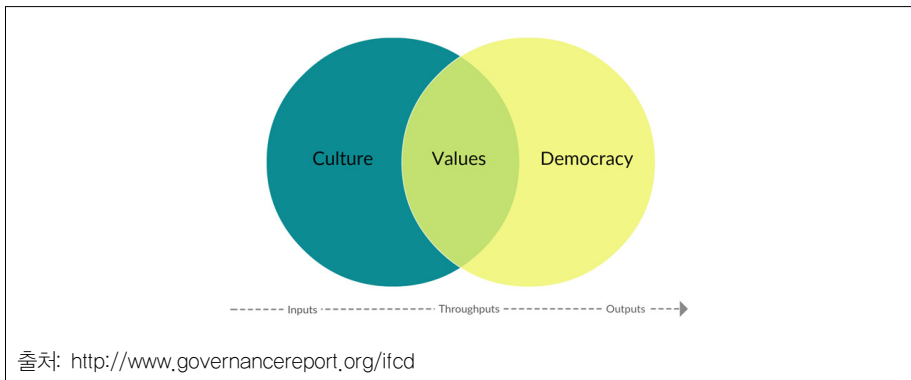
- ① 문화의 정의: 협의의 개념으로, 문화의 자유, 평등,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 활동 또는 상품·서비스로 정의한다.
- ② 민주주의의 정의: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그들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자를 선택하는 정부 형태이자 정치적 정당 경쟁이 제도화되고 행정 권력이 규제되며, 기본적인 시민권과 자유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에 의해 보호받는 정부를 의미한다.

## 4) IFCD 특징

- ① 인터랙티브 웹기반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베타버전)
- ② 다중적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 ③ EU 전체 및 개별 국가 간 요인과 지표 비교가 가능하다.



④ 문화와 민주주의 간의 각 요소/지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2-26] IFCD 구성

## 나. IFCD 개발 및 활용

### 1) IFCD 개발 과정

- ① 2013년: 범위 설정을 위한 연구 시작
- ② 2014년: 지표 개발 단계
  - 개념과 모델 개발
  - 프로젝트 컨설팅
  - 국가 선정과 테스트 및 결과 발표
- ③ 2015년: 개발 심화 단계
  - 지표 확장
  - 정책 관련성 모색
  - 인터페이스 개발 착수
- ④ 2016년: 런칭 준비
  - IFCD 테스트 위한 10개국 방문
  - 정책담당자 위한 가이드북 발간



- 프로토타입 및 인터랙티브 웹 기반 인터페이스 베타 버전 개발

⑤ 2017년: EU 43개 회원국 데이터 취합 및 통합<sup>5)</sup>

⑥ 2018년: 가이드북과 데이터 업데이트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 개선

## 2) IFCD 활용

IFCD는 연간 EU에서 발간하는 문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보고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유럽의회의 우선순위와도 연관된다. 또한 Secretary General on the State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Europe 등에서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에도 활용된다.

본 지표 자료를 활용하여 이미 두건의 EU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첫 번째 ‘문화 참여와 포용적 사회(Cultural participation and inclusive societies) (2017)’를 통해 문화 간의 연결 및 사회적 신뢰와 포용이 강조되었고, 두 번째 보고서 ‘문화와 정치에서의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는 가?(Online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politics: towards more democratic societies?)(2018)’는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문화와 정치 참여에 미친 영향력을 탐색, 이로 인한 기회와 도전을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 문화와 정치 참여 지원은 포용적이고 민주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실증되었다.

## 다. IFCD 분석

### 1) IFCD 구성

아래 표와 같이 IFCD는 문화와 민주주의를 4개의 차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5) 해당 국가는 다음과 같다: Albani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tenegro,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Ukraine,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시민, 정책, 자유와 평등 차원은 문화 활동과 다양성에 중점을 둔 ‘문화’와 민주적 정치 시스템의 과정과 제도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편 문화는 경제 차원을 포함한 반면, 민주주의는 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표 2-19〉 IFCD 구성 요소

문화		민주주의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시민	1. 문화적 참여 1) 예술적 표현과 창작 2) 해외 문화에의 관심 3) 공평한 참여 4) 온라인 창의성 5) 온라인 문화 참여 6) 수동적 문화 참여 7) 예술분야 학생	시민	1. 정치적 참여 1) 제도화된 참여 2) 비제도화된 참여
정책	1. 문화 기금 1) 문화 기금의 입법화 2) 문화에 대한 직접 기금조달 2. 문화 개방성 1) 문화다양성의 지원과 증진 3. 문화 교육 1) 예술교육 2) 이종문화 간의 교육	정책	1. 정부 역량 1) 분석적 역량 2) 중앙은행의 독립성 3)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 4) 정치적 독립성 2. 정치적 경쟁 1) 정치적 경쟁력 2) 정당 재정 3) 논쟁과 경쟁에 대한 원칙 3. 안전장치/견제/균형 1)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 2) 위헌 법률 심사권 4. 투명성 1) 부패 부재 2) 정보 개방성
경제	1. 문화산업 1) 문화산업 결과물 2) 무형 자산 3) 문화산업 규모 2. 문화 인프라 1) 문화 인프라 규모	법규	1. 법 앞의 평등 1) 사법권의 공정성 2) 사법권의 독립 2. 사법 체계 수준 1)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2) 사법 효율성과 전문성



문화		민주주의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차원	요소 및 하위 지표
자유와 평등	1. 문화적 접근성과 대표성 1) 문화적 장소와 이벤트에 대한 접근성 2) 평등에 대한 공적 기준	자유와 평등	1. 개인의 자유 1)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 2) 결사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2. 개인의 자유 1) 자유 행동 2) 안전과 신체적 온전함 3. 정치적 대변 1) 참여의 평등성

출처: <http://www.governancereport.org/ifcd>

## 2) IFCD 지표 세부 내용

### ① 문화지표: 시민

1. 문화적 참여		
1) 예술적 표현과 창작	조사내용	-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기, 춤, 악기 연주, 예술작품 창작, 영화·사진 활동, 노래, 문학 활동
	활용자료	- Eurobarometer 79,2
2) 해외 문화에의 관심	조사내용	- 최소 한 가지 이상 외국어 가능한 25-64세 인구 - 다른 유럽국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 외국어 학습 의사 - 학생의 해외 학습 경험
	활용자료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 EU-Adult Education Survey - Eurobarometer 67,1 - Eurostat [educ_thmob] - Eurydice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3) 공평한 참여	조사내용	- 자선단체 기부 - 무보수 자원봉사
	활용자료	- CAF World Giving Index - European Values Study 2008
4) 온라인 창의성	조사내용	- 자신만의 문화콘텐츠 온라인에 업로드 - 웹사이트나 블로그 개설 - 웹사이트·블로그 디자인과 같은 창의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도메인(예: .biz, .info, .org, .net, .com)</li> <li>- 국가 도메인</li> <li>- 위키피디아 월별 페이지 편집</li> <li>- 유튜브 비디오 업로드</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robarometer 79,2</li> <li>- Global Innovations Index</li> </ul>
5) 온라인 문화 참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웹사이트 방문</li> <li>- 게임 플레이</li> <li>- 영화 다운로드</li> <li>- 스트리밍</li> <li>- 온라인 신문기사 읽기</li> <li>-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li> <li>- 온라인 음악 감상</li> <li>- 문화 관련 블로그 읽기</li> <li>- 온라인 문화상품 구매</li> <li>- 문화 행사 인터넷 검색</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robarometer 79,2</li> </ul>
6) 수동적 문화 참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방문</li> <li>-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li> <li>- 독서</li> <li>- 콘서트 관람</li> <li>- 유적지 방문</li> <li>- 도서관 방문</li> <li>- 공연 관람(무용, 공연예술, 오페라)</li> <li>- 연극 관람</li> <li>- 영화 관람</li> <li>- TV 문화 프로그램 시청</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li> <li>- Eurobarometer 67,1</li> <li>- Eurobarometer 79,2</li> </ul>
7) 예술 분야 학생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분야 학생 수</li> <li>- 예술분야 대학 졸업자 수</li> <li>- 예술 강의 등록 학생 수</li> </ul>
	활용자료	-Eurostat [educ_enr15]; [educ_grad5]; [educ_uoe_enra03]



## ② 문화지표: 정책

1. 문화 기금		
1) 문화 기금의 입법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분야 스폰서십 도모를 위한 계획 존재 유무</li> <li>- 문화예술 분야 스폰서십 세금 감면 혜택 존재 유무</li> </ul>
	활용자료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2) 직접 지원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업자를 위한 직접적 공적기금 지원</li> <li>- 비주얼 아티스트/작가/작곡가를 위한 세금 감면</li> <li>- GDP 대비 문화 소비</li> </ul>
	활용자료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2. 문화 개방성		
1) 문화 다양성의 지원과 증진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집단의 합법적 언어 존재 유무</li> <li>- 다중언어 교육</li> <li>- 소수집단 언어 사용 증진을 위한 법적 규정 존재 여부</li> <li>- 이민자 단체를 위한 공적 지원</li> <li>- 정기적 통합 정책 보고서 존재 여부</li> <li>- 혼인과 파트너십 정책</li> <li>- 국제적으로 제작된 영화 비율</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li> <li>-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li> </ul>
3. 문화 교육		
1) 예술 교육	조사내용	- 유럽 의무 교육 중 연간 예술 교육 시간 비율
	활용자료	- Eurydice
2) 이종문화 간의 교육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문화에 대한 교육 여부</li> <li>-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이종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li> </ul>
	활용자료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 ③ 문화지표: 경제

1. 문화산업		
1) 문화 산업 결과물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국가 간과 EU외 국가와의 문화상품 무역 비율</li> <li>- 엔터테인먼트 산업/출판 산업 이직률</li> <li>-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 비율</li> <li>- 국가 영화 제작 편수</li> </ul>



	활용자료	- Eurostat [cult_trd_prd]; [sbs_na_1a_se_r2]; [sbs_na_2a_dade] - Global Innovations Index
2) 무형 자산	조사내용	- 상표등록 건수 - 국제 상표등록 건수 - 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 수준 - ICT 조직 모델 창출 역량 수준
	활용자료	- Global Innovations Index
3) 문화 산업 규모	조사내용	- 문화산업 창업 수 - 문화 영역 고용자 수 - 창조산업/문화 영역 고용자 비율 - 출판 산업 연간 평균 성장률
	활용자료	- Eurostat [bd_9bd_sz_cl_r2]; [lfsq_egan2]; [sbs_na_1a_se_r2]
<b>2. 문화 인프라</b>		
1) 문화 인프라 규모	조사내용	- 박물관 수 - 영화관 스크린 수 - 문화유적지 수
	활용자료	- 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UNESCO World Heritage List

## ④ 문화지표: 자유와 평등

<b>1. 문화적 접근성과 대표성</b>		
1) 문화적 장소와 이벤트에 대한 접근성	조사내용	- 연령, 수입, 성별, 지역, 교육 수준에 따른 문화적 장소와 이벤트 접근성에 대한 평등 수준
	활용자료	- Eurobarometer 79,2
2) 평등에 대한 공적 기준	조사내용	- 문화 영역 평등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 존재 유무 - 문화 기관 내 여성 임원 승진을 위한 기준 존재 유무 - 문화 영역 내 워킹 우먼에 관한 연구 존재 유무
	활용자료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 ⑤ 민주주의지표: 시민

1. 정치적 참여		
1) 제도화된 참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국민투표의 합</li> <li>- 이전 선거 투표율</li> <li>- 정당이나 조합 활동 참여율</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World Value Survey Wave 6</li> </ul>
2) 비제도화된 참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 참여나 합법적 시위에 참여한 응답자 비율</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ul>

## ⑥ 민주주의지표: 정책

1. 정부 역량		
1) 분석적 역량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학원 수</li> <li>-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 등록된 싱크탱크 수</li> <li>- 싱크탱크 현황</li> <li>- 사회과학분야 연구 기금</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vernance Report 2014</li> <li>-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li> <li>-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li> </ul>
2) 중앙 은행의 독립성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 독립성 평가</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ul>
3)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 수준</li> <li>- 의회에 대한 평균 신뢰 수준</li> <li>- 정당에 대한 평균 신뢰 수준</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ld Values Survey</li> </ul>
4) 정치적 독립성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에 의한 정치적 자유 정도</li> <li>- 무력에 의한 정치적 자유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ul>
2. 정치적 경쟁		
1) 정치적 경쟁력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원 의석 수 차이</li> <li>- 투표 대비 의석 수 차이</li> <li>- 소수정당 의석 차지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ul>



2) 정당 재정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수입과 지출의 상한 제한 존재 유무</li> <li>- 정당 재정에 대한 법률 규정 존재 유무</li> <li>- 직·간접적 정당 공적 재원에 대한 법률 규정 존재 유무</li> </ul>
	활용자료	- Democracy Barometer
3) 논쟁과 경쟁에 대한 원칙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 참여 독려 정도</li> <li>- 선거구 변경 가능성 존재 유무</li> <li>- 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관문 수준</li> <li>- 투표권 조건</li> <li>- 대안적 우선권이 추구되는 정도</li> <li>- 정치적 우선권 표현에 관한 규정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Polity IV Project</li> </ul>
3. 안전장치/견제/균형		
1)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권과 입법권 간의 균형 정도</li> <li>- 행정부의 제약</li> <li>-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제도적 제약 정도</li> <li>- 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li> <li>- 정부 권력 행사가 비정부 견제에 적용을 받는 정도</li> <li>- 감사를 통한 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 정도</li> <li>- 정부 권력 행사가 입법부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정도</li> <li>- 정부 공권 남용에 대한 제재</li> <li>- 공무원이 공권 남용에 대해 제재 받는 정도</li> <li>- 권력이양이 법에 적용되는 정도</li> <li>- 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제도적 제약</li> <li>- 공무원이 공권 남용에 대해 책임지는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Polity IV Project</li> <li>- Rule of Law Index</li> </ul>
2) 위헌 법률 심사권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부 권한</li> <li>- 정치적 결정을 관리하는 사법부로서의 가능성</li> <li>- 사법부가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Rule of Law Index</li> </ul>
4. 투명성		
1) 부패 부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제도 내에서 부패 부재 정도</li> <li>- 행정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li>- 사법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li>- 경찰과 군대가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Rule of Law Index</li> </ul>
2) 정보 개방성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정도</li> <li>- 법률 보급과 접근성</li> <li>- 공공 자료의 이용가능성</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Rule of Law Index</li> </ul>

### ⑦ 민주주의지표: 법규

#### 1. 법 앞의 평등

1) 사법권의 공정성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위한 헌법 규정 존재 여부</li> <li>- 공정한 사법체계와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 틀의 효과 정도</li> <li>-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 정도</li> <li>- 시민 사법제도가 국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알맞은 정도</li> <li>- 시민 사법제도의 차별 정도</li> <li>- 형사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비차별성 정도</li> <li>- 피해자와 피의자 권리에 대한 효과적 보호 정도</li> <li>- 평등한 대우와 차별 부재의 정도</li> <li>- 형사 사법제도의 부패 부재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li> <li>- Rule of Law Index</li> </ul>
2) 사법권의 독립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권이 정부, 시민, 기업 영향에서 자유로운 정도</li> <li>- 시민 사법제도의 부패 부재 정도</li> <li>- 시민 사법제도가 부도덕한 정부 영향에서 자유로운 정도</li> <li>- 형사 사법제도가 부도덕한 정부 영향에서 자유로운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li> <li>- Rule of Law Index</li> </ul>

#### 2. 사법 체계 수준

1)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 체계와 법의 집행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비율</li> <li>-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비율</li> <li>- 사회규칙에 대한 기관들의 신뢰와 준수 정도</li> </ul>
-----------------	------	---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li> </ul>
2) 사법 효율성과 전문성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li> <li>- 소송이 적시에 진행되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지연되지 않는 정도</li> <li>- 교정 시스템이 범죄 행위 감소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도</li> <li>- 범죄 판결의 효과 정도</li> <li>- 범죄 조사 제도의 효과 정도</li> <li>- 분쟁 해결</li> <li>- 사법 전문성</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ule of Law Index</li> <li>- Democracy Barometer</li> </ul>

## ⑧ 민주주의지표: 자유와 평등

1. 개인의 자유		
1)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전체 신문 부수 중 중도 신문의 부수 비율</li> <li>-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li> <li>- World Press Freedom Index의 글로벌 스코어</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li> <li>- World Press Freedom Index</li> </ul>
2) 결사의 자유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사의 자유가 정부 제한에 적용받는 정도</li> <li>- 헌법 규정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li> <li>- 결사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받는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li> <li>- Democracy Barometer</li> <li>- Rule of Law Index</li> </ul>
3) 표현의 자유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의 정도</li> <li>- 미디어에 권력 남용에 대한 정보를 넘겼을 경우 부정적 결과 정도</li> <li>- 표현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Quality of Government Expert Survey Data</li> <li>- Rule of Law Index</li> </ul>
2. 개인의 자유		



1) 자유 행동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 정도</li> <li>- 국가 내 여행 자유의 정도</li> <li>- 출국과 귀환의 자유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li> </ul>
2) 안전과 신체적 온전함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온전함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의 정도</li> <li>- 생명권과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정도</li> <li>- 국가 전체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li> <li>- 범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정도</li> <li>- 사람들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야기하지 않는 정도</li> <li>- 임의적 간섭에 대한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정도</li> </ul>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li> <li>- Rule of Law Index</li> </ul>
3. 정치적 대변		
1) 참여의 평등성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국정 참여권 보장</li> <li>- 대안적 참여 형식에서 참여가 비선택적인 정도</li> <li>- 교육과 수입에 근거한 투표자 비율</li> </ul>
	활용자료	-Democracy Barom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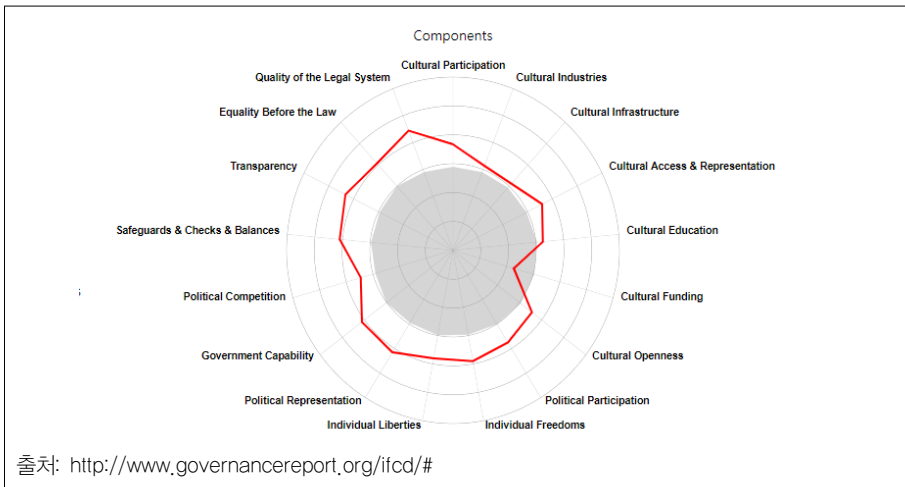
### 3) IFCD 결과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개발을 통해 해당 국가 현황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선택한 요소나 지표가 다른 요소나 지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요인이 선택 지표에 가장 관련도가 높거나 혹은 개선 여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회 점수도 제공한다.

#### ① 국가별 현황(Country Status)

아래 그림과 같이 조사 개요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전체 평균, EU국, OECD국, 개별 국가와 비교할 수 있기에 해당 국가의 우수한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대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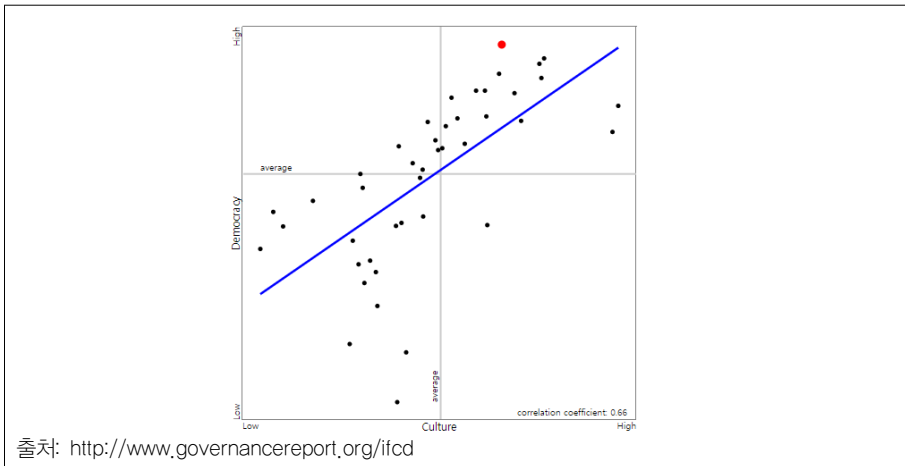




[그림 2-27] 결과 예시: 노르웨이 국가 현황

## ② 요소 간 상관관계(Component Relationships)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국가의 문화와 민주주의 영역 내 각 요소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각 요소 간 관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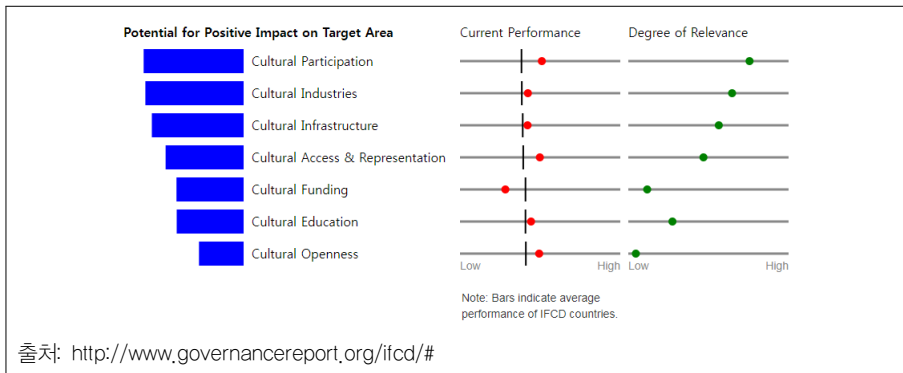


[그림 2-28] 결과 예시: 노르웨이의 요소 간 상관관계



### ③ 기회 테이블(Opportunity Table)

문화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다. 여기에서 ‘긍정적 영향 가능성’ 값이란, 해당 국가의 각 문화 요소 점수와 상관관계 정도를 곱한 값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요소를 선택하면 문화 영역(문화참여, 문화산업, 문화 인프라, 문화접근과 대표성, 문화 교육, 문화 기금, 문화 개방성)이 막대그래프 길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이처럼 요소별 긍정적 잠재성을 파악함으로써 문화 관련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29] 결과 예시: 노르웨이의 기회 테이블

## 라. 이슈 및 시사점

민주주의와 문화는 정책 영역 상에서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문화적 참여가 높은 사회일수록 더 개방되고 관용적이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자기 표현, 비판적 사고, 의견 형성 같은 역량을 길러주는 데 문화가 가진 역할에 주목하여 그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최신 지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또한 그간 유럽연합에서 문화와 경제, 문화와 웰빙, 문화와 건강 등을 다룬 연구는 시행되었으나, 문화와 민주주의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었



다. 따라서 IFCD는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문화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종합적이고 경험 기반의 지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활용 측면에서 보면, 지표 분석을 통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 관심이 요구되는 특정 영역 및 향후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에, 문화 부문에서 세부적인 재원 및 지원이 필요한 영역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결정을 이행하기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민주주의 영역의 17개 요소, 41개의 지표, 약 170개의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적 문제, 이민자 문제, 사회적 포용, 포폴리즘, 디지털화와 같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도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제3장

# 국가별 문화지표 분석







## 제1절

## 미 주

## 1. 캐나다

## 가. 개요

캐나다의 문화지표 및 통계는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주도 하에 생산되고 있다.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를 포함한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지표 개발 및 통계 진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통계결과를 재가공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지표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캐나다 문화위성계정(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 이하 CCSA)이 있다. UNESCO FCS를 수용하여 광범위한 문화를 새롭게 정의했으며, 문화의 산업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통계에 적용하고 있다.

## 나.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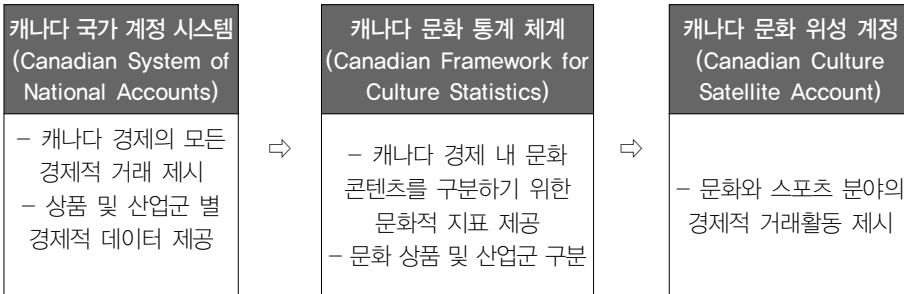
## 1) 문화지표 개발

캐나다 통계청에 의해 개발된 캐나다 문화위성계정(CCSA)은 문화 통계를 위한 캐나다 문화지표체계(Canadian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 CFCS)와 캐나다거시경제계정시스템(Canadian System of Macroeconomic Accounts, 이하 CSMA) 두 가지를 통합했다. CFCS가 문화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초 원칙들을 제공하고, CSMA는 추정치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와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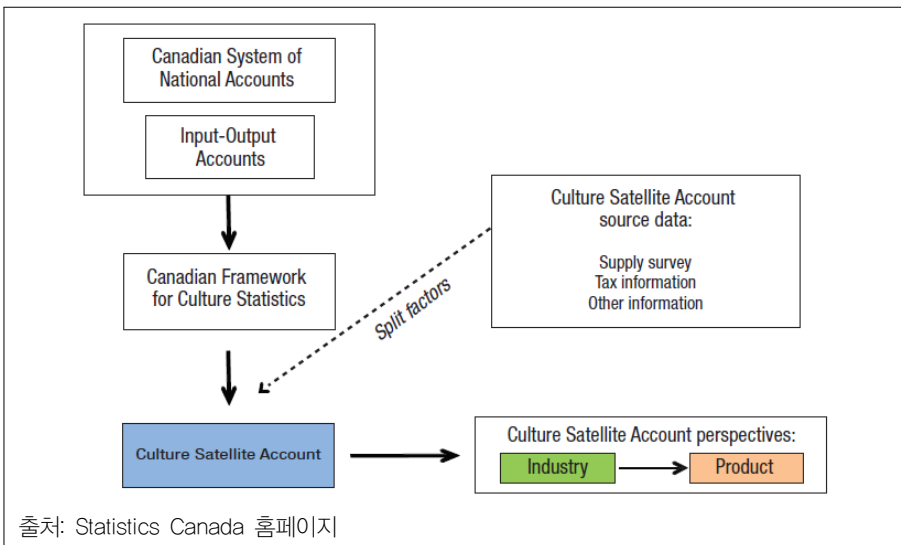


를 제공한다.

〈표 3-1〉 CCSA, CFCS 및 CSNA 개발 관계도



출처: Statistics Canada 홈페이지



출처: Statistics Canada 홈페이지

[그림 3-1] CSNA와 CCSA 개발 관계도

### 1) 캐나다 문화지표체계

(Canadian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 CFCS)

CFCS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의, 카테고리 및 표준 컨셉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캐나다 전역의 문화 분야에 대



한 데이터 개발, 수집과 분석 및 국제 비교를 장려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CFCS는 창작, 생산, 보급, 문화상품 사용 및 창작 사슬에서 파생되는 문화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이 체계는 아마추어와 전문가에 관계없이 모든 문화 창작 분야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문화 상품들은 창의적 사슬 내에서 경제적 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체계는 문화에 대한 수요와 연관된 사회적,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 재화 및 서비스들을 측정하기 위해 탄력적인 지표를 적용하려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수정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공예 분야 또는 디지털 미디어 등의 신진 상품들은 현재 측정할 지표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체계에서 문화는 “창의적인 예술적 활동 및 이 활동들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이다. 환경, 관광 및 정보 기술의 측정은 이 문화의 정의로부터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다른 통계 프로그램에서 관련 분야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은 이 체계 안에서 다루고 있으나, 문화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거나 측정되지는 않는다.

CFCS에서는 문화유산 및 도서관, 라이브 공연, 시각 및 응용미술, 작문 및 출판물, 음성-시각 및 상호적 미디어, 그리고 사운드 레코딩으로 이루어진 총 여섯 개의 문화 분야를 정의하고 있다. 이 여섯 개의 문화 분야를 다시 교육 및 트레이닝과 관리, 펀딩 및 전문 지원 두 개의 분야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영역(infrastructure domains)을 통해 매개제품(mediating product)과 물리적 기반(physical infrastructure)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Culture Domains					
A. Heritage and libraries	B. Live performance	C. Visual and applied arts	D. Written and published works	E. Audio-visual and interactive media	F. Sound recording
Core Culture Sub-doma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rchives</li><li>• Libraries</li><li>• Cultural heritage</li><li>• Natural heritage</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Performing arts</li><li>• Festivals and Celebrations</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Original visual art</li><li>• Art reproductions</li><li>• Photography</li><li>• Crafts</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ooks</li><li>• Periodicals</li><li>• Newspapers</li><li>• Other published works</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Film and video</li><li>• Broadcasting</li><li>• Interactive media</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ound recording</li><li>• Music publishing</li></ul>
Ancillary Culture Sub-doma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dvertising</li><li>• Architecture</li><li>• Design</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Collected information</li></ul>		
Transversal domains					
G. Education and training					
H. Governance, funding and professional support					
Infrastructure domains					
I. Mediating products					
J. Physical infrastructure					

출처: Statistics Canada, Canadian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 2011

[그림 3-2] CFCS에서의 분야별 구분

## 2) 캐나다 문화위성계정(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 CCSA)

CCSA는 캐나다 문화, 예술, 문화유산 및 스포츠의 경제적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스포츠를 주요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는 창의적, 예술적 활동,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생산된 재화 및 문화유산 보존으로 정의되며, 스포츠는 레저 시간에 흥미 또는 경쟁을 위한 개인 혹은 그룹의 건강을 지향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특히, 스포츠는 오락 스포츠와 신체적 활동, 전문/비전문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클럽과 개인 체육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화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거시경제 지표 및 계정들을 적용하여 문화와 스포츠의 경제적 기여 수치를 연구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병립적인 접근을 하였다.

① 상품: 문화와 스포츠 생산량, GDP 및 직업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② 산업: 문화 및 스포츠 산업의 생산량, GDP 및 직업을 측정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산업군

CCSA에서는 문화GDP(Culture GDP)와 문화산업GDP(GDP of culture industries)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문화산업GDP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GDP 표준 척도로써 문화 및 비문화제품의 모든 산출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산업에서는 라이브공연(문화 활동)과 식음료서비스(비문화 활동)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반면 문화 GDP는 생산 산업과 관계없이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문화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부가가치를 말한다. 위에서 제시한 예에서 직접적인 문화 활동과 비문화 활동을 포함하고, 거기에 라이브공연산업 외부에서 제작된 라이브공연에 대한 입장료까지도 GDP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고용도 같은 개념에 기반하여 추정하고 있다.

CCSA는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를 비롯하여,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캐나다 예술 데이터(Canadian Arts Data)를 포함한 13개의 기관<sup>6)</sup>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CCSA는 1) 주별 문화를 측정하는 거시 경제 지표 2) 문화산업 분야 일자리 정보 3)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정부 세금 수익 추정 4) 문화소비량을 통한 간접 또는 상승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적 효과 모델로 활용되며, 나아가 다른 국가들의 국가 계정 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을 통한 분석으로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

#### 다. 문화지표 분석

2010년을 기준으로 문화와 스포츠를 상품과 산업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한 CSA는 타 국가에 비해 참여도 등이 누락되는 등 지표의 수가 한정적

6) The provincial/territorial ministries of culture and/or heritage, Parks Canada, The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The Canadian Tourism Human Resource Council, Canada Council for the Arts, Library and Archives Canada, Telefilm Canada, Canadian Arts Data, The 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Ontario 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Ontario Arts Council,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and all participating municipalities, OCAD University



이나 각 지표가 의미하는 문화와 스포츠 재화 및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3-2〉 상품 및 산업 관점에서 본 주요 분석(Highlights from product & industry perspectives)

구분	문화			스포츠		
지표	총 GDP 중 문화 GDP	총 일자리 중 문화관련 일자리	전체 경제 중 문화 생산량 점유율	총 GDP 중 스포츠 GDP	총 일자리 중 스포츠 관련 일자리	전체 경제 중 스포츠 생산량 점유율
상품 Product	\$47.8 빌리언	647,300개	\$93.2 빌리언	\$4.5 빌리언	93,500개	\$7.2 빌리언
	3.1%	3.7%	3.0%	0.3%	0.5%	0.2%
산업 Industry	\$53.2 빌리언	703,900개	\$99.3 빌리언	\$5.2 빌리언	105,200개	\$8.3 빌리언
	3.4	4.0	3.2	0.3	0.6	0.3

출처: Statistics Canada, 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 2010

## 1) 문화

문화 분야를 상품과 산업 관점으로 구분하여 상위 그룹과 각 상위 그룹에 속한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각 장르별 GDP에 기여하는 수치를 분석하였다.

음성-시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시각예술, 출판물, 라이브 공연 및 문화유산과 도서관 등의 상위 그룹 중 문화 GDP(Culture 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는 상품 및 산업 분야 모두 음성-시각과 인터랙티브 미디어(Audio-visual and interactive media)이고, 시각 및 응용예술(Visual and applied arts)과 출판물(Written and published works)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방송, 필름, 디자인, 공예품, 공연예술 등으로 구분된 하위 그룹에서는 방송(Broadcasting)이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며 문화 GDP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품의 관점으로 분석했을 때 문화 GDP와 문화 생산량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음성-시각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지표가 가



장 많은 문화 관련 직업을 기록한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 관련 직업의 수치가 가장 높은 지표는 시각 및 응용미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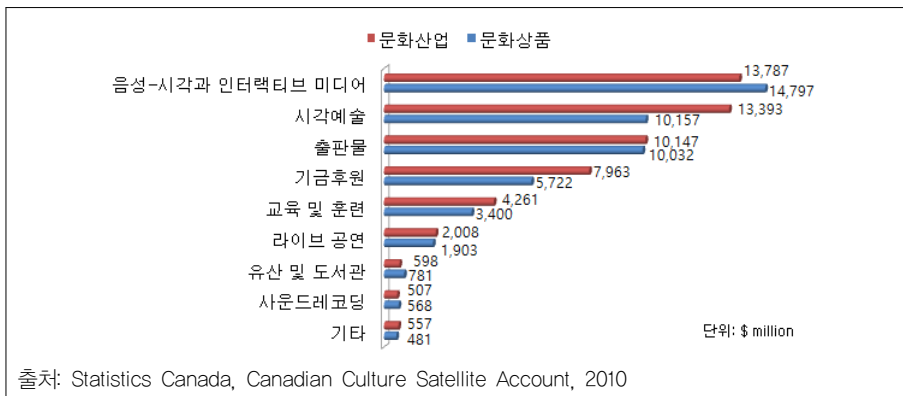
〈표 3-3〉 문화상품 및 산업적 측면에서 본 각 지표별 수치, 2010

구분	상품적 측면			산업적 측면			
항목	문화 생산량	문화 GDP	문화 고용	문화재화/ 서비스	비 문화재화/ 서비스	총 산업 생산량	총 산업내 문화 점유율
지표	\$million	\$million	1,000	\$million	\$million	\$million	%
총 문화 지수	93,172	47,840	647	77,720	21,547	99,267	78.3
문화유산 및 도서관	93,172	47,840	647	1,141	77	1,217	93.7
기록물	23	8	0	11	2	13	85.2
도서관	784	255	5	161	11	172	93.8
문화유산	490	251	7	501	28	528	94.8
자연유산	536	267	7	467	36	503	92.8
라이브 공연	3,423	1,903	52	3,378	223	3,601	93.8
공연예술	3,226	1,793	49	3,174	207	3,381	93.9
축제 및 기념행사	198	109	3	204	17	221	92.4
시각 및 응용예술	20,585	10,157	168	12,744	11,008	23,752	53.7
기본 시각예술	148	83	3	154	16	170	90.7
예술 재생산	58	32	1	59	3	61	95.9
사진	1,773	1,003	19	1,085	369	1,454	74.6
공예	7,548	2,752	44	691	546	1,236	55.9
광고	3,323	1,852	32	2,711	24	2,734	99.1
건축	1,865	1,207	13	1,771	25	1,797	98.6
디자인	5,871	3,229	57	6,274	10,026	16,299	38.5
도서 출판물	20,248	10,032	143	19,189	1,103	20,291	94.6
도서	2,382	1,149	14	1,502	51	1,553	96.7
정기 간행물	3,663	1,720	20	2,732	54	2,786	98.1
신문	5,456	2,790	37	5,211	187	5,398	96.5



구분	상품적 측면			산업적 측면			
항목	문화 생산량	문화 GDP	문화 고용	문화재화/ 서비스	비 문화재화/ 서비스	총 산업 생산량	총 산업내 문화 점유율
지표	\$million	\$million	1,000	\$million	\$million	\$million	%
기타 출판물	120	58	1	71	4	75	94.6
수집정보	1,379	626	7	1,053	31	1,084	97.1
기타	7,249	3,689	64	8,619	776	9,395	91.7
음성-시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29,552	14,797	125	23,289	4,823	28,111	82.8
필름 및 비디오	8,346	3,443	45	8,158	597	8,755	93.2
방송	15,681	8,083	50	12,323	3,320	15,643	78.8
인터랙티브미디어	5,525	3,272	30	2,808	906	3,714	75.6
사운드 레코딩	1,402	568	13	1,232	32	1,265	97.5
음반 발매	345	141	3	199	5	204	97.8
사운드 레코딩	1,057	427	10	1,033	28	1,061	97.4
교육 및 훈련	4,552	3,400	52	4,615	1,040	5,655	81.6
기금 및 후원	10,586	5,722	72	11,422	2,970	14,392	79.4
기타	990	481	4	710	272	982	72.3

출처: Statistics Canada, 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 2010



[그림 3-3] 문화상품 및 산업 부분 상위 그룹별 GDP



## 2)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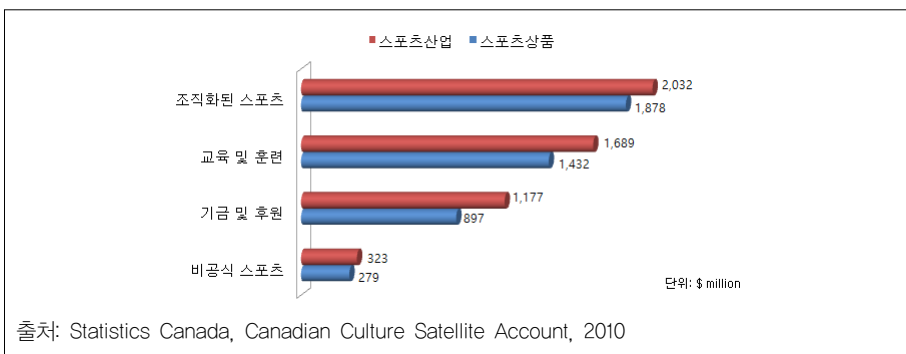
스포츠 분야 역시 상품과 산업 관점에서 조직화된 스포츠(Organized sports),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기금 및 후원(Governance, funding and professional support) 그리고 비공식 스포츠(Informal sports)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스포츠 GDP에 가장 큰 경제적 기여를 하는 분야는 상품과 산업 분야 모두 조직화된 스포츠(Organized sport)이고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이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표 3-4〉 스포츠상품 및 산업적 측면에서 본 각 지표별 수치, 2010

구분	상품적 측면			산업적 측면			
	스포츠 생산량	스포츠 GDP	스포츠 직업군	스포츠 재화/서비스	비스포츠 재화/서비스	총 산업 생산량	총 산업 내 스포츠 점유율
지표	\$million	\$million	1,000	\$million	\$million	\$million	%
총 스포츠 지수	7,205	4,486	94	7,132	1,153	8,286	86.1
조직화된 스포츠	3,093	1,878	51	2,973	381	3,354	88.7
비공식 스포츠	559	279	6	584	68	652	89.5
교육 및 훈련	1,953	1,432	26	1,972	310	2,282	86.4
기금 및 후원	1,600	897	10	1,604	394	1,998	80.3

출처: Statistics Canada, 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 2010



[그림 3-4] 문화상품 및 산업 부문 상위 그룹별 GDP



## 2. 미국

### 가. 개요

미국의 문화 관련 지표는 크게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과 문화예술지원기관인 Americans for the Arts(이하 AFTA)두 기관이 주도하여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가 GDP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하기 위해 NEA가 미국 경제분석부(Department of Commerce'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이하 DCBEA)와 함께 2013년 첫 발표한 “문화예술생산위성계정(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이하 ACPSA)”이 대표적이다. 미국 인구조사국과의 협력 하에 1982년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하며 일곱 번째 보고서를 2019년 2월에 발표한 “문화예술 대중 참여도 실태조사(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는 대표적인 문화지표 설계를 위한 대표 조사로 볼 수 있다. AFTA는 198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시작한 “국가문화예술지수(National Arts Index)”를 2009년부터 발표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2013년도 통계와 함께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문화지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표 3-5〉 미국 문화지표 관련 현황

구분	내용
문화예술 생산 위성 계정 (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문화예술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정부 주도 연구사업으로, 문화예술 생산을 통한 주 별 경제가치, 창작분야 노동 분야의 고용률과 연봉 수치 등의 지표를 통해 문화예술산업의 경제효과 분석(2016 기준 자료 활용)
국가문화예술지수 (National Arts Index)	문화예술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뒤처지고, 문화예술 소비 및 참여도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이 지닌 가치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표의 필요성에 의해 Americans for the Arts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 2009년,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문화예술분야 지표를 통한 첫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총 여섯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2016년도에 2002-2013년까지 12년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최종 (2016 발간 자료 활용) 2012년부터 지역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Local Arts Index를 개발하여 발표하기 시작



## 나.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NEA는 문화예술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해 미국 경제 분석부(Department of Commerce'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와 미국 인구조사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발표된 “문화예술생산위성계정(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ACPSA)”을 통해 미국 내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분류 및 산출 과정을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여 정부의 예산수립 및 미국국립예술기금(NEA)의 지원방향 확대 및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1) 문화예술생산위성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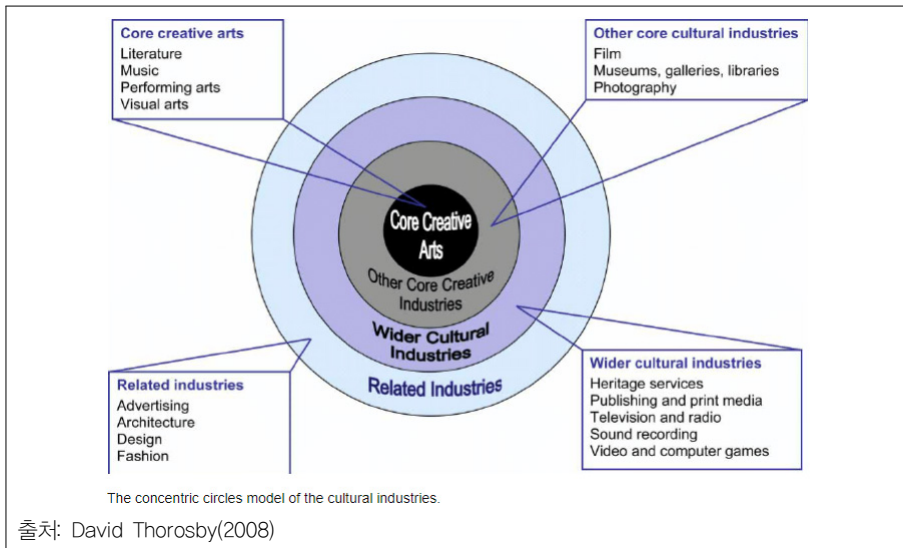
(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ACPSA)

문화예술이 GDP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지표조사를 통해 DCBEA와 NEA가 2013년 발표했고,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산업의 GDP를 추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ACPSA는 문화예술산업의 경제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문화상품 창작(예, 심포니 작곡)에서 생산(스튜디오 녹음), 배포(다양한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소비자에 의한)에 이르는 창작 사슬(creative chain)을 분석하고 정의했다.

문화산업 간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호주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스로스비(David Throsby, 2008)가 개발한 문화 분야의 동심원모델(concentric circles model of the cultural industries)을 참조했다. 이 작업은 계정의 가장 직관적 부분(문학, 음악, 공연예술 등)부터 보다 넓은 문화산업들(출판,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등),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연관 산업들(광고, 건축, 패션 등) 간의 전환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각적 체계를 제공한다.





[그림 3-5] 문화예술분야의 동심원 모델

“창작 사슬(creative chain)”의 개념트는 이 동심원모델을 반영했다. 창작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거래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GDP와 일치하는 경제체제 안에서의 정확하고 수량화된 창작 사슬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안에서의 문화와 예술의 경계가 분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생산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경제적 거래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문화예술 산업의 경제적 추정치를 도출해내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ACPSA 연구에 적용된 일곱 개의 방법론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6〉 미국 ACPSA 연구 방법론

방법론	과정
1. 문화예술 생산 상품 식별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약 5,000개의 상품들 중 문화예술 연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NEA와 BEA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해 약 400개의 상품들 선정
2. 문화예술 생산 산업 개발	식별된 문화예술 상품들을 생산하는 문화예술 산업 분야를 정의하는 단계. 대부분의 문화예술 산업 분야들은 2002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2002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NAICS)에 분류되어 있고, 박물관, 디자인 서비스 및 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예술 서포트(art support)” 산업이 추가됨.



방법론	과정
3. 문화예술 비중 식별	식별된 문화예술 관련 상품들 중 문화예술 비중을 구분해내기 위해 미국 인구조사국의 경제 조사국으로부터 세부 정보를 참조함. 반복적 상품에서 창의적 상품을 구분해내는 것이 세부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목표
4. 문화예술 생산 산출량 추정	문화예술 비중이 식별된 상품들을 문화예술 생산 상품 식별 과정에서 선정된 400개의 산출량에 적용하여 문화예술 생산 상품 산출량 추정
5. 부가가치 추정	부가가치는 문화예술 산업의 보수, 상품과 수입품들에 매겨지는 세금, 총 영업 흑자들의 합계와 동일함. 문화예술 생산 산출량이 직접 추정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와 중간 입력값은 직접 산출이 어려워, 문화예술 생산 산업 산출량과 연관된 중간 소비 비율을 총 산업 산출량에 대한 총 산업 중간 소비비율과 동일하게 판단
6. 고용 및 보수 추정	문화예술 생산고용 및 보수는 5번에서 소개된 문화예술 생산 중간 소비를 측정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
7. 간접 산출량과 고용 및 종합값 추정	ACPSA가 포함한 문화예술 생산 연관 상품 및 산업들의 산출량 추정은 직접 산출량임. 간접 산출량의 추정은 직접 측정인 총 산출량과 총 고용이 직접 및 간접 구성요소들의 합계와 같다는 공식으로 시작함. 간접 문화예술 생산 연관 산출량은 직접 산출량을 생산하는 과정의 입력값으로 구성

ACPSA에 의하면, 2015년도 문화예술이 미국경제에 기여한 수치는 763.6 빌리언 달러(\$763.6 billion)로 전체 GDP 중 4.2%를 차지하며, 이는 창고업, 운송업 및 농업보다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많은 국가들이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보고서들을 발표하고 있고, 나라의 지표에 따라 문화와 예술을 함께 포함하거나, 두 분야를 별도로 나누거나 문화유산 또는 체육 분야를 문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ACPSA는 체육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BEA는 여행 및 관광 위성 계정(Travel and Tourism Satellite Account, TTSA)를 별도 카테고리 발표하고 있다. TTSA는 1998년 처음 발표되었다.

## 2) 국가문화예술지수(National Arts Index)

AFTA는 예술가, 시장, 비영리 및 영리 예술 및 관객 등을 각각 연구한 개별 보고서들은 많으나, 예술 시스템을 총망라하는 연구보고서가 미미한 현실을 자각하고 미국 내 문화예술의 가치 및 시대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0년을



목표로 예술지표를 개발하였다. 2009년도에 첫 “국가문화예술지수(National Arts Index)”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2010, 2012, 2013, 2014 및 2016년도까지 총 여섯 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6년도에 발표된 최종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문화예술 분야 통계를 담고 있으며, 인구, 경제, 가격과 고용환경의 변화 등 아래의 네 가지 지수를 적용하여 경제공황이 오기 전과 경제공황을 겪는 시기 및 경제공황 이후의 예술분야를 분석하였다.

- ① 재정 흐름(Financial Flows): 자산, 예술가 수입, 예술사업 수익, 예술서비스 지출
- ② 수용력(Capacity): 예술가, 기관 및 기관의 자산, 고용 및 연봉 수준
- ③ 예술 참여도(Participation): 예술 활동 소비, 참여도, 경험
- ④ 경쟁력(Competitiveness): 타 산업과의 비교분석(시장 점유율 등)

국가문화예술지수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 등 타 국가들의 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청사진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본 보고서에서 다룬 네덜란드 문화지표와 국립예술지표가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재정흐름, 수용력, 예술 참여도 및 경쟁력으로 구성된 공통된 네 개의 지수를 기반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문화지표 분석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각 문화지표 연구별 주요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02년부터 2013까지의 예술을 네 개의 지수를 적용해 발표한 AFTA의 국가문화예술지수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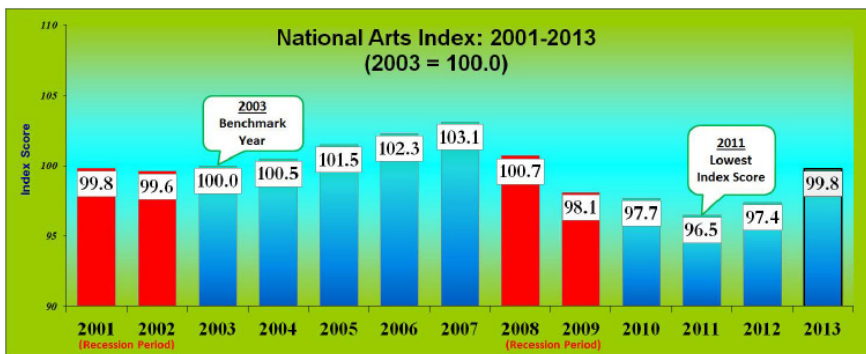


〈표 3-7〉 각 문화지표 연구 별 주요 분석

구분	주요 분석									
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핵심 및 하위 생산 분야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 분석</li> <li>- 핵심 생산 분야: 공연예술, 박물관, 디자인 서비스, 미술, 교육 서비스</li> <li>- 하위 생산 분야: 예술지원 서비스(렌탈, 기금지원, 노동조합, 정부 등), 정보 서비스(출판, 영상, 레코딩, 방송 등), 제조(장신구 및 식기, 인쇄물품 제작, 악기 제작, 건축용 목공품 주문제작 및 금속품 제작 등), 건축, 도매 및 운송 산업, 유통 산업 등임</li> <li>- 문화예술 산업은 763.6 빌리언 달러(\$763.6 billion)를 미국 경제에 기여함</li> <li>- 총 GDP 중 문화예술분야가 차지하는 4.3% 중 핵심 문화예술 분야가 공헌하는 비율임</li> </ul>									
	핵심 문화예술 생산 산업									
	공연예술				박물관	디자인 서비스			미술 교육	교육 서비스
	공연 예술 단체	공연 예술 기획/ 제작자	기획사 / 매니저	독립 예술가, 작가, 실연자		광고	건축 서비스	기타 디자인 서비스		
	0.10	0.05	0.01	0.12	0.03	0.18	0.09	0.23	0.02	0.03
National Arts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문화예술 관련 통계임</li> <li>- 200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2009년부터 일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며,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예술 분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데 기여함</li> <li>- 2013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42%의 비영리 예술단체들의 적자 운영은 지속됨</li> <li>- 2002년 이후, 총 자선기금 및 고용률이 안정되었고, 2014년과 2015년도에 이르러 증가함</li> <li>-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트렌드가 변함.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음반의 디지털 다운로드 수는 139 밀리언 개에서 13.3억 개로 증가함. 2004년 이전의 다운로드 데이터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음. 음악가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음악들을 판매하고, 음반 발매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시작함</li> <li>- 예술가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총 민간 노동인구 중 1.5%를 유지함</li> <li>- 예술 상품의 수출은 2010년과 2012년 사이 64 빌리언 달러(\$64 billion)에서 75 빌리언 달러(\$75 billion)로 약 17% 증가하며, 미국의 국제 무역 거래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함</li> <li>-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국제 여행객이 17%에서 24%로 증가함</li> </ul>									



미국의 경제공황 전과 겪는 시기 및 후의 예술의 경제적 파급력을 비교분석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를 비교 기본 스코어인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경제공황이 일어났던 2001-2002년도 및 2007-2008년도는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도 떨어진 지수를 보였다. 특히, 2008년도 경제공황 이후 예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에서 10년 연구기간 중 가장 낮은 지수인 96.5를 기록했고, 2012년 들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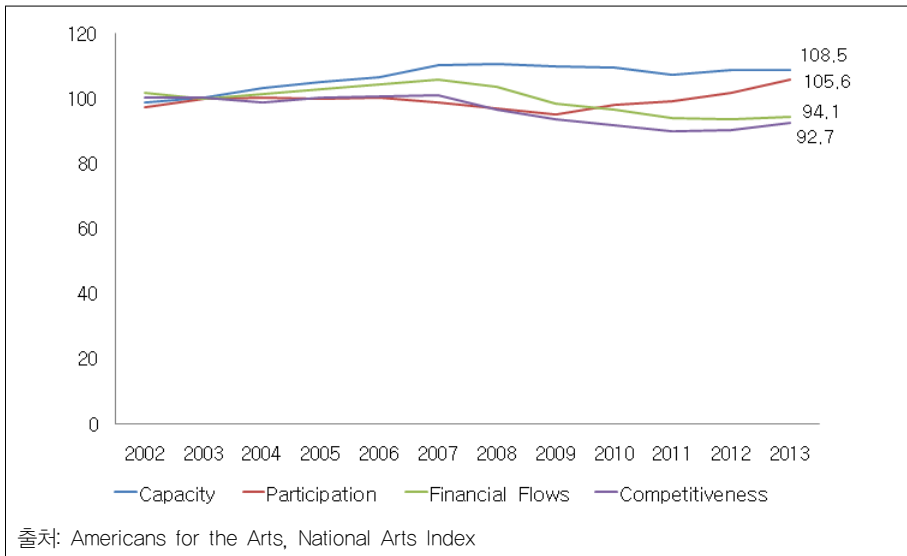


출처: Americans for the Arts, National Arts Index 2002-2013

[그림 3-6] 국립문화예술지수 2001-2013 종합지수 추이

재정흐름(Financial Flows)과 경쟁력(Competitiveness)이 2008년 경제공황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에 소폭 상승하기 시작한 반면, 같은 시기 수용력은 큰 상승 또는 하락 없이 안정적인 지수를 유지했고, 예술 참여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3년에 105.6의 최고 지수를 기록했다. 경제공황 이후 5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경쟁력 지수는 예술이 관객의 시간과 경제력 및 후원자와 기부자 유치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었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예술 참여도는 미국 내 예술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 국가문화예술지수 4개 지수 인덱스  
(Arts Index Netherlands, 4 indicators) 2002-2013

〈표 3-8〉 국가문화예술지수 4개 지수에 대한 핵심 지표 및 지표별 수치

4개 지수	주요 지표	지표별 수치 (2003=1.00)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수용력	문화예술직업 종사자 (Workers in arts and culture occupations)	1.00	1.09	1.15	1.17	1.09	1.11
	창의적 산업분야 설립 (“Creative Industries” establishments)	1.00	1.00	1.00	0.94	0.99	0.97
	자산 투자 (Capital investment in arts and culture industries)	1.00	1.11	1.16	1.19	1.16	1.11
참여도	참여 (Engagement in the arts)	1.00	0.96	0.96	0.82	0.86	0.86
	예술전공자 (Visual and performing arts degrees)	1.00	1.09	1.12	1.19	1.24	1.30
	개인지출 (Personal expenditures on arts and culture)	1.00	1.01	0.96	0.89	0.89	0.88



4개 지수	주요 지표	지표별 수치 (2003=1.00)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자원봉사 (Volunteering for arts organizations)	1.00	0.88	0.93	0.98	1.00	1.07
재 정 흐 름	문화예술산업 내 급여지출 (Payroll in arts and culture industries)	1.00	1.02	1.06	0.96	0.89	0.93
	비영리 문화예술 수익 (Revenue of arts and culture nonprofits)	1.00	1.10	1.28	1.15	1.10	1.30
	연방정부 기금 지원 (Federal government arts and culture funding)	1.00	1.04	0.99	1.05	0.94	0.96
경 쟁 력	예술의 GDP 점유율 (Arts share of GDP)	1.00	0.98	0.96	0.95	0.88	N/A
	국제창조상품무역 내 미국점유율 (US share of world creative goods trade)	1.00	0.93	0.78	0.72	0.72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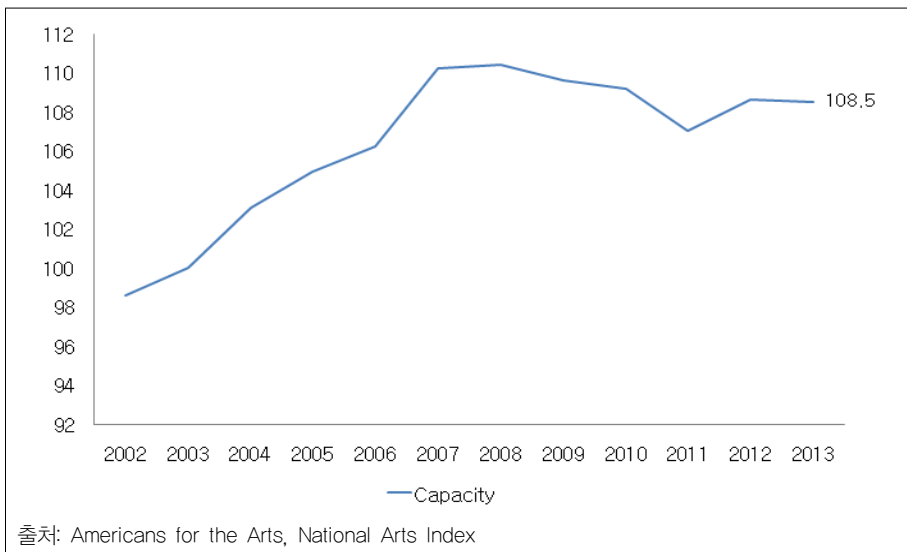
출처: Americans for the Arts, National Arts Index

### 1) 수용력

수용력(Capacity)은 문화예술 시스템 내 고용과 임금 수치 및 문화예술 산업 내 설립 및 자산 투자 등을 15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측정한 지수로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통해 재정 흐름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15개의 지표는 크게 노동시장, 기관/조직 및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예술가, 비영리/영리 예술기관/단체 등을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수치가 상승하며 2007년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3-8] 국가문화예술지수 수용력 지수 2002-2013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는 소폭 하락한 반면, 개인 예술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표준기준을 제시하는 예술노동조합 멤버십도 동반 증가하였다. 반면, 디지털 콘텐츠 접근이 자유로워진 2000년대를 반영하듯 CD와 레코드 가게들은 2004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03년과 비교하여 반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노동 시장 분야 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를 세분화하여 분석했다는 것이다. 총 노동시장에서의 예술가 수, 문화예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 문화예술 산업 내 고용자 수, 그리고 “창의적 산업분야(창작 또는 예술 유통 관련 사업)” 고용자 수를 각각 구분하였다.



## ① 노동시장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18	예술가 수	2,114	2,164	2,277	2,211	2,148	2,218
		1.00	1.02	1.08	1.05	1.02	1.05
19	문화예술 직업 내 노동자 수	1,438	1,566	1,652	1,686	1,569	1,590
		1.00	1.09	1.15	1.17	1.09	1.11
20	문화예술산업 내 고용자 수	2,052	2,084	2,103	1,956	1,776	1,759
		1.00	1.02	1.03	0.95	0.87	0.86
21	“창의적 산업” 고용자 수	2,989	2,869	2,981	2,991	3,348	3,067
		1.00	1.02	1.01	1.00	0.99	0.95

## ② 기관/조직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22	예술노동조합 멤버십	430,526	447,552	529,348	541,140	547,405	545,437
		1.00	1.04	1.23	1.26	1.27	1.27
23	CD/레코드매장 수	3,329	3,024	2,641	2,074	1,863	1,590
		1.00	0.91	0.79	0.62	0.56	0.48
24	개인 예술가 수	570,577	649,149	679,247	687,699	730,022	765,790
		1.00	1.12	1.19	1.21	1.28	1.34
25	영화 상영관	35,650	37,688	38,794	39,233	39,580	39,783
		1.00	1.06	1.09	1.10	1.11	1.12
26	문화예술산업 내 설립체	216,480	220,185	228,377	211,081	198,344	193,961
		1.00	1.02	1.05	0.98	0.92	0.90
27	“창의적 산업” 설립체	548,281	546,466	612,095	668,267	905,869	750,453
		1.00	1.00	1.00	0.94	0.99	0.97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8	501(c)(3)비영리문화예술등록단체	87,223	94,450	102,638	111,526	95,339	94,537
		1.00	1.08	1.18	1.28	1.10	1.08
29	예술후원 기관	3,305	3,546	3,620	3,812	3,639	3,755
		1.00	1.05	1.05	1.09	1.03	1.04

## ③ 자산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30	문화예술산업 내 자산 투자(\$Billion)	66,882	74,086	77,759	79,734	77,520	74,393
		1.00	1.11	1.16	1.19	1.16	1.11
31	비영리예술기관의 자산 투자(\$Million)	26,517	29,212	34,762	35,752	36,501	42,972
		1.00	1.10	1.31	1.35	1.38	1.62
32	문화예술 고정자산	425,206	440,929	454,845	454,714	452,644	465,843
		1.00	1.10	1.21	1.25	1.30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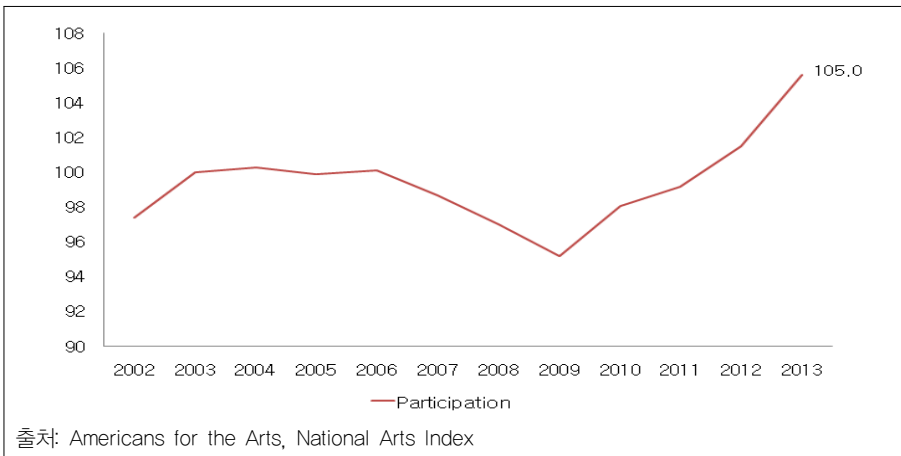
## 2) 참여도

참여도(Participation)는 예술서비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수요 부문을 분석한 지수로 22개의 지표는 크게 참여, 예술전공자, 개인지출 및 자원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도 지수는 조사 10년 중 최저 수치를 보인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교향악, 무용, 오페라와 연극 분야의 참여도는 상업음악 등 타 장르에 비해 경도의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눈여겨볼 부분은 뉴욕시 내에서의 브로드웨이 쇼 참여도는 하락했으나, 브로드웨이 쇼들의 타 도시 투어의 참여도는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뉴욕에 비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은 타 도시들의 예술 소비 욕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문화예술 활동을 소비하는 해외 관광객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전 보고서들의 결과에서 예술의 소비 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sup>7)</sup>, 이 보고서의 최종 버전에서 발표한 2013년도에 나타난 예술 참여도의 전반적 상승 지수는 긍정적인 결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3-9] 국가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수 2002-2013

예술 참여도가 2009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 지출은 200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도서, 음반, 비디오, 라이브 공연예술과 영화 티켓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 지출 수치 중 박물관 및 도서관과 악기에 대한 지출은 늘고 있는 반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2013년 하락했다. 특히, 사진인화에 대한 지출은 2003년 기준 반 이상 하락하며 디지털 시대의 예술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시각 및 공연예술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 포함) 지급률도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를 과학과 예술 또는 경제와 예술 등 복수전공자들이 늘어난 현상에 빚대어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학위 수여자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문화예술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역량 있는 인력들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7)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도에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 ① 참여/소비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33	저작권 적용 (등록+사용)	1,141,614	1,132,255	1,067,590	914,456	1,049,244	1,069,823
		1.00	0.99	0.89	0.88	0.89	0.94
36	오페라, 브로드웨이, 교향악, 연극 분야 신작발표	1,024	896	1,020	1,021	1,040	1,153
		1.00	1.01	1.07	1.01	1.24	1.13
37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관련 도서 출판물	9,729	8,319	6,678	7,092	13,875	13,853
		1.00	0.86	0.69	0.73	1.43	1.42
43	비상업적 라디오 청취율(%)	11.3	10.5	11.2	11.9	12.1	11.9
		1.00	0.93	0.99	1.05	1.07	1.05
44	텔레비전 시청률(%)	47.0	45.4	39.0	34.1	33.8	32.0
		1.00	0.97	0.83	0.73	0.72	0.68
45	문화예술활동 해외 관광객 참여(%)	88.9	96	98.2	109	112	118.0
		1.00	1.08	1.1	1.23	1.26	1.33
46	뉴욕시 내 브로드웨이 쇼 관람객 수	11,423	11,527	12,312	12,250	12,530	11,570
		1.00	1.01	1.08	1.07	1.10	1.01
47	타 도시 투어 브로드웨이 쇼 티켓판매수(millions)	12.4	18.2	16.7	14.3	13.1	13.8
		1.00	1.47	1.35	1.15	1.06	1.11
48	라이브 유명 음악 관객 수	48,579	51,818	49,513	50,419	54,300	59,436
		1.00	1.07	1.02	1.04	1.12	1.22
49	교향악, 무용, 오페라, 연극 관객 수	86,376	84,475	80,134	77,486	77,333	73,541
		1.00	0.98	0.93	0.90	0.90	0.85
50	영화 관람객 수(billions)	1,521	1,376	1,400	1,42	1,280	1,34
		1.00	0.90	0.92	0.93	0.84	0.88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51	미술관 방문자 수	33,072.2	33,190.5	30,828.7	30,333.3	30,505.9	30,510.8
		1.00	1.00	0.93	0.92	0.92	0.92
52	오페라 관객 수	3,142	3,309	3,568	2,914	2,304	2,673
		1.00	1.05	1.14	0.93	0.73	0.85
53	교향악 관객 수	27,802	26,471	29,016	25,443	26,812	31,956
		1.00	0.95	1.04	0.92	0.96	1.15
54	비영리 전문연극 관객 수	34,300	32,500	31,000	30,000	34,000	34,900
		1.00	0.95	0.90	0.87	0.99	1.02

## ② 예술 전공자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40	4년간 예술 또는 음악교육을 받은 SAT 시험응시자 평균 점수	1,075	1,084	1,080	1,070	1,057	1,061
		1.00	1.07	1.06	0.94	0.92	1.66
41	SAT를 치른 예비대학생들의 예술전공 선호도	75,823	84,367	88,575	84,946	105,073	98,725
		1.00	0.95	1.05	0.96	1.14	1.14
42	시각/공연예술 학위	107,877	118,066	120,561	127,557	133,258	139,785
		1.00	1.09	1.12	1.18	1.24	1.30

## ③ 지출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30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 지출(\$Million)	159,606	160,698	153,768	141,778	141,320	151,714
		1.01	1.01	0.99	0.92	0.89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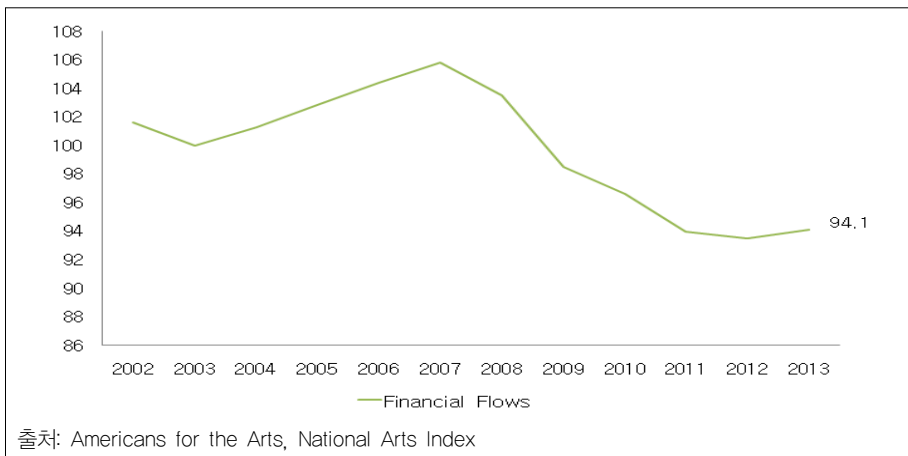
## ④ 자원봉사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38	예술기관/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2,006.7	1,765.8	1,866.6	1,970.4	2,016.3	2,150.0
		1.00	0.88	0.93	0.98	1.00	1.07
39	자원봉사 내 예술관련 활동	7,962.3	7,719.6	6,297.9	6,568.1	6,247.0	5,738.0
		1.00	0.95	0.83	0.84	0.79	0.75

## 3) 재정흐름(Financial Flows)

재정흐름(Financial Flows)은 문화예술 종사자 및 기관/단체들이 문화예술 활동,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자원인 수익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수치를 임금, 문화예술 관련 상품 판매수익 및 정부 지원금 등 17개의 지표를 적용함과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상승세를 타던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흐름 지수는 경제공황 이후 축소된 예술 산업 시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도 지수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림 3-10] 국가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수 2002-2013



물가상승은 출판물, 음반과 악기 판매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음반 산업 분야의 판매수익은 그중 가장 격동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도에서는 반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수익의 수치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경제공황 이후 문화예술 기관/단체들의 급여지출 비용도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3년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대중음악 콘서트 산업의 티켓 판매 수익은 2010년과 2011년도에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꾸준히 상승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비영리 문화예술조직의 전체 수익은 안정적이지는 않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꾸준히 상승하는 지수를 보여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었다.

문화예술 후원 수치에서는 재단들의 후원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개인 후원은 지속적인 상승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 기금 지원 지표는 큰 변화 없이 상승 및 하락을 오가고 있으며, 2010년부터 3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수치가 2013년 들어 소폭 상승했다. 또한, 주 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지역예술기관들에 대한 기금 지원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것도 각각의 지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 ① 수입(Sales/revenue)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1	작사가/작곡가 공연권 로열티(\$Million)	1,272	1,398	1,530	1,654	1,549	1,665
		1.00	1.10	1.20	1.30	1.22	1.21
4	출판산업 수익(\$Million)	27,331	26,748	25,918	23,941	26,034	27,010
		1.00	0.98	0.95	0.88	0.95	0.91
5	서점 매출(\$million)	20,535	20,269	19,293	17,135	14,164	11,431
		1.00	0.99	0.94	0.83	0.69	0.56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6	악기 판매 수익(\$Million)	8,179	8,610	7,827	5,932	6,346	6,810
		1.00	1.05	0.96	0.73	0.78	0.77
7	음반산업 일반/디지털 음반 수익(\$Million)	15,008.7	14,668.1	11,653.5	8,343.7	7,257.6	7,004.8
		1.00	0.98	0.78	0.56	0.48	0.47
8	음반 종합 판매수(millions)	656.2	618.9	500.5	373.9	330.6	289.4
		1.00	0.94	0.76	0.57	0.50	0.44
9	대중음악 콘서트 산업 티켓판매수익 (\$Million)	2,925	3,417	4,050	4,616	4,164	5,100
		1.00	1.17	1.38	1.58	1.42	1.61
10	창조 상품 수출(\$Million)	64,258	71,817	68,673	60,235	72,705	70,649
		1.00	1.12	1.07	0.94	1.13	N/D
11	비영리 문화예술 조직 수익(\$Million)	30,256	33,372	38,718	34,690	33,319	39,384
		1.00	1.10	1.28	1.15	1.10	1.30

## ② 정부지원(Government funding)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12	재단 후원(\$Million)	2,095	2,265	2,382	2,340	2,170	N/D
		1.00	1.08	1.14	1.12	1.04	N/D
13	개인 기부(\$Billion)	14.07	14.83	16.76	13.67	14.85	16.66
		1.00	1.05	1.19	0.97	1.06	1.18
14	예술기금모금 연합 캠페인 수익 평균값(\$)	898	1,091	1,309	1,210	1,201	1,127
		1.00	1.14	1.29	1.16	1.09	0.99
15	연방정부 기금(\$)	2,022,733	2,101,398	1,994,904	2,130,517	1,904,140	1,937,618
		1.00	1.04	0.99	1.05	0.94	0.96
16	의회의 주 단위 예술기관 대상기금(Million)	416.2	335.4	363.6	331	262.2	277.5
		1.00	0.81	0.87	0.8	0.63	0.62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17	지역정부의 지역예술기관 대상기금(\$Million)	380.3	371.7	441.3	444.1	398.2	447.6
		1.00	0.98	1.13	1.17	1.05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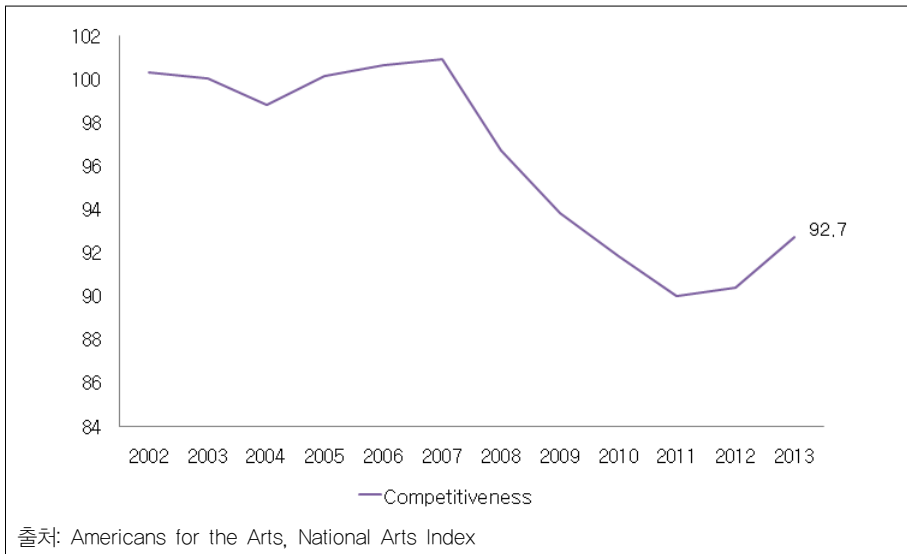
### ③ 임금(Wages/payroll)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2	예술관련 직업 내 연간 평균임금(\$)	49,450	45,777	47,772	50,021	50,047	53,859
		1.00	0.93	0.97	1.01	1.01	1.01
3	문화예술 산업 내 급여지출(\$Million)	92,113	93,889	97,921	88,018	82,207	92,872
		1.00	1.02	1.06	0.96	0.89	0.93

### 4) 경쟁력(Competitiveness)

경쟁력(Competitiveness)은 문화예술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인 지출 내에서의 문화예술 점유율, 문화예술 관련 학위, 기업 후원, 기초 예술 및 대중예술 참여인구, GDP 내 예술 점유율과 국제 창조 상품 무역의 미국 점유율 등 27개의 세부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했다. 27개의 지표 중 국제 경쟁력을 알 수 있는 지표는 “국제 창조 상품 무역에서의 미국 점유율” 한 개로 국제보다는 국내 경쟁력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1] 국가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수 2002-2013

경쟁력은 재정흐름과 마찬가지로 경제공황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문화예술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문화 예술 소비 및 참여와 기업과 개인 후원 등의 지표가 경제상황을 포함한 사회력, 인구 증가 및 다양성, 정책 변화, 국제 정세 및 기술 발전 등의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비례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GDP 중 예술이 차지하는 수치는 2010년부터 하락하며 동일한 수치를 3년 동안 기록하였고, 개인 지출 중 문화예술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수치도 상승세 없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각/공연예술 분야 학위 점유율도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체 학위의 상승 수치와 비교 분석하였을 때 모든 분야를 포함한 종합 학위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문화예술 산업 내 고용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처음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타 산업 분야의 고용비율에 비해 예술 산업의 고용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 후원도 불안정한 수치를 보이며 2008년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한 지출 중 문화예술을 위해 쓰인 예산에서도 정부의 총 지출은 늘었으나 같은 시기 문화예술에 대한 기금 지원은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소폭 상승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의 현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의 경쟁력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르 부문에서는 교향악과 오페라 등의 기초예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라이브 대중음악 장르는 2011년 이후로 상승하고 있어 기초예술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대중음악산업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국내 지출/후원(Expenditures/giving)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55	전체 개인후원 중 문화예술 분야 점유율(%)	4.70	4.30	4.80	4.60	4.80	4.97
		1.00	0.91	1.03	0.98	1.03	1.06
56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수도권 내 가구 비율(%)	8.8	8.9	9.3	9.0	8.6	8.3
		1.00	1.01	1.05	1.02	0.98	0.94
57	개인 지출 중 문화예술 지출 점유율(%)	1.76	1.66	1.52	1.44	1.28	1.32
		1.00	0.95	0.88	0.81	0.79	0.75
58	GDP 중 문화예술 점유율(%)	3.54	3.48	3.41	3.37	3.11	데이터 없음
		1.00	0.98	0.96	0.95	0.88	데이터 없음
65	재단 지원금 중 문화예술 점유율(%)	12.5	12.5	10.6	10.5	9.2	데이터 없음
		1.00	1.00	0.85	0.84	0.74	데이터 없음
66	기연 후원 중 문화예술 점유율(%)	6.6	6.4	7.5	6.0	5.0	5.0
		1.00	0.97	1.14	0.91	0.76	0.76
67	연방정부의 1인당 문화예술 지원(\$)	6.44	6.57	6.11	6.41	5.65	6.13
		1.00	1.02	0.95	1.00	0.88	0.88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68	연방정부 자유재량 지출 중 문화예술 지원금 점유율(%)	0.38	0.37	0.36	0.34	0.28	0.34
		1.00	0.97	0.94	0.89	0.75	0.88
69	주 정부기관의 1인당 예술 지출액(\$)	1.43	1.13	1.21	1.08	0.84	0.88
		1.00	0.79	0.84	0.75	0.59	0.57
70	주 정부 일반 지원액 대비 주 예술기관 지원액(%)	0.070	0.054	0.053	0.050	0.042	0.041
		1.00	0.78	0.76	0.71	0.60	0.58

## ② 직업/학위/관람 점유율(Share of Workers/degrees/attending)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59	전체 학위 중 시각/공연예술 학위 점유율(%)	4.2	4.3	4.1	4.0	3.9	3.81
		1.00	1.01	0.97	0.93	0.91	0.90
60	전체 고용인 중 문화예술산업 고용 점유율(%)	1.81	1.79	1.47	1.62	1.57	1.49
		1.00	0.99	0.96	0.90	0.87	0.82
61	전체 직업 중 문화예술 직업 인력 점유율(%)	1.13	1.20	1.23	1.29	1.22	1.22
		1.00	1.07	1.09	1.15	1.09	1.08
62	전체 산업 분야 연간 급여 중 문화예술산업 급여 점유율(%)	1.95	1.90	1.88	1.74	1.66	1.65
		1.00	0.98	0.96	0.90	0.85	0.85
63	전체 SAT 1 시험 응시자 중 4년간의 예술 또는 음악 분야 경험자(%)	15.9	17.7	18.4	20.2	17.6	17.8
		1.00	1.11	1.16	1.27	1.11	1.12
64	전체 산업 내 설립체 중 문화예술 설립체 점유율(%)	2.98	2.94	2.96	2.74	2.70	2.59
		1.00	0.98	0.99	0.92	0.90	0.87
71	전체 인구 중 뉴욕시 또는 투어 중인	4.3	6.2	5.5	4.7	4.2	4.4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브로드웨이 쇼 관객(%)	1.00	1.44	1.30	1.09	0.98	1.02
72	설문응답자 중 라이브 대중음악 관객(%)	22.7	23.5	21.9	21.8	23.1	25.1
		1.00	1.03	0.96	0.96	1.02	1.10
73	전체 설문응답자 성인 중 교향악, 무용, 오페라, 연극 관객(%)	40.4	38.3	35.5	33.5	34.6	31.1
		1.00	0.95	0.88	0.83	0.81	0.77
74	전체 설문응답자 중 미술관 방문객(%)	15.5	15.0	13.7	11.5	13.0	12.9
		1.00	0.97	0.88	0.85	0.84	0.83
75	전체 인구 중 오페라 관람 인구율(%)	1.08	1.12	1.18	0.95	0.74	0.85
		1.00	1.03	1.09	0.88	0.68	0.78
76	전체 인구 중 교향악 관람 인구율(%)	9.6	9.0	9.6	8.3	8.6	10.1
		1.00	0.93	1.01	0.87	0.90	1.06
77	전체 인구 중 비영리전문연극 관람 인구율(%)	11.8	11.0	10.3	9.8	10.91	11.04
		1.00	0.93	0.87	0.83	0.92	0.93

## ③ 자산/수익(Assets/surplus)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78	Mei Moses 전체 아츠 인덱스 결산가치	1,506	1,946	2,661	2,033	2,683	2,673
		1.00	1.29	1.77	1.35	1.78	1.77
80	예술사업의 자산수익률(%)	31.5	29.9	33.4	34.3	31.9	1.24
		1.00	0.95	1.06	1.09	1.01	0.93
81	비영리예술기관의 연말흑자율(%)	58.2	61.1	64.3	54.8	55.8	58.0
		1.00	1.05	1.10	0.94	0.96	1.00



## ④ 국제 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세부 지표	절대가치 (n)					
		지표 수치 (2003=1.00)					
79	국제 창조 상품 수출입	30.8	28.6	28.1	23.2	22.7	22.2
	무역 중 미국 점유율(%)	1.00	0.93	0.78	0.72	0.70	데이터 없음



## 제2절

## 아시아

## 1. 일본

## 가. 개요

일본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지표로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문화예술 관련 지표는 국가브랜드나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 문화예술 활동, 국제문화교류와 인적교류 등 접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을 수립에 맞추어, 문화청에서는 문화지표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UNESCO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문화예술생산위성계정(CSA)을 추진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나.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 1) 문화청의 문화지표

## ① 문화지표 조사연구 진행

일본에서는 문화청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1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제3차 기본방침)에서는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중점전략에 관한 PDCA(계획, 실행, 검증, 개선) 사이클을 확립하고, 각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정책추진을 위해 적합한 평가방법 개발이 과제 중의 하나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청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당 조사는 정량 및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과와 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에 대한 조사로 파악된다.

## ② 문화예술추진 기본계획과 지표 작성

최근 일본에서는 개정된 문화예술기본법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세웠으나, 이 계획에서는 관광 등 유관 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정책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에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을 참고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및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광을 비롯한 국제교류, 교육, 산업 등 관련된 분야와 연계한 종합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정책의 4개의 목표와 6개 전략을 세우고, 정책평가와 검증을 위해 각 전략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문화청이 제시한 4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文化庁, 2018a).

- 목표1: "문화예술 창조·발전·계승과 교육". 문화예술의 창조, 발전, 차세대 계승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활동 참가기회 제공,
- 목표2: "창조적이며 활력 있는 사회". 문화예술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노베이션이 창출되며, 문화예술 국제교류 및 발신을 통해 국가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고, 창조적이며 활력 있는 사회 형성,
- 목표3: "풍부하고 다양성 있는 사회". 여러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참가하여 상호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고 풍부한 사회 형성,



- 목표4: "지역의 문화예술을 추진하는 플랫폼". 지역의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해 플랫폼이 전국각지에서 형성되어, 다양한 인재와 문화예술단체, 기관과 연계 및 협동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문화 커뮤니티 형성.

일본의 문화청은 기본계획 워킹그룹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네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에 따른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는 2018년에 발표된 제 1기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의 내용에 반영되었다(文化庁, 2018a). 4개의 목표에 따른 6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문화예술 창조·발전·계승과 문화예술교육 강화
- 전략2: 문화예술 효과적인 투자와 이노베이션 실현
- 전략3: 국제문화교류·협력 추진,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브랜딩 추진에 공헌
- 전략4: 다양한 가치관 형성과 포섭적인 환경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양성
- 전략5: 다양한 능력을 가진 전문 인재 확보·육성
- 전략6: 지역 연계·협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형성

### ③ 문화산업지표 산출방법론 국제비교 조사

문화청은 문화산업의 경제규모(문화GDP)에 대한 산출방법 등에 대한 국제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文化庁, 2016). 문화산업의 개념과 산업분야와 산업 분류 모델, 문화산업의 경제규모 측정 지표와 산출방법을 검토하였다. 각국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산업을 문화산업, 창조산업, 문화·창조산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며 개념과 대상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문화산업 경제효과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경제규모와 구조분석, 문화 위성 계정, 승수분석 등이 있다. 경제규모와 구조분석은 '문화산업에 관련된 경제활동 양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 방법'을 지칭하며 총부가가치(GVA), 국내총생산(GDP), 고용자 수, 사업소 수를 기본지표로 한다.



〈표 3-9〉 경제규모 및 구조분석 측정의 기본 모델

지표	측정	개요
총부가가치 (GVA)	문화산업 및 서브섹터의 총부가가치(GVA)/국민총생산(GDP)	문화산업 및 서브섹터의 총부가가치(GVA)/국민총생산(GDP) 수치
	상대적인 용어로서 문화산업의 총부가가치/국민총생산	경제전체의 총부가가치/국민총생산에서의 문화산업의 총부가가치/국민총생산 비율
	각 서브섹터의 총부가가치/국민총생산 분포	문화산업의 총부가가치/국민총생산에서의 각 서브섹터의 수치와 비율
고용자 수	총고용자 수에 대한 문화산업의 고용자 수 공헌	총고용자 수에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의 비율
	각 문화산업의 서브섹터의 고용자 수 분포	문화산업의 총고용자 수에서의 각 서브섹터의 수치와 비율
	개인사업주의 양과 비율	경제전체의 개인사업주에서의 개인사업주의 수
	문화산업의 노동생산성	1인당 문화산업의 총부가가치(GVA)
사업자 수	사업의 자본	문화산업의 규모별 사업소 수
	서브섹터별 사업분포	서브섹터의 규모별 사업소 수
	사업 신설율	1만인 당 문화산업의 사업소 신설 수
	사업 도산율	1만인 당 문화산업의 사업소 도산 수
	서브섹터별 신설사업 분포	1만인 당 서브섹터의 사업소 신설 수
	서브섹터별 도산사업 분포	1만인 당 서브섹터의 사업소 도산 수

자료: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09); 文化庁(2016)에서 인용

일본의 문화 GDP 산출은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에 준하는 부가가치법을 활용한 방법과 총무성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방법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여행·관광 위성계정 추계 프로세스를 참고로 일본의 문화 GDP 산출방법을 검토하며 국민경제계산을 활용한 V표(산업별 상품산출표)와 U표(산업별 상품투입표)를 활용하여 미국의 관광위성계정과 유사하게 문화산업에 관한 상품을 정의하여 그 수요를 파악한다. 보고서에서는 일본표준산업 분류의 산업별 경제규모 추계에서 일본의 문화 GDP 산출 프로세스를 작성하였다.



〈표 3-10〉 문화 GDP 산출 과정

구분	개요
1	- UNESCO 통계연구소 모델과 동심원 모델을 참고로, 일본표준산업분류(세분류)의 문화 산업을 분류 및 특정
2	- 경제 센서스 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대분류) 문화산업의 경제규모를 추계하여 산업별 문화산업비율을 산출
3	- 산업별 문화산업비율을 산업연관표 V표에 반영하여 산업별 문화산업의 산출액을 산출
4	- 산업별 문화산업비율을 U표에 반영하여 산업별 문화산업의 중간투입액을 산출
5	- 문화산업의 산출액에서 문화산업의 중간투입액을 감하여 문화산업의 부가가치액을 추계함. 다만, 여기서 산출된 부가가치액에는 총자본 형태에 관한 소비세가 포함되는데, 수입액에 부여된 세금/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치를 정리하여 생산측의 GDP를 파악함

자료: 文化庁(2016)

〈표 3-11〉 문화 GDP 산출결과(2016년 기준)

2016년	문화 GDP	비율(%)	비고
A. 박물관 (문화·자연유산)	1,185억엔	1.2%	- 부분 - 박물관만 포함. 고고/역사적 유적, 문화적 경관, 자연유산 제외
B. Performing arts·음악 (흥행/celebration)	5,089억엔	5.1%	- 부분 - performing art와 음악 합계, 페스티벌·페어·출제 제외
C. 미술·사진 (visual arts/공예)	2,715억엔	2.7%	- 전체 - 미술, 사진, 공예 3부문 제외
D. 저작·출판/보도	2조 6,740억엔	26.6%	- 부분 - 북페어 제외
E. Audiovisual/ Interactive media	2조 6,542억엔	26.4%	- 전체(4부문 합계)
F.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3조 8,174억엔	38.0%	- 전체(6부문 합계) - 다만, 경관 디자인은 건축서비스에 포함
① 문화 GDP 합계	10조 444억엔	100%	
② 일본 GDP	538조 5,329억엔		- 2016년, 명목
③ 문화 GDP 대 GDP 비율(①/②)		1.87%	

자료: 文化庁(2019)



## 2) 문화예술생산 위성계정

### ① 문화예술생산위성계정 개발 검토

일본에서는 최근 문화 위성계정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에 일본에서 제1회 CSA 전문가위원회 개최를 유치하여 문화청이 CSA에 대해 정식보고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문화청에서는 ‘문화예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의 수치평가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문화예술 및 산업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조사에서는 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문화 활동의 종류, 내용과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화청의 보고서(2018)에서는 CSA의 대상이 되는 ‘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UNESCO의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의 문화예술기본법, 향후 문화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생활문화 및 전통적인 생활문화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관광위성계정(TSA)에서는 관광소비를 관광객의 소비로 정의하고 있으나, 문화 활동의 경우에는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문화 및 비문화의 구분과 개별적인 통계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행동 변화와 문화의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정구축을 제안하였다(文化庁, 2018a).

한편, 문화청(2019)은 보고서에서 UNESCO 모델을 기반으로 일본의 문화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의 정의와 대상범위를 제시하였다. 문화 및 자연유산, 퍼포먼스/셀레브레이션, 비주얼아트/공예, 저작 및 출판/보도, 시청각/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분야에 대해 문화 GDP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2016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의 문화 GDP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문화 GDP 총액은 10조 443억엔이며 전체 GDP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GDP의 구성 비율은 디자인/크리에이티브 영역이 38%, 3조 8,174억엔, 저작 및 출판/보도 영역이 26.6%, 2조 6,740억 엔, 시청각/인



터랙티브 미디어 영역이 26,4%, 2조 6,542억 엔으로 3개 영역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 굵은 글씨는 산출가능한 부분임

자료: 文化庁(2019).

한편, 일본의 문화통계는 문화에 관한 활동조사, 의식조사 등이 있으나 정성적인 조사가 많은 편이다. 이에 CSA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또한 문화통계는 서비스 중심으로 타 요소와 융합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활동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성과 SNA 통계 개선이 언급되었다. UNESCO에서 지적자산을 문화생산물과 판권처리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문화산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 다. 문화지표 분석

전략 1의 지표 중 문부과학성은 사회교육조사를 통해 사회교육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내용 중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소재지와 시설, 직원, 자료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시설별 이용자 수 중 도서관 이용자수는 2014년 기준으로 181,364명이며, 박물관 이용자 수는 129,579명으로 파악된다(文部科学省, 2014).



〈표 3-12〉 전략1: 문화예술 창조·발전·계승과 문화예술교육 강화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국민의 자량으로서 문화예술을 응답한 비율	2008년: 44.9% 2014년: 50.5% 2016년: 51.1%	- 내각부, 사회의식에 관한 여론조사 - 대상: 18세 이상 - 매년 실시
일본의 예술에 대해 매우 좋음, 대체적으로 좋은의 응답률	2013년: 매우 좋음 16%, 대체적으로 좋음 61%(77%)	-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정보시스템 연구기구 통계수리연구소, 일본인의 국민성 조사 - 대상: 20세 이상 85세 미만 - 5년마다 실시
극장, 콘서트홀 등을 간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제1기 계획기간 중에 지표 개발 검토 및 중간평가에 반영 목표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입장객 수/이용자 수	박물관, 도서관	-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 - 3년마다 실시
문화예술활동, 문화시설의 사회적 투자효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투자효과 평가에 대해, 제1기 계획기간 중 조사연구 실시	
일본의 예술가 인구 수	2015년 41만(속보치)	- 총무성, 국세조사 - 5년마다 실시
문화재의 적절한 수리 실시상황	문화재 수리상황에 대해 정성적, 질적으로 평가 실시	- 참고: 문화재 소유자 등이 실시한 수리 건수(문화청)
문화재 방재, 방범대책 실시상황	문화재 방재/방범대책 실시상황에 대해 정성적, 질적으로 평가 실시	- 참고: 문화재 소유자 등이 실시한 방 재, 방범대책 실시건 수(문화청)
역사문화기본구상(역내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 보존활용계획 수립건 수	전략2 참조	전략2 참조
‘당신은 일상의 언어/말투, 문장 필체 등 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관심이 있음’ 응답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010년: 81.1%	- 문화청,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 매년 실시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비율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 응답자 비율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2015년: 78.5%	- 문화청,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 매년 실시
국민의 감상, 감상 이외의 문화예술활동 각각의 참가율	전략4 참조	전략4 참조
문화예술산업 경제규모(문화 GDP)	전략2 참조	전략2 참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관련 지표로서는 문화 GDP, 문화예술 관련 산업 시장 규모, 문화예술 활동 참가 비율 등이 제시되었으며, 국제문화교류와 국가브랜딩 관련 측정지표로서 방일외국인 수와 일본어 학습자 및 교육기관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다양한 가치관 형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활동 각각의 참가율을 비롯하여 어린이, 고령층, 재류외국인,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가율 등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자 수, 예술가 수,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지표가 제시되었다. 한편, 전문 인재 육성에 대한 지표로써 지자체와 문화시설의 전문 인재와 문화예술단체의 관리인재 배치상황 등이 제안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형성에 대한 지표로서는 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지침 수, 문화 활동에 대한 기부활동 비율 등을 반영하였다.

〈표 3-13〉 전략2: 문화예술 효과적인 투자와 이노베이션 실현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문화예술산업 경제규모 (문화 GDP)	조사연구 중, 제기 계획기간 중에 지표개발에 대해 검토하여, 중간평가에 반영계획 2014년: 문화GDP 약 8,8조엔 (총 GDP의 약 1.8%, 해외는 약	- 문화청, 문화산업의 경제규모 및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문화산업: 미술, 음악, 무대예술, 문학, 박물관·미술관, 영화, 사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3~4%)	진, 디자인·서비스, 방송, 출판, 레코드 음악, 게임, 기타 - 미래투자전략 2017
(참고) 문화예술관련산업 시장규모 ①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2014년: 7조 8904억엔 2015년: 7조 9434억엔	- 경제산업성 감수, 디지털콘텐츠 백서 - 영상, 정지영상·텍스트, 게임, 음악·음성, 복합형
②애니메이션 시장규모	2012년: 2330억엔 2013년: 2428억엔 2014년: 2595억엔 2015년: 2792억엔 2016년: 2520억엔	- 미디어개발중연발표자료 - 극장용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비디오소프트, TV 애니메이션, 배신(PC, IPTV, 스마트폰, 피쳐폰)
③만화 판매금액	2014년: 4456억엔 2015년: 4437억엔 2016년: 4454억엔	- 전국출판협회 출판과학연구소, 출판지표 연보 - 단행본, 잡지, 전자서적
④영화 흥행수입	2013년: 1942억엔 2014년: 2070억엔 2015년: 2171억엔 2016년: 2355억엔	- 일본영화제작사연맹 자료
⑤음악·음성 수입	2014년: 22.6조엔 2015년: 25.5조엔	- 경제산업성 감수, 디지털콘텐츠 백서
국내 여행소비액	2014년: 22.6억엔 2015년: 25.5억엔	- 관광청, 관광백서 - 일본인국내숙박여행, 일본인국내 당일여행, 일본인 해외여행(국내분), 방일외국인여행
국민 감상, 감상 이외의 문화예술활동 각각의 참가율	전략4 참조	전략4 참조
역사문화기본구상(역내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 보존활용계획 수립건수	역사문화기본구상수립 건수: 60건(2017년 4월 기준) 보존활용계획수립 건수: 903건(2017년 6월 기준)	- 문화청
문화유산 온라인 방문횟수/등록건수	방문횟수: 약 172만회(2016년) 등록건수: 123409건(2017년 기준)	- 문화청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국립미술관·박물관 기부금 등 현황	국립미술관 2016년 847백만엔 국립문화재기구 2016년 754백만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재무제표</li> <li>-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제10기 사업연도(2016년) 재무제표</li> </ul>

또한, 전략 3과 관련된 지표 중, 문화청은 일본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일본 국내의 일본어교육 기관·시설 등을 대학 등 기관과 일반의 시설·단체로 구분하여 일본어교육시설기관/시설 등에서의 일본어학습자 수 참가율, 재류외국인 수에서 일본어교육 실시기관, 시설 등에서의 일본어학습자 수 비율, 일본어 교사양성, 연수실시기관, 시설 등에서의 일본어교사양성, 연수강좌 수강자 수 등에 대해 조사한다.

〈표 3-14〉 전략3: 국제문화교류·협력 추진과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브랜딩 추진에 공헌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문화 프로그램 인증 건수	도쿄 2020 문화올림픽아드 747건 beyond 2020 프로그램 1195건 문화정보 플랫폼의 문화이벤트 게재 건수: 19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 2020 문화올림픽아드 인증건수: 조직위원회</li> <li>- beyond 2020 프로그램 인증 건수: 내각관방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도쿄 패럴림픽 경기대회 추진본부 사무국 정리</li> <li>- 문화정보 플랫폼 게재건수: 문화청</li> </ul>
극장, 콘서트홀 등의 다언어화 대응률	시설 다언어화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일부만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국공립극장, 콘서트홀 비율 2016년 국공립 전체: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청, 극장, 콘서트홀 등의 활동 현황에 관한 조사</li> <li>- 거의 매년 실시</li> </ul>
문화유산보존복원 등에 관한 국제협력 실시상황	문화유산 보존복원 등에 관한 국제협력 상황에 대해 정성적, 질적 평가 실시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인재육성연수 등을 위해 파견한 인원: 185명 (2016년)</li> <li>- 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인재육성연</li> </ul>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수 등에 해외에서 참가 및 초대인원: 875명 (2016년)
(참고) 방일 외국인 수	2011년: 622만명 2015년: 1974만명 2016년: 2404만명	- 일본정부관광국(JNTO) - 매월 실시
(참고) 방일외국인이 방일전에 기대한 것	방일외국인이 방일 전에 기대한 것(20개 항목 중 복수응답) 일본 음식을 먹는 것(71.2%), 자연/경승지 관광(47.9%), 일본의 역사/전통문화체험(16.8%), 미술관/박물관(13.9%), 일본의 대중문화를 즐김(10.4%), 영화/애니메이션 배경지를 방문(4.9%), 무대감상(4.4%)	- 관광청, 방일외국인 소비동향조사 2016년도 연차보고서
일본을 유학장소로 정한 이유로 '일본어·일본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의 응답률	2011년: 49.6% 2015년: 45.1% 2016년: 47.3%	- 일본학생지원기구, 사비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조사 - 2년마다 실시 - 대상: 대학(대학원생 포함), 단기대학, 전문대학(전문과정), 준비교육기관 및 일본어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비외국인유학생
재류외국인 수에서 일본어교육 실시기관, 시설 등에서의 일본어학습자 수 비율	재류외국인 수에서 일본어학습자 수 비율 2014년 말: 8.2% 2015년 말: 8.6% 2016년 말: 9.1%	- 문화청, 일본어교육 실태조사 - 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 - 일본어교육실시기관, 시설 등: 대학 등 기관, 지자체, 교육위원회, 국제교류협회, 법무성고시기관, 임의단체 등 (매년 실시)
일본어교육시설기관/시설 등에서의 일본어학습자수 증가 비율	- 일본어학습자 수의 증가율: 2016년말 217,881명, 증가율 +13.6% 해외에서의 일본어학습자 수 추이: 2015년 3,655,024명, -8.3%	- 문화청, 일본어교육실태조사 - 일본어교육실시기관, 시설 등: 대학 등 기관, 지자체, 교육위원회, 국제교류협회, 법무성고시기관, 임의단체 등(매년 실시) - 국제교류기금, 해외일본어 교육기관조사 - 일본어교육실시기관/시설 등: 초·중·고등/고등교육기관, 민간일본어학교 등(3년마다 실시)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일본어 교사양성, 연수실시기관, 시설 등에서의 일본어교사양성, 연수강좌 수강자 수	일본어교사 양성, 연수강좌 수강자 수 2015년: 26241명 2016년: 2926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청, 일본어교육실태조사</li> <li>- 일본어교사양성, 연수실시기관, 시설 등: 대학 등 기관, 지자체, 교육위원회, 국제교류협회, 법무성 고시 기관, 임의단체 등(매년 실시)</li> </ul>
문화예술산업 경제규모 (문화GDP)	전략2 참조	전략2 참조

전략 1, 4과 관련하여 내각부가 문화에 관한 인식 파악을 위해 매년 문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문화예술의 감상활동 및 창작활동,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기부에 관한 의식, 지역의 문화적 환경, 문화예술 진흥과 효과, 어린이의 문화예술체험, 문화예술 국제교류·발신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은 일본 국내 18세 이상의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서 3000명에 대해 층화2단 무작위추출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중에서 2016년의 문화예술의 직접감상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59.2%로 나타났다. 또한, 총무성에서는 생활시간 배분과 여가시간에 관한 주요 활동 상황 등 사회생활 실태파악을 목표로 5년마다 사회생활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정한 조사 구역의 세대 중 무작위로 선정한 약 8만 8천 세대의 10대 이상의 세대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1차 추출단위를 여론조사 조사구로 하여 제2차 추출단위를 세대로 하는 층화2단 추출법으로 조사하였다(총무성 통계국, 2016).

〈표 3-15〉 전략4: 다양한 가치관 형성과 포섭적인 환경 추진으로 사회적가치 양성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국민의 감상, 감상 이외의 문화예술활동 각각의 참가율	(2016년) 감상활동 59.2%, 감상활동 이외 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부, 문화에 관한 여론조사</li> <li>- 대상: 18세 이상</li> </ul>
	과거 1년간 취미/오락 행동에서 문화예술 관련 상황 (행동자 비율, 평균행동일수) 감상: 미술감상, 공예/연극/무대감상, 영화관에서의 영화감상, 콘서트 등의 클래식 음악감상, 콘서트 등에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 사회생활기본조사</li> <li>- 5년에 1회</li> <li>- 10세 이상</li> </ul>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대중음악감상 등	
어린이들의 문화예술활동 참가비율	감상활동, 감상활동 이외 참가 비율(18~19세) (%) 2016년: 감상활동 69.4 %, 감상활동 이외 27.8%	- 내각부, 문화에 관한 여론조사 - 대상: 18세 이상
	최근 1년간 취미·오락 행사에서 문화예술관련 10~19세 행동자 수(%)	- 총무성, 사회생활기본조사 - 5년에 1회, 10세 이상
고령층의 문화예술활동 참가율	감상활동 참가율/감상활동 이외 참가율	- 내각부, 문화에 관한 여론조사 - 대상: 18세 이상
	과거 1년간 취미/오락 행동에서 문화예술관련 상황에 대해 65세 이상의 상황	- 총무성, 사회생활기본조사 - 5년에 1회 - 10세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가율	제1기 계획기간 중에 지표 개발 검토 및 중간평가에 반영 목표	
재류외국인 문화예술활동 참가율	제1기 계획기간 중에 지표 개발 검토 및 중간평가에 반영 목표	
극장, 콘서트홀 등의 다언어화 대응률	전략3 참조	전략3 참조
지역의 문화적인 환경 만족도(문화예술 감상기회, 문화재/전통적 마을 보존/정비 등)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문화적 환경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응답율: 53.6%(2016년)	- 내각부, 문화에 관한 여론조사 - 대상: 18세 이상
재류외국인 수 중 일본어교육 실시 기관, 시설 등에서의 일본어학습자 수 비율	전략3 참조	전략3 참조
일본어교육 실시기관, 시설 등의 일본어학습자 수 증가율	전략3 참조	전략3 참조
일본어교사양성, 연수실시기관, 시설 등의 일본어교사양성, 연수강좌 수강자 수	전략3 참조	전략3 참조
문화예술산업 경제규모(문화 GDP)	전략2 참조	전략2 참조



〈표 3-16〉 전략5: 다양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재 확보·육성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 전문직원	전문적인 직원이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 사례 등을 참고로 질적, 정성적 평가 실시	- 문화청
문화시설의 전문인재	문화시설(극장/음악 등, 미술관/박물관 등)의 전문인재에 대해 사례 등을 참고로 질적/정성적 평가 실시	- 문화청
극장, 콘서트 홀 등의 관리직의 전문인재 남녀비율, 무대기술직원 연령층	국공립극장, 콘서트홀 등의 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 국공립 극장, 콘서트홀 등의 연령층별 무대기술직원 수	- 문화청, 극장, 콘서트 홀 등의 활동현황에 관한 조사 - 거의 매년 실시
문화예술단체의 관리인재 배치상황	문화예술단체의 관리인재에 대해 사례 등을 참고로 질적/정성적 평가 실시	- 문화청
일본어교사양성, 연수실시기관, 시설 등에서의 일본어교육양성, 연수강좌 수강자 수	전략3 참조	전략3 참조
문화예술산업 경제규모 (문화 GDP)	전략2 참조	전략2 참조

〈표 3-17〉 전략6: 지역 연계·협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형성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지역의 문화적인 환경 만족도(문화예술 감상기회, 문화재/전통적인 마을 보존/정비 등)	전략4 참조	전략4 참조
2020년까지 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CCNJ) 가맹지자체 수	2017년: 96 지자체/ 36 단체	- 문화청 - 창조도시 네트워크(CCNJ): 문 화예술의 창조성을 활용한 산 업진흥, 지역활성화 등의 시책 을 추진하는 지자체 등, 다양 한 주체를 지원하며, 국내 및 세계의 창조도시간 연계/교 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지표항목안	현황·방향성	출처 등
지자체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수, 지침(계획) 수립 수	조례, 지침	- 문화청, 지방에서의 문화행정 상황에 대해 - 매년 실시
문화예술에 관한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활동 행동자수(전체) 스포츠/문화/예술/학술에 관련된 활동	- 총무성, 사회생활기본조사 - 5년에 1회
국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기부활동 비율	2016년: 9.6%	- 내각부, 문화에 관한 여론조사 - 대상: 18세 이상
기부금 상황 (전체 및 대공적자금)	제기 계획기간 중, 조성한 단체 등에 대한 상황조사를 검토하여 중간평가에 반영	
국립미술관, 박물관 기부금 등 상황	전략2 참조	전략2 참조
문화예술산업 경제규모(문화 GDP)	전략2 참조	전략2 참조

주) 색상이 있는 부분은 outcome, 색상이 없는 부분은 output로 구분됨

자료: 文化庁(2018).

## 2. 중국

### 가. 개요

2016년 ‘13차 5개년 계획’ 발표의 해는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첫해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의 문화건설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사회건설 및 생태문명 건설과 마찬가지로 전면적 급속 발전 시기로 진입했다.

특히 2016~2017년은 문화사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문화 사업비의 총액과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 총지출의 비용이 역사상 가장 높게 기록되었다. 중국 국가와 정부는 문화사업건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3차 5개년 계획’에서 문화발전 규획과 구체적 실시 문건 그리고 문화사업의 지도 사상 및 발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중국에서는 문화에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틀어 문화사업이라고 말한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문화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가 상당한 상업성과 경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한 후부터 그 개념을 문화산업으로 분류했다.

문화산업은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하여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관점의 산업으로 보는 것으로 사회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문화, 오락 산업과 서비스 등의 활동 등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문화산업으로 정의한다. 중국에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고 국가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2000년도이고, 중국 공산당 16차 전당대회 당시 중국의 문화산업이 경영성, 영리성의 문화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구분했다.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은 최근 그 효과가 확실히 드러났고, 문화산업의 전체적 발전 추세는 상당히 양호하여 거시경제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점이 되어 신흥 문화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역시 한 단계 발전하여 과거에 없었던 공공문화 서비스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공공문화 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시 비교적 성장했는데, 특히 공공문화 관련 입법을 통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문화상품은 예술상품을 비롯하여 각 방면에서 모두 대폭으로 성장했다. 전통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융합적인 배경 하에서 첨단기술의 창신과 문화 창의를 중국 문화의 국내전파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특히 관련 문화법규제정과 정책 보장은 중국 문화의 국내 전파에 중요한 추동력이 되어 국내 문화 영향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7년은 중국문화 발전과 건설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19대 보고 중에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선포하고 문화발전



의 새로운 지위, 새로운 기능, 새로운 요구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중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문화강국으로의 발판을 다지고 각종 문화지표를 상승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 나.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 1) 문화발전지표 개발

중국의 문화지표는 2018년 ‘중국문화발전보고(中国文化发展报告)’를 통해 발표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후베이대학과 후베이문화건설연구소와 함께 ‘문화건설청서(文化建设蓝皮书)’ 시리즈의 하나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별도로 문화지표를 구성할 수 있는 국가통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17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4,000개가 넘는 설문지 분석과 흩어져있는 문화관련 통계연감 등을 활용하여 5개 주요 지표와 44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다. 5개 주요 지표는 문화투입, 문화생산, 문화공급, 문화전파 및 문화소비 등이며, 31개 성급별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조사하였다. 그간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등 개별적으로 통계연감을 발표하거나, 지표를 조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중국의 문화발전 현상화 수준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중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화지표체계를 개발하고 발표한 주요 목적이 중국의 문화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성과와 문화 분야의 각 영역이 비교적 성장궤도에 오른 것을 지표로써 나타내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라고 서술했다. 중국 문화발전 영역 대부분의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통계지표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국가 전체적 문화발전양상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문화지표체계는 2016~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 표의 문화투입, 문화생산, 문화공급, 문화전파 및 문화소비의 다섯 가지 부분에서의 지표 개발을 통하여 현재 중국문화발전의 현상과 수준을



가능해 볼 수 있다.

〈표 3-18〉 중국 문화발전지표체계

주요지표	세부 지표
문화투입	인당 평균 문화사업비 문화사업비 재정 점유투입 비중 문화시장경영기구종사인원 수 문화사업종사인원 수 문화시장경영기구자산총계 문화예술공연단체 재정교부금과 공연 수 문화부문 예술 공연 단체 경비 지급율
문화생산	문화관기구 수 공공도서관 기구 수 대중문화기구 수 박물관 기구 수 공유제 예술 공연 기구 수 문물 기구 수 출판 발행 기구 수 문화시장경영기구 경영 수입 오락장소 경영 수입 문화예술공연단체 공연 수입 문화예술공연단체 수
문화공급	신문 발행 부수 박물관 수 도서 발행 수 대중문화기구조직 활동 수 정기간행물 발행 수 문화예술공연단체 공연 수 박물관 소장품 수 문물 소장품 수 인당 평균 공공 도서관 소장 도서 수 가정 당 유선 텔레비전 점유 비중
문화전파	대외 공연인 수 대외 공연 횟수 대외 출국 문화교류 활동 대외 출국 문화교류인 수 박물관 참관 총인원 수 공공도서관 총이용자 수



주요지표	세부 지표
	대중문화기구 서비스인 수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합 인구 점유율 문화예술공연단체 국내공연 관람자 수
문화소비	거민 인당 평균 문화소비 거민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거민 인당 평균 소비 지출 인당 평균 도서 구입비 총지출에 대한 거민 문화소비지출점유 비중 인당 평균 대중문화 업무 활동 경비 여행객 수

〈표 3-19〉 중국 31개 성급별 문화투입 통계 (2016년)

성	문화 사업비 재정 투입 차지 비중 (%)	인당 평균 문화 사업비 (위안)	문화부문 예술공연 단체경비 지급율 (%)	예술공연 단체재정 교부금과 공연 수 (위안/회)	문화사업 종사인원 수 (인)	문화시장 경영기구 자산총계 (만 위안)	문화시장 경영기구 종사인원 수(인)
베이징	0.55	162.36	25.11	133327	6692	21463133	76075
톈진	0.43	101.18	15.26	131301	3576	1239201	11078
허베이	0.31	24.76	21.70	14712	18798	579897	45354
산시山西	0.58	53.73	30.70	15441	12267	464558	36367
네이멍구	0.58	103.00	4.62	65606	11657	381640	20422
랴오닝	0.42	44.36	8.31	185007	13693	1497006	42920
지린	0.45	58.52	9.44	179817	14696	254656	15311
헤이룽장	0.42	46.19	5.27	141707	13803	328719	20954
상하이	0.61	174.44	45.45	82445	13046	3720831	54108
장쑤	0.47	58.86	28.53	10875	20954	3273165	105449
저장	0.78	97.41	21.34	90086	19796	5167034	147453
안후이	0.32	28.34	38.70	32695	14569	1476888	88363
푸젠	0.50	55.70	26.55	43979	10237	1793871	60596
장시	0.28	28.08	15.41	21092	15015	943829	42297
산둥	0.37	32.27	21.07	23624	23688	768396	51561
허난	0.30	23.37	28.19	10748	28201	913422	68994
후베이	0.45	49.35	21.47	20789	13446	1025319	49677
후난	0.38	35.46	17.42	29632	19327	2426441	89519



성	문화 사업비 재정 투입 차지 비중 (%)	인당 평균 문화 사업비 (위안)	문화부문 예술공연 단체경비 지급율 (%)	예술공연 단체재정 교부금과 공연 수 (위안/회)	문화사업 종사인원 수 (인)	문화시장 경영기구 자산총계 (만 위안)	문화시장 경영기구 종사인원 수(인)
광둥	0.49	59.73	27.66	62583	27061	10862445	207597
광시	0.45	41.20	18.65	61184	13089	652314	42631
하이난	0.51	76.56	39.78	45283	1887	447859	13413
충칭	0.51	67.20	21.56	82787	12966	1483945	46267
쓰촨	0.50	48.86	9.58	91040	28498	1739871	88734
구이저우	0.35	42.51	19.76	15781	14205	918845	41173
윈난	0.44	45.85	8.34	59094	15985	853361	53171
시장	0.46	220.01	6.61	34457	9158	23203	1494
산시陝西	0.49	56.83	19.89	24272	23455	627546	35552
간쑤	0.28	54.85	9.94	71992	16055	425821	20648
칭하이	0.51	132.32	16.29	50331	2595	115342	6053
닝샤	0.54	100.27	28.63	11150	2910	312573	9959
신장	0.40	69.04	9.41	41291	13578	579561	16145

출처: 국가 통계국 편《중국통계연감 2017》, 중국통계출판사, 2017; 국가통계국, 중선부편《중국문화와 관련 산업 통계연표 2017》, 중국통계출판사, 2017; 문화부편 《중국문화문화통계연감 2017》, 국가도서관출판사, 2017.

## 2) 문화발전지표 활용

중국은 통계연감시스템(China Statistical Yearbooks Database, 中国统计年鉴数据库, 이하 CSYD)을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 측에서 공개발행 및 출판한 모든 통계연감과 중요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 (1,078 titles, 8,013volumes, 2.38 million articles since 1949)

CSYD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권위적이고, 종합적이며, 빠른 업데이트의 중국통계자료이다.

중국 정부에서 공개 발행한 모든 통계연감 및 중요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각종 monthly, quarterly 발간하는 중국 내 최신 산업 발



전에 대해 알 수 있는 필수 자료이다.

② EXCEL 서식으로 통계 데이터 다운 가능하다.

모든 통계자료 EXCEL 서식으로 변환 가능하고 현존하는 인덱스를 통합해서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 그에 따른 그래프와 표 생성 가능하므로 인덱스 통합, 계산이 가능하여 분석에 용이하다.

③ 각 다른 지역, 업종, 연도의 수치 검색 및 편집기능이 있다.

명칭, 연도, 지역, 수치 등 표 안에 있는 각종 요소를 발굴 및 분석하고, 각 다른 table, chapters, titles의 수치를 대규모 수집할 수 있다.



통

계연감 목록

출처: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数据库) 홈페이지



## 홈페이지, 검색창(영문판)

There are 1362 titles, 7687 volumes of statistical yearbooks and 2245019 entries (including 1629743 statistical charts) altogether collected in the database.

**Latest News!**

1. 2016-11-22 Newly increased 1328 volumes on line! [Click New Yearbook List ...](#)
2. 2016-09-12 Newly increased 365 volumes on line! [Click New Yearbook List ...](#)
3. 2015-11-10 Newly increased 682 volumes on line! [Click New Yearbook List ...](#)

**Top 25 statistical yearbooks(sorted by cited frequency by Chinese papers):**

中国统计年鉴(1981 - 2015) CHINA STATISTICAL YEARBOOK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03 - 2015) China Health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新中国60年(1949 - 2009) 60 YEARS OF NEW CHINA
新中国六十年统计资料汇编(1949 - 2009) CHINA COMPENDIUM OF STATISTICS	中国金融年鉴(1986 - 2014) Almanac of China's Finance and Banking	中国金融年鉴(英文版)(1992 - 2013) ALMANAC OF CHINA'S FINANCE AND BANKING
中国保险年鉴(1981 - 2015) YEARBOOK OF CHINA'S INSURANCE	中国农村统计年鉴(1985 - 2015) CHINA RURAL STATISTICAL YEARBOOK	中国教育统计年鉴(1987 - 2013) EDUCATIONAL STATISTICS YEARBOOK OF CHINA
中国人口和就业统计年鉴(1988 - 2014) CHINA POPULATION &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中国城市统计年鉴(1985 - 2014) CHINA CITY STATISTICAL YEARBOOK	国际统计年鉴(1995 - 2014) INTERNATIONAL STATISTICAL YEARBOOK
新疆统计年鉴(1989 - 2015) XINJIANG STATISTICAL YEARBOOK	广东统计年鉴(1989 - 2015) Guangdong Statistical Yearbook	上海统计年鉴(1981 - 2014) SHANGHAI STATISTICAL YEARBOOK
江苏统计年鉴(1985 - 2014)	甘肃发展年鉴(1984 - 2014)	中国科技统计年鉴(1991 - 2014)

출처: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数据库) 활용 홈페이지(영문판)

## 다. 문화지표 분석

중국은 문화발전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표가 서로 다른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투입, 문화생산, 문화제공, 문화전파 및 문화소비의 5가지 방향으로 현재 중국 문화발전의 현황과 수준에 관한 지표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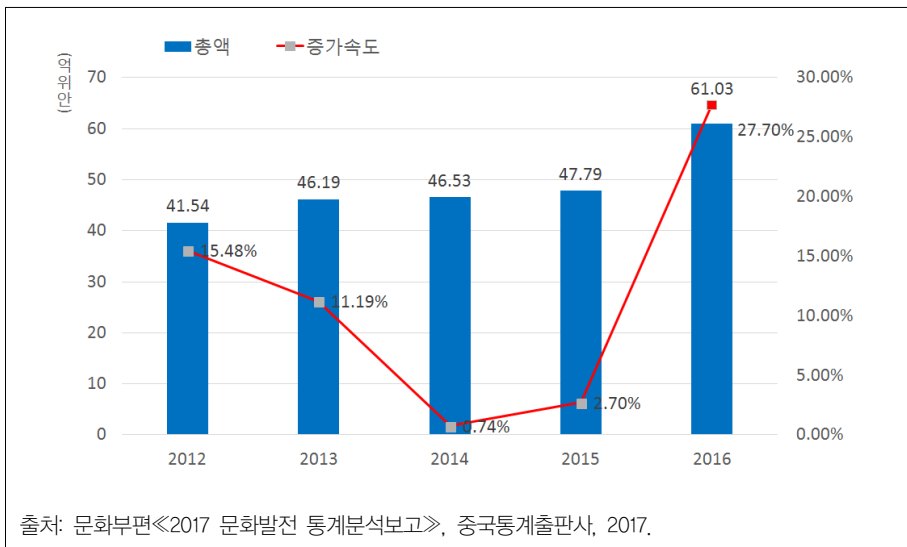
### 1) 문화투입

중국 문화투입수준의 높낮이에 따라 문화건설의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문화투입은 중앙정부의 문화발전 경비지원 및 인원지원을 포함한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문화 보조를 통하여 전국 문화사업비 수입 및 증가속도, 전국 문화사업비 투입의 도시와 구역 차이, 전국 문화사업비 지출이 정부지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인당 문화사업비 및 증가 속도 및 문화기술 수와 종사인원 등의 지표를 통하여 문화투입의 현황과 수준을 고찰한다.



## ① 문화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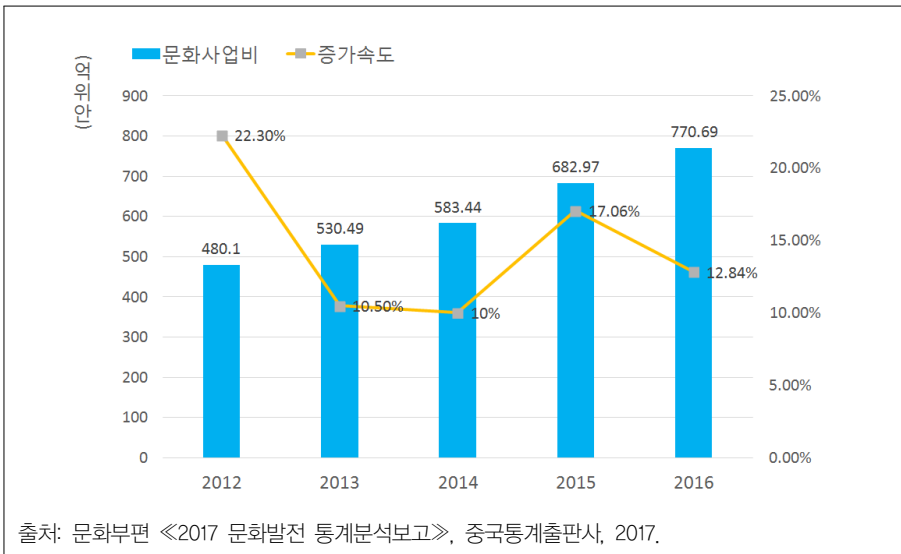
2016년 정부가 문화영역의 투입은 점점 증대하여 전체적 상승력을 보여준다. 2016년 연말 중앙정부의 지방 문화보조자금은 61.03억 위안에 달했는데, 2015년과 비교하면 27.70%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중앙의 지방 문화 항목에 대한 보조자금의 구체적 증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2] 지방에 대한 중앙의 문화 항목 보조자금 현황(2012~2016)

중국은 2016년에 문화사업비 770.69억 위안을 투입했는데, 2015년과 비교하면 12.84%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중국 문화사업비 투입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속도를 보여준다. 2012~2016년 문화사업비 총액이 계속적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문화투입량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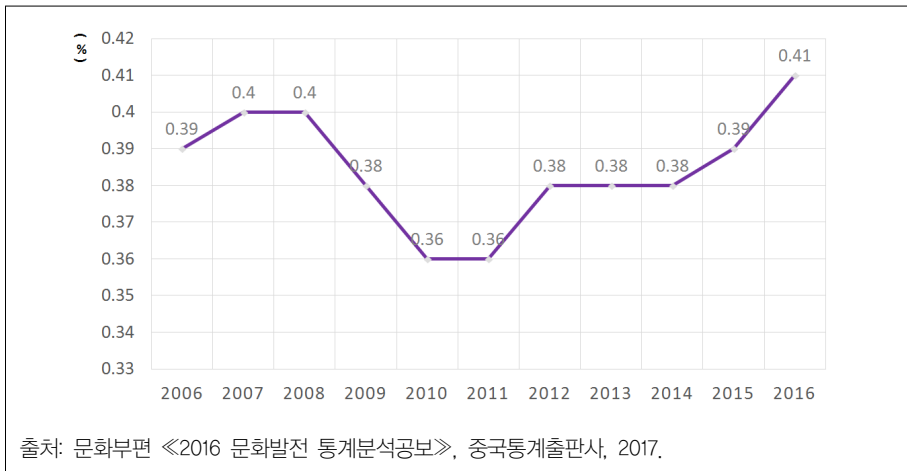


[그림 3-13] 전국 문화 사업비 총량 및 증가 속도(2012~2016년)

문화사업비 투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재정총지출의 비중 또한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연말에는 문화사업비 재정총지출 비중이 0.41%로 2015년 대비 대략 0.39% 증가했다. 전국 문화사업비 재정총지출 비중의 정도는 사실상 정부가 문화건설 경비 투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 정도를 반영한다. 다음은 최근 10년 동안의 문화사업비 재정총지출의 비중상황을 보여준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중국 문화사업비 재정총지출의 비중 총액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문화사업건설에 대한 중시 정도도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변화를 보인다고 할 때, 문화사업비 재정총지출의 비중이 최고에 도달한 2016년에 정부가 문화건설에 대하여 상당히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14] 전국문화사업비 재정 총지출 비중(2006~2016년)

최근 들어, 중국 문화사업비 투입은 안정적으로 고속 증가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균형성 방면에도 비교적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화사업비 투입은 현(縣)급 이하 기층 문화건설 투입을 중시하고, 동부, 중부, 서부 투입의 균형성을 중시하며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현이상의 문화사업비는 371.00억 위안에 달했고, 현과 현급 이하의 향진(鄉鎮)은 399.68억 위안을 기록했다.

〈표 3-20〉 도시 및 지역 분포에 따른 전국 문화사업비 총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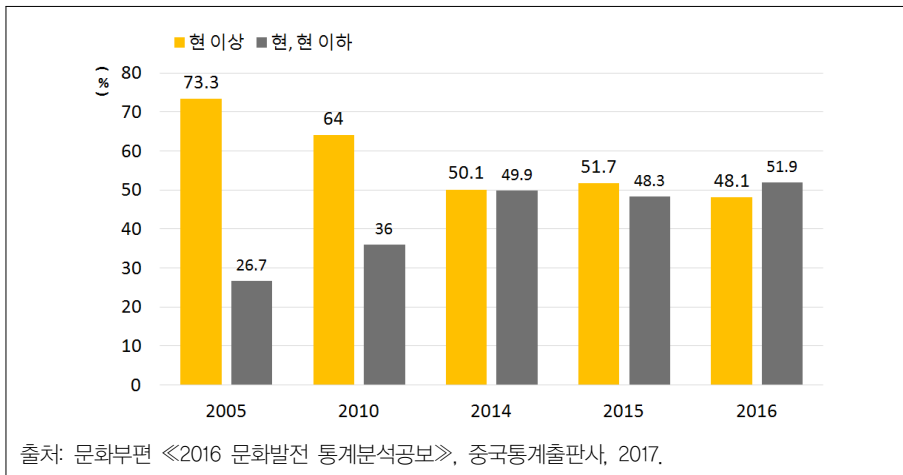
항목	2005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총량	133.82	323.06	583.44	682.97	770.69
현 이상	98.12	206.65	292.12	352.84	371.00
현 및 현 이하	35.70	116.41	291.32	330.13	399.68
동부지구	64.37	143.35	242.98	287.87	333.32
중부지구	30.58	78.65	133.46	164.27	184.80
서부지구	27.56	85.78	171.15	193.87	218.17

출처: 문화부편 《2016 문화발전 통계분석공보》, 중국통계출판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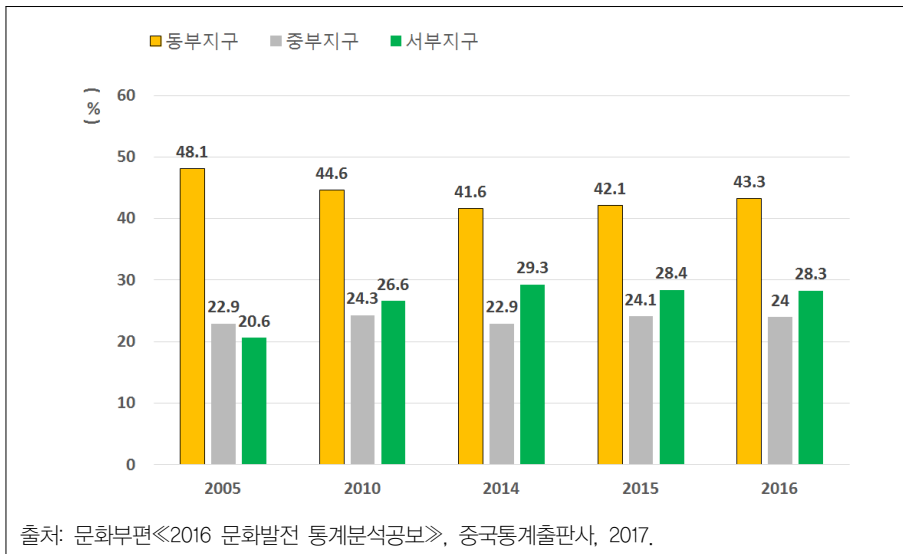
또한 2005년부터 2016년의 10년간 현 및 현 이하 문화사업비 투입의 비중이 도시와 농촌 분포 방면에서의 차이를 매년 좁혀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연말에는 기층 향진의 문화사업비 투입 비중이 도시지역을



넘어선다. 이것은 정부의 기층에 대한 문화 투입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투입 중심이 기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사업비 투입의 도농 비중분포는 이미 균형적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5] 도시와 농촌 전국 문화사업비 분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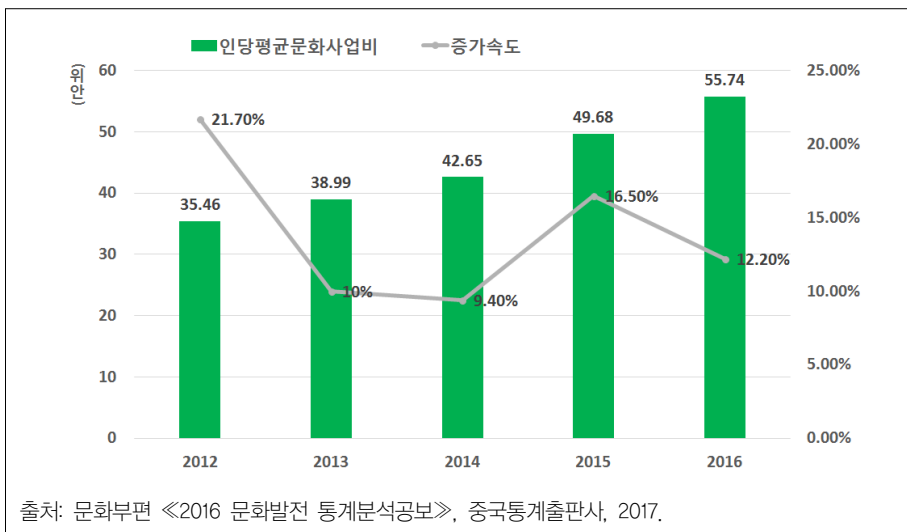


[그림 3-16] 구역별 전국 문화사업비분포 비중 상황



위의 그래프는 문화사업비 투입 비중의 지역별 분포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문화사업비 투입은 동부, 중부, 서부지역 투입비중의 분포가 미비하게 좁혀지고 있어 투입상의 불균형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구 문화사업비 투입은 거의 “붕괴” 단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2005~2016년의 10년간 그 투입비중이 1.1% 상승하여 중부지역에 대한 문화사업비는 투입비중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다음은 2012~2016년 전국 1인당 문화사업비 투입과 증가속도의 변동 상황이다. 2012~2016년 5년간 2014년의 9.4%내외의 증가율을 제외하고 다른 해는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연말의 1인당 평균 문화사업비는 55.74억 위안이며 증가율은 12.2%이다. 최근 1인당 평균 문화사업비는 연도별로 증가속도는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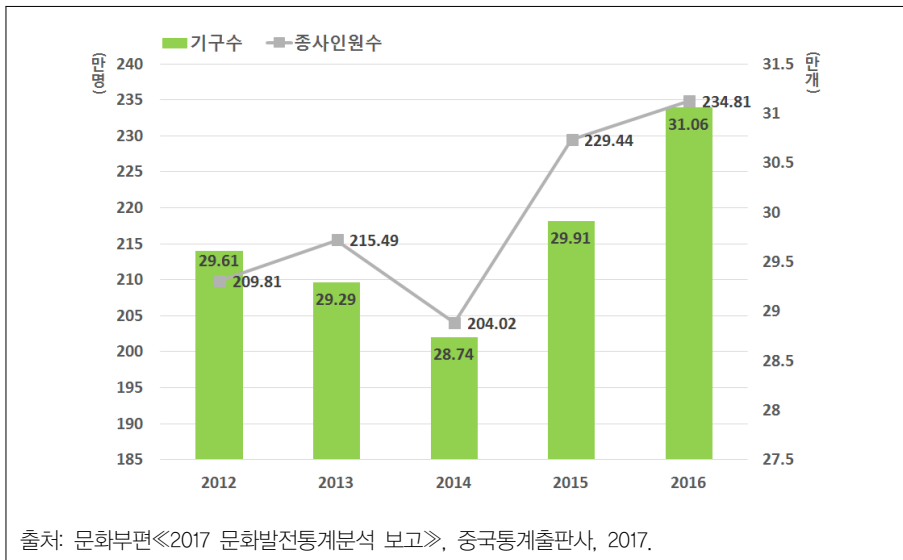


[그림 3-17] 전국 인당 평균 문화사업비 투입 및 증가변동 상황(2012~2016년)



## ② 문화고용

중국 문화단위기구수와 종사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낸다. 2016년 중국문화 단위 기구 수는 31.06만 개와 종사자 수는 234.81만 명으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3.84%, 2.34%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문화단위 기구 수는 4.90%, 종사자수는 11.92% 증가했다. 정부가 문화기구에 대해 진행한 축소, 재편의 상황 하에서도 종사인구의 평균 성장 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문화건설과 발전은 인적자원의 보장이라는 ‘작은 기구 큰 서비스의 총체적 참여’의 생각을 문화사업 발전 중에 구현한 것이다.



[그림 3-18] 전국 문화단위 기구 수와 종사자 수(2012~2016년)

## 2) 문화생산

문화생산은 문화건설의 핵심부분으로 문화사업과 기업단위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문화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다. 문화생산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문화발전 수준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 최근 중국의 문화생산 영역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안정되었고 주요지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 생



산에서는 문화인프라 및 문화예술공연단체, 문화시장 경영단위 및 전국규모이  
상 문화 및 상관기업, 문화 및 관련 산업증가 및 GDP 비중 등 지표를 통하여  
문화생산의 상황을 고찰한다.

#### ① 문화인프라 및 문화예술단체

〈표 3-21〉 최근 중국문화단위 기구 수 발전변화 상황

항목	공공도서 관 수(개)	전년대비 증가율(%)	대중문화 기구 수(개)	전년대비 증가율(%)	문화관 수 (개)	전년대비 증가율(%)
2012년	3,076	4.20	43,876	0.46	1,668	-0.10
2013년	3,112	1.17	44,260	0.88	1,671	0.18
2014년	3,117	0.16	44,423	0.37	1,666	-0.30
2015년	3,139	0.71	44,291	-0.30	2,037	22.27
2016년	3,153	0.45	44,497	0.47	1,630	-19.98

항목	박물관 수 (개)	전년대비 증가율(%)	공유제 예술표현 공연장수 (개)	전년대비 증가율(%)	문화예술 공연단체 수(개)	전년대비 증가율(%)
2012년	3,069	15.81	1,279	-10.50	7,321	3.77
2013년	3,473	13.16	1,344	5.08	8,180	11.73
2014년	3,658	5.33	1,338	-0.45	8,769	7.20
2015년	3,852	5.30	2,143	60.16	10,787	23.01
2016년	4,109	6.67	2,285	6.63	12,301	14.04

출처: 국가통계국《2017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17.

중국 문화예술공연단체의 발전상황은 최근 지속적인 문화예술공연단체의  
체제개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시장화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발전의 주요 지표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연말 문화예  
술단체 기구 수는 12301개로 2015년 대비 14.04% 성장하고 종사인원 수도  
33.29만 명으로 전기대비 10.30%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공연 횟수가 9.39%  
증가한 것 외에 다른 모든 부분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2〉 전국 문화예술공연단체 기본상황 (2012~2016년)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수치	전기 대비 증가율(%)	수치	전기 대비 증가율(%)	수치	전기 대비 증가율(%)
기구 수(개)	7321	3.77	8180	11.73	8769	7.20
종사인원수(만 명)	24.20	6.82	26.09	7.81	26.29	0.77
공연 수(만 장)	135.00	-12.30	165.10	22.30	173.90	5.33
국내 공연관람 수(억 명)	8.28	11.02	9.00	8.70	9.10	1.11
총수입(억 위안)	196,886	27.82	280.03	42.23	226.40	-19.15
공연수입(억 위안)	4.15	21.78	82.07	27.93	75.70	-7.76
분류	2015년		2016년			
	수치	전기 대비 증가율(%)	수치	전기 대비 증가율(%)		
기구 수(개)	10787	23.01	12301	14.04		
종사인원 수(만 명)	30.18	14.80	33.29	10.30		
공연 수(만 장)	210.80	21.22	230.60	9.39		
국내 공연관람 수(억 명)	9.58	5.27	11.81	23.28		
총수입(억 위안)	257.65	13.80	311.23	20.80		
공연수입(억 위안)	93.93	24.08	130.86	39.32		

출처: 문화부편《2017 문화발전통계분석 보고》, 중국통계출판사, 2017.

2012~2016년 중국 문화예술공연단체 기구 수와 종사인원 수는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2~2013년 전기 대비 종사인원 수는 증가 폭이 크지 않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2012~2016년 전국 문화예술공연단체 공연 수의 전기 대비 증가는 변화 폭이 비교적 심하다. 2012년 전기대비 -12.30%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3년에는 22.30%로 대폭 증가하다가 2014년은 5.33%, 2015년에는 다시 21.22% 성장하고 2016년에는 다소 감소된 9.39%의 성장률을 보인다. 전국예술 공연단의 국내 공연 관람자 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는데 2016년에 가장 높은 23.28%의 증가세를 보인다. 이것은 전국 문화예술공연단체의 공연이 중국 내에서 관람객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공연의 입소문과 효과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총수입과 공연수입은 2014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 기본



적으로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세이며 증가의 폭도 상당히 크다. 이것은 2012~2016년 전국 문화예술공연단체 총수입과 공연 수입이 중요경제지표 방면에서 특히 우수하게 나타났고 경제적 효과 상승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

## ② 문화시장 경영 단위기구

2016년 문화시장 경영 단위기구 수는 242686개, 종사인원 수는 1,609,329명에 달하고, 영업총수입은 4,498,9191만 위안, 영업이익은 10,345,244만 위안이다. 2016년 전국 문화시장 경영단위의 지역발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3〉 2016년 전국문화시장 경영 단위 지역발전 주요지표

항목	기구 수 (개)	기준율(%)	종업인원 수(명)	기준율(%)	영업총수입 (만 위안)	기준율 (%)	영업이윤 (만 위안)	기준율 (%)
총계	242686	100.00	1609329	100.00	44989191	100.00	10345244	100.00
도시	87853	36.21	733333	45.57	36331301	80.76	8137266	78.66
현성(縣城)	96626	39.81	678493	42.16	5911796	13.14	1798032	17.38
현 이하	58207	23.98	197503	12.27	2746093	6.10	409946	3.96

출처: 문화부편《2017 문화발전통계분석 보고》, 중국통계출판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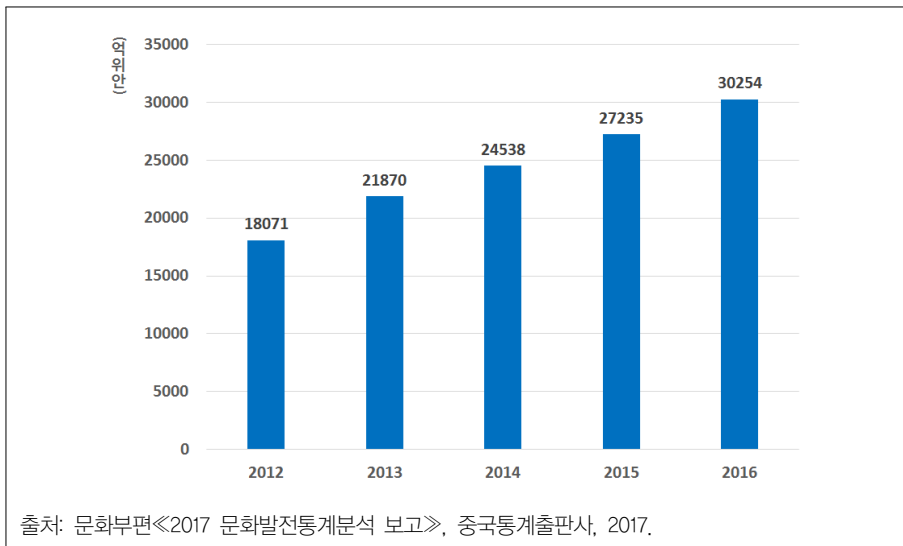
지역별로 구분해서 본다면 2016년 문화시장 경영단위기구 수는 현성이 가장 많은 기준율 대비 39.81%에 달한다. 현 이하는 가장 적은 23.98%이다. 종사인원 수는 도시와 현성이 비교적 많은데 각각 45.57%, 42.16%이며 현 이하는 가장 적은 12.27%이다. 여기서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뿐만 아니라 영업 수입과 영업 이윤에서도 도시의 문화경영단위는 기준율대비 상당히 크게 각각 80.76%와 78.6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현성은 13.14%와 17.38%, 현 이하는 더 적은 6.10%와 3.96%이다. 이것은 문화시장 경영단위의 발전에 지역별 큰 차이와 불균등 발전, 그리고 지역 간 차이의 축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③ 문화 및 관련 산업증가 및 GDP 비중

문화산업의 발전은 문화생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문화산업발전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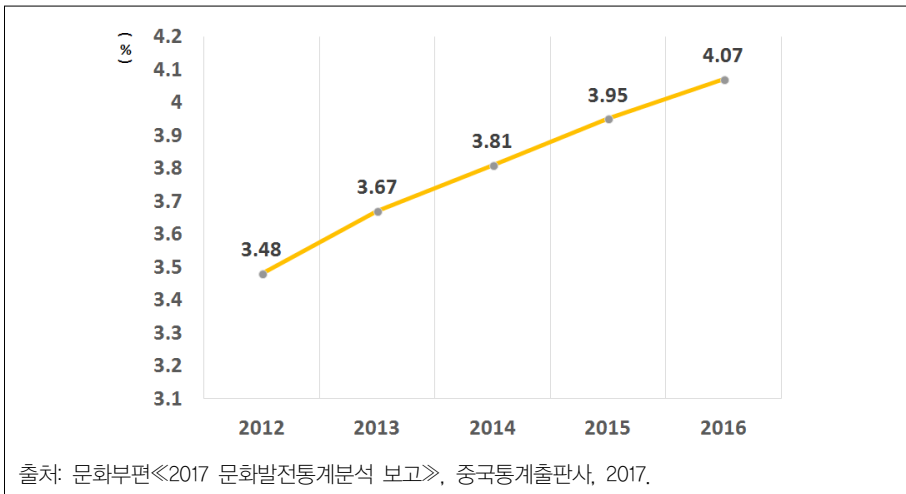
문화생산능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중국은 최근에 문화산업의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문화산업 본래의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세계적 흐름의 요구에도 순응하고 있다. 세계 선진국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많은 국가들이 문화산업을 창의 산업 혹은 유망산업으로 간주했다. 최근 중국은 문화산업 발전이 급속히 성장했다. 안정적 성장 문화생산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문화 창의 상품의 질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문화파생산업의 증가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연말 문화 관련 산업 증가는 30,254억 위안으로 2015년 대비 11.0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문화산업 증가치 발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9] 중국 문화 관련 산업 증가치(2012~2016년)

2012~2016년 중국 문화 관련 산업 증가치는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경제적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문화관련 산업은 GDP의 4.07%를 차지하여 지금까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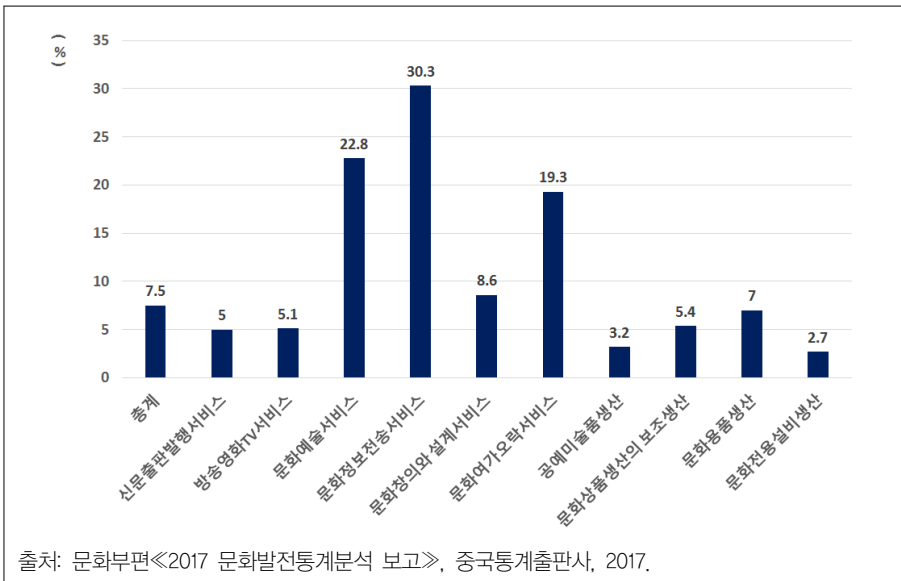


[그림 3-20] 최근 중국 문화관련 산업 GDP 차지 비중

중국 문화관련 산업의 GDP 차지 비중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 관련 산업이 중국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며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또한 날로 명확해지고 있고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지주성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6년 전국 규모 이상 문화관련 산업 기업의 영업수익도 2015년 대비 7.5% 증가하여 국민경제 성장률과 같은 전국 규모이상 수준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1] 전국 규모 이상 문화관련 산업<sup>8)</sup> 2015년 대비 영업 수입 상황(2016년)

문화 정보 전송 서비스 기업의 영업수입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30.30% 증가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문화예술 서비스(22.80%), 문화여가오락서비스 기업(19.30%)순이다. 이것은 2016년 중국 문화정보 전송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문화여가 오락 서비스기업의 경제수익이 다른 문화서비스 산업 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함을 나타낸다. 2016년 기타 문화기업 즉, 문화전용설비 생산기업과 공예미술품생산제조기업의 영업수익은 각각 2.70%, 3.20%로 2015년 대비 완만한 성장을 보인다. 이는 문화전용 설비 생산기업과 공예미술 생산제조기업 영업수익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경제수익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8) 규모이상 문화관련 산업기업의 표준에 의한, 규모이상의 문화제조업은 《문화관련 산업 분류 (2012)》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기업으로 연간 영업수입은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 법인단위, 《문화관련 산업분류(2012)》규정한 범위 내의 규모이상의 문화서비스업으로 연말 종업인원이 50인, 그 이상 혹은 영업수입 1000만 위안 이상의 서비스업 법인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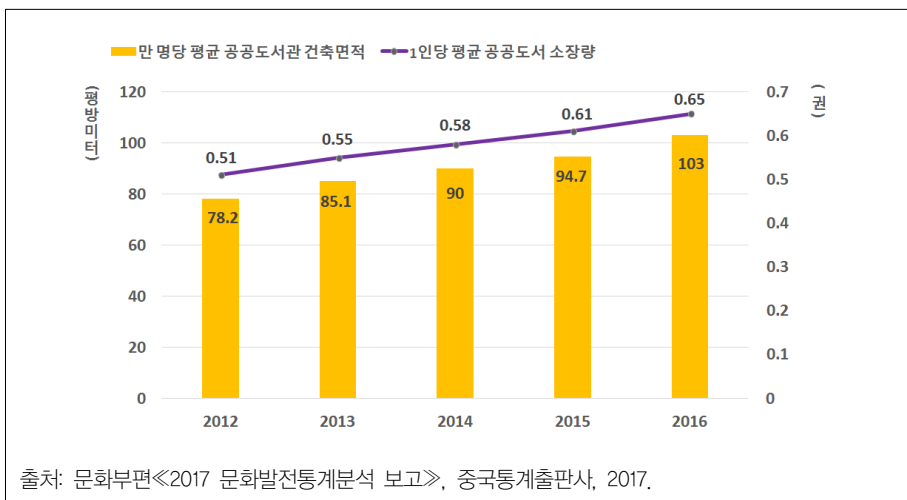


### 3) 문화공급

문화공급은 문화생산부문이 사회의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 내에 사회와 시장에 제공하는 문화 상품이다. 1인당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 평균 만 명당 문화시설건축 면적, 전국 예술 공연 단체 농촌연출 공연 수 및 비중, 1인당 평균 도서비용 및 도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발행 상황으로 2016년 문화공급의 현황과 발전수준을 설명한다.

#### ① 전국 공공도서관 인당평균 자원 상황

최근 중국 공공 도서관 1인당 자원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 명당 평균 공공도서관 건축면적이든 1인당 평균 공공도서관 소장량이든 모두 기본적으로 안정적 증가추세를 보인다. 1인당 평균 공공도서 자원 점유 량이 소폭 상승하고 공공도서 자원 제공 능력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연말에는 만 명당 평균 공공도서관건축면적이 103.0 평방미터 증가했다. 1인당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량은 0.65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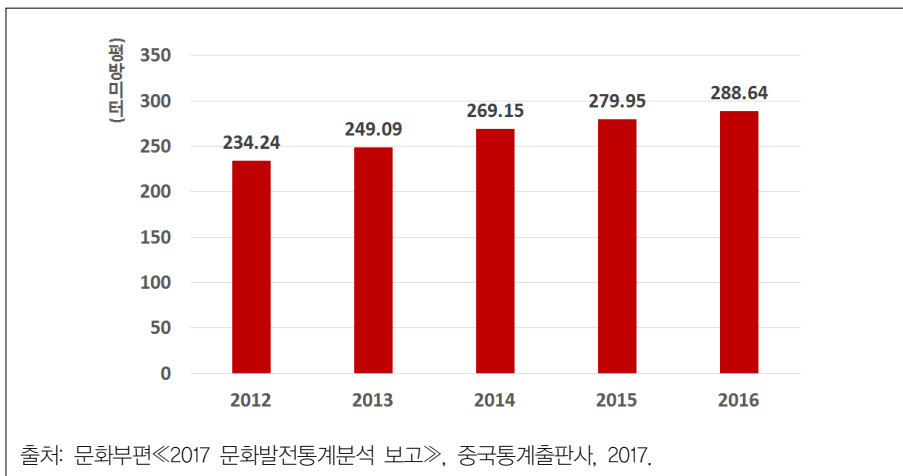
[그림 3-22] 전국 공공도서관 인당 자원 상황(2012~2016년)



2012~2016년 중국공공도서관 1인당 자원 점유량은 안정된 가운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 명당 평균 공공 도서관 건축 면적은 2012년의 78.2평방미터에서 2016년 103.0 평방미터로 31.71%의 증가폭을 보인다. 1인당 공공도서관 소장량은 2012년 0.51권에서 2016년 0.65권으로 27.45%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1인당 자원과 제공의 증가폭은 높지 않은데,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1인당 평균 건축 면적과 1인당 도서관 소장량 지표의 기준 수가 너무 크고, 공공도서관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비교적 강한 정책 혹은 정부의 참여가 없다면 1인당 공공 도서관 자원 점유량은 단기간 내에 빠른 발전과 상승은 불가능하며, 1인당 공공도서관 자원 제공 수준도 단기간 내 질적 도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 ② 평균 만 명당 대중문화시설 건축 면적, 기본 안정성장 유지

2016년 말 중국 만 명당 평균 대중문화시설 건축 면적은 288.64평방미터로 2015년과 비교 3.10% 증가했다. 최근 만 명당 평균 대중문화시설 건축 면적 발전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증가폭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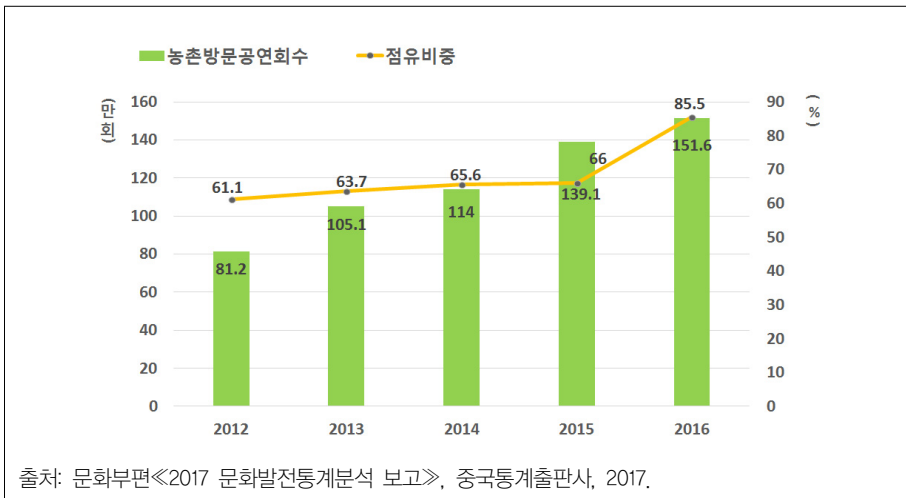


[그림 3-23] 전국 만 명당 평균 대중문화시설 건축 면적(2012~2016년)



### ③ 전국 예술 공연 단체의 농촌방문 공연 수 및 비중 상황

2016년 말 중국 예술 공연 단체의 농촌방문 공연 수는 151.6만 회로 85.7%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13>에서 2012~2016년 예술 공연 단체의 농촌방문 공연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점유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중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가 점진적으로 농촌공연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농촌 대중문화 욕구를 충족하며 문화공급의 도농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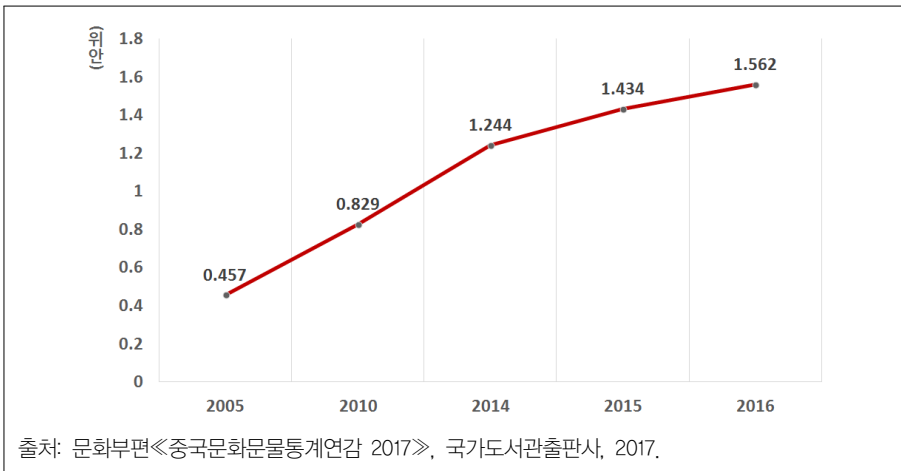


[그림 3-24] 전국 예술 공연 단체의 농촌방문 공연 수와 비중(2012~2016년)

### ④ 공공도서관 인당 도서구입비

2016년 공공도서관 인당 도서구입비는 1.562위안으로 2015년 대비 8.93% 증가했다. 최근 공공도서관 1인당 도서구입비를 나타낸다. 2005~2016년 중국 공공도서관 1인당 도서구입비는 0.457위안에서 시작하여 1.562위안까지 1.105위안 증가하여 241.79%의 증가폭을 보여준다. 국가의 공공문화 영역 투자가 강화되었고 공공 도서관 1인당 도서구입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3-25] 공공도서관 1인당 도서구입비(2005~2016년)

### ⑤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의 출판 발행

2016년 중국 도서 발행은 90.37억 권으로 2015년 대비 4.33% 증가, 정기간행물 발행 서적 수는 26.97억 권으로 2015년 대비 6.29% 감소했으며, 신문발행 부수는 390.07억 부로 2015년 대비 9.31% 감소했다. 도서발행이 대략 증가한 것 외에 정기간행물과 신문 등 종이매체의 출판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2016년 중국 도서발행은 2014년을 제외하고 기타 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 폭은 높지 않다. 정기간행물과 신문 공급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표 3-24〉 최근 전국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발행 상황

항목	도서발행 권수 (억 권)	전년대비 증가율 (%)	정기간행물 발행권수 (억 권)	전년대비 증가율 (%)	신문발행 부수 (억 부)	전년대비 증가율 (%)
2012년	79.25	2.85	33.50	1.98	482.26	3.18
2013년	83.10	4.86	32.72	-2.33	482.41	0.03
2014년	81.85	-1.50	30.95	-5.41	463.90	-3.84
2015년	86.62	5.83	28.78	-7.01	430.09	-7.29
2016년	90.37	4.33	26.97	-6.29	390.07	-9.31

출처: 국가통계국 편 《2017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17.



#### 4) 문화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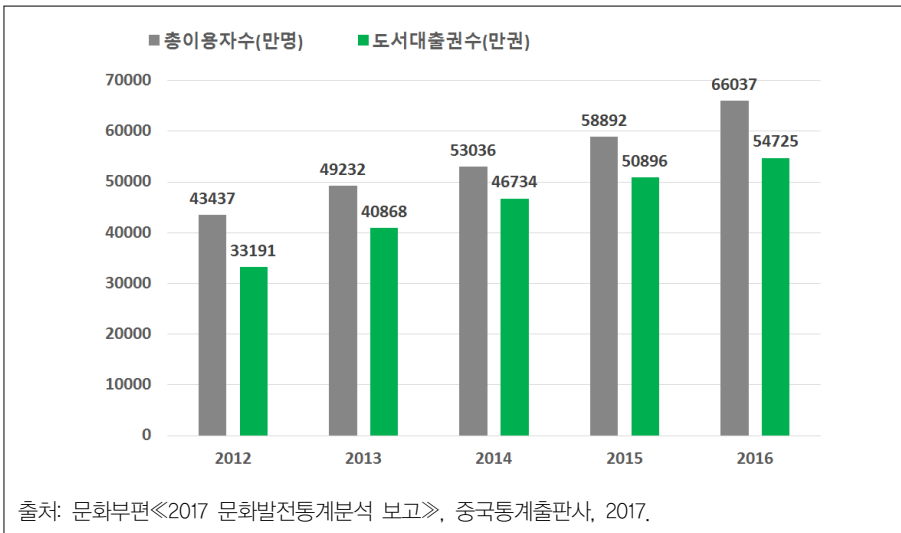
문화전파는 문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문화전파 범위의 크기와 전파 빈도수는 문화흡수와 인식의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최근 중국 문화전파는 비교적 크게 발전했다. 공공문화서비스 능력은 진일보 증강했고, 대외 문화교류도 빈번해졌으며 문화교류의 내용과 통로는 날마다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화전파 방식도 새로워졌고, 문화전파의 효과 역시 명확하게 나타난다. 전국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및 대출 도서 수, 전국 박물관 관람인 수, 대외문화교류,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합인구 점유율 등 최근 중국 문화전파의 발전 개황을 설명한다.

##### ① 전국 공공 도서관 총 이용자 수 및 도서 대출 수

최근 중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 도서관 설비는 보다 선진화, 편리화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에 큰 변화를 주었고, 적지 않은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규모를 방대하게 할 뿐 아니라 현지를 대표하는 대표 건축물이 되었다. 도서관은 규모도 크지만 넓적하고 밝으며, 따뜻하고 편안하여 매우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매년 신간 도서의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 및 자료열람을 하며 독서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와 도서대출 수는 모두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문화전파 방면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효과가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전국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는 66037만 명으로 2015년 대비 12.13% 증가했다. 도서대출 수는 54725만 권으로 2015년 대비 7.5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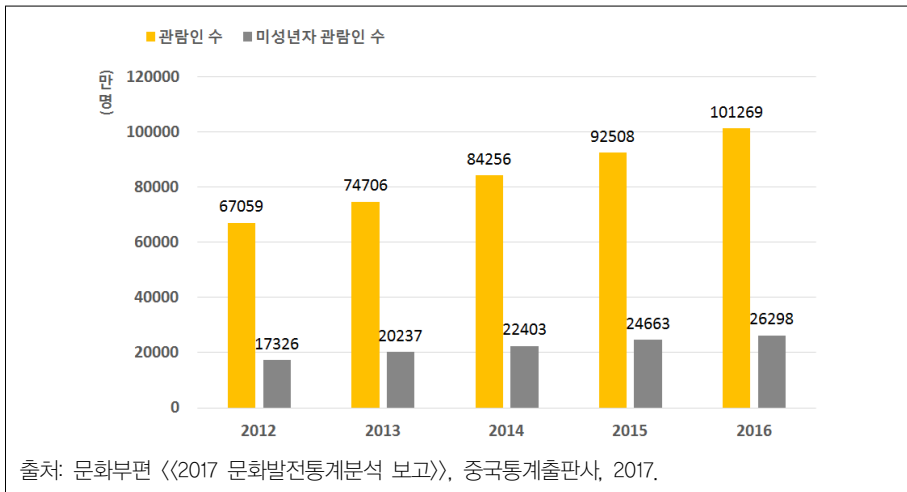
[그림 3-26] 전국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및 도서대출 권수(2012~2016년)

2012~2016년 5년간 중국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와 도서대출 권수 방면에 서의 안정적 증가를 보여준다. 2012년 대비 2016년에서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52.03%, 대출 도서 권수 64.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② 전국 박물관 관람인수

2016년 중국 박물관 관람객 수는 101,269만 명이다. 2015년 대비 9.47% 증가했으며, 2012~2016년 박물관 관람객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7] 전국 박물관 관람객 수(2012~2016년)

### ③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합 인구 점유율

중국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합 인구 점유율은 이미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12년 방송프로그램 종합 인구 점유율은 97.51%,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합 인구 점유율은 97.82%에 달한다.

〈표 3-25〉 최근 전국 방송 텔레비전 종합 인구 점유 상황

(단위:%)

지표	방송프로그램종합인구 점유율	농촌 방송프로그램 종합인구 점유율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합 인구 점유율	농촌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합 인구 점유율
2012년	97.51	96.60	97.82	97.10
2013년	97.79	97.00	98.20	97.55
2014년	97.99	97.29	98.60	98.11
2015년	98.17	97.53	98.77	98.32
2016년	98.37	97.79	98.88	98.49

출처: 국가통계국 중선부편《2014 중국문화 및 관련 산업 통계연감》, 중국 통계출판사, 2014; 국가통계국, 중선부편《2017 중국문화 및 관련 산업 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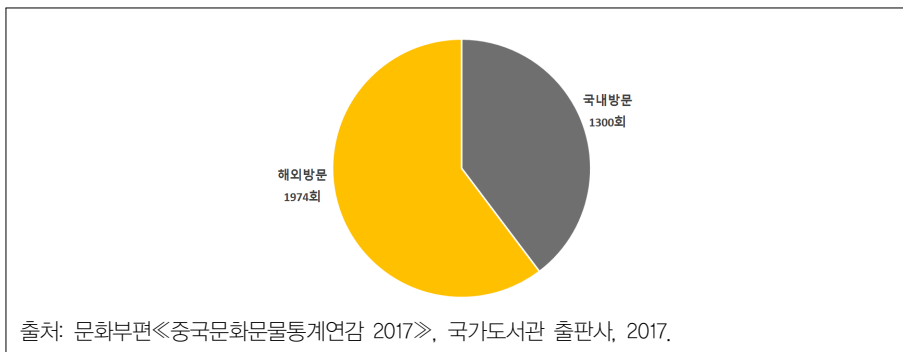
### ④ 대외문화교류와 방문은 대외 문화전파의 직접적 과정

대외 문화교류 차원의 고저 및 차수의 횡수, 인원조직 및 교류 채택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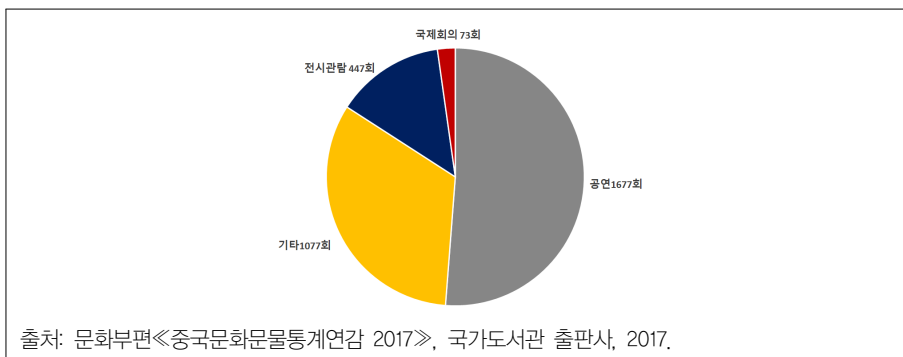


등은 모두 대외 문화전파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최근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해외로 나가 회의 참여나 교류를 희망한다. 그리고 대외 중화문화 전파와 동시에 많은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 문화의 대외전파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2016년 중국은 대외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문화교류 항목의 합계가 3,274회에 달한다. 그중 출국 1,974, 방문 1,300회, 공연 1,677번, 전람 447번, 국제회의 73회, 기타 1,077번 해외출국 2,674번, 홍콩 270, 마카오 114번, 타이완 216번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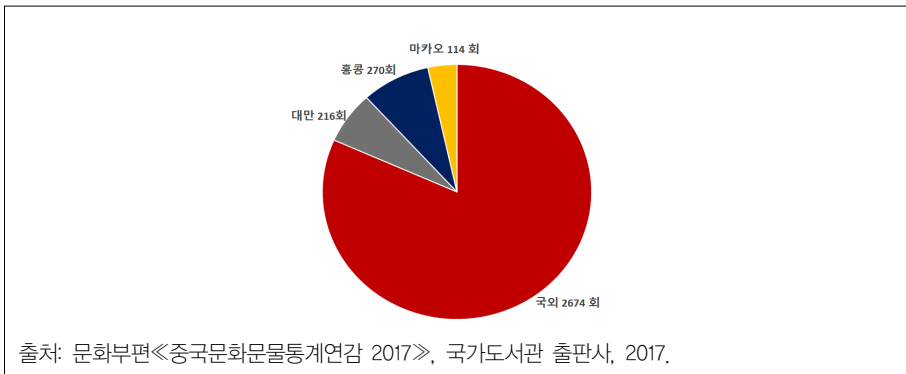


[그림 3-28] 교류 성질 구분



[그림 3-29] 교류 활동 분류





[그림 3-30] 활동범위 분류

### 5) 문화소비

문화소비는 문화공급을 촉진하는 문화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거주민 1인당 평균 수입의 상승에 따라 주민의 문화소비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했다. 주민의 문화소비 방식이 다원화, 다층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문화 오락소비능력은 매년 증강하고 문화오락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3,821위안으로 2015년 대비 8.30% 증가, 1인 평균 소비지출은 171,110.7위안, 2015년 대비 8.90% 증가, 문화오락 소비는 800.0위안 2015년 대비 5.25% 증가, 문화오락의 소비지출 점유비중은 4.7% 2015년 대비 0.1% 감소했다.

〈표 3-26〉 최근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소비와 문화소비상황

항목	전국 주민1당 평균가 처분소득 (위안)	1인당평균소비 지출 (위안)	문화오락소비 (위안)	소비지출에 대한 문화 오락소비점유 비중 (%)
2013년	18,310.8	13,220.4	576.7	4.4
2014년	20,167.1	14,491.4	671.5	4.6
2015년	21,996.2	15,712.4	760.1	4.8
2016년	23,821.0	17,110.7	800.0	4.7

출처: 국가통계국, 중선부편《2017 중국 문화 및 관련 산업 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17.



## 제3절

## 유 럽

## 1. 네덜란드

## 가. 개요

네덜란드에서 문화는 개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 문화는 단순한 소속감과 정체성, 전통을 뜻할 뿐 아니라 역동성, 창조성, 혁신성 또한 의미한다. 네덜란드 정부의 문화 정책은 국가가 예술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였으며, 개인과 또한 문화 관련 단체들이 예술 부분의 발전을 견인하고 정부는 공공 예술과 문화의 후원자에서 예술 활동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의 창조자 혹은 향유자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 네덜란드의 문화 정책은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가 되었고, 유럽의 대표 복지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서 문화는 국가의 복지 정책 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화가 전체적으로 사회에 제공하는 혜택과 연관성이 정책의 화두가 되며, 특히 문화 참여(cultural participation)에 대한 높은 관심, 정부의 정책 또한 대중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로서의 문화와 문화적 참여는 현재까지 네덜란드 문화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네덜란드 국민의 문화적 참여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발표된 Eurobaromet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함께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문화’를 ‘문화 산업’과 ‘창조 산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범주로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 ① **예술 및 문화 유산**: 시각 예술, 공연 예술, 아마추어, 예술 교육, 박물관, 역사적인 건물, 랜드스케이프 및 유적, 고고학, 아카이브, 도서관, 문학
- 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인쇄 매체 및 기타 매체의 방송 (출판사), 서점, cd 및 dvd 상점, 영화 및 사진
- ③ **창조 산업**: 디자인 분야 (응용 예술), 그래픽 및 산업 디자인, 건축, 도시 개발, 조경 디자인, 패션, 전자 문화, 게임

특히, 네덜란드에서 ‘Creative Industry’으로 불리는 문화창조산업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쟁력과 영향력을 보유한 산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정부는 2011년 문화 창조 산업을 농식품(Agri-food sector), 원예 및 원료(Horticulture and starting materials), 물(Water), 하이테크(High Tech), 에너지(Energy), 운송(Logistics), 생명과학 및 화학(Life Science and Chemicals)과 함께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네덜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 창조 산업에 약 1,735만 유로 (한화로 약 240억 수준)의 추가 예산을 지원, 이를 통해 2020년 네덜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창조적인 경제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나.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 1) 문화지표 개발

네덜란드는 공공 행정, 기업, 문화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재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부크만파운데이션(The Boekman Foundation)에서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Cultuurindex, Arts Index Netherlands) 개발 작업을 진행, 2013년 De Staat van Cultuur('The State of Culture')라는 제목으로 리포트와 함께 발표하였다.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는 문화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문화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동시에 문화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 정책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지표로써 시작되었다.

2013년 처음으로 리포트로 발간된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는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2차, 3차 리포트로 소개되었으며, 2017년에 발간된 리포트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네덜란드 내 여러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어, 네덜란드 문화 분야에 대한 신뢰성 있고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로 여겨진다.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는 영화 티켓 판매부터 공공 도서관 총 수입, 아마추어 문화 활동 참여자 비율 등 네덜란드의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정보와 숫자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네덜란드 내 다양한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과 발전 전략을 도출한다.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를 주도한 부크만파운데이션은 네덜란드의 문화 관련 대표적인 지식 센터로 정부의 예술 및 문화 정책, 공공 및 민간 예술 자금 조달, 예술 및 예술가 직업의 사회 경제적 및 법적 측면, 문화, 문화 단체의 저작권, 경영, 마케팅 및 후원 예술 방송, 문화 관광, 예술 및 문화 교육, 아마추어 미술, 미술 교육, 문화 참여 및 미술 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크만파운데이션은 네덜란드 사회연구센터(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CP)와 협력,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 통계 자료와 연례 보고서, 문화 기관과 일부 조직 등 약 30개 이상의 조직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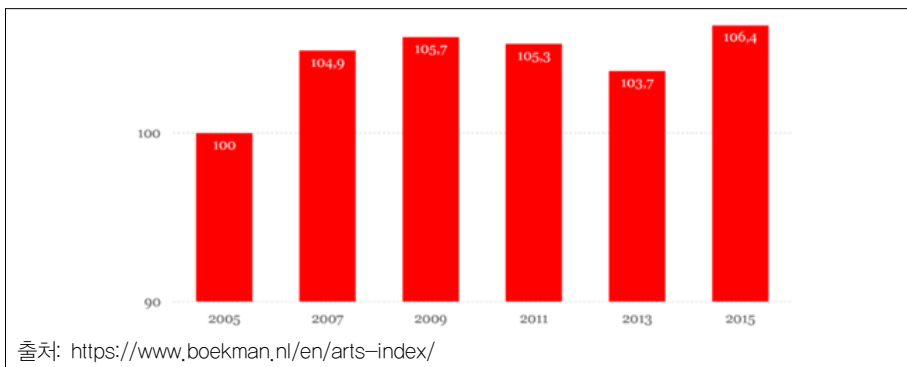
경제나 정치적인 면에서 별다른 위기 요소가 없었고, 디지털화가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2015년을 기준 년도로 설정, 격년 단위로 모든 데이터의 지수를



계산한다. 예술 및 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 ‘핵심 지표’로 그룹화 하며, 핵심 지표는 수용력(Capacity), 참여도(Participation), 재정 흐름(Financial Flows), 경쟁력(Competitiveness)등 총 4가지 축으로 구분, 각각의 지표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 전체 값이 평균을 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2) 문화지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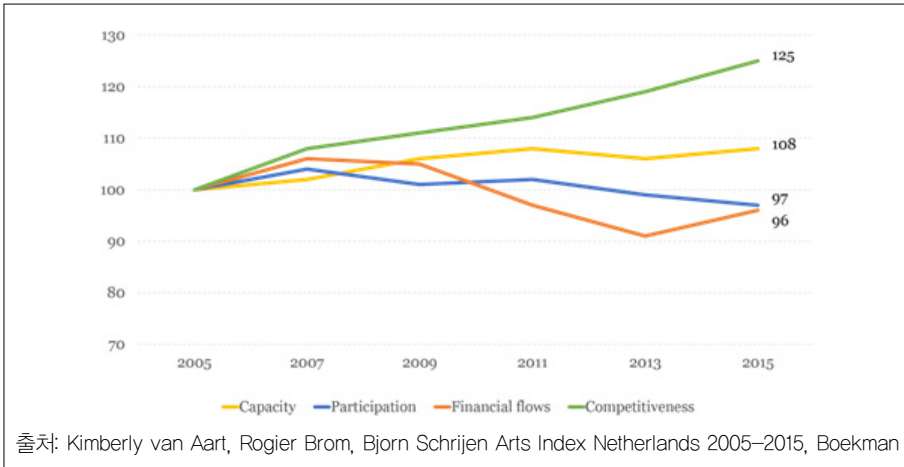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의 기준 년도인 2005년 대비, 네덜란드의 문화 지수는 2011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1년 마크 뢰테 정부의 문화 담당 차관인 할베 자일스트라 (Halbe Zijlstra)의 ‘Meer dan kwaliteit: een nieuwe visie op cultuurbeleid (‘More than quality: a new vision on cultural policy’)의 새로운 문화 정책 발표와 함께 약 2억 유로의 문화 예산 삭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31]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전반  
(Arts Index Netherlands, overall index number) 2005-2015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의 지수 전반은 상승했지만, 각 테마별로 지난 10년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쟁력(Competitiveness)부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흐름(Financial Flows)와 참여도(Participation)는 2015년 지수보다 떨어진 96, 97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림 3-32]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4개 테마 인덱스  
(Arts Index Netherlands, index numbers of pillars) 2005–2015

〈표 3-27〉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4개 테마에 대한 핵심 지표 및 지수

4개 테마	핵심지표	지수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수용력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100	105	108	108	104	109
	기업/조직 (Companies/Institution)	100	98	98	99	98	96
	노동 시장 (Labor Market)	100	105	111	117	115	119
참여도	방문 (Visits)	100	102	103	104	101	103
	실천 (Practise)	100	112	95	86	78	73
	소비 (Consumption)	100	101	92	80	57	48
	자원봉사 및 개인 후원 (Volunteering and private donations)	100	101	114	139	159	166



4개 테마	핵심지표	지수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재정흐름	수익 (Income: excluding government contributions)	100	112	111	101	97	107
	정부 지원 (Government contributions)	100	103	110	98	94	94
	창조 산업 규모 (Turnover creative industries)	100	102	93	90	84	86
경쟁력	국가 경쟁력 (National competitiveness)	100	114	117	118	126	135
	국제 경쟁력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100	101	106	111	112	115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표 3-28〉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4개 테마에 대한 핵심 지표의 장단기 변화 평가

4개 테마	핵심지표	단기	장기
		2013-2015	2015-2017
수용력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5	9
	기업/조직 (Companies/Institution)	-2	-4
	노동 시장 (Labor Market)	3	19
참여도	방문 (Visits)	2	3
	실행 (Practise)	-5	-27
	소비 (Consumption)	-9	-52
	자원봉사 및 개인 후원 (Volunteering and private donations)	6	66



4개 테마	핵심지표	단기	장기
		2013-2015	2015-2017
재정 흐름	소득 Income (excluding government contributions)	10	7
	정부 지원 (Government contributions)	0	-6
	창조 산업 규모 (Turnover creative industries)	2	-14
경쟁력	국가 경쟁력 (National competitiveness)	8	35
	국제 경쟁력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3	15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다. 문화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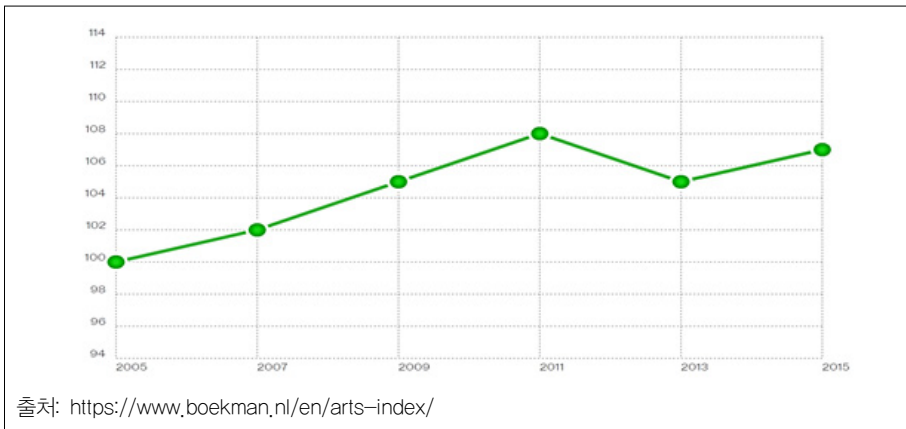
### 1) 수용력

수용력(Capacity) 부분은 네덜란드 문화를 공급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으로, 네덜란드의 문화 상품의 양과 문화 분야 기업, 노동 시장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수용력(Capacity) 부분은 크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기업 및 조직(Companies/institutions), 노동 시장(Labour market) 3개의 핵심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력 지표는 네덜란드 전반의 문화 예술의 노동 시장과 고용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2013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지표는 2015년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3]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수용력 지표

네덜란드 문화 부분 노동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인 기업이나 파트타임 종사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문화 및 기업 관련 지표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CD, DVD 등 기존 문화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체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절대가치 (n)					
			인덱스					
1.1	CAPI1	민간 분야 공연 수	6294	6677	7303	7574	7157	7919
			100	106	116	120	114	126
1.2	CAPI2	공연 예술 부문 공연 수	53785	57391	58364	59004	50692	52467
			100	107	109	110	94	98
1.3	CAPI3	극장 및 콘서트 홀 수	502	533	522	537	522	542
			100	106	104	107	104	108
1.4	CAPI4	공공 도서관 자료 수	35440	33921	32088	30667	27411	25356
			100	96	91	87	77	72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1.5	CAPI5	박물관 전시 수	2041	2420	2143	1974	1921	2062
			100	119	105	97	94	101
1.6	CAPI6	네덜란드어 신간 서적 수		14793	16461	16632	16582	16242
				100	111	112	112	110
1.7	CAPI7	신작 영화 수	324	292	334	343	353	371
			100	90	103	106	109	115
1.8	CAPI8	극장 및 영화관 수	625	630	661	721	756	817
			100	101	106	115	121	131
1.9	CAPI9	극장 및 영화관 내 좌석 수	108	106.1	114.7	120.2	125.6	134.8
			100	98	106	111	116	125
1.10	CAPI10	작가 도서 계약 건 수	4631	5584	5918	5392	4398	4867
			100	121	128	116	95	105
인덱스 평균			100	105	108	108	104	109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② 기업/조직 (Companies/Institution)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절대가치 (n)					
			인덱스					
1.11	CAPO1	극장 및 콘서트홀 협회 회원 수	147	160	152	151	147	123
			100	109	103	103	100	84
1.12	CAPO2	음악홀 협회 회원 수	73	60	54	57	58	58
			100	82	74	78	79	79
1.13	CAPO3	아트 갤러리 협회 회원 수	211	180	175	158	134	107
			100	85	83	75	64	51
1.14	CAPO4	공공 도서관 협회 수	341	202	171	163	160	156
			100	59	50	48	47	46
1.15	CAPO5	뮤지엄 수	775	773	810	788	799	685
			100	100	105	102	103	88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1.16	CAPO6	등록되고 보호되는 건물과 기념물 수	59375	60461	60711	61261	61730	61847
			100	102	102	103	104	104
1.17	CAPO7	등록되고 보호되는 도시와 마을 수	361	398	418	439	458	468
			100	110	116	122	127	130
1.18	CAPO9	등록 서점의 판매 포인트 수	1462	1481	1514	1524	1469	1525
			100	101	104	104	100	104
1.19	CAPO10	음악 악기 매장 수	431	429	413	399	383	353
			100	100	96	93	89	82
1.20	CAPO11	미디어 매장 수 (CDs, DVDs, vinyl)	851	702	589	449	228	169
			100	82	69	53	27	20
1.21	CAPO12	영화 극장 수	30	30	32	34	34	39
			100	100	107	113	113	130
1.22	CAPO13	영화 수	141	130	132	138	141	146
			100	92	94	98	100	104
1.23	CAPO14	예술 센터 수	237	245	183	164	138	130
			100	103	77	69	58	55
1.24	CAPO15	창조 산업 관련 기업 수	67838	78281	98500	121258	132493	144093
			100	115	145	179	195	212
1.25	CAPO16	기업 아트 컬렉션 회원 수	34	42	47	52	53	50
			100	124	138	153	156	147
인덱스 평균			100	98	98	99	98	96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③ 노동 시장 (Labor Market)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절대가치 (n)					
			인덱스					
1.26	CAPA1	예술학교 졸업생 수	3818	3812	4081	4458	4227	4299
			100	100	107	117	111	113
1.27	CAPA2	졸업 후 1.5년 이내 전공 분야에 취업한 예술학교 졸업생 비율	89.22%	88.93%	87.62%	88.65%	86.99%	91.00%
			100	100	98	99	98	102
1.28	CAPA3	예술 및 문화 유산 분야 일자리 수	75577	81714	90216	101394	102888	106882
			100	108	119	134	136	141
1.29	CAPA4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분야 일자리	83019	88375	92995	90166	88172	88792
			100	106	112	109	106	107
1.30	CAPA5	창조 산업 분야 일자리 수	75292	83511	90183	94153	95521	98743
			100	111	120	125	127	131
인덱스 평균			100	105	111	117	115	119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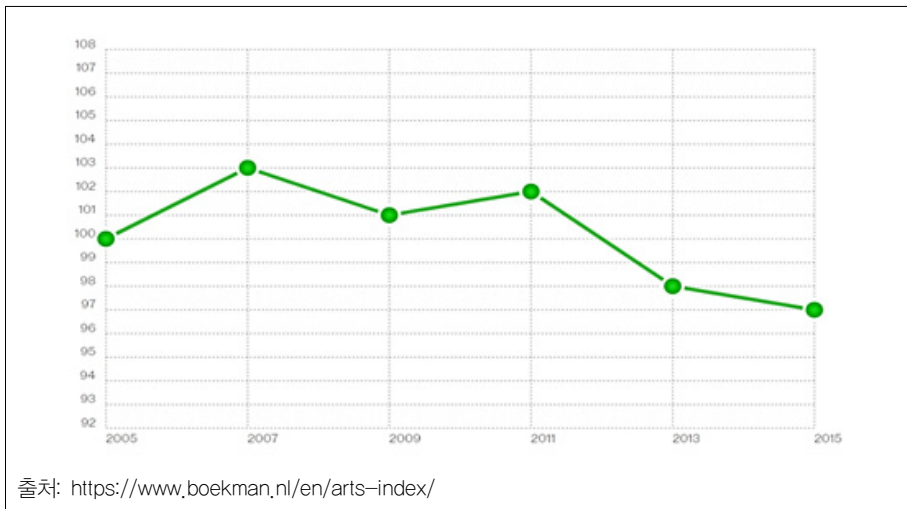
## 2) 참여도

참여도(Participation) 부분은 문화의 수요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방문(Visits), 실천(Practise), 소비(Consumption), 자원봉사 및 개인 후원(Volunteering and private donations) 인덱스로 구성하고 있다. 아트 인덱스 네덜란드 조사 결과 문화 참여도 부분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업 예술인 수 감소와 책과 CD와 같은 문화 제품 소비의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CD 구입 대신 유튜브 등을 통한 음악 학습 및 감상 등 문화 참여 방법의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도 간과할 수 없으며, 인덱스 상의 참여도 감소가 실제 네덜란드의 문화 활동 참여 감소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악, 춤 등 아마추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이의 숫자는 줄고 있으나, 문화 활동 관련 자원 봉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도서관과 영화관 방문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림 3-34]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참여도 지표

### ① 방문 (Visits)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Unit	절대가치 (n)					
				인덱스					
2.1	PARB1	민간 부문 공연 참석자 수 (private sector)	n	4555528	4649326	4101640	3661541	3221331	2656014
				100	102	90	80	71	58
2.2	PARB2	공연 예술 방문 수	n x 1,000	18387	19317	19581	19204	17685	18116
				100	105	106	104	96	99
2.3	PARB3	전통공연 도달율 (classical music, opera, theatre, ballet)	%	14.73	14.48	14.71	14.58	13.41	12.73
				100	98	100	99	91	86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4	PARB4	대중 공연 도달율 (pop concert, musical, movie, cabaret)	%	32.78	33.73	34.69	34.44	34.09	34.14
				100	103	106	105	104	104
2.5	PARB5	공공 도서관 대출 수	n x 1,000	132579	124680	104851	100025	84397	79679
				100	94	79	75	64	60
2.6	PARB6	공공 도서관 회원 수	n x 1,000	4039	4011	4027	4009	3858	3784
				100	99	100	99	96	94
2.7	PARB7	뮤지엄 방문 수	n x 1,000	19648	20540	22037	23138	26484	31429
				100	105	112	118	135	160
2.8	PARB8	극장 방문 수	n x 1,000	20600	23100	27288	30458	30818	32970
				100	112	132	148	150	160
인덱스 평균				100	102	103	104	101	103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② 실행 (Practise)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Unit	절대가치 (n)					
				인덱스					
2.9	PARO1	예술 센터 학생 수	n	447930	475300	426573	407984	271700	252042
				100	106	95	91	61	56
2.10	PARO2	음악, 드라마, 합창 클럽 회원 수	%	8.75	10.27	10.33	9.76	9.54	8.05
				100	117	118	112	109	92
2.11	PARO3	악기 연주 시간	%		11.50	10.90	9.50	9.20	9.10
					100	95	83	80	79
2.12	PARO4	성악 연습 시간	%		9.40	8.70	8.10	7.80	7.90
					100	93	86	83	84
2.13	PARO5	드라마, 뮤지컬, 발레	%		14.40	12.60	9.80	8.30	8.10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연습 시간			100	88	68	58	56
2.14	PARO6	공예, 회화, 조각 등 연습 시간	%		21,20	17,80	15,60	16,20	14,90
					100	84	74	76	70
인덱스 평균				100	112	95	86	78	73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③ 소비 (Consumption)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Unit	절대가치 (n)					
				인덱스					
2.15	PARC1	앨범 판매량 (음반 및 디지털)	n x 1,000,000	20.6	19	17.9	15.1	9.5	9.3
				100	92	87	73	46	45
2.16	PARC2	계약 수 ArtAcquisition (‘KunstKoop9’)	n	3397	3149	2427	1876	1392	1130
				100	93	71	55	41	33
2.17	PARC3	판매 서적 수 (e book포함)	n x 1,000,000	47,6	48,6	49,4	46,9	41,0	39,0
				100	102	104	98	86	82
2.18	PARC4	DVD 및 블루레이 판매량	n x 1,000,000	27,6	32,4	29,6	25,8	15,5	8,9
				100	117	107	93	56	32
인덱스 평균				100	101	92	80	57	48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9) 네덜란드의 몬드리안펀드를 활용해 개인이 이자 없이 갤러리에서 예술품을 할부구입하는 제도



## ④ 자원 봉사 및 개인 후원 (Volunteering and private do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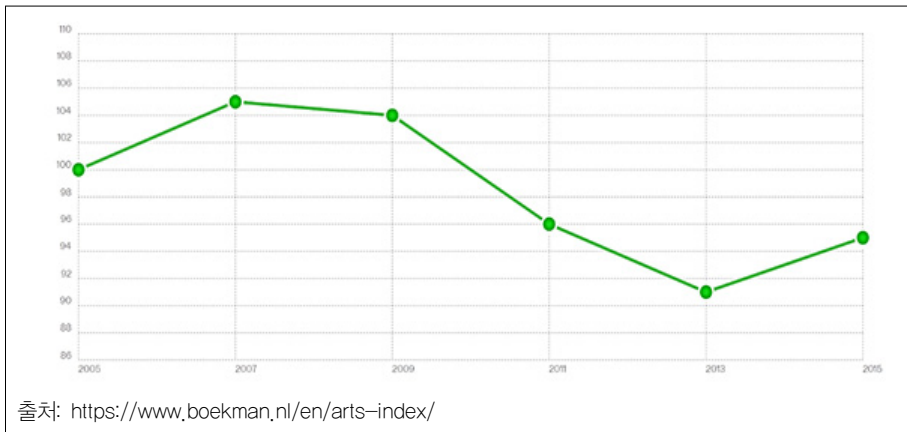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Unit	절대가치 (n)					
				인덱스					
2.19	PARD1	박물관 자원 봉사자 수(FTE)	FTE	2679	3015	3559	4669	4884	5349
				100	113	133	174	182	200
2.20	PARD2	공연 예술 자원 봉사자 수	n x 1,000	5.1	5.7	6.4	8.6	8.1	10.4
				100	112	125	169	159	204
2.21	PARD3	개인 후원	n x 1,000,000	39.0	30.2	32.8	29.0	53.4	36.5
				100	77	84	74	137	94
인덱스 평균				100	101	114	139	159	166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3) 재정흐름(Financial Flows)

재정흐름 부분은 문화 분야의 다양한 수입원을 조명하는 분석으로, 문화 산업 자체 수익(Income (excluding government contributions), 정부 지원 (Government contributions), 창조 산업 규모(Turnover creative industries)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모든 금액은 네덜란드 내 인플레이션 비용을 반영해 조정했다. 경기 침체와 문화 예술 부문 예산 삭감으로 재정흐름 지수는 악화되었으나 최근 지수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그림 3-35]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재정흐름 지표

문화 산업 자체 수익에서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박물관과 영화관 방문 수익 증대로 긍정적인 지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시각 예술과 예술 분야의 성적은 저조한 편이다. 일반 개인의 문화 후원은 감소 추세이나 기업들의 후원은 증가하고 있다.

#### ① 수입 (Income, excluding government contributions)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절대가치 (unit: mln €)					
			인덱스					
3.1	FINI1	VSCD 극장 콘서트홀 수익	256.0	303.7	296.6	277.1	270.7	261.3
			100	119	116	108	106	102
3.2	FINI2	VNPF 음악 수익(panel)1,18		52.6	52.4	53.8	51.9	61.1
				100	100	102	99	116
3.3	FINI3	문화 계약 전체 금액 (‘KunstKoop’)	10.8	10.8	8.1	6.7	4.5	3.8
			100	100	75	62	41	35
3.4	FINI4	공공 도서관 수익	97.1	91.3	98.5	95.1	87.2	77.5
			100	94	101	98	90	80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3.5	FINI5	박물관 수익	142.0	162.6	183.2	221.6	254.1	335.6
			100	114	129	156	179	236
3.6	FINI6	서적 판매 수익 (e-book 포함)	596.1	611.2	602.3	540.7	452.8	422.5
			100	103	101	91	76	71
3.7	FINI7	앨범 판매 수익 (음반 및 디지털)	343.0	286.2	242.1	194.0	165.2	180.6
			100	83	71	57	48	53
3.8	FINI8	네덜란드 음악 수출액	32.5	42.3	60.9	90.7	136.9	155.5
			100	130	187	279	421	478
3.9	FINI9	예술 수출액	70.4	144.7	43.9	70.9	70.2	73.1
			100	206	62	101	100	104
3.10	FINI10	박스오피스 수익	135.2	155.5	188.6	217.4	215.1	234.0
			100	115	139	161	159	173
3.11	FINI11	음악 로열티 (Buma/Stemra & Sena)	178.3	193.9	219.3	185.7	182.9	206.6
			100	109	123	104	103	116
3.12	FINI12	이미지 로열티 (Pictoright)	3.6	4.9	5.5	5.3	6.5	5.2
			100	137	154	146	179	144
3.13	FINI13	텍스트 로열티(Lira)	15.2	18.4	15.7	11.3	9.8	9.4
			100	121	103	75	65	62
3.14	FINI14	사립 펀드, 기업, 복권 후원금	293.0	345.6	392.3	236.4	191.4	290.2
			100	118	134	81	65	99
3.15	FINI15	VBCN-members 기업 예술권 예산	2.7	2.5	2.2	1.5	1.5	1.5
			100	93	83	57	56	57
인덱스 평균			100	112	111	101	97	107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② 정부 지원 (Government contributions)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절대가치 (unit: mln €)					
			인덱스					
3.16	FINS1	문화 직접세 지출	103.0	120.7	132.3	102.3	80.2	86.5
			100	117	128	99	78	84
3.17	FINS2	문화 직접세 지출	720.0	810.0	809.0	593.2	721.5	721.1
			100	112	112	82	100	100
3.18	FINS3	예술 및 문화 분야 정부 지출 금액	2895.0	2896.3	3159.1	2951.5	2695.5	2691.1
			100	100	109	102	93	93
인덱스 평균			100	103	110	98	94	94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③ 창조 산업 규모 (Turnover creative indus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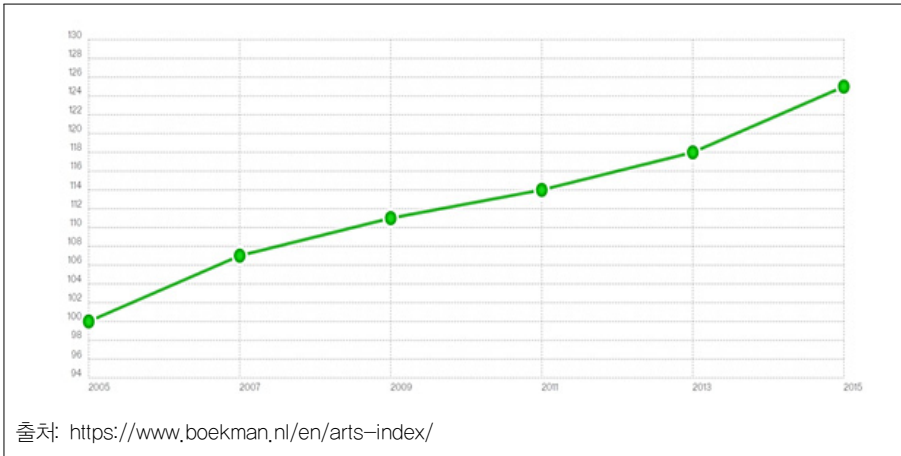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절대가치 (unit: mln €)					
			인덱스					
3,19	FINO1	창조 산업 규모	30597.8	31279.4	28349.9	27572.5	25566.5	26288.3
			100	102	93	90	84	86
인덱스 평균			100	102	93	90	84	86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4) 경쟁력 (Competitiveness)

경쟁력 부분은 앞서 언급된 3개의 지표를 총망라하는 동시에 네덜란드 문화 경쟁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네덜란드 문화 산업과 상품의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 또한 함께 조명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3-36] 네덜란드 문화예술지수 경쟁력 지표

네덜란드 문화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 예산 등 금전적인 부분 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네덜란드 음악과 DJ는 다른 문화 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영화, 서적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국내 경쟁력 (National competitiveness)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절대가치 (unit: %)					
			인덱스					
4.1	CONN1	전체 대학 중 예술 학교 학생 비율	6.03	5.84	6.10	6.58	6.53	6.17
			100	97	101	109	108	102
4.2	CONN2	전체 수출 중 음악 수출 비중	0.01	0.01	0.02	0.02	0.04	0.04
			100	108	182	212	317	371
4.3	CONN3	전체 수출 중 예술 수출 비중	0.03	0.04	0.02	0.02	0.02	0.02
			100	171	60	76	75	81
4.4	CONN4A	전체 직업 중 예술 및 문화 유산 관련 직업 비율	0.99	1.03	1.10	1.24	1.28	1.34
			100	104	111	125	129	135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4.5	CONN4B	전체 직업 중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직업 비율	1,09	1,11	1,14	1,10	1,09	1,11
			100	102	105	101	100	102
4.6	CONN4C	전체 직업 중 창조 산업 서비스 관련 직업 비율	0,99	1,05	1,10	1,15	1,19	1,24
			100	106	111	116	120	125
4.7	CONN5	전체 자원봉사 중 문화 분야 관련 비율	4,71	5,71	8,21	8,83	8,00	8,22
			100	121	174	188	170	175
4.8	CONN6	전체 후원 중 문화 분야 관련 후원 비율	7,03	8,46	9,62	6,88	6,49	7,38
			100	120	137	98	92	105
4.9	CONN7	전체 세금 지출 중 문화 관련 직간접 지출	7,29	8,52	6,99	4,86	4,93	4,97
			100	117	96	67	68	68
4.10	CONN8	전체 정부 예산 중 문화 관련 지출	1,25	1,14	1,13	1,08	1,04	1,04
			100	91	90	86	83	83
인덱스 평균			100	114	117	118	126	135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② 국제 경쟁력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	구분	세부 인덱스	Unit	절대가치 (n)					
				인덱스					
4.11	CONI1	네덜란드 예술가의 국제 랭킹 평균	Average	492,65	456,10	470,15	462,35	470,15	474,79
				100	107	104	106	104	104
4.12	CONI2	세계 유명 아트 페어에서 네덜란드 예술 갤러리의 점유율	%	2,19	2,26	2,16	1,87	1,81	1,64
				100	103	99	85	83	75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4.13	CONI3	전체 출간 서적에서 네덜란드어 서적 비율	%		39.40	39.96	28.69	29.56	29.99
					100	101	73	75	76
4.14	CONI5	전체 싱글 앨범 중 네덜란드 앨범 비율	%	6.97	8.66	8.04	7.90	8.90	11.52
				100	124	115	113	128	165
4.15	CONI6	뮤지컬 카피라이트 수익중 네덜란드 브랜드의 비율	%	70.16	73.59	73.61	73.12	71.18	73.04
				100	105	105	104	101	104
4.16	CONI7	신규 영화 중 네덜란드 영화 비율	%	12.04	7.19	11.08	13.99	16.15	16.44
				100	60	92	116	134	137
4.17	CONI8	전체 박스 오피스 내 네덜란드 영화 비율	%	12.33	13.41	15.35	21.85	19.26	17.72
				100	109	124	177	156	144
인덱스 평균				100	101	106	111	112	115

출처: Arts Index Netherlands

## 2. 프랑스

### 가. 개요

프랑스의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당시 부서명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에서는 10년째 지속해오던 문화의 형태와 가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프랑스 인구를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1,500명을 표본으로 삼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거기에는 ‘문화(culture)’란 단어에서 무엇이 연상되는냐는 질문에 대해 대상자가 즉흥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의미론적 근접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퍼센티지인 41%가 문화는 ‘지식, 앎(Savoir, connaissance)’이라 대답했고, 37%가 ‘독서, 문학’, 21%가 ‘음악과 춤’이라고 말했으며, 이외에 영화, 예술, 인류학·타자(他者), 농업·사육, 휴식·취미, 관용·교환·나눔, 호기심, 여행, 과학, 요리 등 총 28개의 범주에 걸친 다채로운 답변들이 나왔다.



여기에서 프랑스인들이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답변들에서 유독 텔레비전 드라마나 비디오게임이나 테마파크 같은 대중문화 상품 내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배제되어 있다는 인상도 받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프랑스인들이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4가지 개념적 영역이라고 기술한다. 문화적 자유주의(모든 것이 문화적이다), 비판적 절충주의(모든 것은 특정 기준에 따라 잠재적으로 문화적이다), 보수적 태도(문화적 영역은 확장할 수 없다)와 반(反)체제적 태도(진정한 문화는 다른 곳에 있다)가 그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성향은 프랑스 문화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나.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프랑스 정부는 문화지표를 따로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문화부의 전망연구·통계과(Département des Études de la Prospective et des Statistiques, DEPS)에서 1991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핵심 수치들,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통계(Chiffres clés, statistiques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와 관련된 지표들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인들의 여가시간 활용 습관에서부터 문화 관련 가계·기업·정부의 지출 현황, 문화 영역의 전반적·부문별 추이, 문화예술 종사자의 고용 데이터를 비롯해 최근 발굴된 고고학 유적지 숫자와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게임 랭킹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관한 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부 이외 다른 정부 부처들과 프랑스의 국립통계청에 해당하는 국립통계경제학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등 다수의 기관들은 물론 문화계의 업종별 협회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구성되는 만큼 공신력이 커서 활용도가 높다.

- ① 문화유산: 박물관, 유적, 건축, 고고학, 아카이브
- ② 예술창작·보급: 시각예술, 무용, 콘서트, 연극·공연예술
- ③ 미디어·문화산업: 영화, 인터넷, 비디오게임, 도서출판, 음반, 신문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주로 2017년과 2018년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한 2019년도 최신판은 문화 분야의 형태학 및 경제학, 고용 구조 및 소득, 문화적 공급의 지리적 접근, 문화적 습관·사용·소비란 제목의 네 챕터에서 문화의 경제학적·사회학적·인구학적 통계를 제시하고 분석한 뒤, 이어서 문화유산, 예술창작·보급, 미디어·문화산업의 세 챕터에서 각 부문을 다시 세분화하여 각각의 자세한 통계들을 정리해 놓았다. 참고로 프랑스 문화부에서 장르별로 세분화한 문화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다. 문화지표 분석

### 1) 문화 분야의 형태학 및 경제학

#### ① 문화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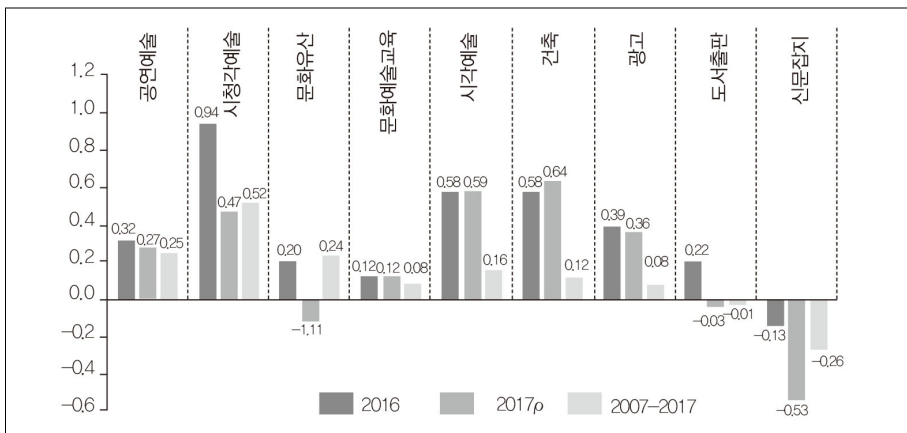
2017년 문화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력, 즉 문화의 각 분야들이 2017년에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은 475억 유로(한화로 약 62조 8,415억 원)로써 프랑스 전체 경제의 2.3%에 해당한다. 프랑스 경제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2015년까지 2.5% 선을 고수하다가 2006년부터 10여 년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2.3%에서 다시 정체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하락세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신문잡지와 도서출판 부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국민들의 문화적 습관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던 부문들이다. 반면 비디오게임 부문은 2017년에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였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분야인 조형예술·디자인 등의 시각예술 부문도 성장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 역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동인이었다는 게 문화부의 분석이다.



〈표 3-29〉 문화 분야 창출 부가가치, 전체 경제 중 문화 영역 차지 비율(2000~2017년)

	부가가치 (Milliards d'euros constants 2017)			전체 경제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율 (%)			문화 영역별 차지 비율 (%)		
	2000	2016	2017P	2000	2016	2017P	2000	2016	2017P
시청각예술	10,6	12,8	12,8	0,6	0,6	0,6	24,5	27,0	27,0
공연예술	5,1	6,9	7,0	0,3	0,3	0,3	11,9	14,7	14,7
신문잡지	7,9	5,5	5,2	0,5	0,3	0,3	18,4	11,6	10,9
광고	6,5	5,8	5,9	0,4	0,3	0,3	15,1	12,3	12,5
문화유산	2,5	4,4	4,3	0,1	0,2	0,2	5,7	9,4	9,1
건축	2,5	3,6	3,8	0,1	0,2	0,2	5,7	7,6	8,0
시각예술	3,3	3,7	4,0	0,2	0,1	0,1	7,7	5,1	5,0
도서출판	2,8	2,4	2,4	0,2	0,1	0,1	6,4	5,1	5,0
문화예술교육	2,0	2,1	2,1	0,10,3	0,1	0,1	4,5	4,4	4,4
문화 분야 규모	43,2	47,2	47,5	2,5	2,3	2,3	100,0	100,0	100,0
경제 전체 규모	1 721,0	2 014,3	2 042,1	100,0	100,0	100,0			

자료 : Insee, comptes nationaux - base 2014/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자료 : Insee, comptes nationaux - base 2014/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그림 3-37] 문화의 각 분야들의 문화적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



## ② 문화의 자금 조달

2019년 프랑스 문화부의 전체 예산은 36억 유로(한화로 약 4조 7,694억 원), 거기에 다른 부처들이 쓰는 문화 관련 예산 43억 유로를 합치면 사실상 프랑스 정부의 올해 문화 관련 예산은 총 79억 유로(한화로 약 10조 4,641억 원)인 셈이다. 먼저 문화부 예산 중 25%는 문화유산, 22%는 예술창작, 16%는 미디어·책·문화산업, 37%는 지식전달 및 연구·교육 부문에 배정되었다. 특히 책과 문화산업 부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000만 유로 인상된 것이 인상적이며, 문화유산 부문 예산도 1,200만 유로 늘었다. 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은 지원금의 형태를 띠는데, 그중 절반은 국립도서관, 국립과학관(Universcience), 파리국립오페라단, 루브르 박물관, 국립예방고고학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s archéologiques preventives), 퐁피두 미술관의 여섯 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다른 정부 부처들 중 문화적 성격을 띤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한 곳은 교육부이다. 이는 주로 초·중등학교의 예술 담당 교사들에게 지출되는 액수로 24억 유로에 달한다.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 활동인 ‘수요일 계획(Plan Mercredi: 프랑스 초등학교는 수요일 오후에 수업이 없다)’과 문화예술 접근성이 취약한 도시의 빈민구역이나 농촌 등지의 예술 활동에도 1억 3천만 유로를 보조한다.

〈표 3-30〉 문화부 예산, 2017~2019년

	2017	2018	2019	2019
	집행예산	초기예산안(LFI)		
	(단위: 백만 유로)			(%)
문화 업무	2 849,1	2 937,1	2 930,1	81
문화유산 프로그램 175건	877,7	897,4	909,6	25
창작 프로그램 131건	784,2	778,9	780,9	22
지식전파·문화민주화 프로그램 224건	1187,2	1260,7	1239,6	34
이 중 2건(인건비: 문화부 지원 업무)	696,8	711,4	703,9	19
연구·고등교육 업무	113,4	111,9	110,0	3



	2017	2018	2019	2019
	집행예산	초기예산안(LFI)		
	(단위: 백만 유로)			(%)
문화·과학문화 연구 프로그램 186건	113,4	111,9	110,0	3
미디어·도서·문화산업 업무	548,7	554,6	579,4	16
신문·미디어 프로그램 180건	274,6	284,0	299,4	8
도서·문화산업 프로그램 334건	274,1	270,7	299,4	8
총합	3 511,2	3 603,6	3 619,5	100

자료 : 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2019

〈표 3-31〉 문화부 이외 정부 부처들의 문화 관련 예산, 2017~2019년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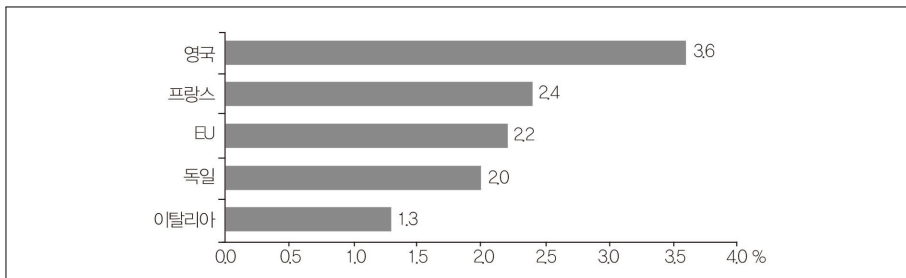
	2017	2018	2019
	집행예산	초기예산안(LFI)	재정법안(PLF)
교육부	2 571,4	2 580,9	2 600,6
유럽·외교부	715,6	758,1	744,7
고등교육·연구·혁신부	581,7	567,9	578,2
재정경제부	124,0	114,8	107,6
내무부	87,1	90,2	96,1
국방부	62,0	78,4	85,2
농업식품부	33,8	34,1	34,4
국토개발부	18,5	15,7	15,7
공공계정·주식부	9,0	9,2	9,7
환경부	5,1	7,1	7,1
해외프랑스부	13,1	7,8	5,9
총리부	6,0	5,6	5,9
법무부	3,4	3,3	4,7
체육부	2,6	2,9	2,9
민간항공(보조 예산)	0,3	0,4	0,3
총합	4 233,5	4 276,3	4 299,2

자료 : 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2019



### ③ 문화산업

2016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에는 141,500개의 문화 관련 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숫자는 전체 정규직 노동인력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의 전체 시장 경제에서 문화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이고 여기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310억 유로로 시장 부문 전체 부가가치의 2.4%에 해당하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평균인 2.2%보다 높고 3.6%를 기록한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문화산업 내부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97%가 정규직 노동자 10명 미만을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문화 관련 기업의 비중은 0.1%에 불과한데 이 소수 기업들의 매출액이 문화산업 전체 매출액의 29%를 차지한다(Les Entreprises en France, 2018).



자료 : Eurostat/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그림 3-38] 유럽 각국의 시장 부문에서 문화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2016년

### ④ 문화협회

프랑스 시민사회는 협회(association)로 인해 굴러간다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에는 협회가 많다. 1901년 제정된 관련 법령 이래 프랑스 국민들은 그만큼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협회를 조직해왔는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협회는 130만 개에 이른다. 이 중 20%가 연극·공연, 시각예술·문학(회화, 데생, 조각, 작문, 작곡 등), 문화유산, 예술·문화 교육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문화 관련 협회들이다. 대부분의 협회들은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나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43,000개의 단체들이 유급 직원을 두고 있고 이 유급 직원들의 숫자는 2013년 데이터로 봤을 때 총 20만 명이다. 그러나 그중 4분의 3이 시간제 일자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협회의 주요 재원은 공공 보조금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보조금은 유급 직원이 있는 협회들로 많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DEPS, 2014).

##### ⑤ 대외무역

미술품, 수집품, 서적, 음반 및 비디오, 신문 및 정기간행물, 악기 및 악보 등 여러 범주의 문화예술 재화들이 수출 혹은 수입 신고된 관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의 통계 자료들을 기반으로 프랑스 문화재의 국제적인 이동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프랑스의 문화 관련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품 부문에 초점을 맞춰보면, 2017년에 회화, 데생, 콜라주 등 미술 작품들의 수출 총액은 약 13억 유로(한화로 약 1조 7,172억 원)로서 프랑스의 해외 반출 문화재 중 1위(전체 반출 문화재 중 거의 57%)를 차지했지만 이는 전년도 기록에 비하면 도리어 27% 하락한 수치다. 외국 문화재의 국내 반입 랭킹에서도 미술품은 마찬가지로 1위(전체 반입 문화재 중 60%)였는데, 수출 부문과는 달리 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약 7억 6,700만 유로를 기록했다(DEP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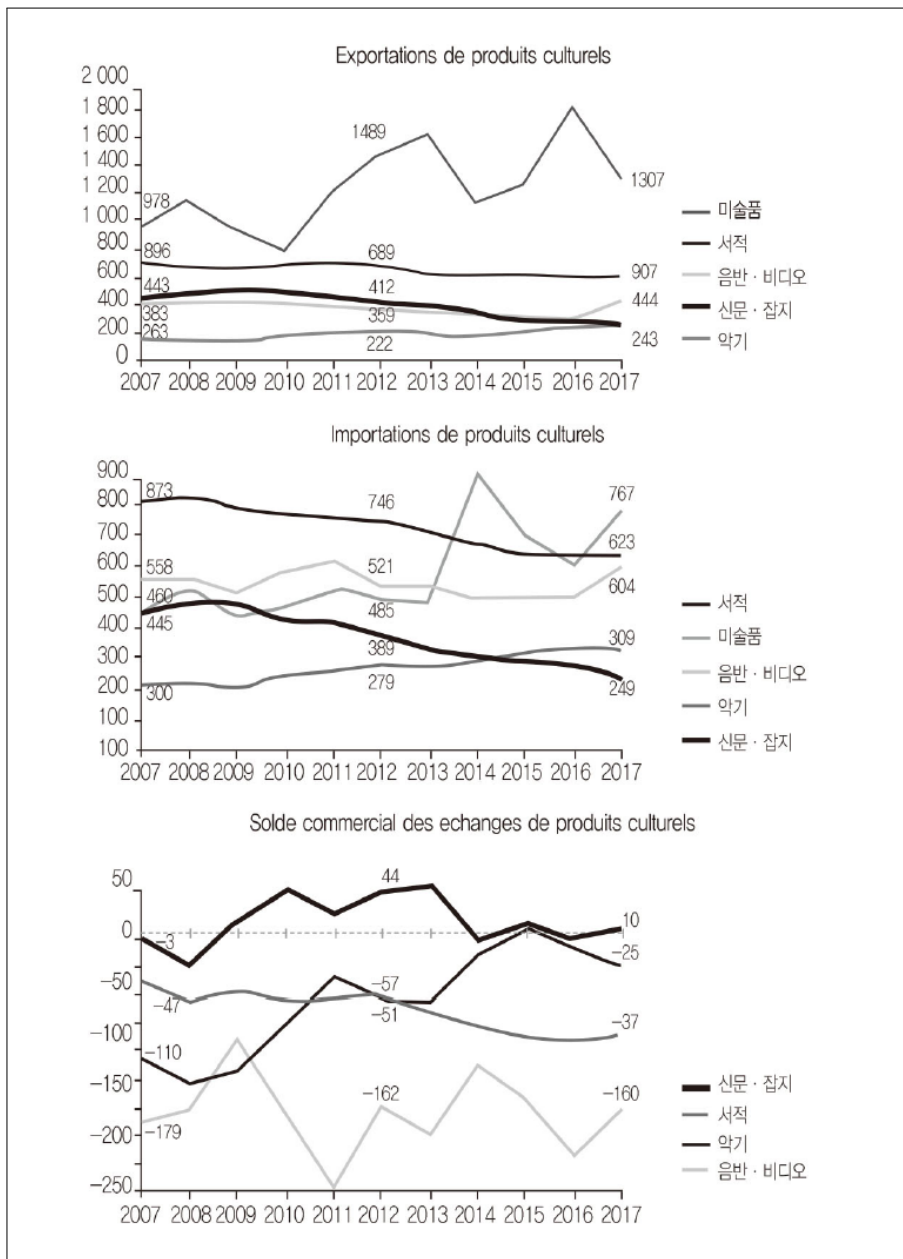
〈표 3-32〉 문화상품의 해외 교류, 2017년

(단위: 백만 유로)

	수출 2017	변화 2016/2017 (%)	수입 2017	변화 2016/2017 (%)	적용비율	무역수지	
						2016*	2017
미술품	1 307,2	-27	767,2	27	1,70	1 196,6	540,0
서적	607,3	0	632,7	2	0,96	-14,5	-25,4
음반·비디오	443,7	56	603,8	23	0,73	-207,7	-160,1
신문·잡지	258,9	-6	249,3	-10	1,04	-4,3	9,6
악기	242,6	3	329,4	0	0,74	-95,2	-86,8
악보	1,3	12	5,1	12	0,26	-3,0	-3,8

자료 : Duanes, 2018





자료 : Douanes, 2018

[그림 3-39] 문화 상품의 수출·수입·무역수지 추이, 2007~2017년(단위: 백만 유로)



이러한 수출 감소는 무엇보다 프랑스 미술품의 2대 수출 시장인 스위스의 거래량이 75%나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을 상쇄해준 것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쪽 수출의 호조로 뉴욕 등지에서 많은 전시회들이 개최되고 프랑스 미술품들의 거래도 활성화됐지만, 미국 미술품의 수입도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결국 대차대조표에서는 전년도 대비 55% 감소를 보이고 말았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2007~2017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술품 수출은 연간 평균 약 3%, 즉 액수로 치면 12억 유로의 증가세를, 수입 쪽은 연간 평균 5%, 액수로 치면 5억 7,340만 유로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술품 다음으로 서적이 전반적인 이 부문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 관련 대외무역에서 굳건하게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서적의 외국어 번역 판권과 관련해서는 전체 판권 양도 건수의 3분의 1이 어린이 도서, 4분의 1이 만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프랑스 서적이 가장 많이 번역된 언어는 의외로 중국어였고, 그다음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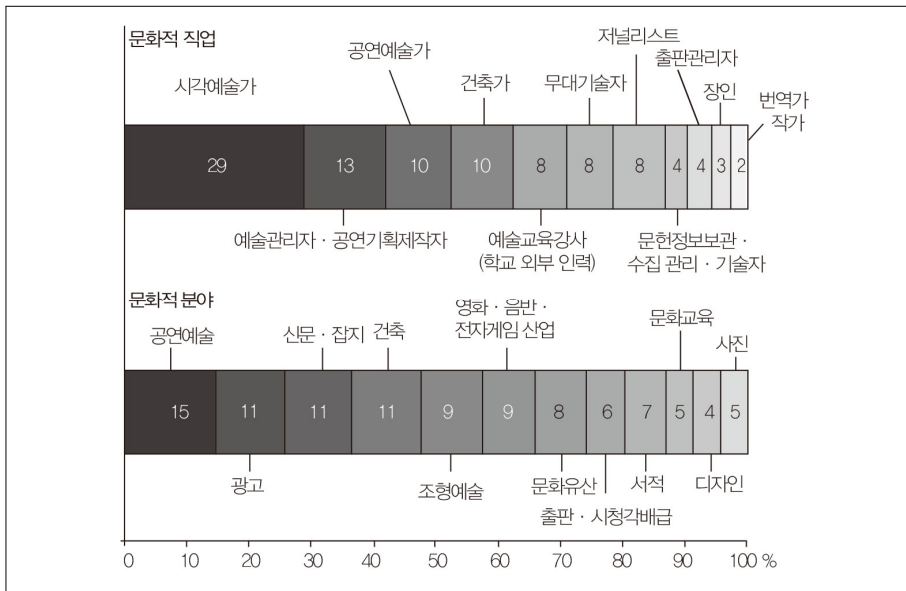
## 2) 고용 구조 및 소득

### ① 문화적 직업

프랑스에서 문화적 직업이라 함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조각가, 저널리스트, 건축가 등 직업 자체가 문화적이라고 정의되는 경우다. 둘째는 출판사, 문화유산, 극장처럼 분야 자체가 문화적이라고 정의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기술직과 행정직들도 포함된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문화적 직종에 595,100명,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인 문화적 분야에 635,7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자의 숫자는 20년간 급증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이후 57만~60만 명 사이로 유지되어 온 데 반해, 후자인 문화 분야의 고용은 그 즈음부터 조금씩 감소해오고 있다. 특히 이런 추세는 출판과 언론 분야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한편 문화 전문직 인력의 지역적 편중은 극심하다. 38%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연예술 종사자들과 작가, 출판사, 저널리스트 등 미디어 종



사자들은 파리에 몰려 있다. 직업군으로 봤을 때는 디자이너, 인테리어 장식가, 스타일리스트, 그래픽 아티스트 등이 속하는 시각예술 종사자들이 문화 전문직 중 29%라는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국립통계경제학연구소(INSEE)에서는 연중 매 주마다 15세 이상의 프랑스인 8,000명을 대상으로 직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 enquêtes Emploi, Insee/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그림 3-40] 문화계 고용에서 직업별·부문별로 차지하는 비중, 2016년

## ② 문화계 종사자들의 소득과 생활수준

2005~2012년의 기간 중 문화 전문가들의 4분의 1은 대체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소득의 추구는 특히 공연예술 종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했으며, 그다음 저널리스트, 출판계 종사자들 순이었다. 이는 문화계 종사자들의 소득 격차가 심한 데서 기인한 현상인데, 직종별 연소득을 비교한 표 3-5를 보면 상황은 더욱 극명해진다. 가령 같은 기간 동안 건축가들의 평균 연간 총소득은 37,200유로인데 비해 미술 교사의 소득은 18,400유로이다. 동일한 직종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서 작가들의 경우 하위 10%의 연소득은 3,000유로인데 비해 상위 10%의 소득은 47,400유로이다. 다른 부문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문화계 종사자들의 생활수준은 가구별 가처분소득으로부터 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출할 수 있는데, 문화계 종사자들은 전체 평균보다 11%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계 종사자들은 세입자일 경우가 많고, 파리 거주자가 많으며, 부부일 경우가 적고, 따라서 부양 자녀가 없다는 구조적 효과를 고려하고 그다음으로 이들의 노동시간이 전체 평균 노동시간보다 짧다는 고용조건을 감안할 때 문화 전문가들의 생활수준은 다른 분야 종사자들보다 평균 12% 낮다고 추산할 수 있겠다.

〈표 3-33〉 문화계의 직종과 분야별 연소득, 2005~2012년

	평균	하위 10%	상위 10%	십분위들(D9/D1) 간의 비율
문화적 직업	26 000	6 200	45 800	7,4
시각예술·장인 직종	20 100	4 000	36 800	9,3
시각예술가	20 800	4 400	37 700	8,6
장인	16 700	3 100	28 800	9,2
공연예술 직종	29 300	9 500	47 500	5,0
공연예술가	26 600	7 700	43 200	5,6
예술관리자·공연기획제작자	38 000	12 800	63 300	4,9
무대기술자	25 400	9 800	39 500	4,0
문학 직종	30 300	6 200	53 700	8,7
저널리스트·출판관리자	32 100	9 500	55 200	5,8
작가·번역가	25 600	3 000	47 400	15,8
건축가	37 200	11 100	73 300	6,6
문화정보 보관·수집 관리·기술자	26 700	14 100	41 100	2,9
예술 교육자	18 400	3 700	34 900	9,3
전체 고용된 경제활동인구	24 600	8 700	41 00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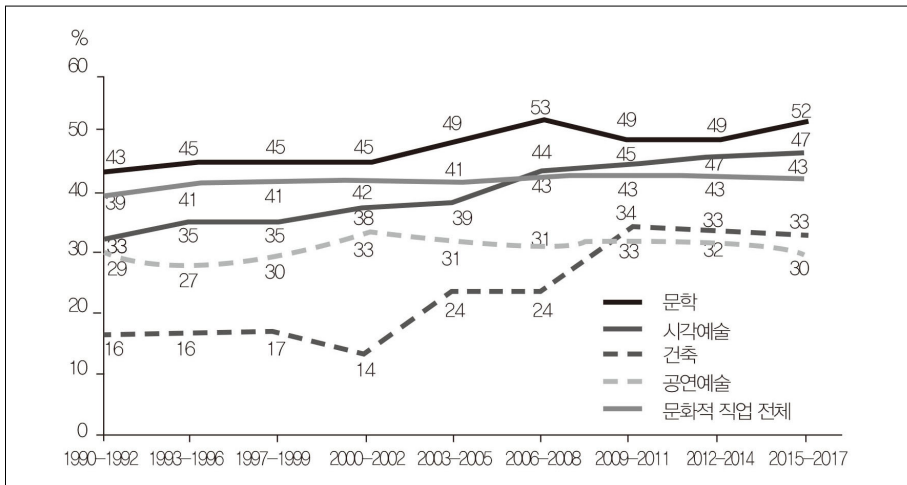
자료 : enquêtes Revenus fiscaux et sociaux, Insee/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5



### ③ 문화에서의 성 평등

1990년~2017년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화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도는 확대되었다. 그러나 문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 영역에서 여성 종사자는 남성보다 소수인 게 현실이다. 2016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문화적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건축과 사진처럼 인력이 두 배가 된 분야도 있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대체로 느리고 미미한 증가가 있거나 그 수가 늘지 않았고, 오히려 공연 분야에서는 25세까지는 남녀 종사자 비율이 동등하다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PS, 2019). 소득에 있어서도 양성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술가 단체인 미술가협회(Maison des artistes)와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 소속 예술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간의 중위소득 격차는 20~30%이며, 작곡가와 안무가의 차이는 44%에 달했다. 공공부문 채용의 경우도 안을 들여다보면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했다. 가령 2017년에 문화부에서는 영구직과 계약직을 합쳐 총 9,000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했는데, 그중 카테고리 B에서 여성들의 고용은 62%를 차지했지만, 관리직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을 반영하듯 같은 해 공공기관과 공영방송의 양성 간 임금 격차는 각각 8%와 11%로 집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임기 동안 공화국의 '커다란 국가적 목표'라고 공표하였고, 2018년부터 직업적 평등의 문화를 촉진하고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폭력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야심찬 로드맵 2018-2022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고서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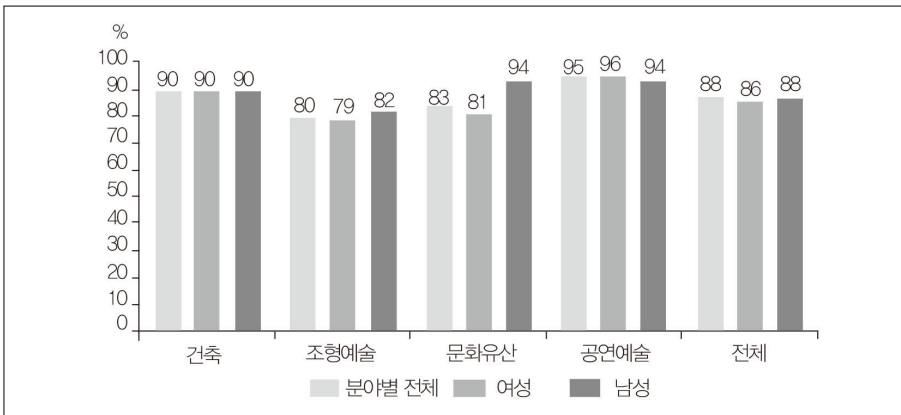
자료 : Insee, enquêtes Emploi/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그림 3-41] 문화계 직업별 여성의 비중 추이, 1990~2017년

#### ④ 문화예술 고등교육

디자인, 영화, 연극, 음악, 춤, 문화유산 등 프랑스의 문화예술 고등교육 기관은 분야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다. 특히 문화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는 국립학교는 총 99곳. 여기에 36,1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건축학도들이다(국립 건축학교만 20곳이다). 조형예술 분야 학생들이 그다음으로 많다. 문화예술 고등교육 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14%로 대체적으로 항상 비슷한 수준인데, 공연예술 쪽이 좀 더 많고(18%) 문화유산과 영화 쪽은 아주 적다(각각 5%와 7%). 학위를 따고 난 학생들 중 88%는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3년 뒤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78%는 전공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건축과 공연예술 학생들 중 92%는 학위를 따고 1년 안에 첫 일자리를 찾았다.





자료 : Enquêtes DESC(enquête d'insertion professionnelle à 3 ans des diplômés 2014 de l'enseignement supérieur Culture)/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그림 3-42] 문화예술 전문 학위 취득자 중 3년 내 일자리를 얻은 비율, 2014년

### 3) 문화 공급의 지리적 접근

일찍부터 문화외교를 중시해온 프랑스에서는 현재 전 세계에 96개의 프랑스 연구소(Institut français)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고, 프랑스 문화 및 프랑스어 전파의 사명을 띤 800여 개의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프랑스 연구소에서는 프랑스어 주간(la Semaine de la langue française) 행사를 런칭하면서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영화를 엄선하여 프랑스어로 된 546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56개국의 55,000만 관객이 참여하였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도 2016년부터 보조금을 12억 유로(한화로 약 158억 원) 증가시키고 특히 프랑스 영화의 해외 배급 지원금을 4배 늘렸다. 그 결과는 2017년부터 나타나 그해 542편의 프랑스 영화(CNC의 기준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제작비의 대부분을 낸 영화도 포함)가 해외에서 상영되어 전년도보다 두 배 늘어난 8,050만 입장객을 끌어들이고 82% 증가한 4억 6,80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sup>10)</sup> 하지만 가장 꾸준하게 프랑스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세계 최고의 관람객 수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박물관들이다. 가령 2006년부터 3년간

10) Bilan 2017 du CNC, Paris,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2018



미국의 애틀란타 하이뮤지움(High Museum of Atlanta)은 한 건물을 할애하여 ‘루브르 아틀란타’라는 이름으로 루브르의 컬렉션을 전시했다. 2017년에 아랍 에미리트에는 아예 ‘루브르 아부다비’가 개관했다. 풍피두 국립현대미술관도 10년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2019년 중국에 ‘상하이 풍피두’ 개관을 앞두고 있다.

#### 4) 문화적 습관·활용·소비

##### ① 문화적 습관과 시간 활용

프랑스인들의 독서량 감소는 인터넷이 도입되기 한참 전부터 생겨난 현상이긴 하다. 일간신문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미 유료 독자의 거의 절반을 잃었기 때문이다. 학업이나 직업적 목적과 무관한 책을 읽는 프랑스인의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는 편이지만 2008년만 해도 독자의 꾸준한 감소로 인해 1973년과 비교하면 평균 독서량은 5권이 줄어들어 있었다. 반면 프랑스인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근 증가해왔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973년과 2008년 사이에 연극을 보러 가는 프랑스인들은 11%에서 19%로, 록이나 재즈 콘서트를 보러 간 사람들 숫자는 2배로 늘었고, 영화 관람객은 1997년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지난 10년간 다시 증가세다.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한 프랑스인의 비율은 아주 최근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5년간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문화적 참여와 실천 측면에서 유럽 평균보다 높고 영국과 독일과 함께 부문별로 순위를 다투며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봤을 때 프랑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도서관, 클래식 연주회, 박물관 전시, 연극 공연장에 더 자주 갔으며, 연령대로는 15~24세 청년들의 문화 참여가 다른 연령 집단들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프랑스인들의 1인당 1일 여가시간(일하지 않고,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수면 등 생리적 욕구에 바쳐지지 않는 순수한 자유시간)은 2010년에 10년간 7분 더 증가한 평균 4시간 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주관적인 행복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의거해 2010년 프랑스인들의 시간사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여가시간 활동은 음악·춤 연습, 산책, 공연·박물관·영화 관람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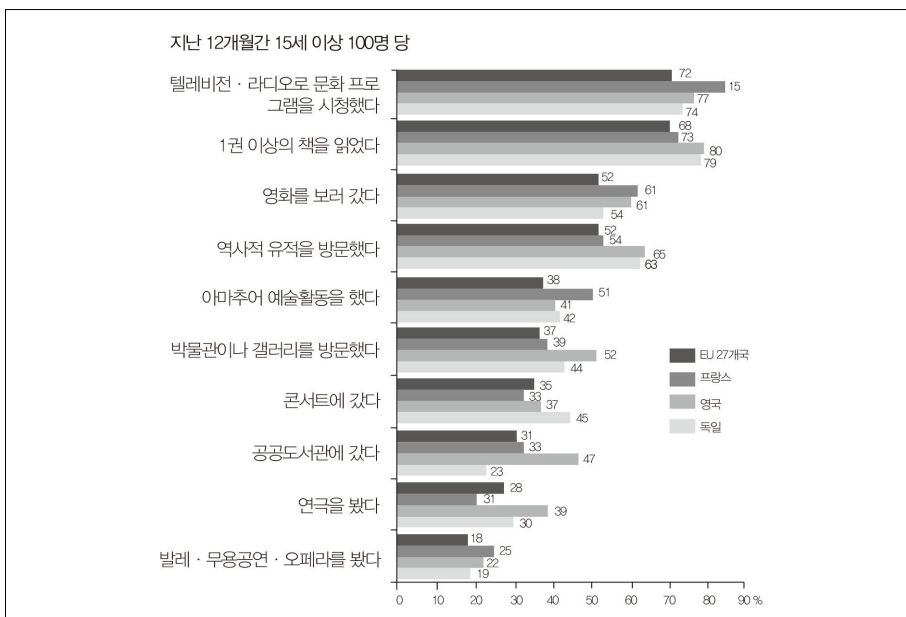
〈표 3-34〉 15세 이상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실천 추이, 1973~2008년

	1973	1981	1988	1997	2008
시청각 소비의 추이(15세 이상 프랑스인 100명 당)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88	91	90	91	98
그중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시청	65	69	73	77	87
일주일 평균 시청 시간	16	16	20	22	21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텔레비전 시청	29	35	39	42	43
15~24세	20	24	32	36	27
25~39세	23	27	34	37	36
40~59세	28	33	37	28	40
60세 이상	43	57	35	59	60
음악을 들었다(라디오 제외)	66	75	73	86	81
그중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청취	9	19	23	27	34
종이매체 읽기의 추이(15세 이상 프랑스인 100명 당)					
일간지를 읽는다	77	71	79	73	69
그중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읽는다	55	46	43	36	29
적어도 책 1권을 읽었다	70	74	75	24	70
1~9권	24	28	32	35	38
10~19권	17	18	18	37	15
20권 이상	28	26	24	39	16
무응답	1	2	1	2	1
아마추어 예술활동의 추이(15세 이상 프랑스인 100명 당)					
단체에서 또는 친구들과 음악이나 노래 활동을 했다	5	5	8	10	8
음악 외 예술 활동을 했다	11	13	17	23	22
그중 시·소설을 썼다	3	4	6	6	6



	1973	1981	1988	1997	2008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다	4	4	6	10	9
연극을 했다	1	1	2	2	2
춤을 쳤다	2	2	6	7	8
<b>영화관 관람의 추이(15세 이상 프랑스인 100명 당)</b>					
영화관에 갔다	52	50	49	49	57
1~2회	13	15	15	13	17
3~11회	23	20	19	23	27
12회 이상	16	15	15	13	13
<b>박물관·전시회 관람의 추이(15세 이상 프랑스인 100명 당)</b>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갔다	33	36	38	40	37
그중 박물관	27	30	30	33	30
회화나 조각 전시회	19	21	23	2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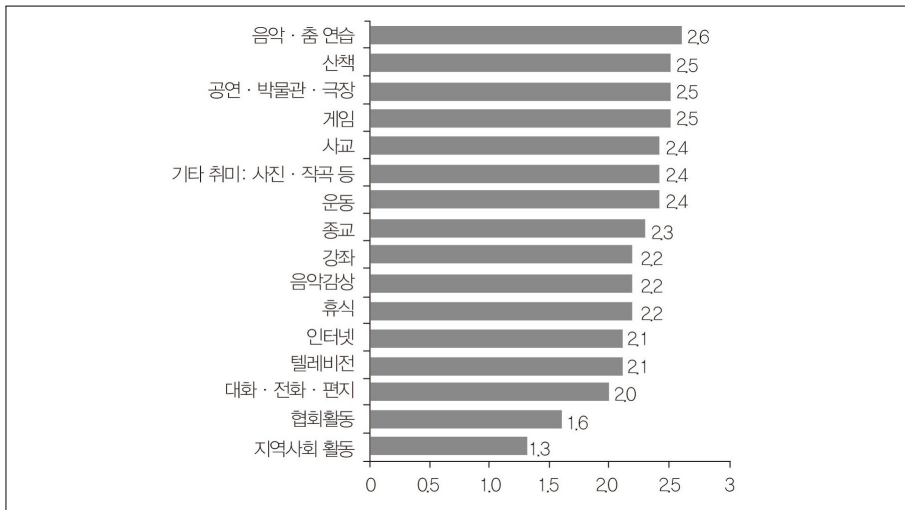
자료 : 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1



자료 : Eurobaromètre 2013/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4

[그림 3-43] 15세 이상 유럽인들의 문화적 실천 비교, 2012년





자료 : Insee, enquête Emploi du temps, 2010

[그림 3-44] 여가시간의 활동별 만족도, 2010년

## ② 관광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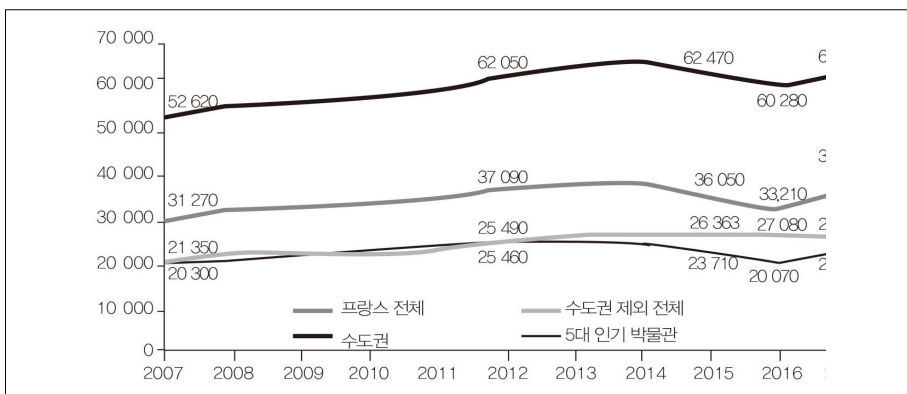
2017년 프랑스의 해외 관광객은 8,700만 명(유럽 관광객 6,830만 명 + 비유럽 관광객 1,850만 명, 이상은 숙박여행 관광객 기준, 당일여행 관광객은 별도로 1억 2,000명)으로 스페인(8,200만 명)과 미국(7,300만 명)을 앞지르며 2015년과 2016년의 테러로 인한 위축을 극복하고 세계 관광대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같은 해 이들 해외 관광객들이 창출한 수익은 총 540억 유로(한화로 약 71조 3,323억 원)였고,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551유로, 당일여행 관광객의 경우 53유로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은 프랑스에서 적어도 한 곳의 문화유적을 방문했고, 10명 중 1명은 페스티벌이나 스포츠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내국인 관광객 역시도 4명 중 1명은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문화유산과 국제적 규모의 행사 및 페스티벌을 꼽았다(DGE, 2018). 그러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여행지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매력은 문화유산과 각종 페스티벌과 현대 미술·창작품만이 아닌 비물질적 요인들, 이를테면 미식 문화, 프랑스인들의 삶의 방식 등이 어우러져 프랑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고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5) 문화유산

### ① 박물관

프랑스에는 총 1,218개의 박물관이 있고 그중 1,000여 개의 박물관이 현재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이 중 3분의 1은 미술품, 다른 3분의 1은 역사, 나머지 3분의 1은 사회·문명·자연·과학·기술과 관련되는데, 2017년 기준 전체 관람객의 3분의 2는 미술 박물관들이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전체 박물관 입장객 숫자는 2015년의 파리 테러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2016년의 감소세에서 반등하며 5% 증가한 6,320만 명으로 다시 2014년 수준을 회복했는데, 그 외중에도 루브르 박물관은 810만 명을 끌어들이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특히 2018년에는 입장객 수가 1,010만 명으로 급증해 예년보다 26%라는 전무후무한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박물관이라는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2018년에는 박물관 입장객 중 80%는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으로는 프랑스, 특히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 학생들의 단체 방문이 2017년과 2018년에 연이어 각각 13%와 18%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 박물관들이 상설 전시에만 만족하지 않고 굵직한 특별전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료 : DPP-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그림 3-45] 프랑스 박물관의 입장객 숫자 추이, 2007~2017년(단위: 천 명)



## ② 문화유적

프랑스국립기념물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CMN)에 따르면, 2017년에 프랑스의 국가 지정 기념물들을 방문한 인원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2% 증가했고, 2018년에는 1,100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숫자를 기록하며 또다시 8% 증가했다. 현재 프랑스와 프랑스령 지역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총 45,285개의 기념물이 존재한다. 그중 최다 방문객 10위권에 드는 기념물들의 방문객 숫자는 전체의 4분의 3을 독식하고 있는데, 다시 그중에서 5개의 장소는 파리에 위치해 있다(표 3-7 참조) 국제적인 문화재 인증의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프랑스의 문화유산 4건은 유럽연합이 공인하는 유럽문화유산으로, 44건은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17건은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로이 등재되었다. 참고로 2018년에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가장 많은 건수를 등재시킨 나라로는 이탈리아(54건), 중국(53건), 스페인(47건)에 이어 프랑스가 네 번째였다. 그 외에도 프랑스에서는 내부적으로 1999년부터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근대 건축물들을 ‘20세기 문화유산(Patrimoine du XXe siècle)’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프랑스의 정치·사회·문화 등 역사상 유명인들의 자택이나 작업실을 보존하여 ‘명사의 집(Maisons des illustres)’으로 지정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문화적·미학적·역사적·식물학적 가치가 있는 공원이나 정원 430개소를 ‘주목할 만한 정원(Jardins remarquables)’으로 지정했다.

〈표 3-35〉 10대 국가 지정 기념물의 방문객 숫자, 2018년(단위:명)

도시	장소	2015	2016	2017	2018
파리	개선문	1,765,350	1,342,360	1,596,610	1,698,140
몽생미셸	수도원	1,265,990	1,174,120	1,245,390	1,396,530
파리	생트샤펠성당	903,050	910,890	1,060,340	1,270,490
상보르	성	783,350	728,130	916,890	886,090
파리	팡테옹	667,830	597,769	726,620	859,800
카르카손	성과 성벽	538,870	550,720	549,020	597,210



도시	장소	2015	2016	2017	2018
파리	성당투어	475,060	407,780	426,210	476,320
파리	콩시에르주리	420,340	355,730	390,880	440,490
아베르리도	성	214,550	219,770	280,840	307,290
앙제	성	201,160	201,780	211,580	219,500
상위 10대		7,235,550	6,489,040	7,414,380	8,151,860
국가 지정 기념물 전체		9,990,790	9,100,340	10,286,640	11,056,700

자료 : CMN/DPP-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 6) 예술창작·보급

먼저 콘서트 분야는 2016년 자료에 의하면 2,900만 명의 입장객을 끌어들여 9억 3,000만 유로를 벌어들였고 전통적인 팝, 록, 샹송에서 힙합과 레게에 이르기까지 장르도 다양화됐다. 다음으로 연극·공연예술 분야는 2000년의 11.9%에 비할 때 전체 문화 부문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도가 14.7%로 커질 만큼 장기적으로 조용히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전국에 고루 퍼져 있는 332개의 공연 페스티벌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 최근 몇 년 새 감소세를 보인 국공립 극장들에 비해 민간 공연장들이 작품 상연 횟수나 관람객 숫자 양면에서 약진을 보임으로써 공연계에 활력을 주었기 때문인 듯도 하다. 유료 관람객은 2017년 579만 명에서 2018년 628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예술창작 부문에서 가장 활기를 띤 것은 시각예술 분야다. 2016년 전년도 대비 8% 증가에 이어 2017년까지 7%의 성장률을 보이며 3년째 상승세다. 이것의 원동력은 디자인 부문의 강한 성장(연간 14%)과 조형예술(4%)의 선전 덕분이다. 다만 사진 부문은 디지털 전환 추세와 함께 2003년부터 시작된 장기간 하락으로 2016년 마이너스 1% 성장까지 갔다가 다시 2017년 2% 반등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다.

## 7) 미디어·문화산업

2000년대 말에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콘텐츠의 비물질화와 인터넷에서의 점진적인 온라인 도입으로 인해 미디어 및 문화산업의 경제가 일대 혼란에 빠



진 이래로 문화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주된 원동력은 시청각 분야다. 이 분야는 2017년에 전년도 대비 1.7% 성장한 128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올렸는데, 텔레비전 일반 채널(34억 유로 및 이 분야 부가가치의 26%), 텔레비전용 영화(27억 유로, 20%) 및 극장용 상업영화(15억 유로, 11%),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비디오게임(12억 유로, 9%, 10년 전만 해도 4%였다) 순이었다. 2009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비디오게임의 이례적인 성장은 프랑스에서 주요 개발 스튜디오들을 설립한 결과다. 2017년에 24세 미만 연령 집단의 비디오게임 이용자는 90%, 좀 더 확대하여 10~65세의 프랑스인들 중 비디오게임 이용자는 68%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극장용 영화도 선전하여(부가가치 7% 증가) 시청각 분야의 성장에 톡톡히 기여했다. 같은 해 디지털로의 전환이 완료된 음원 시장도 성장을 보였다(5%). 끝으로 2018년에 조사된 프랑스인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정리하면, 12세 이상 프랑스인 10명 중 거의 9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이들의 인터넷 사용(98%)은 그렇지 않은 이들(54%)보다 높았으며, 소득의 최상층과 최하층의 인터넷 사용은 각각 97%와 86%로 소득이 인터넷 사용에는 영향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77%는 온라인으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기 분야는 음악, 영화, 텔레비전 시리즈 순이었다.

〈표 3-36〉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온라인 문화 상품 소비, 2017~2018년

	남성		여성		15~24세		40세 이상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음악·뮤직비디오	57	54	54	51	87	74	43	41
비디오·영화	52	46	47	44	83	63	34	32
텔레비전 드라마	38	33	48	41	78	63	26	24
사진	31	33	32	36	56	53	31	24
소프트웨어	25	29	17	16	40	35	15	19
비디오게임	29	25	20	17	46	34	15	14
책	15	16	19	17	26	18	12	15

\*Effectif répondant de moins de 61 individus.

자료 : Hadopi/DEPS, Ministère de la Culture, 2019



## 제4장

# 한국의 주요 문화지표와 국가별 문화지표 비교







## 제1절

## 한국의 주요 문화지표

## 1. 한국 주요 문화지표 선정 및 분류

앞에서 국제적인 문화지표체계 흐름과 각 국가별 문화지표체계 수립 및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별 문화지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주요 문화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사회보장통계 등 국내 주요 지표,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이표 중에서 문화 분야와 관련된 지표를 국내 문화 분야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부분 공식통계를 활용하고 정치적 편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지표들이고,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통계지표에서 국내의 주요 문화 부문의 지표 중 중복되는 지표들을 재분류하여 최종 문화지표를 도출하였다.

## 가.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1979년 이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와 각 통계 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를 재분류하고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는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등 11개의 부문에 대한 281개의 지표를 수



록하고 있다(통계청, 2018).

이 중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는 ①문화와 여가 생활의 기반(예술행사 수, 문화예술시설 수, 공공 체육시설 수, 도서관 이용자 수, 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 수, 통신서비스 종류별 가입자 수, 생활시간배분,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및 정보통신비 등), ②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문화예술활동, 독서인구 비율, 영화관람객 수 등), ③ 여가체육활동(사회성 여가참여 비율 및 참여시간, 휴가활용, 성 및 연령별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종류별 평균 여가시간, 성 및 연령별 국내관광여행 및 해외여행 횟수와 비율, 성 및 연령별 레저시설 이용률, 성 및 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 등), ④미디어 활용(신문보는 인구, 성 및 연령별 인터넷이용률과 이용시간,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등) 24개 주요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광과 체육부문 지표를 제외하면 20개이다.

〈표 4-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중 문화지표

구 분	문화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5)	예술행사 수	독서인구 비율
	문화예술시설 수	사회성 여가참여 비율 및 참여시간
	도서관 종류별 이용자 수	휴가활용(경험률, 사용일수)
	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 수	성 및 연령별 여가활동 만족도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여가활동 종류별 평균 여가시간
	생활시간배분	신문 보는 인구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및 정보통신비	성 및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문화예술 관람	성 및 연령별 인터넷이용시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문화예술활동	영화관람객 수

자료 : 통계청(2019)



## 나.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발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011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작업과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11개 영역 및 71개 지표로 확정하였다. 삶의 대한 주관적 만족을 위해 물질적, 비물질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중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여가’ 영역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비물질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가활동은 개인들에게 필수적이거나 의무적 활동이 아닌 자유 시간으로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며,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도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가 영역에서는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1인당 여행일수, 여가생활 만족도 등 6개의 지표가 있다. 여기에서 문화 분야 지표로 아래와 같이 5개로 선정하였다.

〈표 4-2〉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문화지표

구 분	문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5)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문화예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자료 : 통계청(2019)

## 다. 국가주요지표

통계청은 국가발전의 주요 분야에 대해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분야별 핵심지



표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단일 지표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 부문에서 다양한 지표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균형 있게 판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구축하였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웰빙, 그리고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괄하고 주요 정책 수립의 활용을 높이고자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중심으로 지표체계 103개를 구성하였다. 특히 주요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국제 비교지표도 선정하고 있다.

이 중 ‘문화와 여가’ 영역은 사회부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여가자원(문화여가비지출률, 여가시간), 문화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여가만족도), 미디어이용(인터넷이용률) 등 6개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 분야 지표로 아래와 같이 5개를 선정하였다.

〈표 4-3〉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중 문화지표

구 분	문화지표
국가주요지표 (5)	문화여가비지출률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률
	여가생활만족도
	인터넷이용률

자료 : 통계청(2019)

## 라.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에 따라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6회를 발간하였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민의 삶의 모습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여건과 수준을 기반으로 분야별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이 중 문화는 사회서비스 중 하나의 분야로 포함되어 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보고서에 따르면 4개 범주, 13개 분야, 51개 영역, 2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현상과 정책적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지표 159개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문화’ 분야는 문화향유(연간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연간독서량), 문화접근성(인구100만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율), 문화참여(연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교육(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복지(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등 5개 정책 세부영역과 15개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 분야 지표로 아래와 같이 11개를 선정하였다.

〈표 4-4〉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중 문화지표

구 분	문화지표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11)	연간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간독서량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GDP 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자료 : 통계청(2019)

## 마. e-나라지표

국가정책 수립, 점검 및 성과측정 등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요 지표인 e-나라지표는 나라지표를 제공하는 웹기반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지칭한다. 통계표, 그래프 및 의미분석 등으로 구성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표이다. e-나라지표는 현재 3개 대영역(경제, 사회, 환경), 16개 중영역, 61개 소영역으로 나라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e-나라지표는 2014년부터 민간 연구진의 지표연구결과인 국가발전지표 영역을 준수하고 있다.

여가부문은 여가지원(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공연/전시 횟수, 공연장/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등록 문화재 현황,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문화산업 현황,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현황,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운영, 유네스코 유산 현황,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여가활동(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 국민여행 총량, 궁능원 관람객 수, 독서인구, 매체별 TV프로그램 시청경험 비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외래관광객 수, 인터넷이용률,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현황,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해외여행자수), 여가결과(관광수지 실적,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기타(1인 1일 스팸 수신량, ITU ICT 발전지수, 시내/이동전화 가입자,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정보격차 현황, 해킹사고 건수)로 4개 소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 분야 지표로 아래와 같이 24개를 선정하였다.



〈표 4-5〉 ‘e-나라지표’ 중 문화지표

구 분	문화지표	
e-나라지표 (24)	공공도서관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공연/전시횟수	등록 문화재현황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주이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등록 박물관/미술관현황	문화재발굴조사 현황
	무대전문인력 배출 주이	문화재수리기술사·기능사 현황
	문화산업 현황	문화재지킴이 위촉현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주이	유네스코 유산현황
	전통사찰지정 등록현황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공능원 관람객수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독서인구
	출판현황	매체별 TV프로그램 시청경험 비율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자료 : 통계청(2019)

## 2. 한국 주요 문화지표 중첩성 분석 및 대표지표 선정

다음은 문화 분야에서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국가주요지표의 영역 기준(문화여가자원, 문화여가활동, 미디어이용)으로 영역 중첩성을 분석하고, 중복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주요지표 기준으로 5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문화 분야 지표 중첩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주요지표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지표는 없었다. 그러나 4개 이상 동일하게 포함된 지표는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 등에 관한 것이었고, 3개 이상 동일하게 포함된 지표는 문화여가지출, 문화예술시설,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표들로 나타났다.



〈표 4-6〉 문화주요지표 중첩성 분석

구분	국가주요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e-나라지표
문화 여가 지원	- 문화여가 지출률	- 소득분위별 문화 여가비 및 정보통신비	- 문화여가 지출률	- 오락문화비 가계 지출 비중 - GDP대비문화 예산	
	- 여가시간 -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시간 - 성 및 연령별 여가 활동 만족도 - 휴가활동(경험률, 사용일수) - 생활시간배분	- 여가시간 - 여가시간 충분도 - 여가생활 만족도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 문화예술시설 수	-	-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의 수	- 공연장/문예회관등 문화시설추이 - 등록박물관/미술관 현황 - 공공도서관 현황
	-	-	-	-	-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	-	-	-	- 문화산업 현황
	-	-	-	-	-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 등록 문화재현황 -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 문화재발굴조사 현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현황 -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 유네스코 유산현황 - 공능원 관람객 수
	-	-	-	-	-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 출판현황
문화 여가 활동	- 문화예술관람률	- 예술행사수 - 연간문화예술(창작, 발표) 활동 참여율 - 도서관이용자 수 - 영화관람객수 - 사회성 여가참여	- 문화예술 관람횟수	- 연간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 연간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 공연/전시횟수



구분	국가주요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e-나라지표
		비율, 시간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학교문화예술 교육 수혜율 - 사회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	- 독서인구비율 - 신문보는 인구	-	- 연간독서량	- 독서인구
미디어 이용	- 인터넷이용률	- 성별연령별인터넷 이용률과 이용 시간(주평균) - 성별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	-	-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	- 케이블TV, 위성 방송 가입자 수 -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	-	- 매체별TV프로그램 시청경험비율
	-		-	-	-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선정된 지표들은 구체적인 산출방식이나 산출결과보다는 측정 목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지표측정목표에 따라 하위 지표가 단일지표로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복수의 지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문화지표는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사회보장통계 등 국내 주요 지표 중에서 문화와 여가와 관련된 지표,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지표 중에서 문화 분야와 관련된 지표 중 중복 지표를 제외하고 총 40개를 선정하였다.



〈표 4-7〉 국내 대표 문화지표

구 분	문화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e-나라지표 중 문화관련 지표 선정	GDP대비문화예산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공공도서관 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공연장/문예회관등문화시설 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등록박물관/미술관 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Hits
	공연/전시Hits	예술공간/도서관 이용률
	독서량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독서인구 수	여가시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여가시간 충분도/만족도
	출판 현황	여가생활만족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하고 싶은 여가활동
	공능원 관람객 수	휴가활용(경험률, 사용일수)
	등록 문화재 현황	문화산업 규모/현황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문화재발굴조사 현황	매체별TV프로그램시청경험비율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현황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유네스코 유산 현황	성 및 연령별 인터넷이용률과 이용시간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 제2절

## 한국과 외국의 주요 문화지표 비교

## 1. 문화지표 영역 구성 및 내용 비교

## 가. 문화지표 비교 분석 프레임 설정

위에서 선정한 문화지표 40개와 5개의 비교국가를 중심으로 지표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국가들을 살펴본다. 국제성 비교를 위하여 표준화된 동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 활용하고 있는 문화대표지표 중 비슷한 개념의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산출방식이나, 지표개념에 대하여 완벽하게 일치된다면 횡단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분석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이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표 4-8〉 지표 비교 분석 프레임

한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GDP대비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 · ·					
성 및 연령별 인터넷이용률과 이용시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잔여범주					



한국의 대표 문화지표로 도출된 40개를 기준으로 각 국가에 관련 지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 문화지표 영역 밖에 존재하는 국가의 지표들은 잔여범주에 체크하고 어떤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 나. 문화지표 비교 분석 결과

아래의 표는 한국의 대표 문화지표를 기준으로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지표 항목 비교를 실시한 결과이다. 각국에서 생산하는 통계지표를 정책 방향에 맞추어 구성한 지표체계이기 때문에 개별 지표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항목은 거의 없었지만, 이 분석에서는 지표의 컨셉과 영역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문화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과 가계 혹은 개인이 지출하고 있는 문화소비, 문화관련 시설 수, 참여율 등은 공통적으로 지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표 4-9〉 문화지표 비교 분석

한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GDP대비문화예산		√	√	√	√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	√		√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	√	√	√	√
공공도서관 수	√	√	√		√
공연장/문예회관등문화시설 수	√	√	√		√
등록박물관/미술관 수	√	√	√	√	√
공연/전시 횟수	√	√	√	√	√
독서량		√			
독서인구 수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			√
출판 현황		√	√		√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				



한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횟수	√	√	√	√	√
예술공간/도서관 이용률	√	√	√	√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만족도				√	
여가생활만족도				√	
하고 싶은 여가활동					
휴가활용(경험률, 사용일수)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		√	√	
궁능원 관람객 수					
등록 문화재 현황	√		√	√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문화재발굴조사 현황	√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현황	√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				
유네스코 유산 현황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문화산업 규모/현황	√		√	√	√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	√	√
매체별TV프로그램시청경험비율		√			√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성 및 연령별 인터넷이용률과 이용시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기타지표	√	√	√	√	√



일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유산관련 지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요 문화지표 이외에 기타지표로 기부활동,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인 수, 금액, 규모 등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대외적인 활동 및 교류와 대내적 활동에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일본어)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더불어 외국인의 국어 학습현황에 대한 조사도 주요 지표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별 문화적 환경 만족도, 특정 유형별(장애인, 재류외국인 등)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참가율에 대한 지표는 포용성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 문화지표로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표문화지표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미디어 및 인터넷관련 지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문화단체에 대한 수입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과 대외문화교류활동과 교류인 수를 지표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향유나 접근성보다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중국문화향수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전파라는 국가브랜드 제고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문화 인력에 대한 지표들이 중요한 지표로서 전체 지표 체계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문화계 근무하는 인력들의 세부 직종과 분야별 연소득을 파악하고, 문화계에서의 직업별 여성비율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 전문 학위 취득자 중 3년 내 일자리를 얻은 비율도 인력 지표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개소 수보다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입장객이나 관람객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는 문화유적, 페스티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해외관람객 국내 외국인체류자들의 이용행태 또한 주요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는 연령과 성별, 외국인 등에 대한 유형별 활동 현황, 소비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표로 활용한다.

네덜란드는 위의 프랑스와 비슷하게 문화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문화 인력으로 편입되기 전 학습 단계에서부터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 졸업 후, 1.5년 이내 전공 분야에 취업한 예술 학교



졸업생 비율을 비롯하여 문화관련 전공학생 수도 주요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향수 및 문화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참석하는 것과 더불어 클럽이나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수와 클럽에서 진행되는 리허설, 연습시간(음악, 드라마, 뮤지컬, 합창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개인 후원금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수를 세분화하여 체크하고 있다. 박물관, 공연예술, 역사유적 등 다양한 장르와 영역에서 자원봉사하는 현황을 살피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활동에 자원봉사도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로 지출하는 재정적 흐름과 함께 민간·기업의 후원금, 기부금도 주요 지표로 포함시키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예술가의 수, 평균임금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 분야 노동조합 수도 하나의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지표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문화예술등록단체수와 함께 문화관련 일자리와 임금(소득) 등도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의 적용으로 창출되는 수익도 지표로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은(2017.11.29.) ‘저작권 통계(한국저작권위원회)’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문화적 활동과 문화산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4년간 예술 또는 음악 교육을 받은 SAT시험응시자의 평균점수를 대표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령기 시점에 문화예술 활동이나 교육이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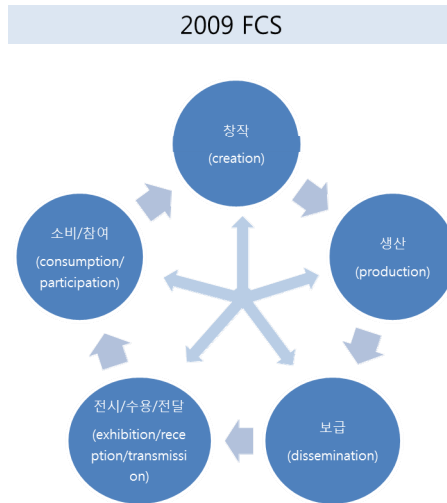
## 2.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모형 적용 비교

### 가.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분석 프레임 설정

국가별 문화지표 비교를 위한 분석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프레임은 국가별로 어떤 영역별 지표가 존재하는지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집중하고 있는 정책영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프레임의 종축은 UNESCO가 2009년에 발표한 FCS의 문화순환모델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창작→생산→보급→전시/수용/전달→소비/참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모델이다. 이전 1986년 FCS이 각각의 활동들이 일렬로 이어진 단계로 설정되었으나, 2009년에 발표한 FCS의 문화순환모델은 각 활동의 단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4-1] UNESCO 2009 FCS 문화순환모델

각 단계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지표를 분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문화순환모델에서는 하나의 지표가 한 개의 활동단계에만 분류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활동들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상에서도 다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 창작(creation): 복제가 불가능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 2) 생산(production): 문화라는 형태로 복제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
- 3) 보급(dissemination):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소비자나 전시자에게 전달 되는 것



- 4) 전시/수용/전달(exhibition/reception/transmission): 문화 활동을 통해 청중 또는 관객들과 지식과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권리를 교환하는 경험을 하는 것
- 5) 소비/참여(consumption/participation): 관객과 참여자들이 문화적인 제품을 소비하거나 문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기본 분류 프레임에서 횡축은 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로직모형(PLM)을 활용하여 투입/활동(input, activities), 산출(output), 결과(outcome)으로 구분하였다.

- 1) 투입(inputs)·활동(activities)은 문화적 활동 혹은 정책을 위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관계 및 구조자원(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함
- 2) 산출(outputs)은 활동에 의한 즉각적인 성과물로 활동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결정되며, 활동 수행에 대한 서비스, 사건, 생산물 등임
- 3) 결과(outcomes)는 바람직한 성취나 변화로 주로 개선된 태도나 동기, 기술, 감정, 인식, 행동, 지위, 상태 등을 나타냄

횡축과 종축을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표 4-10〉 문화지표 분류 프레임

구 분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창작 (creation)	[분류 프레임을 통한 결과 분석 단계] ①각 문화지표별 해당 부분에 체크 ②해당하는 지표의 수를 합하여, 전체 지표 수로 나누어 결과를 산출(해당하는 지표 수 합계/전체 지표 수) ③각 항목/활동단계별 합계를 계산 ※ 중복 해당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의 합은 1보다 클 수 있음		
생산 (production)			
보급 (dissemination)			
전시/수용/전달 (exhibition/reception/transmission)			
소비/참여 (consumption/participation)			

## 나. 문화지표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표 문화지표로 뽑은 40개의 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회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사실 40개 이외에도 연구 서두에 설명한 다양한 통계 자료와 조사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표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프레임워크 작업을 통해 설계된 문화지표가 아직 없고, 국제적 비교성을 높이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문화지표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총 6개국의 문화지표 비교는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국가 전체적으로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outcomes)를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았다. 정책적 지표로서 판단할 때, 산출지표는 공공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진 정책 집행의 직접적인 산물이고, 결과지표는 산출이 정책대상에 가져오는 최종적인 영향을 가리킨다. 이 분석에서는 문화순환모델에서의 영역은 중복이 가능하게 하여 상호연계성을 강조하였으나, 투입/활동-산출-결과 영역에서는 최대한 중첩부분이 없도록 분류하여 분명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개별지표로 접근할 때, 그 지표는 정책의 산출지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책의 결과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투입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추진 효과인 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표 4-11〉 문화순환모델-투입·산출·결과 분석

	투입·활동	산출	결과	전체	투입·활동	산출	결과	전체
	일본				중국			
창작	0.05	0.02	0.00	0.07	0.19	0.05	0.00	0.23
생산	0.09	0.26	0.02	0.37	0.47	0.09	0.00	0.56
보급	0.05	0.19	0.00	0.23	0.21	0.07	0.00	0.28
전시/전달	0.15	0.56	0.16	0.87	0.51	0.30	0.00	0.81
소비/참여	0.08	0.40	0.07	0.54	0.05	0.40	0.00	0.44
전체	0.41	1.42	0.26		1.42	0.91	0.00	
	네덜란드				프랑스			
창작	0.15	0.28	0.01	0.44	0.11	0.22	0.02	0.36
생산	0.16	0.32	0.00	0.48	0.19	0.26	0.02	0.47
보급	0.17	0.38	0.00	0.55	0.11	0.22	0.02	0.36
전시/전달	0.27	0.59	0.00	0.86	0.33	0.52	0.07	0.92
소비/참여	0.13	0.42	0.00	0.55	0.11	0.30	0.07	0.48
전체	0.88	1.99	0.01		0.85	1.52	0.21	
	미국				한국			
창작	0.14	0.21	0.01	0.36	0.10	0.03	0.00	0.13
생산	0.19	0.27	0.01	0.47	0.13	0.10	0.00	0.23
보급	0.15	0.25	0.01	0.41	0.05	0.15	0.00	0.20
전시/전달	0.19	0.56	0.05	0.79	0.25	0.33	0.00	0.58
소비/참여	0.19	0.46	0.01	0.65	0.08	0.45	0.08	0.60
전체	0.84	1.74	0.10		0.60	1.05	0.08	



6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산출지표가 전체 지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여가비 지출률이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 대표적인 예이다. 재정이나 인프라 등의 투입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활동의 결과인 산출지표는 활동에 의한 즉각적인 성과물로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이와 같은 산출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산출지표보다 투입·활동지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문화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중국은 국가주도적으로 문화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문화적 부흥을 꾀하고 있으며, 문화지표를 발표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이와 같은 국가적 노력을 국민에게 홍보하고자 함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경향은 문화 활동을 통해 청중 또는 관객들과 지식과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권리를 교환하는 경험을 하는 ‘전시/전달’ 지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작자 혹은 공급자’와 ‘이용자 혹은 수요자’와의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표는 산출지표로 대부분 나타났다. 정부가 의제형성-정책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에서 설계와 집행 문화 분야의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수요와 공급의 연결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창작-생산-보급-전시/전달-소비/참여에 이르는 5단계 중 ‘소비/참여’에 더 많은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문화향유와 문화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창작부분에서 비교적 지표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전 단계에서 비교적 균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에서 중요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장기적인 정책지표 설정에서는 각 단계에 따른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제5장

# 맺음말







## 제1절

## 문화지표 분석 시사점

## 1. 국제 비교를 위한 문화지표 구성과 한계

각국에서 문화 및 창조 산업을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산업관련 자료를 특정 지역 또는 분야별로 수집하는 등 세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자료를 기간별로,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본 UNESCO FCS는 대표적인 국제 비교를 위한 문화지표를 생산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FCS 기반을 UIS가 문화관련 통계지표를 조사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 문화위성계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UNESCO FCS는 문화부문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과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통계국(Euro Stat, 또는 ESTAT)은 유럽 지역의 비교 가능한 통계 자료들을 가공하고 공시하여 유럽 차원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의 통계 데이터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경제, 금융, 사회, 환경, 에너지를 포함하여 문화 분야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 분야의 고용, 기업, 참여, 교육, 교역, 재정, 도시 등 다양한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체계적인 기준에 기반을 두어 수집한 문화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찰해보는 데 쓰일 수 있다.



- 문화 분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가치
- 문화 분야의 국가 및 지역 정책 기여 방안
- 문화 분야의 당면과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 문화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여도의 변화 추이
- 국가 및 지역차원의 문화관련 정책의 효용성
- 문화 분야를 통한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등

국제 비교를 위한 문화지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 간 경쟁 우위를 결정하고, 서열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간 문화 분야에서의 역동성을 이끌고,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교우위를 강조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비교 열위를 극복하는 과정과 동시에 국가 간 지역 간 새로운 문화적 관점의 비교우위를 찾아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UNESCO FCS는 대개 문화 분야가 경제성장지표, GDP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려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UNESCO, 2007). UNESCO FCS가 제시하는 문화지표는 국가계정체계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및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등과 같은 기존의 데이터 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 속에서 문화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UNESCO의 FCS는 기존 데이터 활용,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하는 시계열 자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문화 자체의 고유한 가치나 비시장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문화지표 및 통계 체계는 문화 분야와 창조 산업까지 범주를 넓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그 범위를 확장해 왔다. 전체적인 사회적 목표 차원의 파급효과가 아닌, 소비 또는 참여 활동과 같은 국부적인 면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봄과 랜드(Bohm and Land, 2008)는 예술과 문화의 수단적 가치의 예로, “창조와 혁신, 교육, 훈련, 기술, 고용,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결속, 인적/사회자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의 사회적 효과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UNESCO FCS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햄(Garnham, 2005)은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문화” 산업 대신 “창조”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해당 명칭에 대해 누군가 엄밀히 따져 묻지 않는 한, 예술, 문화, 상업 사이의 “모순을 감출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문화” 및 “창조”라는 용어가 생겨난 현상을 관찰하며 “문화”가 아닌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지식정보 경제,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광고, 건축, 디자인과 같은 상업 분야와 문화 분야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창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해당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창조 산업의 GDP 기여치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 예술가들의 “명성”을 내세워 상업 분야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저작권법을 더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간햄은 정치적으로는 창조 산업의 경제기여도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예술 및 문화관련 정부부처의 지위도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방의 즐거움 담당 부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다. 관심사가 서커스(즐거움 제공)에서 빵(먹거리 창출)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문화 및 창조산업의 “핵심”에 있는 문화관련 사업이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비해 상업성이 낮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UNESCO FCS는 문화 관련 중요 사항을 통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문화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질적인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발표될 국제 문화위성계정(CSA)의 작업에서도 이와 같은 한계를 논의해온 만큼 보완되어 반영하는 과정을 주목해야하겠다.



## 2. 국가별 문화지표 특징 이해와 환경변화에의 대응

일본은 기존에 통합적인 문화지표체계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문화청을 중심으로 기존의 통계정보에서 부족한 정보를 검토하여, 문화산업의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UNESCO의 CSA구축에 대한 기술회의를 진행하면서 CSA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최초의 문화발전지표를 발표하면서, 과거 10년 전에 비해 상당한 성장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중국 동부, 서부, 중부의 지역 간의 격차 문제 해결과 대외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산업영역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국제적 비교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문화 정책을 추진해 온 네덜란드에서는 문화를 공급, 수요, 참여,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지수화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문화 창조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수화 작업이 특징적이었다. 문화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지표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성향의 문화정책에 따라 문화지표체계 또한 문화유적, 건축물, 미술품, 박물관 등을 중시하고 그것들을 발굴하고 정비하고 유지하고 상품화하고 재포장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인 문화지표체계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주요 영역에 대해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국가별로 문화지표체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수준과 주도하는 기관과 목적은 각기 다르다. 캐나다,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영역이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경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더 고도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환경에서 문화영역의 변화를 읽고 이를 지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두 국가는 UNESCO의 CSA(문화위성계정)를 통한 국제적 비교성 제고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표 5-1〉 국가별 문화지표 종합

구 분	문화지표체계	주요 특징	특이 지표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주도</li> <li>- FCS/CSA를 수용하여, CFCS/CCSA 개발 적용</li> <li>-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시경제 지표 및 계정을 적용 활용</li> <li>- 문화위성계정, 스포츠위성계정 함께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GDP, 문화산업GDP</li> <li>- 인터랙티브미디어 관련 지표 포함</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A, ATFA 등 문화예술 기관 주도</li> <li>- ACPSA 개발 및 활용(경제 분석부와 협업)</li> <li>- 문화예술지수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 디지털미디어도 추가 지표개발에 포함</li> <li>- TSA(관광위성계정)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기관 연말흑자율/예술사업의 자산수익률</li> <li>- 기업후원 중 문화예술 분야 점유율</li> <li>- SAT시험응시 관련 지표 (4년간 예술교육을 받은 SAT 시험응시자 평균 점수 등)</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지표체계, 지수 없음</li> <li>- 정책계획에 따른 종합 문화 지표 제안 구성 중(범부처 통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와 전략에 따른 지표 구성에 중복이 많음</li> <li>- UNESCO CSA도입 논의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참가율의 세분화 지표(어린이,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등)</li> <li>- 극장, 콘서트홀의 다언어화 대응률</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와 통계자료 통합</li> <li>- 최초로 문화발전지표 발표</li> <li>- 통합적 문화지표체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성과지표로서 활용</li> <li>- 지역간 격차 완화, 대외 교류에 중점</li> <li>-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등의 지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출국 공연인, 문화교류 인수</li> <li>- 대외 공연, 문화교류 횟수</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 기관이 개발관리</li> <li>- 문화예술지수 개발</li> <li>- 장단기 지수 변화 추적 관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음</li> <li>- 문화예술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향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자원봉사자 수</li> <li>- 악기, 뮤지컬 등 연습시간</li> <li>- 등록, 보호되는 도시 마을 수</li> <li>- KunstKoop 계약 전체금액</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의 통계과 주도</li> <li>- 문화관련 지표 집대성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영역(문화유산, 박물관, 건축물) 중심</li> <li>- 문화지표에서 신기술과 뉴미디어와의 접점을 고민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계 직업별 여성의 비중</li> <li>-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온라인 문화상품 소비</li> </ul>



국가별 문화지표와 그 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디지털환경에서의 디지털 문화상품과 이에 대한 관계지표들을 새롭게 구상하고자 하는 고민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체계가 전통적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한 지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시장 활동의 양을 더 이상 철저히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영업 시스템을 변화시켜 새로운 판매 채널들을 창출했고 국가 간의 경계도 흐려 놓았다. 가령 국내 소비자들의 문화 상품 구매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뤄질 경우 그 수익은 해외 본사로 돌아가므로 해당 국가의 국민계정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디지털화로 인해 시장 경제 내에서도 부문과 분야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인 디저(Deezer)와 같은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문화 영역의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 여기서 판매되는 콘텐츠는 음원이다. 이 경우 디저의 이용자들의 음원 구입 활동은 문화 소비 지출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밖 분야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들이 속출하면서 상업 분야에 속하는 활동과 협력경제의 자발적·비공식적 활동 사이의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경제는 가령 위키미디어 재단처럼 이용자들의 공헌에 의존하는 비영리적 부류에서부터 에어비앤비와 블라블라카(Blablacar)처럼 개인 간의 무료 연결 서비스 형태를 띠지만 그 개인들끼리 거래가 이뤄지는 혼합적 방식의 부류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자발적 활동이 생산한 결과는 GDP에 기여하는 가치로 매겨지지 않기에 국민계정에서 누락된다. 수치 측정의 문제는 고용 변화 측정 등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는 더 이상 단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는 콘텐츠 소비자가 생산자(혹은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며,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창작(생산)과 소비의 경계에서 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적 흐름도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통계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좀 더 다원적인 접근법에 대한 필요성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 3. 통합적 문화지표 프레임워크 작업 필요성

국가별 지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표지표 40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표들 중 사회변화와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주제에 대한 대표지표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문화관련 종사자의 직종, 분야별 일자리 현황, 소득 현황까지 파악하는 대표 지표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살펴본 유네스코 통계자료에서도 한국은 인력관련 통계자료가 아직 풍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련 인력에서 성별이나 근무유형별, 계약유형별 등 세분화된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장애인, 여성 등의 종사현황, 향유실태현황 등이 문화주요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와 기부금 현황이다. 우리나라 문화 분야 주요 지표 중에 인력에 대한 지표가 일부만 포함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자나 기부금과 관련한 지표는 전무한 상태이다. 문화영역에서 아직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금에 대한 인식이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지표로 뽑은 40개의 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회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사실 40개 이외에도 연구 서두에 설명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조사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표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프레임워크 작업을 통해 설계된 문화지표가 아직 없고, 국제적 비교성을 높이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문화지표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5개국의 문화지표 비교는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 한국의 문화지표 구성을 위한 제언

## 1. 문화지표 분류체계 개편 및 조정

국제적 문화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별 문화지표 분석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성계정체계에서도 국가계정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문화영역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영역의 기준과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산업특수분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기준과 통계분류를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 중에서 거시적 지표로 다른 산업과 활동 비교 및 국제적 비교를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최근 UNESCO CSA 회의에서도 ISIC 4차 개정안의 9000코드인 ‘창조적, 예술, 엔터테인먼트 활동(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을 ISIC-CUL 항목으로 90001(공연예술, Performance and celebrations), 90002(시각예술, Visual arts), 90003(도서, Books and Press), 90004(시청각 미디어, Audiovisual and Media) 등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처럼 세부 내역이 제공되는 국가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산물 유형(CPC 2.1)과 활동유형(ISIC4)을 교차 분석하여 문화상품 및 산업을 분류하는 방법 또한 논의되고



있다. 한국도 문화 영역과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부 영역별로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을 통한 규모 추정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체계 등의 개편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문화통계 생산 및 활용 방안 마련

문화지표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표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 혹은 지표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타당한 통계 방법들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나 지침 및 모범 사례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방법론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른 정부 기관이나 정책입안자 등의 간섭이나 압력이 없이 통계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통계로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적 독립성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 작성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통계 산출물은 다양한 기준을 참고하여 지표로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 기준에는 관련성, 정확성과 신뢰성, 일관성과 비교성, 접근성과 명확성, 시의성과 정시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문화 분야에서는 일관성과 비교성을 갖춘 통계 산출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문화 분야에서 국가승인통계 이외에도 분야별, 영역별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데이터는 굉장히 많다. 문화 분야 35개 법률 중 19개가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 연구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통계는 해당하는 분야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통계 산출물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관련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관련 모든 통계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일관적으로 분야별, 영역별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통계적 범위, 정의, 분류, 단위 등이 공통 표준에 의해 생산하여 일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문화지표 생산이 필요한 것이다.



### 3. 문화위성계정 구축 및 활용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서 문화와 같은 산업군은 그 범주와 개념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계정과 연계하면서 특정 주제인 ‘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위성계정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문화위성계정은 현재 UNESCO가 2022년 CSA 구축가이드를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문화위성계정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CSA도입과 구축을 위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문화지표 관점에서 위성계정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책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각기 여러 채널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통계조사 및 지표 등을 표준화하는 지수화 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지표들을 표준화하고, 합산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지표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동일가중치로 합산할 것인지, 지표의 중요도나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내의 유관 지수와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년 대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측정하여 동일가중치로 지표들을 영역별 및 전체 합산하여 종합지수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네덜란드는 문화지표의 종합지수화를 통해 단기, 장기적 변화추이를 살피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움직임은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겠다. 문화통계의 개념적 틀과 표준화된 기준, 권고안,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통계조사 주관 및 진행, 국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분석자료를 산출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문화지표를 비교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적 지속성과 다양성을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자들의 글로벌네트워킹의 결속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 새로운 정책영역별 문화지표 검토 및 개발

종합적인 문화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최선의 문화지표를 선택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사회변화에 따라 체계 구성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지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정책영역이 생성되거나 새롭게 발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지표체계에서 개별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지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표는 제외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직까지 텔레비전 보급률을 문화지표 중 하나로 생산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지표일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융합적 장르가 탄생하고 있는 시점에 문화분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리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기부문화, 자원봉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표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예술기관의 직급별 여성비율, 배리어프리 문화예술기관 현황 등은 포용 국가를 비전을 세운 현 시점에 새롭게 생산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지표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UNESCO의 CDIS나 EU의 IFCD의 사례는 문화의 역할을 경제적 기여에만 두지 않고, 다양성을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CDIS의 경우 문화발전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과 프로그램 설정 및 이행에서의 전문가와 소수집단 참여지수를 포함하는 등 문화가 사회의 지속가능하도록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IFCD의 경우 문화적 표현의 활동을 넘어서 정치적 갈등, 이민자 문제, 사회적 포용, 디지털화까지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 역할의 확장을 통해 경험 기반의 포용적 문화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사회 전반에서 정책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논문, 연구보고서 등]

- 김민배 외(2012),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인천문화재단.
- 김소영 외(2010),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세훈(1995), 문화지표체계 개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인겸 외(2017), 통계청 주요 지표체계 간 조정 및 서비스 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 류정아 외(2013),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근화(2018),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추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실 외(2017)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 연구, 통계개발원.
- 변준석 외(2017), Beyond GDP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 세종학당재단(2016).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
- 양건열(2012),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조사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강욱(2015),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갑영 외(2002), 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
- 정광렬(2018), 문화 분야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광민, 오유라(2017). WTTC 통계 심층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양혜원 외(2011),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개발원(2019), 지표작성 방법론.
- 통계청(2019), 201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 한준(2017), 사회통합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 황동열 외(2001),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Boel Lindberg(2012), Cultural Policy in the Swedish Welfare State



- Council of Europe(2016), Indicator Framework on Culture and Democracy  
Policy maker's guidebook
- Council of Europe(2017), Cultural participation and inclusive societies
- Council of Europe/ERICarts(2017a),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8th edition 2017 'Sweden'
- \_\_\_\_\_ (2017b).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8th edition 2017 Compendium, The Netherlands
- Council of Europe(2018), Online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politics:  
towards more democratic societies?
-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2018), «87 millions de touristes  
étrangers en France en 2017»,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Le 4 pages de la DGE, n° 84, juin 2018
- ESSnet–Culture(2012), European Statistical System Network on Culture
- Eurostat(2014), Getting messages across using indicators, A handbook  
based on experiences from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urostat Manuals and Guidelines
- François ROUET, les Flux d'échanges internationaux de biens et services  
culturels: déterminants et enjeux,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DEPS(2007), coll. «Culture études», 2007–2, septembre 2007
- Garnham, N. (2005), From cultural to creative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 Jean–Michel GUY, Les représentations de la culture dans la population  
française,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DEPS, coll. «Culture études», 2016–1, septembre 2016
- Kern, Paul V, Wasshausen, David B & Zemanek, Steven L.(2014), The  
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ACPSA)
- Kimberly van Aart(2016), Rogier Brom, Bjorn Schrijen Arts Index



- Netherlands 2005–2015, Boekman
- Kreammeteren–Anlaysiaisrapport(2016), Den kulturella och kreativa sektorns ekonomiska utveckling 2010–2016
- Kulturanalys(2019), En lägesbedömning i relation till de kulturpolitiska målen Rapport 2019:1
- Kushner, Roland J, Cohen, Randy(2016), National Arts Index 2016: an Annual Measure of the Vital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2002–2013, Americans for the Arts
- Laurent BISAULT, Tristan PICARD(2007), «La culture, une activité capitale», Insee première, n° 1644, avril 2017
- Les Entreprises en France, Paris, Insee(2018), coll. «Insee Références», novembre 2018
- Marie GOUYON, Frédérique PATUREAU, Vingt ans d'évolution de l'emploi dans les professions culturelles,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DEPS(2014), coll. «Culture chiffres», 2014–6, octobre 2014
- Ministère de la Culture(2019), Chiffres clés, statistiques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9, Paris, DEPS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2014), 'Culture at a Glance Culture at a Glance (Cultuur in Beeld)'
- Monaco, P(2016), "Measuring culture and development: unlocking the UNESCO Indicators' potential",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8: 239–347.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3), How a Nation Engages with Art: Highlights from the 2012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NEA Research Report #57.
- OECD(2006), International Measure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 Importance of Culture, OECD
- \_\_\_\_\_(2018a), Education at a glance
- \_\_\_\_\_(2018b), Balancing paid work, unpaid work and leisure
- Olivier DONNAT, Pratiques culturelles, 1973–2008. Dynamiques  
générationnelles et pesanteurs sociale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s, DEPS, coll. «Culture études», 2011–7
- Statistics Canada(2011), Canadian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  
Conceptual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 2011, ISBN  
978–1–100–19294–9
- Statistics Canada(2019), Provincial and Territorial Culture Indicators,  
2017
- Throsby, David(2008), The concentric circles model of the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Trends. 17. 147–164.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9), News  
Release, 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 UNCTAD(2010), Creative Economy Outlook
- \_\_\_\_\_(2018), Creative Economy Outlook: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creative industries
- UNESCO(1986), The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 \_\_\_\_\_(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 \_\_\_\_\_(2012), Measur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ultural  
industries: a review and assessment of current methodological  
approaches
- \_\_\_\_\_(2014),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Implementation  
Toolkit
- \_\_\_\_\_(2014),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Methodology Manuel
- \_\_\_\_\_(2015), Culture Satellite Accounts: An Examination of Current



## Methodologies and Country Experiences

\_\_\_\_\_ (2016), THE GLOBALISATION OF CULTURAL TRADE: A SHIFT IN CONSUMPTION,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2004–2013

\_\_\_\_\_ (2017), The Classification of cultural products and industries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compiling Culture Satellite Accounts :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s, 2017.09.06.–08.

United States. Bureau of the Census, 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5),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SPPA), 2012 [United States],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UNWTO(2015), Methodological Notes to the Tourism Statistics Database Usero, B. and Del Brio, J. (2011), Review of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Cultural Trends, 20:2, 193–197

Valérie DERON, Emploi, bénévolat et financement des associations culturelles,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DEPS(2014), coll. «Culture chiffres», 2014–1, janvier 2014

WTTC(2016),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5

観光庁(2019), 旅行・観光消費動向調査

内閣府(2016), 文化に関する世論調査

総務省統計局(2016), 社会生活基本調査

総務省(2017), 放送コンテンツの海外展開に関する現状分析 (2016年度)

\_\_\_\_\_ (2018), クールジャパン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書－評価の結果日本再興戦略における成果目標の達成状況



- 文部科学省(2014), 社会教育調査
- 文化庁(2011), 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
- \_\_\_\_\_(2016), 文化産業の経済規模及び経済波及効果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 報告書
- \_\_\_\_\_(2017a), 今後5年間の文化芸術政策に係る評価指標について(素案)
- \_\_\_\_\_(2017b), 文化芸術推進基本計画(第1期)の策定について中間報告(素案)
- \_\_\_\_\_(2018a), 文化芸術推進基本計画—文化芸術の「多様な価値」を活かして, 未来をつくる—(第1期)
- \_\_\_\_\_(2018b), 2017年度「文化行政調査研究」文化芸術の経済的・社会的影響の数値評価に向けた調査研究
- \_\_\_\_\_(2019), 2018年度「文化行政調査研究」文化芸術の経済的・社会的影響の数値評価に向けた調査研究

### [홈페이지]

-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
- Americans for the arts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
- Boekman Foundation – Institute for arts, culture and related policy, <https://www.boekman.nl/cultuurindex/>
- Böhm, S. and Land, C.(2008), Managing the City through Culture: Cultural Capitalism, Value and the Governance of the Social through the Arts
- Canada Statistics, <https://www150.statcan.gc.ca>
- CDIS(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https://en.unesco.org/creativity/cdis>
- Fonds voor Cultuurparticipatie, <http://www.cultuurparticipatie.nl/english/funding/>
-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
- IFCD(The Indicator Framework on Culture and Democracy),



<http://www.governancereport.org/ifcd/>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https://www.insee.fr/>

Observatoire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a culture  
et la communication 2019,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DEPS, 2019,

<http://www.culture.gouv.fr/Thematiques/Egalite-et-diversite/Documentation/Observatoire-de-l-egalite-femmes-hommes>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Panorama des festivals, ministère de la Culture,

<http://www.culture.gouv.fr/Thematiques/Culture-et-territoires/La-Culture-en-region/Panorama-des-festivals>

Statistics Canada, 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

<https://www150.statcan.gc.ca/n1/pub/13-607-x/2016001/1177-eng.htm>

UNESCO, <http://www.unesco.org>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http://uis.unesco.org>



## ABSTRACT

### An analysis of cultural indicator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for the strengthening of evidence-based policy in the cultural sector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cases of cultural indicato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and present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new cultural indicators and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indicators pertaining to culture are quite limited. Some cultural indicators can be found in the world competitiveness index, human development index, gender equality index, life satisfaction index, international brand index, and soft power index. Moreover, among the major indicators in various fields,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indicators related to culture between Korea and the world's major countries are limited to the percentage of cultural leisure expenditure, cultural and artistic viewing, and the daily average leisure time.

As such, some cultural indicators or indices clearly have limitations in determining the cultural environment or the level of cultural capability of a country. Nevertheless, they are used as indicators to measure the cultural competency of a country through many media outlets and repor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mprehe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ultural indicators that are being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improve the cultural level and to



measure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to explore cultural indicators designed and util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trend of UNESCO's cultural indicators system and the cultural indicators of germane countries develop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cultural indicato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indicato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countries, we aim to promote the discussion on the creation of, at the minimum, a common index that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social changes and needs.

First, as the international and country cultural statistical system is established based on UNESCO's cultural indicators system, we will closely look at the historical trends and changes. Furthermore, through the UNESCO and OECD statistical indicators that are widely accepted and used internationally, the current status of the cultural environment of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will be examined as well.

Next, we will analyze the cultural indicators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applicabl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compare and analyze policy priorities and final values by country through the cultural indicators established by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as each country has different cultural and policy goals and the implementation priority is not the same, the indicators they operate would likely be different.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look at how this uniqueness is applied differently in relevant countries and organizations and in what direction it can be agreed upon.

The comparison of cultural indicators or indic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can be used to identify the areas that are relatively weak and to explore what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se areas. We also present opinions on the areas of policy that need to be prioritized for cultural policy in our society and the discovery of new indicators and derive policy measures for a system that can compare to internationally the national level of cultural sustainability.







## 부 록

---







## 부 록

### 1. UNESCO CDIS 지표

#### 〈경제 차원 지표 내용〉

1) GDP 대비 문화 활동 비중	
목적	국가 경제 영역 내 문화가 차지하는 기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GDP 대비 민간·공식 문화 활동이 기여하는 비중(%)
활용자료	ISIC(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2) 문화 분야 고용 비중	
목적	문화 분야 일자리 및 수입 창출, 복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고용주’로서의 문화 역할을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전체 고용자 중 문화 관련 취업자 비중(%)
활용자료	ISCO(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3) 문화를 위한 가계 지출 비중	
목적	가계 지출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 평가하기 위함
조사내용	최종 전체 가계 지출 대비 문화 활동,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
활용자료	COICOP(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 〈교육 차원 지표 내용〉

1) 포용적 교육	
목적	교육 영역에서 문화권이 이행되고 있는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상호 교류와 통합을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 사회 발전과 개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가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의 교육에 대한 소외와 결핍 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17세와 22세 사이 전체 인구에 대한 평균 학교 교육 기간
활용자료	통계청 또는 교육부 통계 활용 UNESCO의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Reaching the marginalized>
2) 다중언어 교육 비중	



목적	상호문화주의 증진 정도, 교육 시스템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화와 이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중등교육 내 다중언어 능력 육성을 위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중등교육 첫 2년간 총 언어교육 시간 중 다중언어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시간 비중(%)
활용자료	교육부 혹은 공공기관의 학교 커리큘럼 자료 UNESCO의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중 World Data on Education 보고서 내 해당 국가 자료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 3) 예술교육 비중

목적	청소년에게 얼마나 문화적 표현 능력과 창의적 재능을 장려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중등교육에서 예술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중등교육 첫 2년간 총 교육시간 중 예술교육 할당 비중(%)
활용자료	통계청 혹은 교육부의 통계 활용 UNESCO의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Reaching the marginalized>

## 4) 문화 분야 전문교육

목적	공공 및 민간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제공하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5개 문화 영역(문화유산, 음악, 순수예술/비주얼/응용 예술, 예술경영, 영화/이미지) 내에서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고등전문교육을 위한 정부지원의 교육 기관 존재 유무를 측정
조사내용	문화 분야 기술교육, 직업교육, 훈련(TVET), 고등전문교육 시행 기관 수
활용자료	통계청 또는 교육부의 통계 활용 UNESCO의 Online Portal to Recogniz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거버넌스 차원 지표 내용〉

## 1) 문화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목적	문화, 문화권, 문화 다양성에 관한 주요 국제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 비준되고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국가법과 규정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조사내용	문화, 문화적 권리,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여부에 대한 지수
활용자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UNESCO databases

## 2) 문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



목적	문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우선순위 전략을 이해하고, 문화정책 설정, 적용,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존재를 파악하며, 문화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분권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조사내용	문화, 문화적 권리,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발 여부에 대한 지수
활용자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UNESCO databases

### 3) 문화 인프라 분포

목적	문화 참여를 증진하고 폭넓은 문화적 접근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인구 대비 특정 문화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분포를 측정하고자 함. 그 기준으로 박물관, 도서관 및 미디어 자원 센터, 공연장을 설정
조사내용	각 지역 인구 대비 문화 인프라 분포 현황
활용자료	문화 인프라 등록 리스트 국가 문화정보 시스템 문화부 발간 디렉토리 및 온라인 디렉토리

### 4) 문화 거버넌스에 시민사회 참여

목적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데 시민 사회(문화 분야 전문가와 소수집단) 참여에 대한 개방 기회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문화정책과 프로그램 설정 및 이행에서의 전문가와 소수집단 참여 지수
활용자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UNESCO databases

## 〈성 평등 차원 지표 내용〉

### 1) 성 평등에 관한 객관적 결과

목적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권리에 대해 남녀 간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정치, 교육, 노동에서의 남녀 차이 및 성 평등에 관한 입법 제도 지수
활용자료	정치 참여: Inter- Parliamentary Union의 Women in Parliaments Database 교육 참여: Barro and Lee data, 교육부 자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노동 참여: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의 Statistical Annex 4, "Gender Inequality Index and related indicators"



	성 평등 관련 입법 제도: GID-DB(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b>2) 성 평등에 관한 인식</b>	
목적	노동 참여, 정치적 참여와 교육 영역에서의 성 평등에 관해 사회 구성원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성 평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에 관한 질문 (주관적 결과)
활용자료	WVS(World Values Survey) 국가 공식 조사 (통계청 혹은 여성부) 지역 조사

### 〈커뮤니케이션 차원 지표 내용〉

<b>1) 표현의 자유</b>	
목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서 자유로운 미디어를 위한 환경 조성 유무를 평가하고자 함이며, 국가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조사내용	출판, 방송,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자율성에 대한 지수
활용자료	Freedom House의 Freedom of the Press Index
<b>2) 인터넷 접속과 사용</b>	
목적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증진과 민주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비중을 측정하고자 함. 간접적으로 이 지표는 ICT 접근에 관한 인프라, 법적 규제, 정책,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공공과 민간의 국가 투자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조사내용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
활용자료	인터넷 사용 개인 비중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 가계 조사 The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ITU(ICT Data and Statistics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b>3) 공영 방송의 픽션 콘텐츠 다양성</b>	
목적	공영 TV 방송 시스템 내에 자국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
조사내용	연간 무료 공영 TV 픽션 프로그램 방송 시간 중 자국 TV 픽션 프로그램 방송 시간 비율
활용자료	정보통신부 국가 통계 자료 공공방송 서비스 자료 시청각 규제 기관 혹은 언론 위원회



## 〈사회적 참여 차원 지표 내용〉

1) 외부 문화 활동 참여	
목적	문화 활동 참여 수준을 측정하여 사회적 분열이나 소외 정도를 파악하며, 인구통계 별 문화 참여에 대한 패턴을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외부 문화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중(%)
활용자료	문화 참여 조사, 여가 조사 등 통계조사 자료
2) 정체성 개발을 위한 문화 활동 참여	
목적	문화 활동 참여 수준을 측정하여 사회적 분열이나 소외 정도를 파악하며, 인구통계 별 문화 참여에 대한 패턴을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정체성 개발을 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중(%)
활용자료	문화 참여 조사, 여가 조사 등 통계조사 자료
3) 타문화에 대한 관용	
목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과 관용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 내 관용에 대한 질문
활용자료	WVS(World Values Survey 중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 표시: 다른 인종, 이민자/외국인노동자, 다른 종교인 부분) 국가 통계 혹은 지역 설문조사
4) 상호간 신뢰	
목적	신뢰, 결속력과 협동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조사내용	상호 간 신뢰에 대한 질문
활용자료	Rosenberg 질문을 포함한 국가 설문조사: ‘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간다 또는 사람과 만날 때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Rosenberg 질문을 포함한 지역 설문조사(Latino Barometer, Asian Barometer, Afro Barometer) WVS(World Values Survey) GPW(Gallup World Poll)
5)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유	
목적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 즉,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삶을 선택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조사내용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성 정도(중간값 측정)
활용자료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성 질문이 포함된 국가 공식 설문조사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율성 질문이 포함된 지역 설문조사(예: Latino Barometer) WVS(World Values Survey):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자율 정도를 1에서 10까지 척도로 표시하는 질문
--	---

### 〈문화유산 차원 지표 내용〉

#### 1) 문화유산의 지속성

목적	문화유산의 지속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정책과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함. 자연재해로부터의 손상이나 불법적 행위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을 증진하며 재정적 기금을 제공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역 공동체 참여를 장려하는지도 파악하고자 함. 또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공감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내용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차원적 프레임워크 개발 여부 질문 (등록, 보호와 관리, 인식 제고와 지원에 대한 세 영역)
활용자료	UNESCO World Heritage 리스트 UNESCO World Heritage 예비 리스트 UNESCO의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UNESCO의 List World Heritage in Danger UNESCO의 List of Intangible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Lis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isters of underwater heritage



## 2. EU IFCD 지표

문 화			
구분		조사내용	활용자료
I. 시민			
1. 문화적 참여	1) 예술적 표현과 창작	-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기, 춤, 악기 연주, 예술작품 창작, 영화·사진 활동, 노래, 문학 활동	- Eurobarometer 79.2
	2) 해외 문화에의 관심	- 최소 한 가지 이상 외국어 가능한 25-64세 인구 - 다른 유럽국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 외국어 학습 의사 - 학생의 해외 학습 경험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 EU-Adult Education Survey - Eurobarometer 67.1 - Eurostat [educ_thmob] - Eurydice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3) 공평한 참여	- 자선단체 기부 - 무보수 자원봉사	- CAF World Giving Index - European Values Study 2008
	4) 온라인 창의성	- 자신만의 문화콘텐츠 온라인에 업로드 - 웹사이트나 블로그 개설 - 웹사이트·블로그 디자인과 같은 창의적 활동 - 일반 도메인 (예: .biz, .info, .org, .net, .com) - 국가 도메인 - 위키피디아 월별 페이지 편집 - 유튜브 비디오 업로드	- Eurobarometer 79.2 - Global Innovations Index
	5) 온라인 문화 참여	- 박물관 웹사이트 방문 - 게임 플레이 - 영화 다운로드 - 스트리밍 - 온라인 신문기사 읽기 -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 Eurobarometer 79.2



문 화			
구분	조사내용		활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음악 감상</li> <li>- 문화 관련 블로그 읽기</li> <li>- 온라인 문화상품 구매</li> <li>- 문화 행사 인터넷 검색</li> </ul>	
6) 수동적 문화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방문</li> <li>-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li> <li>- 독서</li> <li>- 콘서트 관람</li> <li>- 유적지 방문</li> <li>- 도서관 방문</li> <li>- 공연 관람(무용, 공연예술, 오페라)</li> <li>- 연극 관람</li> <li>- 영화 관람</li> <li>- TV 문화 프로그램 시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li> <li>- Eurobarometer 67.1</li> <li>- Eurobarometer 79.2</li> </ul>
7) 예술 분야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분야 학생 수</li> <li>- 예술분야 대학 졸업자 수</li> <li>- 예술 강의 등록 학생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rostat [educ_enrl5]; [educ_grad5]; [educ_uoe_enra03]</li> </ul>

## II. 정책

1. 문화 기금	1) 문화 기금의 입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분야 스폰서십 도모를 위한 계획 존재 유무</li> <li>- 문화예술 분야 스폰서십 세금 감면 혜택 존재 유무</li> </ul>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2) 직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업자를 위한 직접적 공적기금 지원</li> <li>- 비주얼 아티스트/작가/작곡가를 위한 세금 감면</li> <li>- GDP 대비 문화 소비</li> </ul>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2. 문화 개방성	1) 문화 다양성의 지원과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집단의 합법적 언어 존재 유무</li> <li>- 다중언어 교육</li> <li>- 소수집단 언어 사용 증진을 위한 법적 규정 존재 여부</li> <li>- 이민자 단체를 위한 공적 지원</li> <li>- 정기적 통합 정책 보고서 존재 여부</li> <li>- 혼인과 파트너십 정책</li> <li>- 국제적으로 제작된 영화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li> <li>-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li> </ul>
3. 문화	1) 예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의무 교육 중 연간 예술 교육 시간 비율</li> </ul>	- Eurydice



문 화			
구분		조사내용	활용자료
교육	2) 이종 문화 간의 교육	- 이종문화에 대한 교육 여부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이종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Ⅲ. 경제			
1. 문화산업	1) 문화 산업 결과물	- EU 국가 간과 EU외 국가와의 문화 상품 무역 비율 - 엔터테인먼트 산업/출판 산업 이직률 -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 비율 - 국가 영화 제작 편수	- Eurostat [cult_trd_prd]; [sbs_na_1a_se_r2]; [sbs_na_2a_dade] - Global Innovations Index
	2) 무형 자산	- 상표등록 건수 - 국제 상표등록 건수 - ICT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 수준 - ICT 조직 모델 창출 역량 수준	- Global Innovations Index
	3) 문화 산업 규모	- 문화산업 창업 수 - 문화 영역 고용자 수 - 창조산업/문화 영역 고용자 비율 - 출판 산업 연간 평균 성장률	- Eurostat [bd_9bd_sz_cl_r2]; [lfsq_egan2]; [sbs_na_1a_se_r2]
2. 문화 인프라	1) 문화 인프라 규모	- 박물관 수 - 영화관 스크린 수 - 문화유적지 수	- 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UNESCO World Heritage List
Ⅳ. 자유와 평등			
1. 문화적 접근성과 대표성	1) 문화적 장소와 이벤트에 대한 접근성	- 연령, 수입, 성별, 지역, 교육 수준에 따른 문화적 장소와 이벤트 접근성에 대한 평등 수준	- Eurobarometer 79.2
	2) 평등에 대한 공적 기준	- 문화 영역 평등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 존재 유무 - 문화 기관 내 여성 임원 승진을 위한 기준 존재 유무 - 문화 영역 내 워킹 우먼에 관한 연구 존재 유무	-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민주주의			
구분		조사내용	활용자료
Ⅰ. 시민			
1. 정치적 참여	1) 제도화된 참여	- 연간 국민투표의 합 - 이전 선거 투표율 - 정당이나 조합 활동 참여율	- Democracy Barometer - World Value Survey Wave 6
	2) 비제도화된 참여	- 청원 참여나 합법적 시위에 참여한 응답자 비율	- Democracy Barometer
Ⅱ. 정책			
1. 정부 역량	1) 분석적 역량	- 정책 대학원 수 -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 등록된 싱크탱크 수 - 싱크탱크 현황 - 사회과학분야 연구 기금	- Governance Report 2014 -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 중앙은행의 독립성	- 중앙은행 독립성 평가	- Democracy Barometer
	3)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	-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 수준 - 의회에 대한 평균 신뢰 수준 - 정당에 대한 평균 신뢰 수준	- World Values Survey
	4) 정치적 독립성	- 종교에 의한 정치적 자유 정도 - 무력에 의한 정치적 자유 정도	- Democracy Barometer
2. 정치적 경쟁	1) 정치적 경쟁력	- 하원 의석 수 차이 - 투표 대비 의석 수 차이 - 소수정당 의석 차지 정도	- Democracy Barometer
	2) 정당 재정	- 정당 수입과 지출의 상한 제한 존재 유무 - 정당 재정에 대한 법률 규정 존재 유무 - 직·간접적 정당 공적 재원에 대한 법률 규정 존재 유무	- Democracy Barometer
	3) 논쟁과 경쟁에 대한 원칙	- 선거 참여 독려 정도 - 선거구 변경 가능성 존재 유무 - 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관문 수준 - 투표권 조건 - 대안적 우선권이 추구되는 정도	- Democracy Barometer - Polity IV Project



민주주의			
구분	조사내용		활용자료
		- 정치적 우선권 표현에 관한 규정 정도	
3. 안전 장치/견제/균형	1)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권과 입법권 간의 균형 정도</li> <li>- 행정부의 제약</li> <li>-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제도적 제약 정도</li> <li>- 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li> <li>- 정부 권력 행사가 비정부 견제에 적용을 받는 정도</li> <li>- 감사를 통한 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 정도</li> <li>- 정부 권력 행사가 입법부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정도</li> <li>- 정부 공권 남용에 대한 제재</li> <li>- 공무원이 공권 남용에 대해 제재 받는 정도</li> <li>- 권력이양이 법에 적용되는 정도</li> <li>- 정부 권력 행사에 대한 제도적 제약</li> <li>- 공무원이 공권 남용에 대해 책임지는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Polity IV Project</li> <li>- Rule of Law Index</li> </ul>
	2) 위헌 법률 심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부 권한</li> <li>- 정치적 결정을 관리하는 사법부로서의 가능성</li> <li>- 사법부가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Rule of Law Index</li> </ul>
4. 투명성	1) 부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제도 내에서 부패 부재 정도</li> <li>- 행정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li>- 사법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li>- 입법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li>- 경찰과 군대가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Rule of Law Index</li> </ul>
	2) 정보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정도</li> <li>- 법률 보급과 접근성</li> <li>- 공공 자료의 이용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mocracy Barometer</li> <li>- Rule of Law Index</li> </ul>
Ⅲ. 법규			
1.	1) 사법권의	-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위한 헌법 규정	- Democracy Barometer



민주주의			
구분		조사내용	활용자료
법 앞의 평등	공정성	존재 여부 - 공정한 사법체계와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 틀의 효과 정도 -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 정도 - 시민 사법제도가 국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알맞은 정도 - 시민 사법제도의 차별 정도 - 형사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비차별성 정도 - 피해자와 피의자 권리에 대한 효과적 보호 정도 - 평등한 대우와 차별 부재의 정도 - 형사 사법제도의 부패 부재 정도	-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 Rule of Law Index
	2) 사법권의 독립	- 사법권이 정부, 시민, 기업 영향에서 자유로운 정도 - 시민 사법제도의 부패 부재 정도 - 시민 사법제도가 부도덕한 정부 영향에서 자유로운 정도 - 형사 사법제도가 부도덕한 정부 영향에서 자유로운 정도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Rule of Law Index
2. 사법 체계 수준	1)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 사법 체계와 법의 집행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비율 -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비율 - 사회규칙에 대한 기관들의 신뢰와 준수 정도	- Democracy Barometer -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 사법 효율성과 전문성	- 시민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 - 소송이 적시에 진행되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지연되지 않는 정도 - 교정 시스템이 범죄 행위 감소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도 - 범죄 판결의 효과 정도 - 범죄 조사 제도의 효과 정도 - 분쟁 해결 - 사법 전문성	- Rule of Law Index - Democracy Barometer
IV. 자유와 평등			
1.	1) 언론의 자유와	- 국가 전체 신문 부수 중 중도 신문의	- Democracy Barometer



민주주의			
구분		조사내용	활용자료
개인의 자유	중립성	부수 비율 -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 World Press Freedom Index의 글로벌 스코어	-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 World Press Freedom Index
	2) 결사의 자유	- 결사의 자유가 정부 제한에 적용받는 정도 - 헌법 규정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 - 결사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받는 정도	-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 Democracy Barometer - Rule of Law Index
	3)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의 정도 - 미디어에 권력 남용에 대한 정보를 넘겼을 경우 부정적 결과 정도 - 표현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정도	- Democracy Barometer - Quality of Government Expert Survey Data - Rule of Law Index
2. 개인의 자유	1) 자유 행동	- 자유 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 정도 - 국가 내 여행 자유의 정도 - 출국과 귀환의 자유 정도	- Democracy Barometer -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2) 안전과 신체적 온전함	- 신체적 온전함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의 정도 - 생명권과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정도 - 국가 전체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 - 범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정도 - 사람들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야기하지 않는 정도 - 임의적 간섭에 대한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정도	- Democracy Barometer -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 Rule of Law Index
	3. 정치적 대변 1) 참여의 평등성	- 여성의 국정 참여권 보장 - 대안적 참여 형식에서 참여가 비선택적인 정도 - 교육과 수입에 근거한 투표자 비율	- Democracy Barometer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연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연구총괄

### 공동연구자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제1장 일부, 제2장 제1절 일부, 제5장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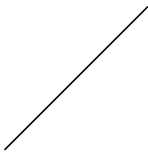
오유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제3장 제2절, 제5장 일부

김효선 (서울예술대학 교수) : 제3장 제1절, 제5장 일부

유지연 (국립창원대학 교수) : 제2장 제3절, 제5장 일부

### 전문가자문

김선영(네덜란드), 김진형(지표분석), 정보은(중국), 조미현(프랑스), 최고은(UNESCO)



##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발 행 인 김 대 관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9년 11월 12일

발 행 일 2019년 11월 12일

인 쇄 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

ISBN : 978-89-6035-780-8 93300









[www.kcti.re.kr](http://www.kcti.re.kr)